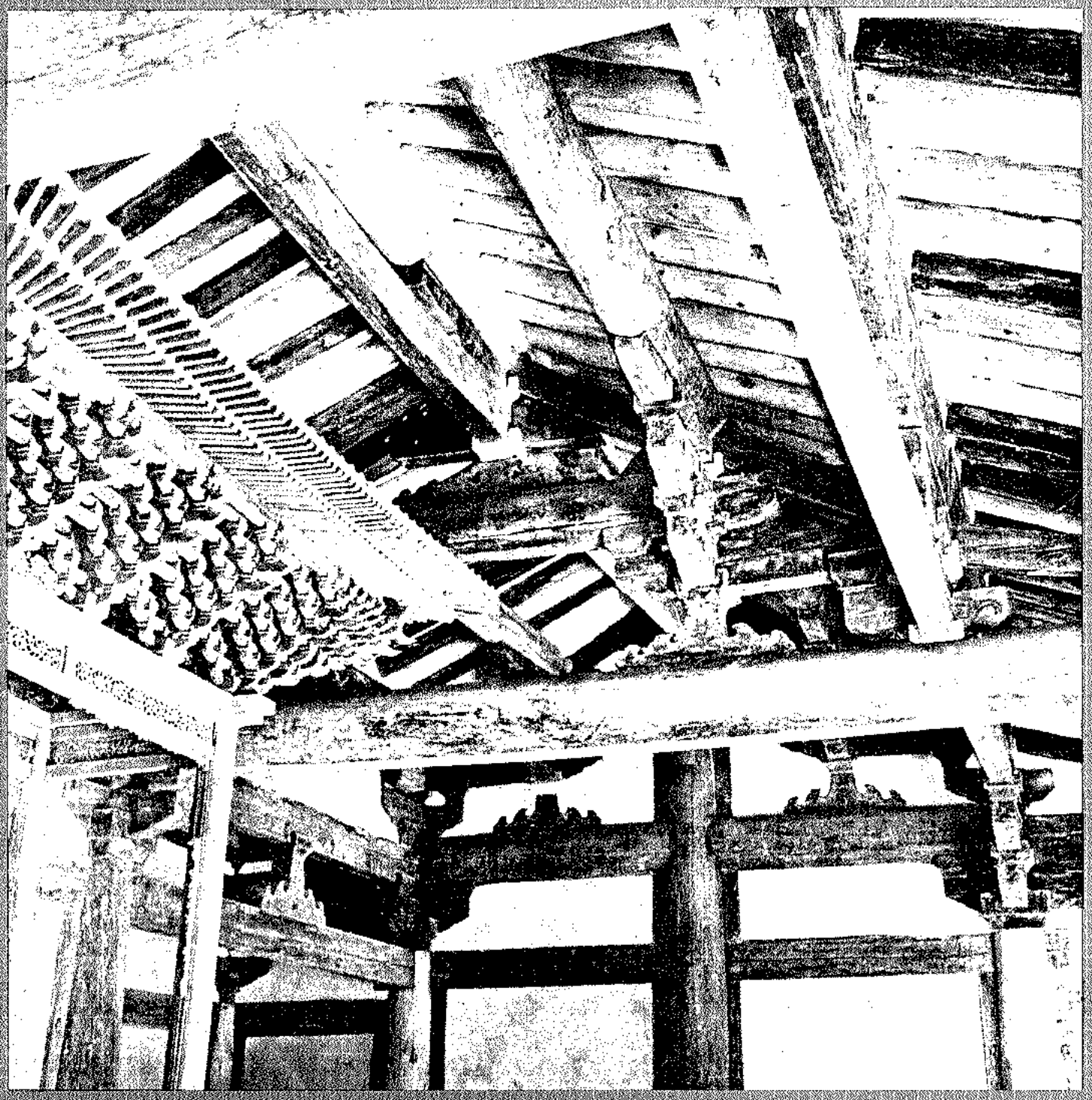
# 建築士

## 大韓建築士協會誌

登録日字：1967年 3月23日 登録番号 [illegible]-1251 月刊「建築士」
発行日字：1978年 7月31日 毎月1回発行 通巻 113号

1978 7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鳳停寺 極樂殿 內部)

봉정사 극락전은 高麗中期(13世紀)에 建立한 것으로 現存하는 韓国木造 築中 最古의 건물로 유명하다. 1368年 屋蓋部分에 重修가 있었고, 1973年 完全解体 修理한 것으로 기둥위에는 断面方形의 昌枋을 끼워 기둥 사이를 연결시키고, 柱頭를 놓아 科供을 받게 하였다. 科供은 간결하면서 견실하며, 現代感을 느끼게 한다.

內部는 알맞은 部材크기와 간결한 治粧材가 一見하여 古格을 풍긴다. 中央間 后面에 高柱를 두개 세워 대들보를 얹고 그위에 蓮花盤을 얹어 包台工을 짰다. 部材 하나하나의 細部手法은 물론이려니와 架構形式이 다른 現存建物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많고, 더욱 주목되는 것은 統一新羅時代의 石造物에서 보이는 技法의 部材가 보이는 点이다.


編纂委員会

委員長 俞景哲
委 員 安箕泰
〃 吳昌熙
〃 尹道根
〃 李璟會
李文輔
〃 鄭日榮
〃 黃一仁



U. D. C. 69 / 72 (054 - 2) : 0612 (519)


# 月刊 建築士

## 1978 7

## 目 次


1978年度 第2回 臨時総会 …… 2
月間協会動静 …… 4
会員動静 …… 5

回 論壇

都心의 機能 …… 盧椿熙 …… 7
先史時代 살림집의 構造에 대한 研究 …… 金鴻植 …… 15
生活慢筆 …… 尹太鉉 …… 28

◎ 会員作品 …… 31

車東明　李康植
朴康平　朴商浩
金寅培　金大魯
韓珖洙　曺聖萬

住居雜記 …… 李鶴榮 …… 51
우르비노와 루네상스建築 …… 朱南哲 …… 53
앙케트② …… 57
建物의 気密性 …… 李聖國 …… 63

海外作品 …… 프랑스(2)+(A+U) …… 68
建築行政相談 ……
建築許可統計 ……



発行人兼 編輯人・姜奉辰 / 登録番号・第라-1251号
登録日字・1967年3月23日 / 月刊「建築士」
発行日字・1978年7月31日 / 通巻 第113号
発行所・大韓建築士協会 / 住所・서울特別市 鍾路区 瑞麟洞 89番地
(非売品) 電話：73-9491~2
印刷人：申 基 徹 (合同社) 中区 忠武路3街 59-8 266-2583

# 1978년도 서정쇄신촉진대회및 제2회 임시총회

지난 7月8日 본협 제2회 임시총회 및 서정쇄신촉진대회가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재적대의원 69명중 출석대의원 58명으로 성원 오전 10시에 개막.

회순에 따라 국민의례에 이어 서정쇄신 결의 1978년도 제1회 회의록 승인, 업무보고, 부의안건 순으로 회의가 진행 오후 6시30분 그 막을 내렸다.

이날 채택된 서정쇄신 촉진 결의문과 부의됐든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 의 문

우리는 서정쇄신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조국의 번영과 유신 이념을 구현하는데 앞장선다.
2. 우리는 청신한 건축 업무의 풍토 조성에 있어 건축사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부조리를 일소하여 참신한 건축사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선다.
3. 우리는 우리 건축사가 국가 사회발전의 기수임을 명심하고 우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과 창의 및 사명감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하는데 앞장선다.
4. 우리는 협동 정신으로 총화 단결하여 자주 역량을 발휘하므로서 우리의 권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국력 배양에 이바지하는데 앞장선다.

제1호의안 정관 및 제규정개정(안) 정기총회까지 유보
제2호의안 1978년도 제1회 추가 갱정예산(안)
제3호의안 경북지부 건의서 처리에 관한 건.
제4호의안 국무총리지시 8호
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것이므로 건의하지 않기로 함.

이상과 같은 부의안건 토의중 제1호의안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이 대의원들의 의사에 따라 유보되고 경북지부에서 제시된 건의문 중 현임원과 대의원전원의 재신임이라는 구절이 물의의 도화선이되여 김 총무이사가 이사진을 대표하여 현집행부로서는 더 이상 협회를 이끌고 갈수 없다는 이유로서 임원총사퇴를 선언, 임원 전원퇴장을 하게 이르러 회의 분위기가 한때 술렁거렸으나 회원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다시 회의는 속계 서울의 장기인대의원(전임 회장역임)의 충고어린발언으로 반목과 마찰을 피한 타협의 구심점을 찾아 경북지부 유인물로 인한 오해를 불식 유경철이사의 임원사퇴, 해명으로 임원 총사퇴도사실상 무효화된체 대화로서 재단결과 총화를 다짐하고 조용히 그막을 내렸다.

이날 총회에서 부의안건처리중 회원들에게 항시 궁금증으로 남아 있는 중요사항 몇가지를 발취 소개하면

## 1. 실적회비문제

추가갱정예산(안)토의중 세입, 세출을 다루는 과정에서, 실적회비 문제가 거론되었다. 사전 신고제가 되든, 사후신고제가 되는 실적회비를 철폐하고, 월정회비로서 일률적으로 세입을 잡아 예산을 편성집행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이에 개의로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에 부쳐졌다.

동의찬성 24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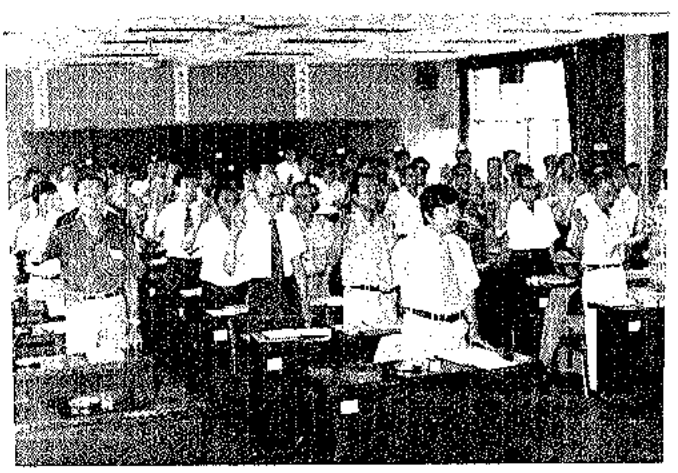
개의 찬성 34표로서 원안이 통과 되었으며 계속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 2. 복지 및 소득표준률 문제

소득표준률에 있어서도 전임회장과 임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34%에서 27%까지 조종은 되였으나 아직 타업종(토목설계는 20%)에 비해 비춥하므로 최소 18%까지는 낮추어보려고 연구중이며, 회원 복지문제도 회원이 사망시 270만원인가 했든 것을, 중간은퇴를 하는 경우도 어떤 혜택을 세도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그 방안을 연구중이며 10월 정기총회에서 논의키로 연급하였다.

## 3. 분소존폐문제

분소존폐문제에 있어서도 예산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서정쇄신에 입각한 건설부 행정지시에 의거 단행된 것이고, 현재 세 규정상으로는 지부총회에서 설치, 폐쇄를 결정 이사회의에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음에 비추어 차기 정기총회에서 사법 시행령에 맞추어 재검토 하기로 유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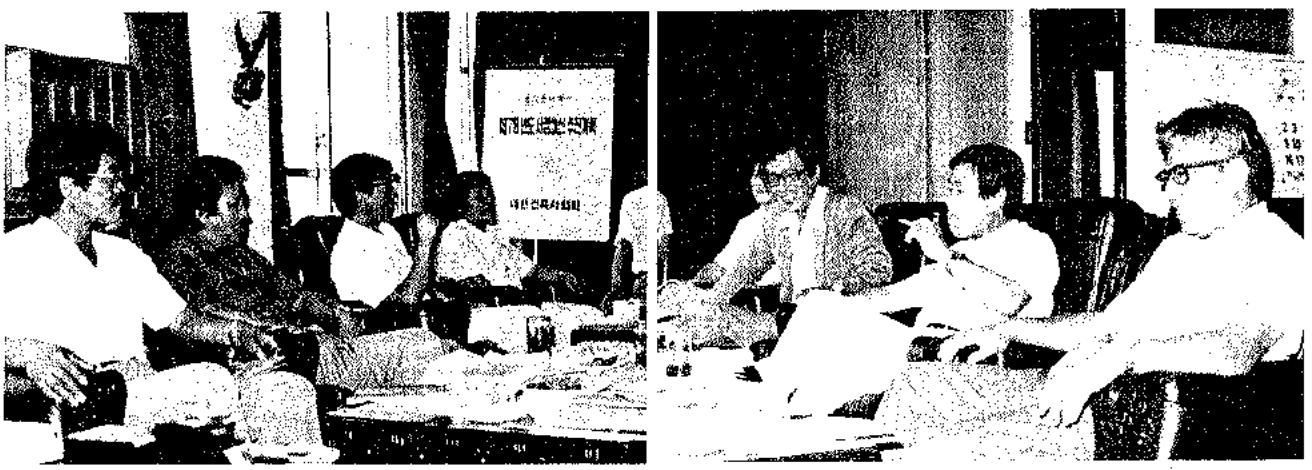
서정쇄신촉진결의문채택 및 선서

## 제 13회 이사회의 개최

1. 일　　시 : 1978. 6. 27
2. 장　　소 : 본협 회의실
3. 부의안건 : 가) 서울지부에서 신청된 이규복, 박래운 대의원의 취임을 승인
　　나) 경북 지부 소속 영주분소를 비예산으로 운영하도록 승인
　　다) 78. 6. 29 본협회 주간으로 3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의
　　라) 직원간의 폭력분쟁에 대한 징계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개최는 78. 7. 8 총회가 끝난 즉시 개최하도록 결의
4. 참　　석 : 회　　장 : 강봉진
　　총무이사 : 김두섭
　　이　　사 : 박우하, 한영수, 유경철
　　감　　사 :

## 제7회 편찬위원회 개최

1. 일　　시 : 1978. 7. 20
2. 장　　소 : 본협 회의실
3. 부의안건 : 가) 6月호 회지합평 및 7月호 회지편집 계획(안) 검토
　　나) 기타사항
4. 참　　석 : 위원장 : 유경철
　　위　원 : 안기태, 윤도근, 이문보, 정일영, 황일인, 오창희, 이경희



제 7회편찬위원회의 위원전원참석

제 1회 전국사무국장회의

서울지부 재입회

| 성 명 | 명 칭 | 소 재 지 | 전 화 | 등록번호 | 면허번호 | 월 일 |
|---|---|---|---|---|---|---|
| 김 민 술 | 국제합동김민술건축 | 관악구 봉천동 399-1 | 88-9188 | 1-798 | 1-337 | 6. 5 |
| 이 정 식 | 조양건축기술공사 | 중구 충무로 5가 36-3 | 261-8385 | 399 | 1-286 | 6. 23 |

부산지부회원 사무소이전

| | | | | | | |
|---|---|---|---|---|---|---|
| 윤 상 학 | 부일건축설계사무소 | 중구 중앙동 4가 82-3 | 44-0970 | 1-26 | 800 | 5. 23 |
| 허 하 구 | 동방건축연구소 | 중구 중앙동 4가 48 | 44-2449 | 1-54 | 974 | 5. 30 |

경기지부 전입회원

| | | | | | | |
|---|---|---|---|---|---|---|
| 박 순 종 | 예지건축설계실 | 인천시 북구 부평동 246 | 5-4198 | 63 | 2-1656 | 4. 11 |

충남지부회원 사무소이전

| | | | | | | |
|---|---|---|---|---|---|---|
| 이 필 종 | 이필종건축설계사무소 | 대전시 중구 선화 1동 65 | 3-8432 | 29 | 1-906 | 6. 23 |

경북지부회원 사무소이전

| | | | | | | |
|---|---|---|---|---|---|---|
| 김 기 봉 | 세대건축연구소 | 대구시 동구 신천동 89-1 | 44-4770 | 1-41 | 1-1435 | 6. 15 |
| 박 현 일 | 세대건축설계사무소 | 〃 | 〃 | 2-67 | 1-1518 | 〃 |
| 강 정 공 | 〃 | 〃 | 〃 | 1-15 | 2-1694 | 〃 |
| 이 대 일 | 정림건축설계사무소 | 대구시 중구 동문동 13 | 44-1246 | 1-2 | 1-983 | 6. 23 |
| 김 영 수 | 〃 | 〃 | 45-9222 | 2-16 | 2-1289 | 〃 |
| 도 무 찬 | 〃 | 〃 | 〃 | 2-17 | 2-1692 | 〃 |
| 김 인 호 | 삼보건축사무소 | 대구시 중구 동문동 9-43 | 44-2729 | 1-42 | 1-1152 | 6. 29 |

경남지부회원 사무소이전

| | | | | | | |
|---|---|---|---|---|---|---|
| 김 재 환 | 남성건축설계사무소 | 진주시 본성동 7-11 | 6262 | 44호 | 2-1228 | 6. 1 |
| 조 득 래 | 개발건축설계사무소 | 〃 | 〃 | 4호 | 2-853 | 〃 |
| 김 영 갑 | 동원건축설계사무소 | 〃 | 〃 | 46호 | 2-1082 | 〃 |
| 한 영 남 | 경남건축설계사무소 | 〃 | 〃 | 1호 | 2-1392 | 〃 |

## 서울지부 신입회원

본　　적 : 서울
성　　명 : 이 상 영
소 재 지 : 관악구 봉천동 399－7
전　　화 : 87－0410
면허번호 : 2 － 1774
등록번호 : 490
월　　일 : 6. 23

본　　적 : 서울
성　　명 : 정 수 헌
소 재 지 : 관악구 사당동 708－103
전　　화 : 51－4243
면허번호 : 2 － 1637
등록번호 : 489
월　　일 : 6. 23

본　　적 : 경기
성　　명 : 최 종 수
소 재 지 : 중구 다동 131
전　　화 : 778－0429
면허번호 : 2 － 1327
등록번호 : 488
월　　일 : 6. 17

## 전남지부 신입회원

본　　적 : 전남
성　　명 : 이 정 종
소 재 지 : 여수시 국동 684－9
전　　화 : 7897
면허번호 : 2－65
등록번호 : 8
월　　일 : 6. 14

## 경기지부 신입회원

본　　적 : 서울
성　　명 : 박 로 진
소 재지 : 양주군 구리읍 교문리 229－2
전　　화 : 2－2974
면허번호 : 2－1891
등록번호 : 8
월　　일 : 6. 2

본　　적 : 강원도
성　　명 : 박 재 국
소 재 지 : 삼척읍 남양
전　　화 : 2564
면허번호 : 2－73
등록번호 : 삼척 제 4 호
월　　일 : 6. 10

## 부산지부 신입회원

본　　적 : 부산
성　　명 : 조 태 승
소 재 지 : 부산시 북구 모라동 702－4
전　　화 : 9－7248
면허번호 : 2－1512
등록번호 : 2－132
월　　일 : 6. 30

# 都心의 機能

盧 椿 熙

## 머리말

都心은 都市의 中心으로서 그 나라의 中枢管理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特히 都市 空間構造를 볼때 核心部分을 이루고 있는 都心은 그 나라의 都市性格 나아가서 国家의 成長을 決定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존슨(Lyndon B. Johnson)의 말을 빌면 偉大한(great)한 都市는 偉大한 社会(society)를 만든다고 한바와 같이 偉大한 都心은 偉大한 都市를 만든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都心地域의 效率的이고 能率的인 空間構造의 造成이나 活動의 配分은 그 나라 都市의 健全한 成長発展을 이룩하는데 関鍵이 되는 것이다.

国民経済와 都市化의 폭의 拡大는 다시 都市 空間構造의 機能의 変化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故로 우리가 살고 있는 都市의 変化를 어떻게 하여 偉大한 社会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人体의 中枢器管이 있듯이 国家의 中枢機能은 都市라고 한다면 都市의 中心機能은 都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問題 解決 接近方法에 있어서 都市地域問題 解決은 하나의 部分이면서 全体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再開発事業이 部分的인 地域만을 限定하게 되면 都心 交通問題라든지, 都心活動의 配分問題 등에 相互相衝하는 結果를 일으키게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本論文에서는 都心과 都市는 무엇이며 그機能과 性格은 어떠하며 그리고 未来의 都心은 어떠한 方向으로 誘導(inducent), 開発(Redevelopment) 管理(management)하여야겠는가 하는 都心地域의 機能과 性格을 体制的(Systematic)으로 理解 하려는데 目的이 있다.

## 1. 都市의 性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地球上에는 人口 100万 以上의 都市가 101(1976) 가 있고 또한 人口 300万以上 都市는 13個 그리고 500万以上은 11個가 있다고 한다. 註1

사람들이 都市로 모여드는 것은 좀더 나은 安全과 잘 살기 為하여 都市로 모여든다는 것을 否認할 사람은 없다. 註2

都市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오랜 歴史를 두고 芸作品과 같이 다듬고 가꾸고 설계하여 그나라에 代表的 歴史的 意志가 남겨 있는 作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都市의 族譜는 일찌기 古代都市以前인 旧約聖書 11章 4節에서 発見할 수 있다. "城과 台(tower)를 쌓아 台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호와께서 人生들이 쌓은 城과 台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라고 하여 人間의 知慧와 能力을 評価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都市란 사람이 意志的으로 創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都市는 언제나 그나라의 中心으로 発達하여 地域文明이 中心地가 되어 왔으며 그나라의文明의 母体가 되어 왔다. 따라서 未来의 都市는 人類文明의 絶頂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都市란 다름아닌 人間의 幸福에 이바지해야 하는 窮極의 目標와 信念을 뚜렷이 나타내야 하며 人間的이고 実用的이며 그 아름다움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人口가 都市에 모이게 하는 힘은 優越性이다.

家庭이란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이들이 있고 부인이 있고 그리고 其他 여러가지 살림살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都市는 이와같은 많은 家庭이 모여서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都市는 하나의 큰 家庭이다.

따라서 家庭이란 조그만 都市라 할 수 있다. 都市의 存在意味는 相互必要와 이로움 때문에 相互依存 補完하고 있으면서 存在하는 것이다.

必要한 일이란 幸福한 生活을 追求하는 일이며 따라서 都市가 이루어지게된 것을 서로 모여서 잘살아 보자는데 있다.

最近에 主要協同体는 여러 가정이 모여서 마을이 되었고 마을은 다시 都市를, 都市는 国家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家庭과 이웃 国家들은 그들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게 하는 힘 다시말하면 自足力의 限界点이 있음을 発見하게 된다 註3 이와같은 自足力(self-sustain power)은 個人보다는 家庭이, 家庭보다는 都市가, 都市보다는 国家가 優秀하다는 것이다.

自足性을 発揮하기 為하여 都市가 発達하는 것을 보게 되면 資源이 가까운 곳에 모여서 位置하게 되고 工業에 있어서는 消費者와 生産者間에 거리가 가까와야 되겠고 이동이 유리한 곳에 位置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써비스업으로서 多様性이 있어 基本的으로 消費者가 가장 많은 中心地域에 位置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註1. 서울특별시 高層建物과 住居環境 1975. I. P. 115

註2. J. John palen, The URBAN world, mograw Hill co, 1975. p. 10

편없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 位置하게 된다. 그런데 어느 程度의 人口 規模를 가진 都市는 써비스업이 가까운 곳에 있게 된다. 만약 어떤 써비스가 都市에 없다면 없이 지내던지 그렇지 않으면 써비스 있는 다른 곳으로 人口가 모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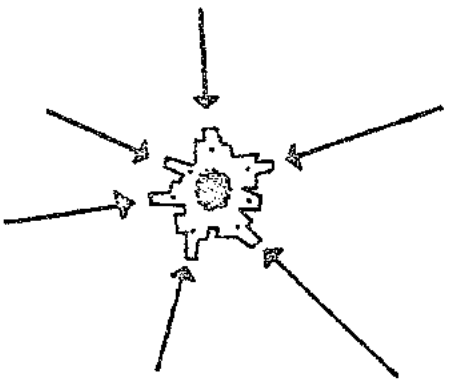


圖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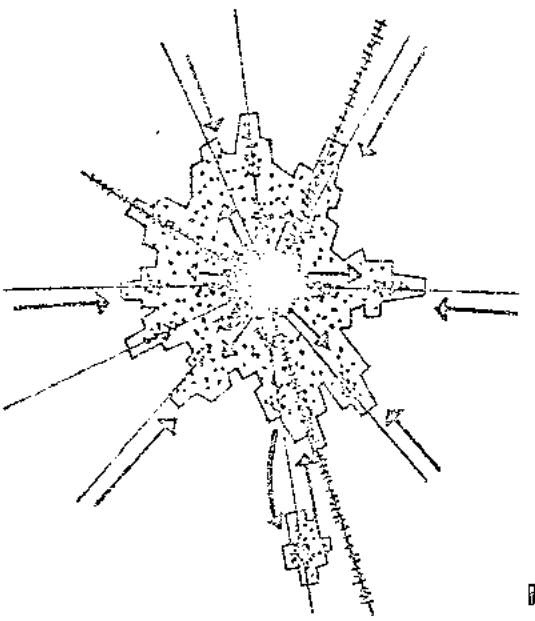


圖 3

美国都市의 變化型態를 살펴보면 第1段階인 1850年代에서는 工業化의 磁力으로 一点으로 準中되어 오다가(図1), 第2段階인 1850年代에서는 準中에서 鉄道를 따라 分散하게 되고(図2) 第3段階인 1910年代에는 都心의 混雜으로 高速道路를 따라 分散하게 되고(図3) 끝으로 第四段階로 1945年代 以后로서 (図4) 戰后郊外 地域開発과 大都市 開発로 郊外地域으로 拡散되여가고 있음을 알 수 다.

初期의 都市形成 過程의 共通点은 王과 高僧 혹은 支配階級과 그들의 使人들이 都市 中心에서 어떤 点을 둘러싸고 모여 살게 되였던 것이다.

都市는 農村보다 特殊한 点이 많다. 都市는 農村에 比하여 더 많은 富와 技術을 所有하고 있는가 하면 더 많은 離婚및 出産, 死亡 事故와 더른 貧富의 差異와 어리석은 사람과 賢明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都市의 適正規模는 適正써비스가 問題인 것이다. 적어도 都市안에 살고있는 住民들에 充分한 써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適正規模의 住民은 얼마나 있어야겠느냐 보면 人口 10万－20万, 工業都市는 20万－50万이라면 発展할 수 있다는 것이다. 註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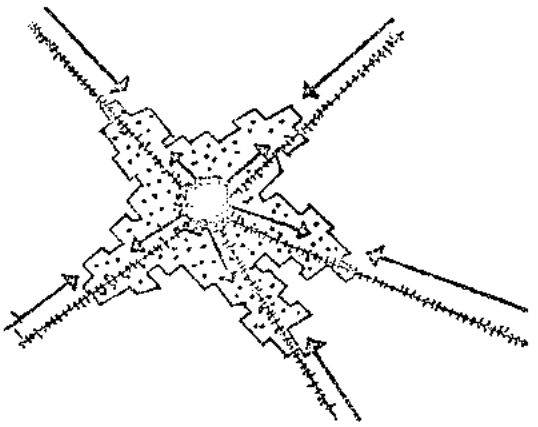


圖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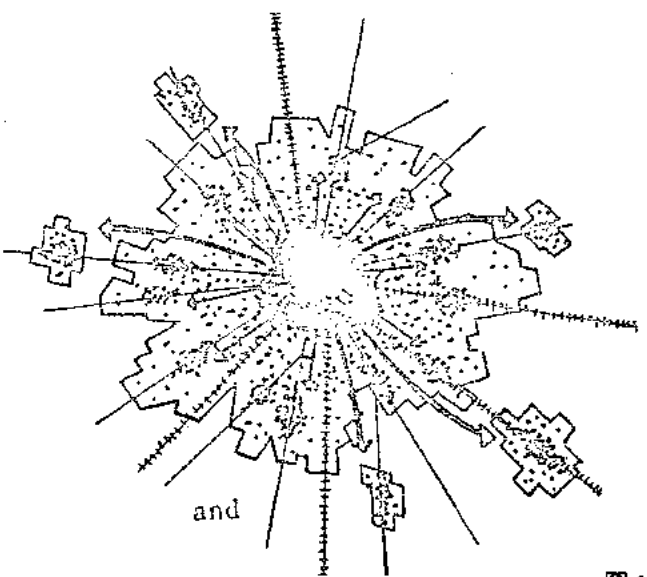



圖 4

이와같이 都市란 하나의 複合体이다. 이들 여러가지 要素는 共存하면서 서로 하나의 構成部分이 되어 相互作用(interaction)과 相互依存(interdependence)의 関係를 가지고 있게 된다.

古代都市는 消費를 為한 都市로서의 性格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날의 都市의 性格은 生産과 消費를 겸하고 있게 되었다. 都市가 반드시 農土를 가지고 直接 農事를 짓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에집트"에서는 紀元前 3世紀에 必要한 食糧의 3倍나 더많이 生産할 수 있었다고 한다.그리이스"로마"時代에는 이미 都市人口 한사람이 都市生活을 営為하는데 필요한 生産을 為하여서는 農村人口 50～80名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都市生活이 얼마나 많은 消費를 하고 있나를 말해주고 있다. 美国에서 태어난 한 어린이가 消費하는 資源은 아프리카 사람 80名이 消費하는 量에 相当한 資源을 大量 消費하고

註3. ARISTOLE POLITICS, TRANS BY H. ROCKHANS IN THE LOEB CLASSICAL LIBRARY, LONDON 1932. P. 7. 9
註4. COLIN CLARKS, THE ELAMNIC FUNCTUAYRY BY CITY IN RELATION TO IT'S SIZE? IN ELAMNIC. VOLXII P. 97～113

있다는데 注目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의 都市가 얼마나 많은 人口를 어떤 方法으로 扶養하고 이를 扶養하기에 필요한 産業構造와 經濟活動 및 各種 써비스 規模가 얼마나 커야 하느냐의 問題는 그 都市의 經濟的 規模를 意味하는 것이다.註5

## 2. 都心의 機能

都市의 中心地域은 많은 사람들이 居住地일뿐만 아니라 地域經濟內外의 生産力을 分配하는 場所로서 投資의 機会를 얻을 수 있는 集積利益(agglomeration of economic)과 外部經濟(external economic)의 発生地 이기도 하다. 따라서 都市의 바탕은 많은 인간이 衣食住에 必要한 財貨를 生産하는 經濟單位라고 할 수 있다.

人間은 都市를 中心으로 하여 그들의 生活의 根拠地를 択하게 되었고 經濟的 社会的 必要에 応하여 都市周辺地域은 無限히 発展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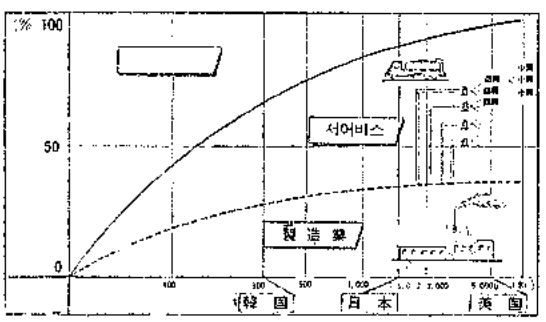
各 都市들의 機能과 形態가 비슷한 것과 같이 特히 같은 規模의 都市는 그 地域안에 있는 다른 都市의 共通되는 点을 発見하게 된다.

그 共通点이란 그都市의 支援機能과 都市內部構成에 있어서 規則性과 類似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都市의 특징에 하나인 高層建物을 中心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往来하고 그 周囲에 商店과 劇場, 銀行과 其他 都市施設이 雲集하여 있는것은 農村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特殊現状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近代化国家 혹은 都市化国家를 를 말할 때는 그 나라의 産業構造가 一次産業보다 二次産業, 二次産業 (製造業)보다 三次産業(써비스)의 比率이 높은 나라를 말하게 된다. 여기서 三次産業 (teritary sectors)의 비율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 分野에 雇傭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表 I)

### 産業과 雇傭構造의 変化推移




그러므로 많은 써비스活動은 都市自体의 人口만을 為하여서 있어야 할 이발소, 세탁소, 양화점, 약국, 잡화상, 다과점, 영화관, 다방, 요정등을 들수 있으며 이는 都市活動을 支援하는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서비스業을 都市中心에 位置한 支援機能이라 한다. 註6

都市支援機能은 都市自体만을 為한 機能이 아니라 都市以外 周辺地域까지를 그 支援의 恵択의 波及效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都心은 人類文化의 中心地로서 支配的 努力을 都市自体에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제 都市는 実在的이요 公共써비스의 生産者이며 人間相互 作用의 触媒이고 社会体制이며 文化的 実験室임을 感知하게 되였다. 아니 그 이상일 것이다. 都市는 政府가 있는 곳이며 工業과 産業의 本格地요 未来의 中心地고 芸術의 安息処이다.

知識과 教育의 源泉이며 文化国民의 融解点이요 輸送体系의 合流点이다.

여러나라 都心의 集中度를 살펴보면 日本 東京은 1964年에 大学生과 中枢企業의 50%以上의 集中率 註7 을 보였고 서울은 大学生의 55% 法人税賦課가 73% 銀行予金貸金이 65% 註8 가 集中되고 있음을 発見하게 된다.

인도네시아(Indonesia)의 자카르타(Jarkarta)는 全国通貨量의 93%를 占하고 있고 비율빈(philippine)의 마닐라(manilar)는 全生産의 70%를 감당하고 있는가 하면 泰国의 방콕(Bang kok)은 輸入의 90%를 그리고 税金의 94%는 방콕에서 徵収된다고 한다. 註9

그러면 集中度에 限界点은 없는 것일까?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集中은 어디까지 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都心이라고 함은 一般的으로 都市地域의 中心附近에 位置하고 그 都市를 움직이며 都市圏을 統制 내지 強한 영향력을 가지는 써비스를 하는 中枢機能, 文化, 商業, 써비스등의 機能이 凝集한 空間이다.

都市는 地域(Area Region) 의 中心地이다. 그리고 地域과는 中心核을 갖고 있는 人間의 空間的인 組織体라고 생각된다.

小都市에서는 地方行政機関과 中心商業地域이 연결된 都心 같은 것이 存在할 程度로 明瞭한 都心의 形態는 찾아볼 수 없다. 적어도 人口 20万~30万 程度의 中都市以上이라면 참다운 都心의 形成은 현저해지고 景観的 或은 機能的으로 하나의 中心区域이 形成되기 始作하게 된다.

그런데 巨大都市가 되면 그 点據範囲로 拡大되면 10km² 부터 30km²(表 2) 이르는 雇傭人口를 가지고 있게 된다. 많은 雇傭人을 가지고 있게된다. 巨大都市의 都心地域의 構成要素는 복잡 다양하고 大都市地域의 다채로운 都市活動에 対応함에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그 構成要素인 業務地区, 商業地区, 報道 都売 慰楽地域등으로 発展 分化過程을 밟게 된다.

都心의 機能이나 그 範囲는 前代나 国家에 依해 약간의 差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小都市의 都心에서는 都心機能이 限定된 地域의 中心部에 立地하고 있다.

그런데 大都市地域의 都心이 되면 都心機能의 地域的 分化가 進行되어 업무, 行政, 商業, 오락, 문화등의 여러 機能들이 地域的으로 부록크(Blocks)를 構成하고 넓은 空間을 占據하게 된다.

註5. WALER ISARD, LOCATION AND SPACE ECONOMY, THE MIT PRESS 1972 pp. 266~289
註6. EDWARD ULLMAN, A THEORY OF LOCATION FOR CITIES, "AMERICAN JOURNAL OF SOCIETY, XLVI (MAY, 1941) pp. 858~864

(表2) **首都圈의 人口 및 雇傭의 密度分布**

서울(1970) (中心으로 부터의 거리 : km)

| | 0 - 15 | 0 - 20 | 20 - 40 | 40 - 70 | Total |
|---|---|---|---|---|---|
| 인구 : 人 口 数(千名) | 5,610 | 6,053 | 1,571 | 1,270 | 8 ,894 |
| 密 度 | 7,983 | 4,265 | 449 | 191 | 769 |
| 人 口 比(%) | 63.1 | 68.1 | 17.7 | 14.3 | 100.0 |
| 面 積(km²) | 702.8 | 1,422.4 | 3,500.9 | 6,647.5 | 11,570.8 |
| 고용 : 雇傭者数(千名) | 1,276 | 1,407 | 379 | 355 | 2,141 |
| 密 度 | 1,815 | 1,003 | 129 | 64 | 216 |
| 雇 傭 比(%) | 59.6 | 65.7 | 17.7 | 16.6 | 100.0 |
| 面 積(km²) | 703 | 1,401.8 | 2,947.5 | 5,561.0 | 9,910.3 |
| 人 口 対 雇 傭 比 | 0.94 | 0.96 | 1.00 | 1.16 | 1.00 |

東京(1970)

| | 中心으로부터의 거리(km) | | | |
|---|---|---|---|---|
| | 0 - 20 | 2 - 40 | 40 - 70 | 전 체 |
| 人口 : 人 口 数(千名) | 11,964 | 7,733 | 5,048 | 24,475 |
| 密 度 | 10,960 | 2,348 | 549 | 1,806 |
| 人 口 比(%) | 47.8 | 31.6 | 20.6 | 100.0 |
| 雇傭 : 雇傭者数(千名) | 7,028 | 2,840 | 2,154 | 12,122 |
| 密 度 | 6,587 | 862 | 234 | 895 |
| 雇傭者比(%) | 58.0 | 23.4 | 18.6 | 100.0 |
| 面 積 (km²) | 1,067 | 3,239 | 9,193 | 13,552 |
| 人 口 対 雇 傭 者 比 | 1.21 | 0.74 | 0.90 | 1.00 |

資料 : 韓国人口学会 서울市人口集 - 그 問題点과 対策 1946. 4.p. 92.

따라서 이와같은 都心이라 함은 点的 実在가 아니고 都心地域이라는 面的点據가 이루어지게 된다.

都心은 都市活動의 根源이고 都市圈의 経済社会, 文化, 政治의 発達程度에 応한 容量과 活動과를 内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좀더 具体的으로 都市이라 함은 業務地区(Central Business District), 또는 中心商業地를 核으로 하여 都市住民의 要求에 応한 職場, 買物, 観光, 尉楽, 教育, 文化금융등의 施設을 가지고 流行이나 関心의 心理的 中心地가 될 수 있는 大都市의 中枢機能 地域이다.

空間的으로는 地域의 中心으로서 吸引力이 높아서 都市地域内의 産業資本, 人口등의 流動을 促進하게 된다. 이와같은 高度의 流動性은 集心(求心力)과 離心力(遠心)이 되여서 人口나 産業의 集積과 拡大 복잡등의 傾向이 強하게 作用하게 된다.

集心力이라 함은 都心的 機能의 求心的 移転을 낳은 힘이라고 할 수 있고 離心力이란 非都心的 機能과 一部都心的 機能의 遠心的 移転을 낳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都市地域에서 일어나는 集中観心力을 나타내는 指標로서는 大企業과 中枢機関의 集中으로 労動力 人口의 集中을 들 수 있고 交流力으로서 自動車交通量, 電話 通話의 集中을 들 수 있다.

따라서 都心은 大都市地域의 地域構造를 変更 変容 進化및 再編成하는 것 같은 地域形成力(Area Building power)를 가지고 있어서 大小 中心地로 싹트게 하고 地域分化를 促進시켜 지역의 계층적 지역적 秩序를 規定하는 것 같은 힘을 갖고 있다.

大都市地域의 形成은 求心的 移動과 遠心的 移動에 依하여 이루어진다.

大都市는 都心部 또는 既成市街地에 集積과 郊外에로 向하는 二元的 拡散(Sprawl)의 두가지 面을 안고 있게 된다.

封建都市로부터 現代都市의 発達에 依하면 地理的인 中心은 移動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都市의 中心核이 된 機能은 封建領主및 商人들의 거리였던 것이 現在는 行政 企業의 中枢管理機関으로 変化되였음을 알수 있게 된다. 더욱 変化하고 있는 것은 商業機能이라는 처음에는 都心部의 市場에서 物品의 売買가 行하여 졌으나 지금은 卓上去来만이 都心部에 남고 実物은 郊外나 隣近地域에서 去来될 傾向이 많아 질 것이다.

그 理由는 交通, 地価등의 条件이 物件을 都心까지 搬

註7. SABURO OKITA, TOKYO AFTER 20 YEARS NIHON KEIZAI CENTER, TOKYO, 1967, p.26

註8. 大韓商工会議所. 서울特別市 経済比重調査報告 1978. 1

入하여 저장하기 어려운 要素와 그리고 都心機能이 情報交換에 集約되여 있는 理由를 들 수 있다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都心部에서 일을 하고 職住分離에 依하여 低廉快適한 住宅이 郊外에 있음으로 因한 通勤交通에 혼잡을 격심하게 하고 있으나 장래 대다수의 사람들이 都心까지 오지 않아도 機械的 처리에 依한 去来도 行政管理로 끝낼 수 있게 될 것이다.

都心形成(City Building)의 하나의 指標로 都心地区 야간인구 감소는 伝統的인 도심상점가의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주간인구도 모이지 않고 기계만이 일하고 中枢機能이 되면 都心商業地域도 필요가없게될지도 모른다. 特히 이와같은 都心의 成長과 変化를 美国과 欧羅巴그리고 우리나라와는 그 生成 발전이 判異한 것이다.

都心部는 単純한 업무의 中心이 아니고 市民의 買物의 中心이기도 하며 慰楽地로써 서로 만남에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欧美 사람들에게는 都心이 社会 또는 가볍게 사람들과 교제하는 場所로 利用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도심에는 카페(Cafe) 레스트랑(Restaurant), 코럽(Club)이 있고 가로수 거리의 의자나 공원도 利用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희랍, 로마時代로부터 내려온 광장의 전통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아직은 零細民들의 生業의 場所로써 쪼들리고 바쁜 사람들과 車들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바쁜 都市로 欧美都市에서 찾아볼 수 없는 情景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中枢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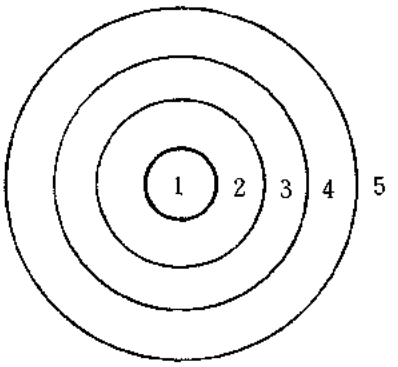
中枢機能이란 主로 経済的 業務와 行政的 中心機能이 立地하고 있는 業務中心地区(CBD－Central Business District) )를 指称한다.

都心의 研究가 始作된 것은 欧美에서도 20世紀에 들어서이다. 都心을 都市地域의 中心核 或은 機能核으로서 考察하려고 하는 研究는 1920年代 버그스(E. W. Burgess)의 同心円理論(Con Cen-tric zone theory)으로서 都市空間構造를 説明하고 都市成長의 類型 (patterns) 로 確然하게 解明해 주려는 理論이다. 그는 美国 시카고(chicago)의 都市構造를 生態的 過程으로 説明하고 있다. (図 5) 그는 시카고 都市가 5個의 用途地域으로 構成된다 하여 都心을 構成하는 機能으로서 会社,銀行, 行政官庁, 高級小売商, 호텔, 映画館, 都売商街등을 들고 있다. CBD를 Loop라고 부르고 그곳은 商業 行政의 中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出入하고 地価가 가장 높은 場所라고 하였다.

그후 同心円理論에 이어서 호이트(H. Hoyt)의 扇形理論(Sector theory) 하리스(Harris) 울만(ullman)의 多核理論(multiple theory) (図6) 그리고 에릭슨(E. G. Ericksson)의 折衷論等이 있다.

버그스(Burgess)의 同心円理論에서 中央地帯를 Loop, CBD와 그 構成要素를 小売業地域, 行政, 事務室地域等으로 区分하고 있으므로 CBD란 昼間人口의 最大集積地点이기도 하고 交通量의 最多地点인 同時에 많은 重要한 問題를 決定하는 中心地域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本論文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中心業務地域(Central Business District)이다. 巨大都市의 都心地域의 構成要素는 複雑多様하여 業務地域 都心商街地域, 官庁地域및 居住地域等으로 地域分化가 이루어지게 된다.

〈図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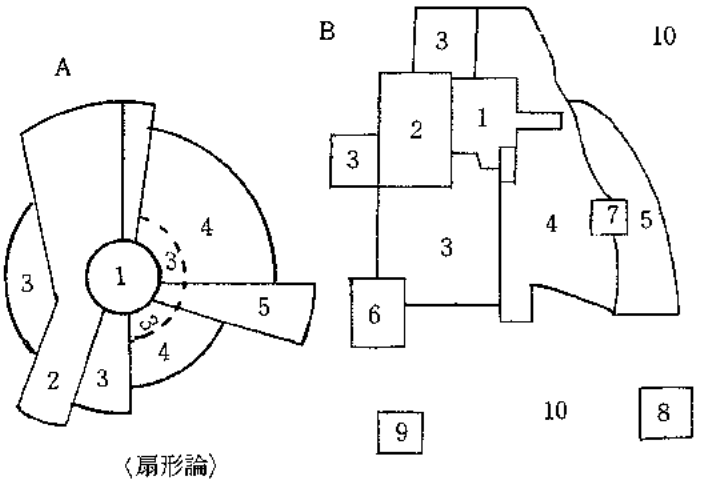



Zone 1 : 中心商業地域 (Central Business District)
Zone 2 : 転移地域 (Zone of transition)
Zone 3 : 労動者 住居地域 (Zone of Working mens Homes)
Zone 4 : 中産層 住居地域 (Zone of better Residences)
Zone 5 : 通勤者 居住地域 (Commuters' Zone)

資料 :

STUART CHAPIN, Jr Urban Land u'se Planning,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3. pp. pp. 10～11.

(図 6) 多核論과 扇形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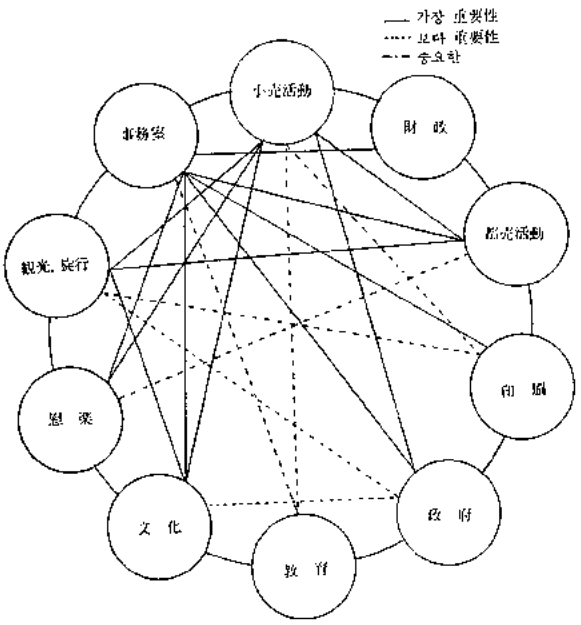

〈扇形論〉

〈多核論〉

1. 中心商業(業務) 地域(C. B. D)
2. 都売 및 転工業(Wholesale-Light Manufacturing)
3. 下層 階級住居(Low-Class Residential)
4. 通勤者 居住地域

資料 : 前掲書

(表 3) 活動機能関聯性




資料 : General neighbourhood Renewal Plan, City of Sheby Gan Wisconsin, U. S. DD. 1972.

따라서 이 地域은 都市機能(urban function)의 代表的인 活動이 이루어지며 資本이 集中되고 高層建物이 서게 되고 地価가 最高記録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화이트 칼라(white color workers) 職業人인管理職, 專門職人口 流動으로 昼間人口密度가 높아지게 된다.

都心地域은 都市活動의 根源이고 都市圏 経済, 社会, 文化의 発達程度에 따라 그 容量과 活動의 幅과 関聯性程度를 달리하게 된다.

都市地域에서 가장 緊密한 機能活動関聯性(表3)은 事務室과 財政이 가장 強한 活動関聯性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小売活動, 事務室, 銀行, (財政) 観光, 유흥의 順으로 그 相互補完하는 機能의 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의 体制(system)를 이루고 있다.

具体的으로 都心이라 함은 CBD 中心商街를 核으로 하여 市民의 要求에 応한 職場과 商業, 欲望, 教育, 企業等의 施設을 가지고 流行이나 関心의 心理的 中心이 될 수 있는 大都市의 中枢地域이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人間의 居住地보다는 多数의 重要한 決定을 하고 그 決定이 都市地域을 넘어 国家全域에 까지 強한 影響力을 주는 "戦略基地"가 되기도 한다.

(CBD)는 都市의 心臓과 脈博이다.

우리나라 서울의 都心(CBD) 面積은 9.197km²로 全面積의 1.04%에 지나지 않는데 反하여 都心部内 1日活動人口(常住人口+就労人+利用者人口)는 5.564,288 名으로 서울市 人口 700万의 79%에 該当한다. 特히 中区의 경우 1日 活動人口는 3,113,077名으로 서울 全人口의 44%가 그리고 都市活動人口의 56%가 되여 그 密度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시카고의 CBD 面積을 보면 (表4) 에서와 같이 市의 全面積인 227평방마일(588km²)의 3.9%인 9평방마일 (23.3km²)에 불과하며 그것도 中心街를 연하여 1마일(1.6km)안에 모든 商街, 銀行, 劇場, 호텔이 位置하고 있다. 한편 시카고는 美国 GNP의 5% 를 감당하는 能力을 가지고 있어 CBD는 経済的 pump 로서의 役割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작은 都心空間은 6,000名이란 常住人口를 가지고 있으나 流動人口(昼間人口)는 常住人口의 100倍나 넘는 60萬名에서 100万까지나 된다고 한다. 註10파리의 경우(図7)은 오늘날 (1970年 現在) 850万의 人口가 全 프랑스国土面積의 2%에 該当되는 4,630平方마일의 市街地域에 居住하며 都心地域은 7.7평방마일 (19.9km²)로서 専用 住居地域이 없는 것이 特色이며 常住人口는 60万名으로서 都心의 고용인구는 100万以上이 된다는 것이다. 뉴욕(New York) 의 경우(図8) 半径 10마일의 맨하탄을 中心으로 한 都心의 面積은 12.7평방마일(32.9km²) 人口는 1,762万名으로 全美国의 財貨와 써비스의 中心的 役割을 担当하고 있다. 都心의 人口는 1900年에 439%나 増加한 때도 있었다. (表5)

東京의 CBD인 千代田区의 昼間人口 集中率은 829.5%에 이르고 있다. (表6)

(表4) LAND USE IN CHICAGO SINCE 1850 (SQUARE MILES)

| LAND USE | 1850 | 1870 | 1890 | 1923 | 1941 | 1961 | 1966 | 100% |
|---|---|---|---|---|---|---|---|---|
| Residence | 1 | 5½ | 17 | 48½ | 52 | 70½ | 71 | 31% |
| Recreation | * | 2 | 4½ | 7 | 10½ | 14½ | 17½ | 7.7% |
| Other Public or Institutional | N.A | * | * | 3 | 4 | 6 | 9 | 3.9% |
| Manufacturing, Ports, & Utilities | * | 2 | 9½ | 15 | 15 | 15 | 15 | 6.6% |
| Business & Commerce | * | 1 | 2½ | 10 | 10 | 14 | 14 | 6.1% |
| Streets, Alleys & Expre ssways | 2½ | 7 | 32½ | 46½ | 50 | 54 | 54 | 23% |
| Railroads | * | 2 | 7 | 11 | 16 | 16 | 16 | 6% |
| Airports | 0 | 0 | 0 | 0 | 1 | 10 | 10 | 4% |
| Vacant | 10 | 5 | 100 | 52½ | 46 | 19 | 14 | 6.1% |
| Cemeteries | * | N.A. | 1 | 2 | 2 | 2 | 2 | 0.8% |
| Rivers & Inland Lakes | * | * | 5 | 5½ | 5½ | 4½ | 4½ | 1.9% |
| TOTAL | 14 | 35 | 180 | 201 | 212 | 225 | 227(588km²) | |

* Less than 1 square m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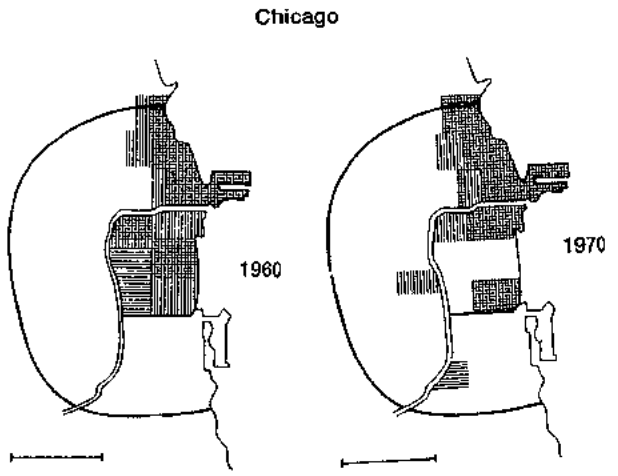
N.A. - Not available

SOURCES : Homer Hoyt, One Hundred Years of Land Values in Chicago Chicago Zoning Commission Report for 1923 Chicago Land Use Survey Survey, January 1, 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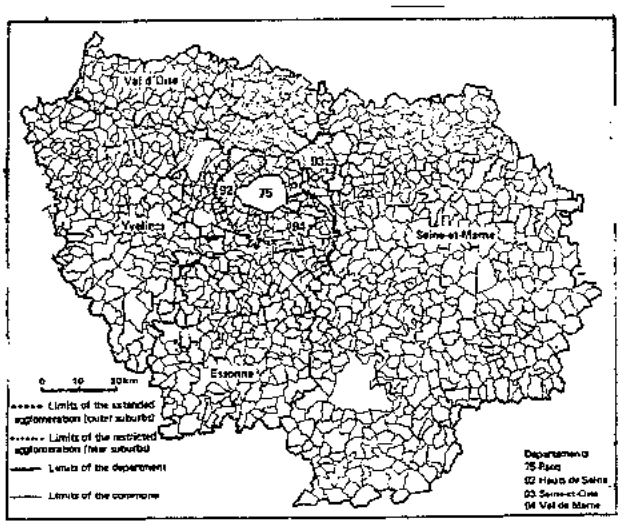
註. 9 TIME, DECEMBER 1976. p. 2

註10. RICHARD B. ANDREWS, URBAN GROWTH AND DEVELOP MENT, BOARDMAN SIMONS PUBLISHIN CO. 1962. p. 60

Master plan of Residential Land Use, G Ghicago, 1943 Staff es timates, Department of Development and Planning




〈図 7〉 파리의 C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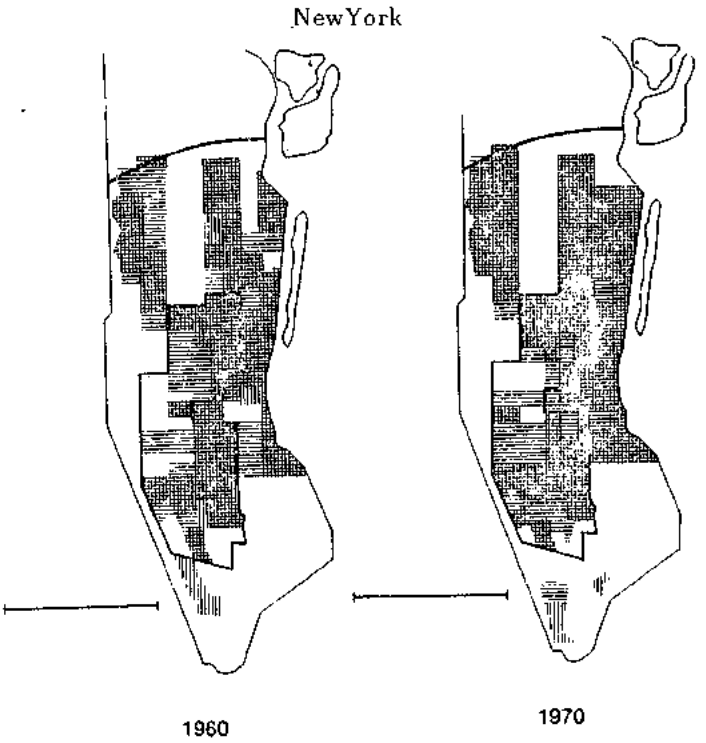



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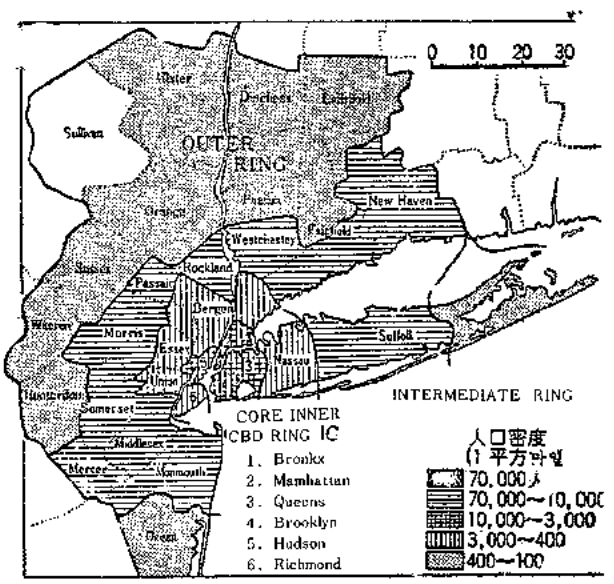
H. Wentworth Eldredge, world capitals, Toward Guideed urbanization. Anchor press, 1975. pp. 60～65.

日本의 人口集中地区制別 人口調査에 依하면 総人口의 6割의 人口가 国土의 2%인 地域에 集中되어 人口密度는 1km² 당 7,712명에 이르고 있고 郡・道・府・頭別로 人口集中度를 보면 東京이 総人口의 96.6% 大阪이 92%로 9割 以上의 사람이 人口集中地区에 密集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를 살펴 보면 特히 外国에서 말하는 down town 或은 Loop이라는 意味에서는 서울은 中区地域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地域을 集中的으로 다루려고 한다. 中枢管理施設에 従事하고 있는 総人員은 56,136名으로서 그 중 晝間従事者의 数는 48,350名으로 全体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夜間従事者는 全体의 13.0%에 불과한 7,785名(表7)이다.




〈図 8〉 유욕市街地




資料：Tri-States Transportotion Commission에서

이와같이 晝間活動人口가 86%나 되고 있음은 그 空間의 比重이 얼마나 莫重한가를 짐작하게 된다.

또한 서울의 人口流動推移를 살펴 보면 図9와 같이 光化門을 起点으로 한 1966年의 人口分布는 서울人口의 半以上이 半径 5km圈内에 居住하였으며 10km圈内에는 全体人口의 88%가 居住하였다. 그러나 1977年에는 半径 5km圈内의 人口는 27%의 激減現状을 보이고 있음은 시카고와 같은 人口変化類型을 알 수 있게 해준다. (図 10)

〈表 5〉 뉴－욕・메트로포리스地域의 圈別人口推移

| | 1850年 | 1900年 | | 1930年 | | 1960年 | | 1965年 | |
|---|---|---|---|---|---|---|---|---|---|
| | 人口 (1000) | 人口 (1000) | 1850~1900 增加率(%) | 人口 (1000) | 1900~1930 增加率(%) | 人口 (1000) | 1930~1960 增加率(%) | 人口 (1000) | 1960~1965 增加率(%) |
| 核心部 | 741.7 | 4,002.3 | 439.6 | 7,905.2 | 97.5 | 8,575.9 | 8.5 | 8,757.1 | 2.1 |
| 內圈 | 126.7 | 695.5 | 448.9 | 2,246.7 | 223.0 | 4,342.8 | 93.3 | 4,654.7 | 7.2 |
| 中間圈 | 312.2 | 921.5 | 195.2 | 1,808.8 | 96.3 | 3,612.4 | 99.7 | 4,279.5 | 18.5 |
| 外圈 | 377.5 | 560.3 | 48.4 | 675.8 | 20.4 | 1,093.3 | 61.8 | 1,289.6 | 18.0 |
| 全域 | 1,558.1 | 6,179.4 | 296.6 | 12,636.5 | 104.5 | 17,624.3 | 39.5 | 18,980.9 | 7.7 |

〈表 6〉 昼夜間人口의 昼間人口集中率(日本)

(1965年国調)

| 区名 \ 項目 | 夜間人口 | 昼間人口 | 夜間人口集中率 |
|---|---|---|---|
| 東京 | 人 | 人 | % |
| 千代田区 | 93,047 | 771,809 | 829.5 |
| 中央 | 128,017 | 615,158 | 480.5 |
| 港 | 241,539 | 536,379 | 222.1 |
| 臺東 | 286,324 | 397,374 | 138.8 |
| 新宿 | 413,910 | 540,694 | 130.6 |
| 文京 | 253,449 | 330,831 | 130.5 |
| 渉谷 | 283,730 | 342,135 | 120.6 |
| 墨田 | 317,856 | 358,103 | 112.7 |
| 江東 | 359,672 | 401,240 | 111.6 |
| 品川 | 423,015 | 436,807 | 103.3 |
| 豊島 | 373,126 | 376,273 | 10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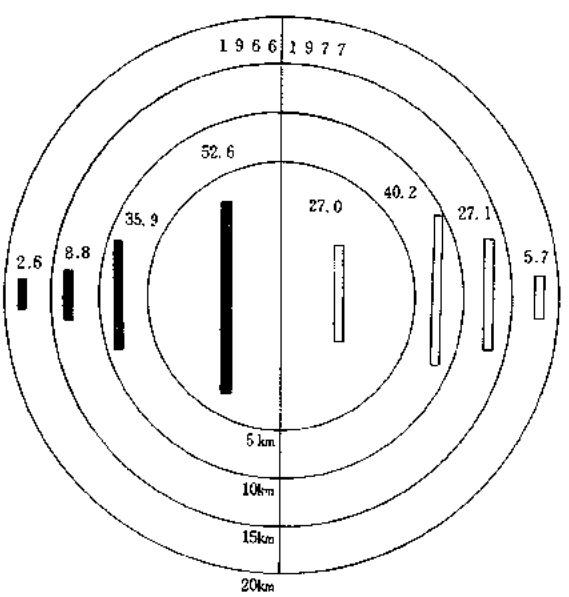
資料：日本国調 1965.

이와 같은 都心人口 減少現状은 農村의 就業機会增加, 都農間의 所得隔差 減少・農村生活의 不便減少等이 人口変動의 促進要因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表 7〉 官公署従事者現況　　単位：人,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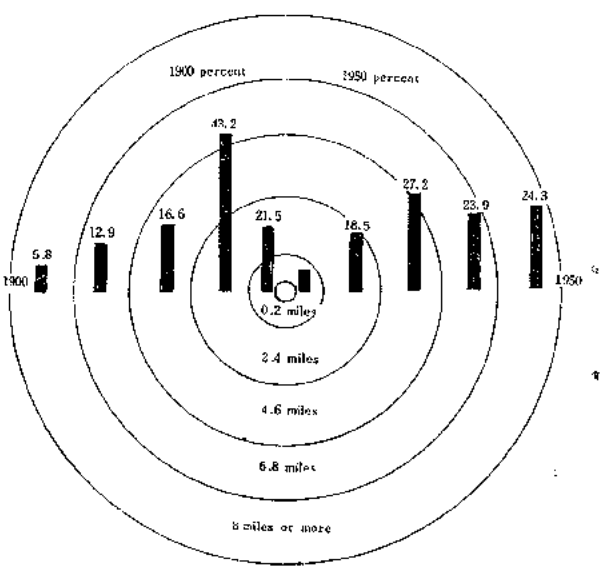
| 区分 \ 区別 | 計 | 比率 | 昼間従事者数 | 比率 | 夜間従事者数 | 比率 |
|---|---|---|---|---|---|---|
| 総計 | 56,135 | 100 (100) | 48,350 | 100 (86.1) | 7,785 | 100 (13.9) |
| 鍾路 | 4,816 | 8.6 (100) | 4,457 | 9.2 (92.5) | 359 | 4.6 (7.5) |
| 中区 | 14,748 | 26.3 (100) | 13,134 | 27.2 (89.1) | 1,614 | 20.7 (10.9) |
| 東大門 | 5,237 | 9.3 (100) | 4,366 | 9.0 (83.4) | 871 | 11.2 (16.6) |
| 城東 | 4,200 | 7.5 (100) | 3,482 | 7.2 (82.9) | 718 | 9.2 (17.1) |
| 城北 | 1,935 | 3.4 (100) | 1,624 | 3.4 (83.9) | 311 | 4.0 (16.1) |
| 道峰 | 2,432 | 4.3 (100) | 2,152 | 4.5 (88.5) | 280 | 3.6 (11.5) |
| 西大門 | 4,178 | 7.4 (100) | 3,562 | 7.4 (85.3) | 616 | 7.9 (14.7) |
| 麻浦 | 2,610 | 4.6 (100) | 2,102 | 4.3 (80.5) | 508 | 6.5 (19.5) |
| 竜山 | 4,905 | 8.7 (100) | 4,199 | 8.7 (85.6) | 706 | 9.1 (14.4) |
| 永登浦 | 4,924 | 8.8 (100) | 4,083 | 8.4 (82.9) | 841 | 10.8 (17.1) |
| 江西 | 1,882 | 3.4 (100) | 1,563 | 3.2 (83.0) | 319 | 4.1 (17.0) |
| 江西 | 594 | 1.1 (100) | 514 | 1.1 (86.5) | 80 | 1.0 (13.5) |
| 冠岳 | 3,674 | 6.5 (100) | 3,112 | 6.4 (84.7) | 562 | 7.2 (15.3) |

(図 9)　半径別 人口推移(光化門 起点)




資料：서울市 통계

(図 10) 시카고 人口推移




서울市立産業大学 教授

# 先史시대 살림집의 構造에 대한 연구

## (民俗學的 자료를 중심으로) (仮說)

金 鴻 植

전통의 계승이란 현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명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나 머리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며 우리것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각은 책상위에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발로 걸어다니면서 몸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가 전통에 대하여 논의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당의성을 논위한다는거나 글로서 그것을 표현할려고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전통을 계승하고져 하는 작가는 다만 자기 발로 걸어서 자각한 사실만을 말로서 할수 있을 뿐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몇가지 글을 실어볼까 한다.

문화란 크게 지배자의 것과 피지배자의 것으로 구분된다. 어느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배자의 문화란 자기 고유성을 지키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이루면서 발전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자기것이란, 상부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부문화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항상 하부계층의 문화를 주시하며, 우리나라의 건축사도 하층계층의 주택인 민가사에 의해서 다시 쓰여져야 한다고 믿는다.

### 기. 서 론

先史시대의 살림집을 알아 보는데 이용하는 자료로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考古學的인 연구 자료로 家形土器등을 위시한 遺物이나 집자리등으로 대표되는 遺跡이 있다. 둘은 民俗学的인 자료로서 現存하는 民家 또는 未開民族의 건축등이 있으며, 셋은 陳述的인 자료 가운데 考古學的 자료나 陳述的 자료는 어느 정도 발표가 되어 있으나 이 중 民俗學的 자료에 의한 연구는 거의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先史 살림집에 관한 자료**

1. 考古學的 연구 자료 {遺物—家形土器類 / 遺蹟—집자리}
2. 民俗學的 연구 자료 {民家 / 未開民族의 건축}
3. 陳述的 연구 자료 {文獻 / 회화}

이렇게 民俗學的 자료에 의한 연구가 소홀이 된 나머지, 우리는 아직 先史시대의 살림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더구나 그것의 構造와 復元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정도이다.

여기서 필자가 쓰고자 하는 것은 先史時代 살림집의 발달 과정을 민속학적 자료를 중심으로, 道具의 발달 단계에 따라 사회적 생산 능력도 달라진다는 가정 밑에서 서술할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추측이고 가설이지 定說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기초 자료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설일 뿐이지 이것을 定設로 내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가설은 정설을 낳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되어 감히 붓을 드는 것이다.

## 나. 본 론

### 1. 舊石器시대

#### (1) 자연 住居

인류의 역사는 최근에 발표된 학설에 의하면 대략 100~300萬년 전에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放射線 탄소 연대에 의하면 대략 3만년 전이라고 추측되는 石壯里 유물이 발굴되고 있다. 이것은 舊石器 시대 중기에서 후기 初에 걸친 시기의 것으로 생각되는데, 木炭이 채집되는 것으로 봐서 인류생활에 가장 큰 변혁을 일으켰던 불을 이미 이용하던 시기라고 추측된다. (金元龍 韓國考古學槪說 참고) 불은 사람의 생산활동, 식생활 등 생활 전반에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원시인에게 있어서는 불에 대한 관심과 보호 대책은 특별한 뜻을 가졌으며, 살림집은 불을 보호 보관 관리하는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때는 이미 어떠한 형태의 집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자리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우리는 이것을 상상할 수 밖에 없다.

探集經濟人이었던 舊石器人들은 집을 일정한 곳에 두지 않고 이동해 다녔겠지만, 불을 보전하기 위한 집이란 의미에서 비와 바람을 막아야 된다는 필수 요건 때문에 자연적 동굴이나 나무의 둥어리가 이용되었을 가능성은 크다. 이러한 자연 동굴은 濟州 涯月 於音里의 것이 보고되었고 그 훨씬 후인 신석기시대 — 生産 경제시대 — 에도 이용되었던 듯하고 義州 美松里의 자연 동굴과 春川 校洞의 인공 동굴도 발견되었다.

이렇게 동굴이 집으로 이용된 것은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 그러나 큰 나무의 썩은 둥어리를 이용한 것은 아직 발견된 바가 없다. 사실, 인간의 역사는 石器의 역사가 아니고 木器의 역사일 것임에 틀림 없으나, 그것은 썩으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현재의 과학으로는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石器가 시대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한 부분을 민속학적 자료에 의해서 보완하는 것이다.

#### (2) 최초의 人工住居—움막

인간의 사회 발전에 있어서 크게 기여한 것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건축에 있어서 최초로 크게 공헌한 것은 끈(繩)의 발명이다. 집은 부재의 이음과 맞춤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인데 끈이란 이것을 최초로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생산 도구에 있어서도 손으로만 쥐던 돌도끼(握斧)에 자루를 달 수 있게 되므로서 그 생산력의 증대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끈이 어떻게 발명되고 건축에 어떻게 쓰여 졌느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돌도끼에 자루를 묶고, 이것을 사용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끈의 대단한 발전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집에도 이용되었을 것이고 건축의 발전에도 대단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것에 관한 기술이 제주도 坐俗신화의 하나인 「세경 본풀이」속에 나와있다. 이것을 옮겨 보면,

"해는 보난 일뢰서산 다 내려가고 정이 웃인 정수남아, 엄막이나 지리, 우리 인밥이나 새고 가게.

동의 낡(木)은 서데레 휘잡아, 서의 남은 서데데 휘잡아, 남의 낡은 서데레 휘잡아 북의 낡은 남데레 휘잡아, 집은 짓되, 상가를 멀리 두어 엄막을 매는구나.

…상제님 누울 엄막은 두루정이 짓고, 밸 보아지게 송송히 덮으고, 지눌 엄막은 튼튼히 잘 짓고……"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인간 최초의 인공 집이란, 자연히 서 있는 生木 가지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은 어느 정도 쳐 내고 휘어서 묶을 만한 가지들은 상투처럼 묶은 다음, 거기에 틈이 크게 벌어진 곳은 다른데서 자른 나무 가지(막대기)를 걸쳐 맨다. 그리고 나서 끈으로 적당한 간격을 띄워 가로로 묶고 이 위에 지붕 재료를 덮는 것이다. 지붕에는 넓은 잎이 달린 나무를 꺼꾸로 잡아 매거나, 잘대 종류의 짚을 묶어서 덮거나, 아니면 짐승의 가죽을 덮기도 했을 것이다. 또는 나무가지(서까래와 너시래)에 의지해서 작은 돌을 모아 쌓은 다음 흙을 이겨 발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것을 시사해 주는 말로서 아까 「세경본풀이」 계속에서 볼 수 있다.

「정이웃인 정수남아 이 담 고망을 잘 막으라, 하늘님 못 배래게, 하늘님인들 종광 한 집이 혼디 누민 배래영 죄가 짚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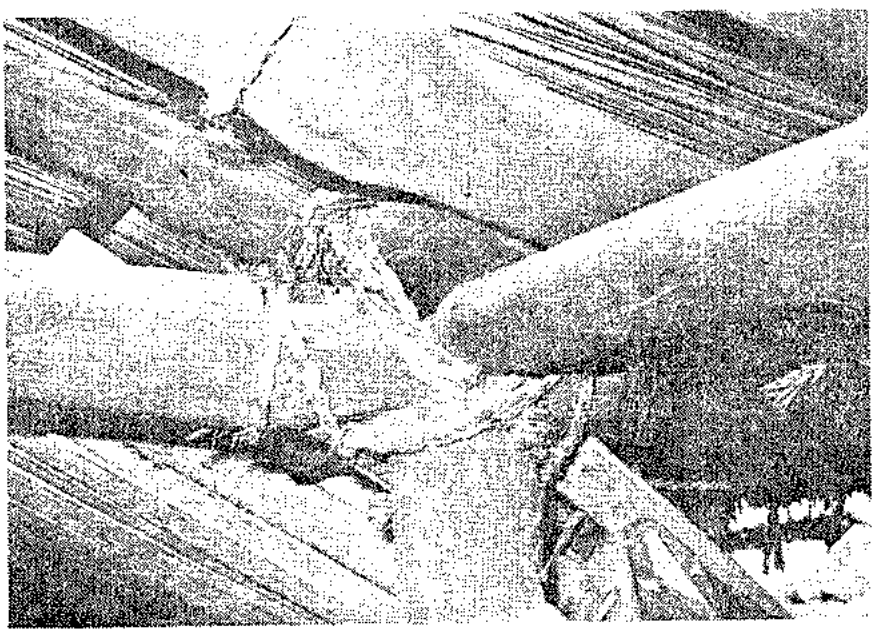
이제 정이웃인 정수남인 엄막 바깃으로 부지런히 고냥을 막아 간다. 자청빈 엄막안에 앉아 누서한 고망 막으민 두 고망썩 빠명,

"요것도 막으라, 저것도 막으라" 부지런히 막다 보난 친앙 닭은 목을 들어 울고……」 내용인 즉 며슴이 주인을 농락하려고 할 때 주인은 꾀로 며슴에게 움막을 짓게 하고 그 지은 집의 담벽 구멍을 주인은 속에서 뜯겨니 며슴은 집밖에서 막거니 하면서 밤을 지새는 장면이다.

(주) 奏聖麒 南國의 民俗에서 전재

이 뿐만이 아니고, 토담집에서 벽의 축초 방법과 지붕을 이을 때 이영 밑에 가는 진새(진흙+여물) 등의 방법은 이 본풀이와 함께 지붕에 진새를 덮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수법은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것이지만 그 형태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모양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는 公州 宋山里 5호 무덤과 대안리 1호 무덤 둥근무늬 무덤 (그림 참조) 등이 있다. 이것들은 내부를 막돌로 쌓았는데 모양은 변이 약간 둥근 네모꼴 위에 네모뿔을 올려 놓은 것과 같은 모양이다.

이것은 축조하기가 꽤 힘든 입체 구조이지만 여기 움막을 그 안에 집어 넣으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네모꼴의 귀퉁이에 서 있는 나무가지 끝을 묶고 각 변에 서까래를 적당히 넣은 다음 너시래를 묶고, 밖에 막돌로 진흙을 이겨 쌓는다 면 바로 이 모양이 된다. 이러한 것이 정형화 되어 얹어진 구조가 바로 이들 무덤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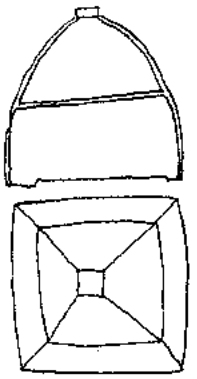
깎고 홈내고 촉을 낸 연결部分일

「강원도 정선군 여량리 기둥머리 맞춤」 살림집을 처음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끈으로 맞춤과 이음을 가능하게 된 뒤에서 부터이다. 위의 사진은 비록 상투 맞춤한 위에 끈으로 묶은 것이지만, 끈으로 묶는 技法이 고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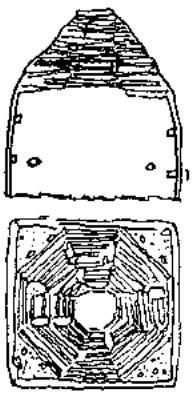
(3) 원추형 살림집(각 모양)

우리나라 太白山脈을 따라 江原道, 忠淸道의 산간지방에는 집의 뒤켠에 김치각 이라는 김치 보존 시설물이 있다. 이것은 긴 말목(나무) 세 개를 세모꼴의 꼭지점에 비스듬히 세워서 그 끝을 묶은 다음, 여기서 서까래를 걸쳐 대고 이것들을 가로로 묶어서 그 위에 지붕을 이는 방식이다. 이것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메리카 인디안의 야생소 가죽 천막과 비교할 때 지붕 재료가 다를 뿐 그 구조방식 모양 등이 흡사하다. 다만 구조틀을 세우는 데 있어 이쪽은 우선 삼발이를 세운 다음 여기서 서까래를 걸쳐대지만 저쪽은 여러개의 서까래를 동시에 걸쳐대고 있는 점만이 다르다.

이것은 최초의 人工 部材를 사용한 살림집이라 생각된다. 떠돌이 생활을 하여 자유로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採集 경제인(구석기 사람)과는 다르게, 일정한 곳에서 다수가 집단으로 정착하게 되고 생산지와는 떨어질 수 없었던 生産 경제인(신석기 사람)들은 自然부재를 이용하기가 심히 어려웠을 것인 반면 도구의 발달로 큰 건축 部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人工部材를 멀리서 채취 수송해서 집을 지었을 것이며 이때 가장 합리적인 구조는 서까래의 경사각이 60°일 경우이다. 弓山里 1호 집자리 — 직경 5.6~5.8M의 불규칙적 圓형 움집으로 수혈 바닥 주변을 돌아가며 안으로 경사진 21개 서까래 구멍을 가짐 —의 部材크기는 집자리 직경인 약 6M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부재가 6M일 경우에 나무 직경은 보통φ200~300인데 이것은 유적지의 기둥 구멍의 크기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그림에서 보는 仰韶유적지의 집 보다 훨씬 큰 집으로 지붕 머리를 한꺼번에 묶지는 못 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각의 모양처럼 우선 세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다른 기둥(서까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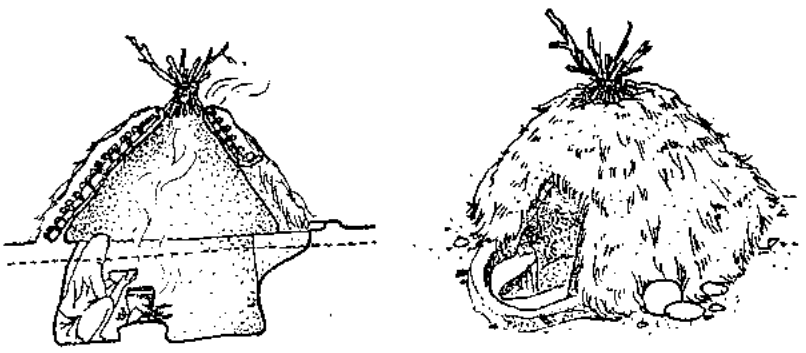
「둥근우물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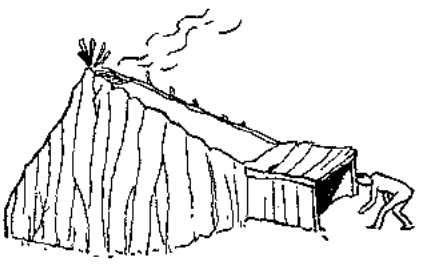
「대안리 1호무덤」

신석기대 최초의 사람이 만들었던 살림집의 내부 공간은 이와 같은 모양의 무덤의 내부 공간과 흡사했을 것이다.

「西欧의 원시 주거 복원도(사람에 의한 살림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았다)」



「中国 仰韶文化 유적지 움집 복원도」



「아메리카 인디안의 살림집」

원추형 살림집의 이용을 추측할 수 있는 중국의 복원도와 인디안의 살림집이다.

을 걸쳐 댔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러한 모양의 집이 변소(竹嶺)나 방아간(新里) 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봐서 신석기 시대에는 살림집으로 이용되던 것이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경리시설물로 또는 부속 시설물로 그 이용이 변화해 온 것이라 믿어진다.

(4) 말대형 살림집

충청, 경상, 강원도 산간 지역에 김치 보존 시설물로서 김치움과, 여물 저장 시설로 여물 우리가 있다. 이것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형에서 보는 삼발이를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 말대를 걸쳐댄 다음, 여기에 서까래를 얹어 놓고 너시래를 가로로 묶어서, 이 위에 이영을 얹은 것이다. 여기에서 삼발이는 백이기둥이 되는 수도 있고 또는 살아있는 나무에 걸쳐대기도 한다. 또한 이것들이 복합된다면 그림에서 보는와 바 같이 유럽에 있어 구석기인들의 텐트 모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와 유사한 유적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런 류의 집이 어느정도 분포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런 집이 임시 시설물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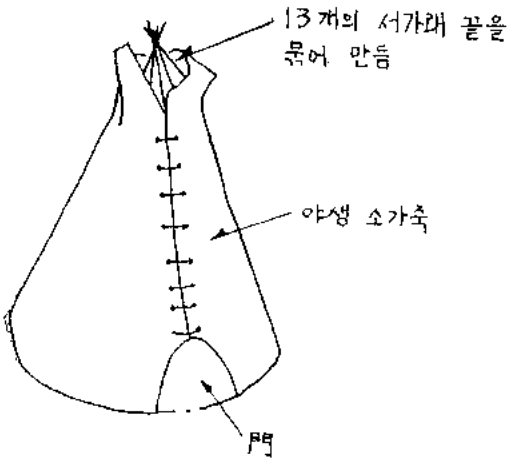
「충북 괴산군 청운면 괴실, 김치각」

아메리카 인디안의 천막과 김치각은 너무 흡사한 데가 많다. 우리나라의 각은 변소, 물레방아간, 헛간으로도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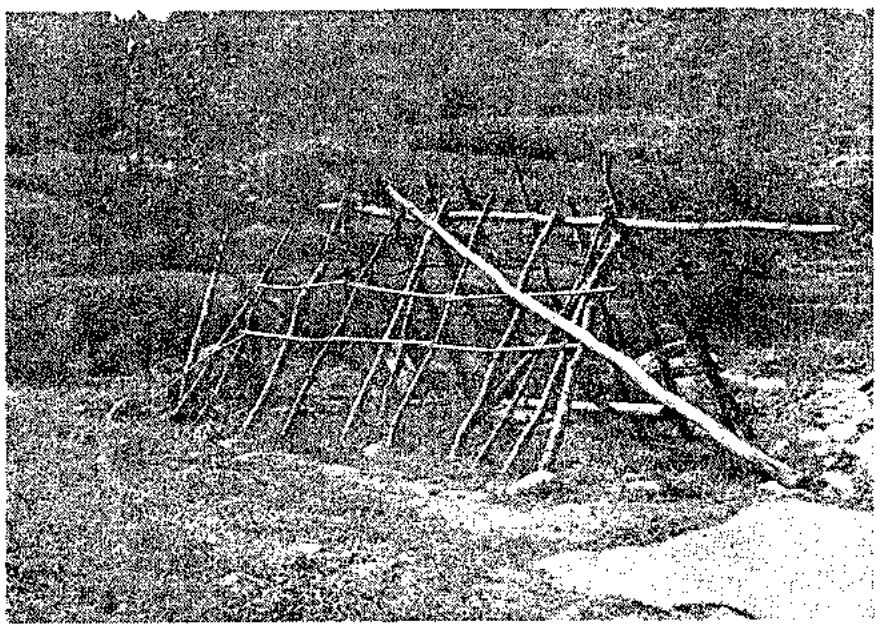
2. 新石器 시대

(1) 외기둥형 살림집

제주도 전설에 외기둥에 청기와집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일명 말코집이라고도 부르며 살림이 어렵거나 집이 불 났을 경우 등, 급박한 사정의 경우 임시 거처로서 이용되는 집이다. 이것은 집의 중앙에 백이기둥—기둥 밑둥을 땅에 파서 묻는 기둥—을 세우고 기둥머리가 쟁이의 사방에서 오는 서까래를 직접 받거나, 아니면 이 위에 일단 짧은 보를 걸쳐댄 다음 이 위에 서까래를 받거나 하는 구조이다. 이것은 표선면 수망리에서 살림집으로 이용하는 것을 봤고, 강원도에서 변소로 경상도 창원에서 창고로 이용하는 것을 봤다. 또한 고구려 麻線溝 1호무덤도 둥근 무늬무덤에 외기둥을 세운 것과 같은 모양이며




「아메리카 인디안의 야생소가죽 천막」



명주군 보광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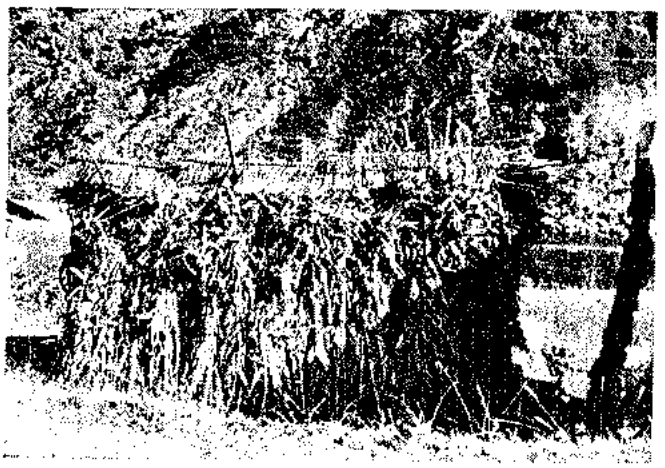
원추형 구조에 보를 걸쳐대어 공간을 보다 크게 쓰는 방법이다. 여물우리 왼쪽에는 입구가 있어 소여물을 썰어 저장한다.

공교롭게도 북유럽의 신석기시대 살림집의 모양도 바다를 배경으로 외기둥 집을 무덤 모양으로 짓고 있어서 흥미롭다. 중국 仰韶 유적지에서도 같은 모양이 보고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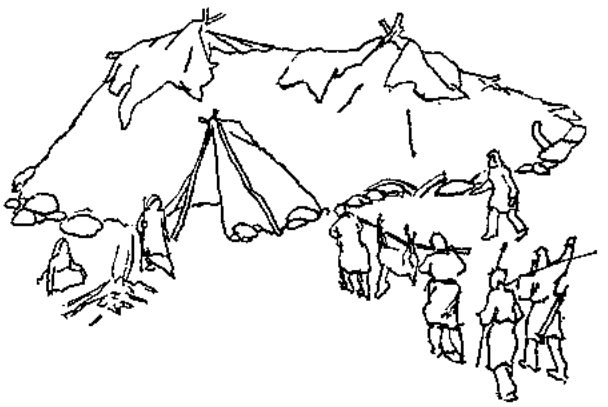
이것은 자연스러운 발전 형식으로, 원추형 주거의 크기를 늘렸을 경우 중앙 부분이 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가지를 쳐낸 산나무를 가운데 놓고 여기에 서까래를 걸쳐 대었을 것이다. 이것이 발전해서 산나무 대신 백이기둥을 이용하게 되고, 이것이 외기둥 집으로 정형화 되었다고 추측된다. 또한 이 외기둥은 종종 원추주거 또는 기타 주거가 오래되어 가로재가 처졌을 때 보강하는 세로 재로도 이용되었다. 이런 방법은 현재의 민가에서도 종종 이용되는 기법으로, 이것이 가끔 살림집을 복원할 때 정형화된 법식을 혼돈시키는 요소로 나타나기도 한다.

(2) 외다리형 살림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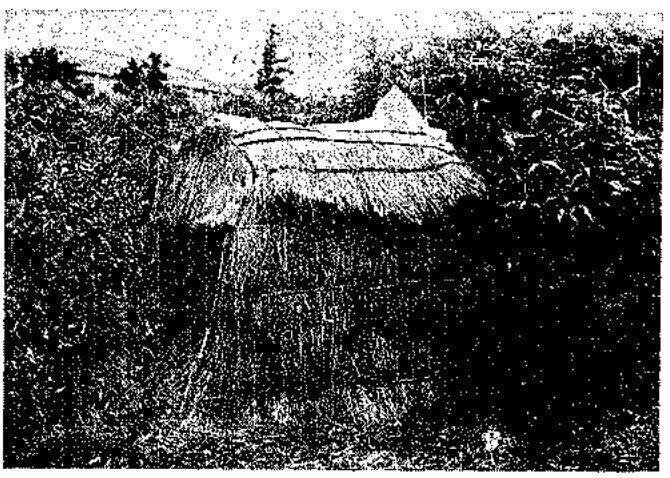
앞에서 말한 말대形 살림집과도 같은 모양이지만 앞에서는 말대를 받치고 있던 구조체가 삼발이인 반면에 이쪽은 외기둥이 되는 것이다. 즉 외기둥을 두개 세우고 그 머리 가쟁이에 말대를 걸치며 여기에 서까래들을 배열하고 있는 방식을 쓰는 것이다. 이것이 앞의 말대형 보다 지금 현재는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 예를 일일히 열거할 수는 없지만 충청, 강원 산간지역엔 잿간, 여물우리, 김치각 등의 부속시설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선사시대 집자리로는 交河里 제 1호 집을 들 수가 있다. 이것은 青銅期時代 유적지라고 추측 되는 것이지만, 중앙에 한줄로 4개의 기둥 구멍이 있고 네벽을 돌아 가면서 기둥 구멍이 있어서 규모만 클 뿐 그 구조 짜임새의 법식(法式)은 말대형 살림집의 한 유형일 뿐이다.



「정선군 여량리 여물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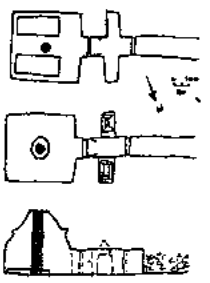


「구석기인의 텐트 복원도(유럽)」
말대형 가옥이 몇개 합치면 이러한 모양이 될 것이다.



「제주도 중문리 이남로씨댁 경리시설」
말대형 집의 다른 모양이라 보여진다.

「제주도 표선면 수망리 외기둥집 내부」
외기둥집이 현존하고 있는 유일한 예이다



麻線溝 1號무덤의 외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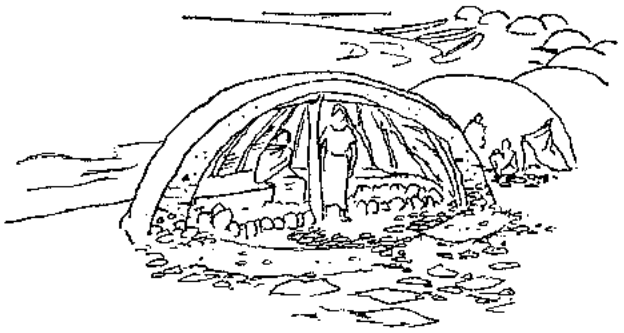
여기서 와다리形—백이기둥을 한줄로 세운 모양— 기둥에 말대를 걸쳐대는 기법은 살림집에 있어서 혁명적인 공간의 확대를 가져 왔으리라 믿어진다. 왜냐 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반복해 나간다면 交河里 1호 집자리처럼 3.2M×9.5M라는 커다란 집을 만들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다음에서 말하는 쌍다리形으로 금방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그 축조 방식을 달리하는 말대 모양과 외기둥형이 보다 발전적으로 합쳐져서 발생된 것이라 생각되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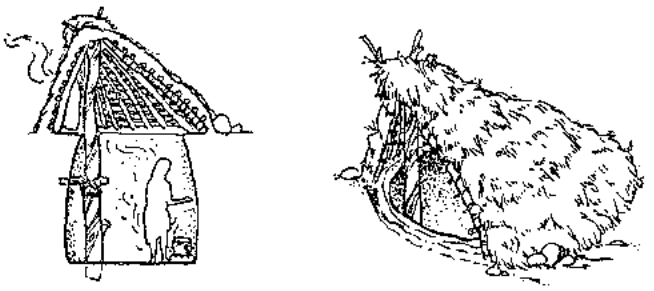
(3) 몽고포모양 살림집

우리나라에서 나락을 저장하는 시설로는 토광과 두지의 두 종류가 있다. 토광은 대개 집의 일부로서 붙어 있는 것이고 두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두지는 다시 몇 가지로 나뉘는데 실내에 놓이는 것과 부속건물로서 실외에 놓이는 커다란 것이 있다. 이것과 유사하게 임시저장 시설로서는 벼우리라는 것이 있는데, 충청, 경기지방에서는 네모꼴이고 전라, 경북지방에서는 둥근 모양이다. 경북에서는 이것을 상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주에서 보는 이러한 모양은 짚 저장시설로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수 있는 것이지만 내부공간을 갖는 뜻에서 전혀 다른 것이다. 晋陽郡에서 보는 두지는 대로 엮은 것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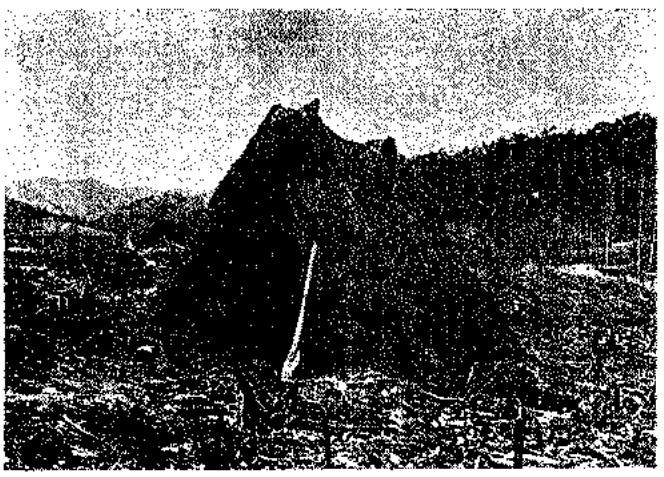
「제주도 표선면 수망리 외기둥집 외부」



북유럽에 있어서 신석기시대 살림집



中國 鄭韶文化유적지 가옥 복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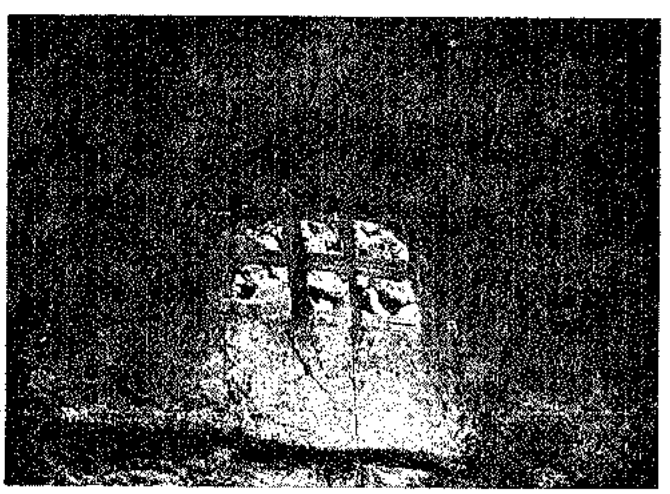


「침성군 정암리 잿간」
위의 그림은 외기둥집이고 아래는 쌍기둥집 이지만 무엇인가 유사한 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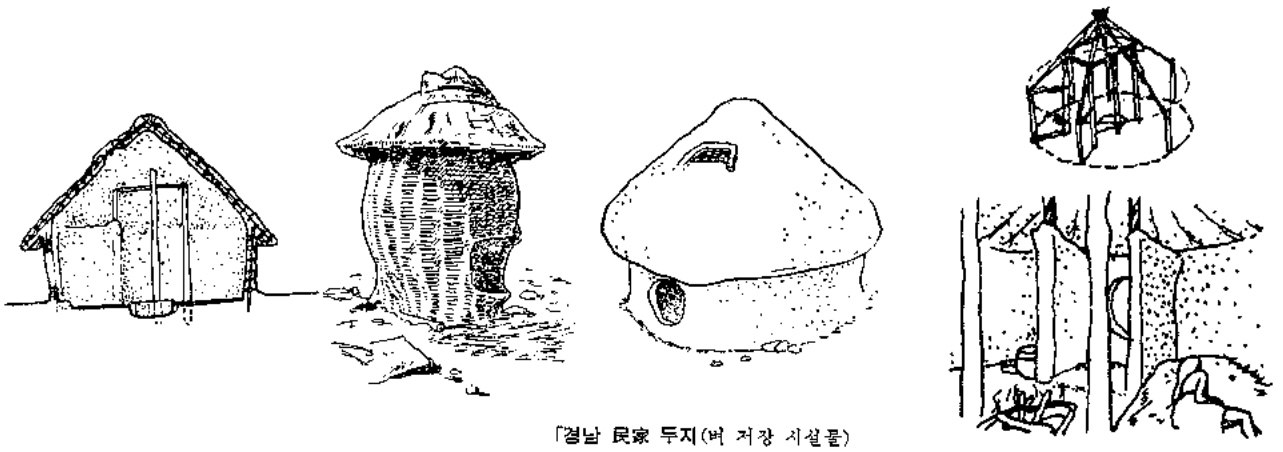
「영주군 부석면 소천리 두지(장석)」
둥근 모양의 살림집은 위의 소천리두지(우리나라 더수 분포)와 같고 거기에 난 창은 시골에서 많이 보는 봉창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벽의 모양은 첨성대와 같은 曲을 가진 둥근 것이고, 이 위에 이영으로 둥근 지붕을 만들어 씌웠다. 이것은 先史시대 살림집이 몽고포 모양의 형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원추형 주거에 있어서 사람이 집단으로 살게되면 굵은 나무를 주변에서 구하기가 힘들게 되고 따라서 작은 나무를 많이 써서 꾸미고 이 위에 진새(진흙+여물)를 지붕재로서 덮는다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걀을 반쪽 쪼개어 엎어논 것과 같은 투구 모양이 될 것이다. 이것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더욱 큰 간사이를 요구하게 되고 때문에 서까래 부재를 하나로 쓸 수 없게 되어 중간에서 잇게 될 경우에 밑부재는 경사로 놓여져서 지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더욱 발달하게 되면 사진에서 보는 영주 두지(장석) 처럼 빗물이 벽체를 타고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마를 약간 내밀게 된다. (이것은 시대가 많이 떨어진 청동기 시대쯤일 것으로 상상한다) 이런 몽고포 모양의 살림집의 벽구조는 지금도 시골의 벽체 꾸밈새에서 시사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싸리 또는 대나무 종류를 몇개씩 묶어서 광주리를 만들듯 듬성듬성 짜거나 묶고 여기에 양면으로 흙을 친 것이라 생각된다. 이때 연기 빠지는 구멍은 있어야 될 것이므로 명주군의 까치 구멍처럼 지붕에 구멍을 내되 그 모양은 제주의 봉창처럼 생긴 것이리라 추측된다. 이때의 출입구는 진평군 두지에서 시사받은 바와 같이 몹시 높은 직경 1.2~1.5M 정도의 둥근 모양에 가까운 네모였으리라 추측되며 그 앞에는 제주 하도리에서 볼 수 있었던 지게문을 달아 매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우리나라 유적지로는 弓山里 2



「제주도 고성리 정태입씨댁 봉창」



「경남 民家 두지(벼 저장 시설물)

「제주 하도리 지게문」
원시 형태의 출입문 가운데 하나

평주군 보광리 최태준씨 댁
연기가 빠질수 있는 까치구멍 내부의 架構가 일본의 것과 같다.

호, 3호(처마가 있는 모양) 智塔里 3호 집자리가 몽고포형으로 보고 되었다. 용인 민속촌에 복원돼있는 연자방아간도 바로 처마 있는 몽고포의 일종이며,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에 이와 같은 연자 방아간이 존재했었다고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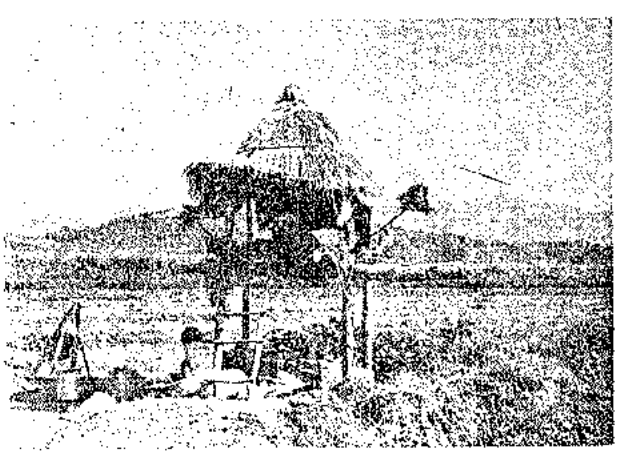
(4) 쌍다리모양 살림집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 걸쳐서 분포하는 원두막은 그 구조상에 있어 흥미스러운 점을 많이 던져 준다. 먼저는 기둥을 깊숙히 묻는다는 점과 모든 부재의 맞춤을 구멍을 파거나 장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끈(새끼)으로 묶어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두막은 Hidatsa의 인디안 집과 비교할 때 지붕재료와 바닥 높이가 다를 뿐 구조상 유사한 점이 많다. 즉 4개의 기둥을 땅에 묻어서 세우고 기둥머리 가쟁이에 도리를 사방으로 돌려대고 그 위에 추녀를 세우며 여기에 의지해서 서까래를 걸친다. 여기서 흥미로는 것은 서까래 끝을 모두 한곳에 모이게 하면 끝이 빠지니까, 추녀와 추녀 사이에(꼭지점과 세모꼴이 되게) 지르메걸이라고 하는 것을 도리 방향으로 걸치고 여기에 서까래를 걸친다는 점이다. 중국 仰韶 문화 유적지의 복원도를 보면 모든 부재가 지붕꼭지 위로 솟아 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지는 구조상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고 추녀 부재만 솟아나오게 해서 묶고 부재는 지르메걸이에 걸쳤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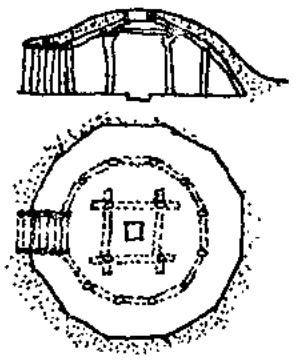
쌍다리 모양이 발전되면 몇 칸까지를 옆으로 늘릴 수 있으며, 지금 현재의 맞걸이 3梁 배집(시골에서 헛간으로 많이 존재한다)도 이런 종류에서 지붕만 땅에서 떨어져 있을 뿐 별로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5) 모임지붕인 살림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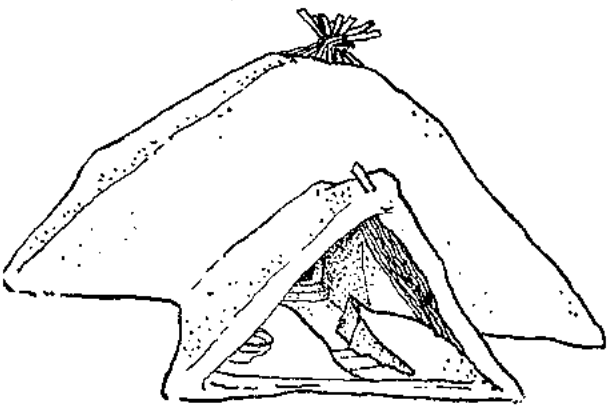
제주도 주택에 生起 기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三間집 중앙에 세워진 백이기둥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모양은 앞의 쌍다리모양의 중앙에 외다리모양의 구조체를 합친것으로서 비록 지붕이 지상으로 돌출되었느냐 하는 문제만 다를뿐 모두 先史時代 모임지붕과 같은 유형의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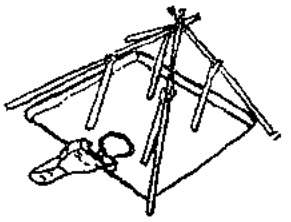


「원 두 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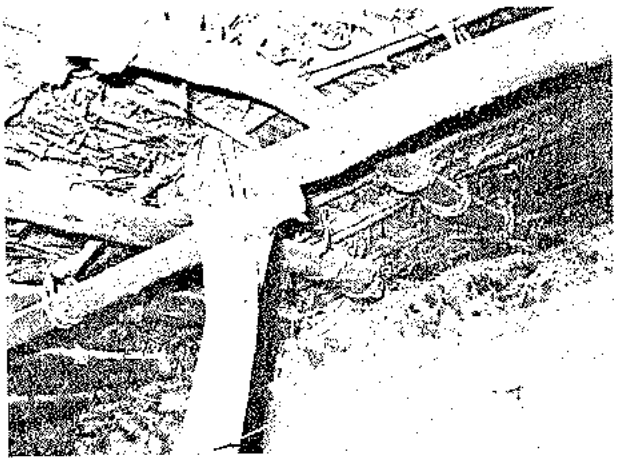


「Hidatsa 인디안의 長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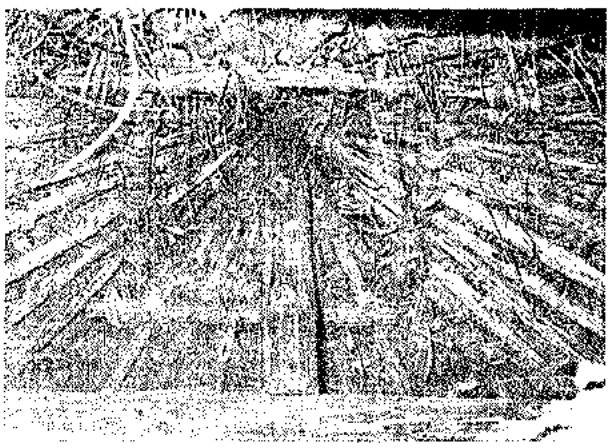




「五洞 第5號 상상 복원도」



「괴산군 청안면 괴실에서」
쌍다리 형에서는 수년가 반생하지만 아직 지붕이 지상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그것의 기둥 모양은 아래 사진과 같은 것이다.



지르메질이
모임지붕의 구조에는 지르메질이가 있어야 지붕구조가 해결된다.

또한 日本 지방의 수혈 집자리 구조 주체에서도 무엇인가 시사 받는 바가 있다. 이것은 쌍다리형形 4기둥에다 삼발이 말대形 구조체를 결합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체의 결합 방식은 비록 지붕이 지상에서 떨어지긴 하지만 강원도 동해안 살림집에서도 그 유사한 형태가 발견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있다.

3. 青銅器時代

(1) 귀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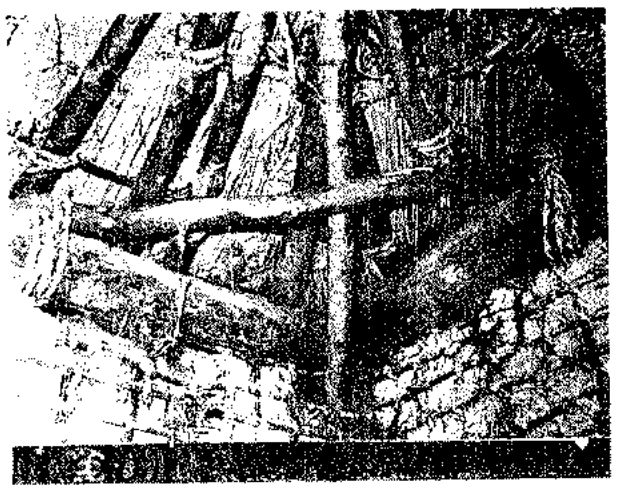
강원도 화전민의 귀틀 집은 벽체만을 가로나무로 짜맞춰가는 것이 아니고, 지붕도 수평으로 서까래를 걸치며 그 위에 진새를 치고 솔나무 가지를 얹어서 지붕의 물매를 잡고 있다. 이것으로 미뤄 볼 때 원래의 귀틀집은 평지붕이었으리라 믿어진다. 이러한 예는 만주 지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귀틀집이 압록강 주변에서부터 태백산맥을 따라 산간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만주의 평지붕과 연결 지을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움집 생활은 사람에게 대단한 불편을 주었을 것이다. 겨울의 한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여름의 습기와 환기의 불충분함은 지상주거를 절실하게 요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상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에 견딜수 있는 구조를 열망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사용하던 가구식 구조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고, 다만 새로운 금속 도구의 사용으로 많이 얻을수 있었던 통나무를 가로로 잇대놓는 구조인 귀틀집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지붕을 가구식으로 이 위에 얹을수는 없었으므로 평지붕 위에 깐 진새에 약간의 물매를 둠으로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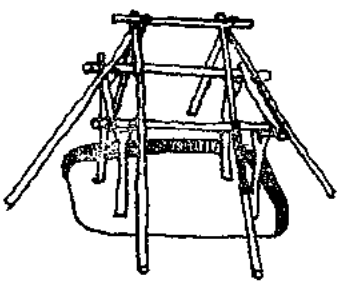
귀틀집과 비슷한 유형이라고 사료되는 집자리로는 五洞 제6호와 新興里 제2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 지상 살림집의 발생

충북, 강원 산간지역에서는 대공(조치미)— 이곳에서는 이렇게 부른다—을 땅에서 조작하여 바로 조립하지를 못하고, 반드시 목수는 보를 걸친 다음 그 위에 걸터 앉아서 끌로 보에 구멍을 파고 조치미를 깎아서 끼우면서 마루대(종도리)의 수평을 맞춘다고 한다. 이렇게 조치미의 가공은 어려웠고 지붕을 일매지게 한다는 것도 힘들었다. 더구나 조치미는 橫力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에 구멍을 뚫고 집어 넣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건축에 관한 전문 도구, 특히 날카로운 금속의 도구가 요구되었



八字木(제주에서는 산방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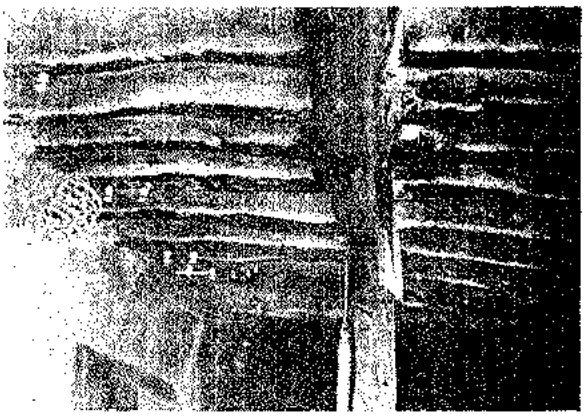
日本지방의 수철집자리 構造主體

고 이것을 가능케한 것은 청동 또는 철기의 발견이었다. 이렇게 생활상의 요구가 생산상 기술상으로 해결 되었을 때 조치미는 발생되었고, 서까래가 직접 땅에 닿지 않더라도 지붕이 바람에 날라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벽체는 나무를 가로로 놓는 귀틀집 형식이었거나 아직도 가구식과 겸용으로 기둥과의 사이에 가로재를 놓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가구식으로는 횡력에 견디는 힘이 부족했을 것이고, 움집벽에 짧은 기둥을 세우는 벽이 발생하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지붕이 지상으로 노출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3) 가구식 맞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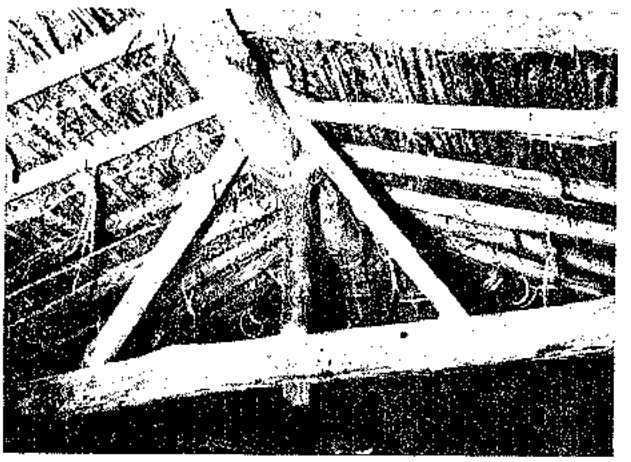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아직 볼 수 있는 맞배집(주)은 가구(架構)식 지상 주거로서는 가장 최초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 맞배집이란 말은 맞걸이 3梁배집이란 말로서, 반자가 없이 배처럼 천정이 노출된 세마루집을 뜻하는 말이다. 평천정이 있는 경우는 맞걸이 3량 또는 줄여서 맞걸이집이라 부른다) 이것은 외기둥형인 가구식 구조에 일체식(몽고포) 삿갓형의 벽체가 이용되므로서 횡력(構力)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지붕은 귀틀집에 가구식 지붕틀이 올라가는 똑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움집에서 처럼 모임지붕 형식은 아니었을 것이고, 귀틀집의 지붕처럼 박공지붕 형태였을 것이다. 왜



소쇄翁 鶴龍面 중장리 甲촉洞 民家의 서까래

오대산 화전민 귀틀집

냐하면 모임지붕이 지상에서부터 떨어질려고 하면 다음 절에서 설명할려고 하는 八字木(여덟 8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충북지방) 또는 산방낭(신방나무 — 제주지방)의 출현이 있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하나마 架構에 의한 지상주택의 발생은 청동으로 만든 예리한 건축도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였다. 왜냐하면 架構식으로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일부 부재의 맞춤을 구멍을 파고 장부를 내서 끼우는 방법을 택해야 하고, 벽체에는 몽고포형 벽체(현재의 벽과 같음)를 기둥 사이에 끼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맞배집의 모양은 仰韶 유적지의 복원도와 같을 것이고, 부엌의 환기를 위하여 박공벽에 구멍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박공벽 구멍에 비가 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박공 처마가 더욱 길게 나왔을 것이고, 아직 사람들은 지면과 같은 높이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한상 문턱은 더욱 높았을 것이다. 또한 확충되는 부엌의 경리 시설물들을 저장하기 위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인 부설지붕을 덧달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실지 사진에서 보는 섶지붕 안에는 나무를 저장하는 나무간으로 쓰여지고 있다)



「충북 괴산의 조치미와 소슬대공」

(4) 사모高床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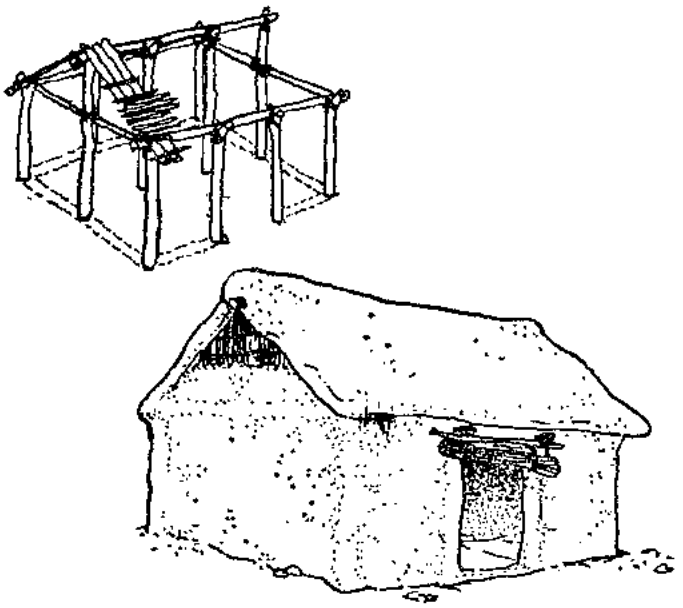
움집은 겨울 동안의 한기를 막는 데에는 편리하지만, 여름 동안에는 습기로 몹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사실상 불씨를 보존하는 역할 밖에는 별로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상주거를 발명할 때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계절에 따라 고상주거를 이용했을 것이다. 이것은 晋書 肅慎氏條에 「頁則巢居冬則穴處……」라고 한 것을 봐도 알 수 있고, 삼국시기 家形土器에도 高床住居가 있는 것으로 봐서 짐작할 수 있다. 후자는 전면을 맞배집으로 하고 후면을 모임지붕으로 하였는데, 모임지붕은 비바람을 막기가 쉬웠을테니까 비바람이 많은 쪽을 향하고 맞배지붕은 환기를 위하여 전면을 개방했을 것이다.

이때 모임지붕의 구조는 원두막에서 보는 八字木의 존재가 없으면 구조상 불가능 했으므로 지붕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진 형태에서 모임지붕이란 맞배지붕보다 늦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八字木이란 귀기둥 머리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도리 위에 세모꼴로 올려 놓는 것으로 그 세모꼴 사이에 추녀를 끼워 넣으면 추녀 끝에 가둥이 오지 않아도 지붕의 이영을 받을 수 있는 역활을 하는 것이다.

(5) 모임지붕과 합각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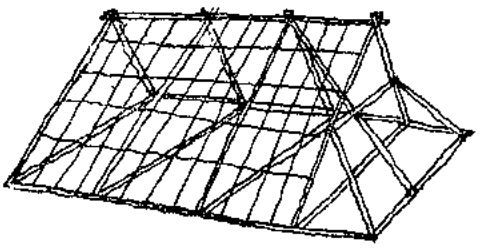
이렇게 八字木이 발명되자 전에는 생기기둥형에서 추녀가 지상에 닿아야만 가능하던 모임지붕의 추녀가 지상에서 떨어져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집은 생기기둥이 둘이 있는 전면 3間, 측면, 2間 모임지붕이 될 것이다. 평면의 간살이는 현재 경북지방과 제주지역에서 많이 보는 형태로서 중앙 칸은 봉당이었을 것이고 한쪽은 앞으로 부엌과 뒤로 방을 놓고 다른 쪽은 앞으로 외양간과 뒤로 고방을 배열했을 것이다. 이러한 추리는 신라시기 가형토기 기와 이은 모양에서 중앙에 대문 같은 판장문이 있고 다른쪽에 살창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짐작할 수 있다.

합각지붕은 태백산맥을 따라 내려오는 지역 가운데서도 특히 동해안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앞에서 설명한



「仰韶文化 유적지 복원도」

「공주의 살림집 : 맞배집」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架構式 방법에 의한 地上 살림집이 생겼다고 추측된다.



日本 民家의 지붕 구조
동해안 양동집의 지붕 구조와 동일하다

(합) 각형이 지상 지붕으로 돌출하는 구조이다. 이것은 귀틀 집에서 발명된 맞걸이(세마루) 구조를 이용해서 용마루를 걸고 용마루 중간쯤에 추녀의 끝을 45°로 건 다음 용마루 끝에서 직각으로 추녀에 서까래를 얹는다 이 서까래와 추녀가 만나는 점인 추녀 위에 지르메걸이를 놓고

여기서 생기는 세모꼴 모양을 환기구멍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합각지붕에서는 환기구멍이 생기는 한쪽 칸이 부엌이 되고, 중앙 칸은 앞쪽에 봉당이 뒤쪽에 외양간이 놓인다.

다른 한쪽에는 앞쪽에 살림방이 뒤쪽에 고방이 배열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되는 강원도 6間집과 제주도 2間외양을 연결시켜 복원해본 것이다.)

어떻든 모임지붕과 합각지붕이 맞배지붕 대신 발생하는 이유는 맞배집이 비바람에 측면이 노출되기 때문이며, 모임지붕은 환기가 나쁘기 때문에 합각지붕으로 발전해 간 것으로 믿어진다.

## 다. 결 론

살림집이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최초의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富의 축척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富를 축척할 수 있는 生産力의 확대가 바로 살림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활상의 욕구가 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도구의 발명(생산기술의 발전)으로 만족시킬수가 있었다.

사람이 처음으로 자연 주거를 떠나서 人工으로 만든 살림집이 가능한 것은 끈의 발명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은 끈에 의한 활의 발명으로 생산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끈으로 나무를 묶음으로서 처음으로 부재의 맞춤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살림집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손도끼에 자루를 묶어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인 것으로, 이때부터 비로서 ϕ200~300㎜ 나무를 채취할 수가 있었고 이것을 이용한 인간의 生産力으로서의 살림집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다음은 青銅器의 발명으로 나무의 다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통나무 집인 귀틀집을 지을 수가 있었으며, 전문적인 건축 도구의 발생으로 나무의 섬세한 세공이 가능해져서 맞춤을 가능케 했다. 따라서 架構式에 의한 지상 살림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사회의 生産力과 살림집의 발전과의 관계는 밀접한 것이며, 생산력이 확연히 달라지는 時代가 변화하면 살림집의 형태도 달라짐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살림집 자체의 발전은 어떠한 과정을 거칠 것인가를 요약해 보자.

**각 시대에 따른 살림집의 변화**

| 시대구분 | 생활욕구 | 건축도구 | 건·축 구조 |
|---|---|---|---|
| 1. 구석기시대 | 불의 보존을 위한 이동 살림집 | 끈의 발명 | 최초의 人工 살림집 가능 |
| 2. 신석기시대 | 장구한 세월을 견디며, 곡물을 보존할 수 있는 살림집 | 자루가 달린 도끼 발명 → ϕ 200㎜~300㎜ 나무 채취 가능 | 사람의 생산물로서 살림집이 발생 |
| 3. 청동기시대 | 지상주거의 필요 | 전문적 날카로운 건축도구의 발명 → 나무의 다량 생산이 가능하다. | 통나무집의 발명→벽의 발생. 나무의 세공이 가능해져서 架構式 방법에 의한 지상주거가 발생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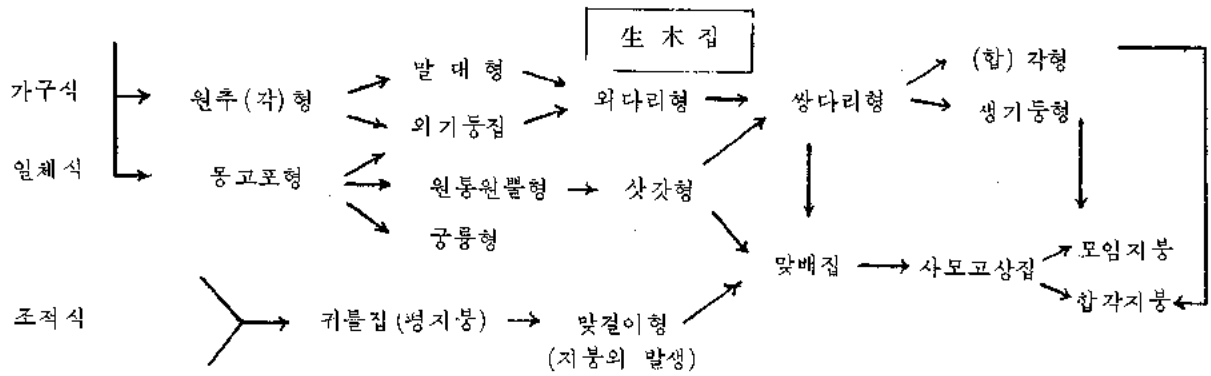
사람은 인간의 단계 이전부터 도구를 발명하여 인간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동안까지 장구한 세월을 자연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때 불의 발명은 인간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불씨를 보존해야 하는 둥지라는 의미에서 살림집의 발생이란 절대적인 것이었다.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끈의 발명으로 자연적으로 나 있는 작은 나무가지 끝을 묶고 그 위에 큰 나무 잎이나 동물의 가죽을 덮어서 최초로 사람의 손에 의한 집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집이 발전하여 사람의 생산물에 의한 건축 부재로 살림집을 지을 수 있었을 때 집의 형태는 분화하여 하나는 큰 부재를 몇 개 이용해서 만드는 원추형(각형)이 되고 다른 하나는 작은 부재를 여러개를 써서 투구 모양을 만드는 봉고포형이 된다. 이것이 앞의 각형은 가구식으로, 뒤의 봉고포형은 일체식으로, 전혀 다른방식으로 발전을 한다.

먼저 봉고포형 발전 과정을 보면, 이것은 투구형에서 원통원뿔형으로, 다시 삿갓형으로 발전해 가며 한편으로 궁륭형으로도 변화한다. 이때 그 모양만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니고 내부는 그 간사이가 몹시 넓어진다. 이것은 가구식의 외다리나 쌍다리가 대담하게 그 내부로 도입되어 성립되고 있다.

다음은 각형으로 이것은 다시 분화해서 말대형과 외기둥형이 된다. 말대형은 공간을 크게 쓰기 위해서 각을 두개 양쪽으로 세우고 그 위에 말대를 걸쳐서 만드는 것이며, 외기둥형은 직경이 커진 각형 집안에 기둥을 세워서 만드는 것이다. 이것들은 다시 그 발전과정에서 합쳐져서 외다리형이 된다. 외다리형은 외기둥이 둘 서고 그 위에 말대를 걸쳐서 이루어지는 집을 말한다. 이것은 다시 일체식의 궁륭형과 관계해서 외다리가 두 줄로 서는 쌍다리형으로 발전해 간다. 여기에 다시 말대형이 결합되어 합각형이 되고, 외기둥이 결합되어 생기기둥형으로 분화해가는데 아직까지 지붕이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일체형과의 교섭으로 원시적인 벽체는 발생한다.

한편 청동기의 발명에 의한 사회의 커다란 변화로 가구식과 일체식이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인 평지붕 귀틀집이 발생한다. 이것에 가구식인 외다리형 지붕이 얹어져서 최초로 맞걸이형인지상으로부터 떨어지는 지붕이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일전해서 가구식 기둥에 일체식




(몽고포형) 벽체에 맞걸이형 지붕이 올라가서 맞배집이 발생한다. 이 집은 측면이 비바람에 약했으므로 八字木의 발명으로 사모 고상집이 발생하고, 이것은 움집의 생기기둥과 관계하여 모임지붕을 발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움집의 합각형과 간섭해서 합각지붕으로 발전해 간다. 이때는 벌써 전면 3間, 측면 2間인 6間집이 발생했다고 믿어지며, 이것이 현재의 하층민의 주택과 유사한 형태인 고대양식으로 발전해 갔으리라 믿어진다. 또한 이때부터 살림집은, 사회의 계층 분화에 의한 영향 때문에 二重구조를 갖는 형태로 나타났으리라 믿어진다. 즉 일부분은 모임지붕이나 합각 지붕에서 살았겠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움집에서 사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살펴 볼 때 先史時代 살림집의 발전과정은 작용, 반작용 그리고 발전, 다음에 다시 분화하고 이것이 서로 관계해서 다음 단계로 발전해가는 법칙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의 발전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발전하며, 사회가 계층 분화를 일으키자 살림집도 二重구조를 갖게 되고 그 이후 2重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끝으로 여기 쓴 글은 민속학적 자료를 중심으로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에 깔고 하나의 가설로서 쓴 것으로 앞으로 고고학의 발전에 따라 많이 수정되리라고 믿어진다. 다만 건축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건축의 원초적 구조 형태는 어떠 했을까 하는 데에 대한 필자나름대로의 의문을 풀어 본 데 불과하다. 많은 선배 제현의 가르침을 기다린다.

## 先史시대 집 자 리

| 時代 | 遺蹟 | 別 자리 | 形態 | 平面 | 크기 面積 | 爐址施設 | 기둥구멍 | 形態 |
|---|---|---|---|---|---|---|---|---|
| 新石器時代 | 弓山 | 제1호 | 움 집 | 불규칙적 円 形 | 직 경 5.6~5.8M | 둘둘린 楕円形 | 竪穴바닥주변을 돌아가며 안으로 경사진21개 구멍 | 円錐形(각형) |
| | | 제2호 | | 円 形 | | 진흙둘린 方形 | 垂直으로 뭄 7+x | 蒙古包式 住居 |
| | | 제3호 | 반움집 | 불규칙적 円 形 | 직 경 5.2~5.5M | 자연석으로둘린 円形 | 垂直구멍 20개<br>傾斜구멍 8개 | 蒙古包形 지붕은 삿갓같은 円錐形 또는 궁륭형 |
| | 智塔里 | 제2호 | 움 집 | 불규칙적 円 形 | 직 경 64M | 둘둘린 楕円形 | 垂直구멍 5+x | |
| | | 제3호 | 반움집 | 세모가 둥근 半円形 | 직 경 3.5M | | 垂直구멍<br>傾斜구멍 26개 | 蒙古包形 |
| 青銅器時代 | 公貴里 | 제4호 | 〃 | 方 形 | 6×6M | 밑에 板石을 깔고 주위에 돌을 둘러싼 로지 | 垂直구멍 7개<br>(한변은 제외) | 집자리안에 불에 타서 숯으로 된 기둥또는 서까래 |
| | | 제5호 | 〃 | 長方形 | 5.7×6.7M | | 垂直구멍 18개<br>크기 φ 15~30<br>깊이 17~5 cm | |
| | 玉石里 | | 움 집 | 〃 | 15.7×3.7M | | 네벽면밑에 φ 1~15 백백이 둘러졌다. | 궁륭형 |
| | 交河里五洞 | 제1호 | 반움집 | 長方形 | 9.5×2.2M | 시설없음 | 네벽을 돌아가면서 기둥구멍집자리중앙 한줄로 4개의 기둥 | 외다리형 |
| | | 제5호 | 움 집 | 方 形 | 5.2×4.5M | 진흙대불탄자리 | 네줄로 배치 벽위쪽 어깨로 기둥구멍 (서까래 구멍인듯) | 쌍다리形(원시적 벽발생) |
| | | 제8호 | 반움집 | 長方形 | 8.4×6.5M | | 가장자리로 총총히 기둥구멍 가운데 두줄로 기둥구멍 | 쌍다리形(일체식) |
| 鉄期時代初期 | 新興里五五洞 | 제2호 | 지상 건물 | 〃 | 4×13M | | 불에 타다 남은 기둥 그루 판자벽 흔적 | 가구식 귀틀집 |
| | | 제6호 | | 〃 | 52m²<br>9.6×5.4M | 너비 100cm의 흙과 돌로 쌓아올린것 | 기둥구멍 없다 | 귀틀집 |

明知大講師 金星綜合設計会社代表

# 生活慢筆

尹 太 鉉

사람은 누구나 그 나름대로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다. 얼굴이 닮은 데는 혹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 "아무게 말이지"하면 우선 얼굴 생김새가 어떻는가 더듬는다. 다음이 무엇을 하던가고, 職業을 찾는다. 이름과 얼굴, 그리고 職業은 우리 平生을 지긋지긋 따라 다닌다.

얼굴은 그 사람의 看板구실을 한다. "人相이 좋다"하면 "人相이 나쁘다"보다 우선 한点 따고 있는 셈이다. 이름이나 職業은 경우에 따라 바꿀수도 있다. 그러나 얼굴은 그리 쉽지않다. 사기꾼 전과자로 낙인찍힌 얼굴은 어디 어느때 그 얼굴이 탈바꿈하기 어렵다. 사람의 感情은 얼굴에 먼저 나타나게 되어있다. 없을때와 있을때, 기쁠때와 슬플때, 화났을때, 즐거울때, 얼굴 表情으로 알수있다. 없어도 있는척, 슬퍼도 기쁜척 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 척을 잘하면은 一流 俳優가 된다.

없어서 우는 상을 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同情을 強要하는것 같아 醜해 보인다. 있어도 우는 상을 하는 것은 실속있을런지 모르나 엄살을 떠는 꼴이 本是 醜해 보인다. 있으나 없으나 左右間 우는相은 醜해보이니 하지 않는것이 좋겠다. "一笑一少, 一怒一老"라 하였다. "웃는 낯에 침뱉으랴"라고도 하였다. 우는 상, 찌푸린 상은 재복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한다고 볼수 있다. 그렇다고 억지로 웃는 상만 가지고 다니라고 할수는 없다. "울어야 젖주지"라는 말도 있으니 아프거나 배가 고파 우는 것이 어린이와, 슬퍼서 운다는 것은 좀 어른스런데가 있다. 어린이 낯은 밝고 귀엽다. 그만큼 世上風波를 모르고 純眞한 까닭이다. 物価가 오르거나 稅金하고는 関心없는 얼굴이다. 看護員이 明朗하고 웃는 낯으로 患者를 対할때 患者는 고맙고 따듯한 情을 느낀다. 아프고 피로와 우는낯을 하다가도 護看員의 상냥한 웃음으로 낯빛이 풀어진다. 집안에서, 거리에서, 車안에서 우리 周囲의 모든것이 나를 為해 살고 있다고 想像해 보자. 그래도 우는 상, 찌푸린 상으로 다니는 自身이 부끄럽지 않는가. 그렇다고 억지로 웃는 상을 만들어 가질수는 없다. 다만 나보다 더 슬픈 사람,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 다 나때문에 나를 為하여 살고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웃는 얼굴이 내 주위에 가득차고 내 얼굴이 늘 웃는 얼굴이 되었을때 어찌 是非가 있겠는가. 살기 싫다고 누가 말하겠는가. 얼굴이 더럽다고 씻기전에 마음의 때부터 씻어보자. 看護員에게 案內孃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해보자. 길에서 서로가 고맙다는 인사를 얼굴에 가져보자. 찌푸린 얼굴이 웃는 얼굴로 變했을때 地上의 樂園에서 幸福한 生活을 하고있는 人間을 볼것이다.

○ 寄 生 虫

악어 입속의 寄生虫을 새가와서 쪼아먹는다. 악어의 虫齒를 고쳐주고 새는 새대로 재미본다. 소매치기에게 上納받는 警官이 있다고 한다. 이는 寄生虫의 寄生虫이라고 할까. 娼婦周迎辺 의 깡패나 포주, 権力에 매달려 서식하는 政商輩社会의 寄生虫은 곳곳에 있다. 사람의 몸속에 寄生虫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살났어도 別수없이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寄生虫은 独立하여 살수는 없다. 어느 母体에 붙어서만이 살수있다. 따라서 母体의 힘이 딸려 쓰러질 때까지 가 그 寿命이다. 좋게 말해서 身同体라 하겠다. 運命을 같이 한다고 할까. 피를 팔아 받은 돈을 가로챈 놈이 있다. 寄生虫도 利로운게 몇% 있다지만 이는 全혀 害虫이다. 도둑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한다. 웃어볼 일이다.

몇十億 国有地를 꿀꺽 삼기고 꺼떡없이 산다고한다. 그러면서 密輸犯은 어떻니, 도박은 어떻니 떠들어 댄다. 모두가 寄生虫이다. 크고 작고가 다를 뿐이다.

母体를 살려 놓고 自己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寄生虫은 모르고 있다. 갈겨 먹고 뜯어 먹다가 母体가 쓰러지면 自身도 끝장이다. 寄生虫 노릇을 할 바에야 義警좀 지켜 害롭지 않는데 그렇지 못하다. 스타—린의 理護員들은 돈모르는 스타—린을 팔고 돼지같이 살쪄 살았다고 한다.

権力에 아부하고 돈에 굽히며 살아가는 人間이 점점 늘어간다. 農藥이나 法으로 寄生虫을 없에는 수는 있다. 그러나 藥의 過用으로 害虫아닌 良虫이 다치게 된다. 논에 개구리 거미가 없어져 간다. 藥없이 農事를 잘하던 때가 부럽다. 害虫을 利虫으로 바꾸는 方法이 없겠는가. 몸에 붙어 사는 寄生虫은 그런데로 共存하고 있다. 허나 마음의 寄生虫도 共存하고 있으니 탈이다. 어린이가 어버이 덕으로 사는 것은 事実이다. 그러나 어느程度가 問題다. 平生을 ○○을 依持해야 산다는것, ○○때문에 不幸하다는것, ○○이 있어야 산다는것 등등, ○○은 自己 以外의 存在다. 自己없는 世上이 있는가.

○. 流 行 病

요즘 선 그라스가 流行이다. 마치 얼굴이 안경인지 안경이 얼굴인지 잘 분간하기 어렵다. 저 작은 코에 어떻게 안경이 얹처있는지 자세히 보게 된다. 누가 어떤 意味에

서 始作됐는지, 아마 自己를 좀더 봐 달라는 女性의 心理作用을 十分 活用한 아이디어맨의 着想인지 세삼 경의를 갖는다. 허나, 저 크기, 저 보틈이 눈에 거슬린다. 美的觀念에서 볼때도 問題가 있다. 아무리 좋고 예뻐도 보는 사람만 不安하고 어색하면 美学点을 그리 줄수없다. 더욱이 저 무게를 몇 時間 견딜까, 同情마저 간다. 그런데 더 큰것이면 좋은데……" 찾는다. 자꾸 커지면 어찌될까. 好奇心 걱정이 생긴다. 봐주는 것도 程度다. 보는 立場을 좀 생각해 주는 아량이 流行에 있었으면 오죽 고마운가.

왠 아가씨가 거리가 좁다하고 걸어간다. 늘씬한 키, 청바지에 난방샤스, 따라가 車를 타고 자세히 보니 콧수염을 길렀다. 女子도 콧수염이 나던가, 혹시 내 머리가 돈 것이 아닌가.

"머리가 긴 것이 女子요, 짧은 것이 男子다"

라는 定義가 웃음거리로 되었다. 理髮할적마다 이 머리를 자를까 기를까 망서리게 된다. 남들이 기르니 나도 길러야 할텐데, 이 나의 숫적은 머리는 도통 마땅치 않다. 대머리에다 솜털같은 머리가 길어봐야 길을수록 꼴不見이다. "손님 요세 流行인데……"어쩌구 하는 바람에 울상을 하면서 그냥 가를수 밖에 없다. 이 流行바람에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인가. 말도 않된다. 그냥 박박 깎아 버리고 싶다. 잘하면 이것이 流行이 될지……

流行病은 집에까지 들어왔다. 建築家는 집을 設計해 주는 것이 本業인데 거꾸로 집장사가 設計를 해오면 그냥 許可만을 내준다. 佛蘭西式이다. 英国式이다 하는 지붕을 그대로 再탕 三湯 써먹는다. 創作이다 무슨○○소리냐. 보기 좋고 보기 싫고 쓸모 있고 쓸모 없고가 問題냐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式이다.

그래도 流行上 머리를 써서 달리 좀 計劃해 주면 말이 많고 時間이 걸린다. 取入이 그나마 関係된다. 代書나 許可手続에 무슨 費用이 그리 비싸냐는 투다. 勿論 全般的인 경우는 아니나, 大概변두리의 現実이 그렇다. 옷이 내 몸에 맞아야 입듯이, 집도 내 生活에 맞아야 살텐데 이렇게 되면 既成服이나 既成家만이 판치고 있다. 맞지 않아도 어거지로 입고 다녀야 하는 처지다.

### ○ 공 짜

어떻게 된 셈인지 "공짜를 바라면 대머리가 된다." 따라서 "대머리는 공짜를 바란다"라는 말이 通用되고 있다. 眞否如何間에 대머리인 処地로 보면 늘 이 말에 関心이가고 꺼림직도 하다. 하필이면 대머리에게한 해당시킬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다. 따져보면 世上萬事가 공짜로 생겨났으며 누구나 공짜로 생겨났으며 누구나 공짜로 이 恵択을 받고 있는것이다. 太陽이나, 空気, 물, 여기서 생기는 고기, 곡식, 면직 地下資源등이 모두가 공짜 아닌가, 다만 이를 잡고 가꾸고 캐내는 手苦가 있기에 사람들은 이를 쓰게되고 먹게되는 것이다. 果実이 내입에 들어가려면 商人에게 돈을 支拂하고, 商人은 市場에서, 市場에선 果樹園 主人에게 各自 手苦의 代価를 支拂하면 되는 것이다. 돈은 手苦의 代価다. 自己것은 돈을 주어야 自己것이 된다. 내것은 原来 내것이 아니다. 代価를 支拂하니 내것이 된다. 따라서 저 집도, 저 車도, 저 옷도, 저 고기도 내것이 될수 있다. 돈만 支拂하면 된다. 그러나 내것이 될수 없는것, 돈 가지고도 살수 없는것이 있다. 돈이 많아 잘 살아도 돈이 없어 가난해도 사람은 命이 있게 마련이다. 이 寿命은 돈으로 살수 있을까. 사람이 命을 유지하는데 苦脳이 있다. 天下統一하고 부러울것 없는 秦始皇도 命을 사려 不老草를 求하려 했다. 사람은 命이 다하면 萬事가 마지막이다. 내것이 아무리 많아도 죽고 보면 그만이다. 空手来 空手去다. 그러나 주어진 命을 어떻게 지켰느냐 얼마나 애썼느냐 무엇을 하였느냐에 따라 공짜 人生의 代価를 支拂한 것이 된다. 生命은 살수는 없으나 代価는 있는 것이다.

### ○ 남의 다리

잠결에 한참 긁다 보니 남의 다리였다는 말이 있다. 내 다리가 가려운데 술이 취했는지 꿈이 한창인지 몰라도 남의 다리를 手苦스럽게도 긁어 주었겠다. 좀 곰같은 것이지만 슬며시 우습기도 하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가 번다. 고도 한다. 打算에 치우쳐 돈에만 幸의 基準을 둔 現代人으로 볼때 천치 바보 짓이라 비웃는다. 事実이 또 그렇다. 빈틈 없이 똑똑하고 찔러도 피 한방울 안 나는 쪽이 많은 이때, 情에 흔들리고 남에게 利用만 当하는 쪽은 確実히 바보, 천치라고 해도 할말 없다. 그러나 바보, 천치가 아주 없는 世上을 한번 생각해 보자. 모든 生活이 機械나 콤퓨—타같이 판에 박은 規則的이며 눈물, 콧물이란 찾아볼수 없는 너는 너, 나는 나가 뚜렷한 世上이다. 마이 카— 마이 홈 밖에 안중에 없다. 옆에 누가 쓰러져도 남은 吾不関이다. 내가 쓰러져도 남은 吾不関이다. 이때 바보라도 손을 내밀면 어쩔까, "水至清即無魚하고 人至清即無徒"라 하였고 "徳不孤, 必有隣"이라고도 하였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온다는 뜻이고, 徳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뜻이다. 徳은 바보일수 있으며, 天才일 수도 있다. 반듯한 나무만 있다고 山이라고 할수 있는가, 雑草도 있고 꽃과 바위도 있는 법이다. 서로가 엉키고 共存함으로서 山이되고 泰山이 된다. 가뭄에 논에 물을 대는 늙은 農夫가 終日 드레박으로 퍼올리고 있다. 그는 楊水機보다 이쪽이 그의 할일로 알고 있다. 車안에서 学生꺼리 가방을 받아주던 것이 이제는 너 나없이 짐이면 받아준다. 남의 가려운 다리를 미친척 하고 한번 긁어주지 않겠는가.

### ○ 구 두 쇠

구두쇠 하면 쇠만큼 단단하게 느껴진다. 쇠는 돈이니까 돈이 굳었다고 구두쇠라 한 것인가 모르겠다.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것은 理解가 간다.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것은 무슨 事由가 있을 것이다. 事由도 없이 쓰지않고 버티는 것이 구두쇠란다. 数億 財産이다 큰소리 치면서도 点心때 라면으로 겨우 때우는 친구가 있다. 술은 안 마신다 하면서 사주면 잘 마신다. 담배까지 얻어핀다. 점점 돈에 맛이 들어 利子놀이까지 한다. 아무리 親해도 利子없이 돈 貸出 않한다. 모두가 돈. 돈이면 最高다. 돈을 主人으로 섬기고 이 主人의 命令에 絶対服從이다. 무슨 일이고 할수 있는 勇気(?)를 가졌다. 平生 運命이요, 地上課業으로 믿고있다. 이 친구가 病에도 구두쇠인지 病도 없다가 日前에 갑짜기 쓰러져 入院하게 됐다. 죽기 直前에서 겨우 意識을 찾고 보니 入院費, 注射, 藥代등이 아깝다고 退院했다. 집에는 그의 財産을 相続받을 資格者만이 熱心히 看護(?)하고 있다가 그가 저 世上으로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정한 친구가 있을수 없다. 죽고나니 죽엄을 슬퍼할 사람이 별로 없다. "아까운 사람이다"라고말해주는 친구가 단 한사람도 있었으면 그나마 多幸이다. 自己가 있어서 돈이 있고 自己가 있어서 世上이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답답할 뿐이다. 自己무덤에 돈과 함께 묻어달라는 遺言이나 잊지 않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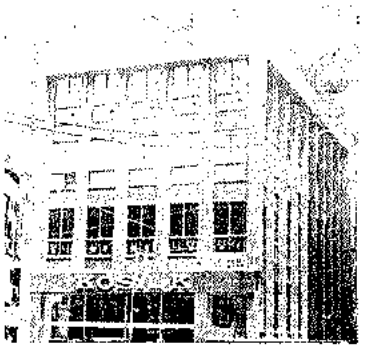
○ 헛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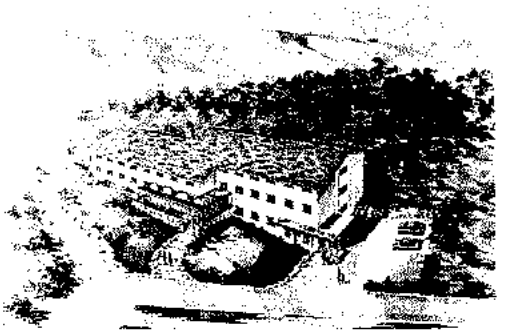
人生 七十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먹고 자는 時間을 빼면 果然 몇年이나 될까, 나머지를 일하는 時間이라면 일에도 헛일이 허다하니 진짜 네 一生에 일했다. 무엇을 했다라는게 얼마나 될까. 헛手苦, 헛탕, 헛것등 마침내 헛 살았다에 이른다. 많은 宣伝費를 들인 広告紙가 便所나 쓰레기통으로 直行한다. 石油가 나온다고 莫大한 돈을들여 바다밑을 파낸다 숨을 허덕이며 山에 오르내린다. 이 모두가 헛것이 많다. "時間은 黃金이다" 名言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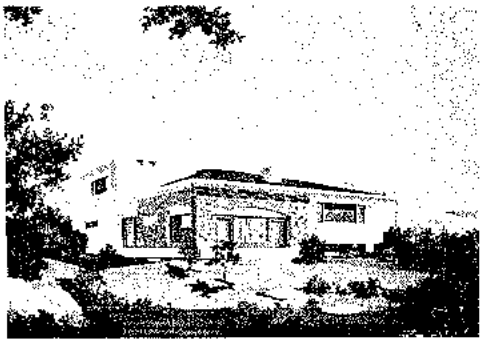
事業家가 볼때 모두가 헛사는 사람들이다 作品한다고 平生을 종이와 붓으로 보낸다. 이런고 글을 쓰 있는 自身이 헛手苦 헛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먹으면 排出이 있듯이 만들면 物品이, 하면은 돈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헛일이 아니다라고 事業家는 定義한다. 그래서 努力하고 일하는 것이다. 그건 事実이다. 그런데 所謂 헛일난 하고 사니 어쩌냐. 孔子는 "遊於世"라 하였다. 人生을 芸術과 더불어 놀고 산다라는 뜻이다. 一生을 일하고 돈버는데 보람을 느끼는 것과 正反対語다. 이 世上에 꽃과 노래가 없었다고 仮定하자. 沙漠에서 물과 나무 없이 사는 格이다. 女子와 술을 禁하는 "사우디"에 다녀와서 다시 가라니 辞表를 낸 친구가 있다. 돈 벌이도 좋지만 사는 맛이 없다는 것이다. 人間이 機械일수는 없다. 機械는 헛일을 할수 없다. 그러나 人間만은 헛일을 할수 있다. 그리고, 헛일에는 눈물과 웃음이 가득 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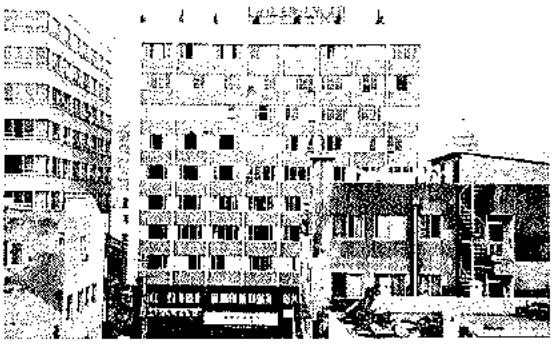
太極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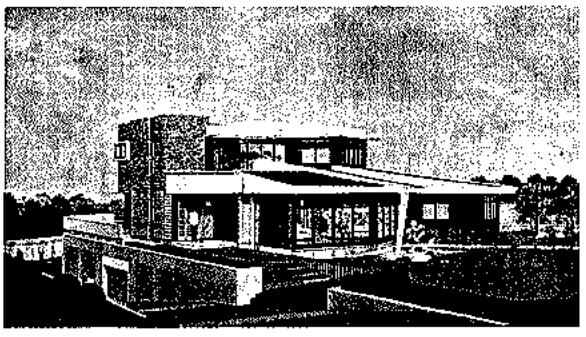
# 보호받는 자연만이 나의 호흡맑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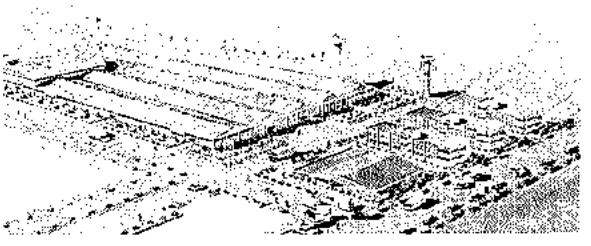








구 마 공 장 조 감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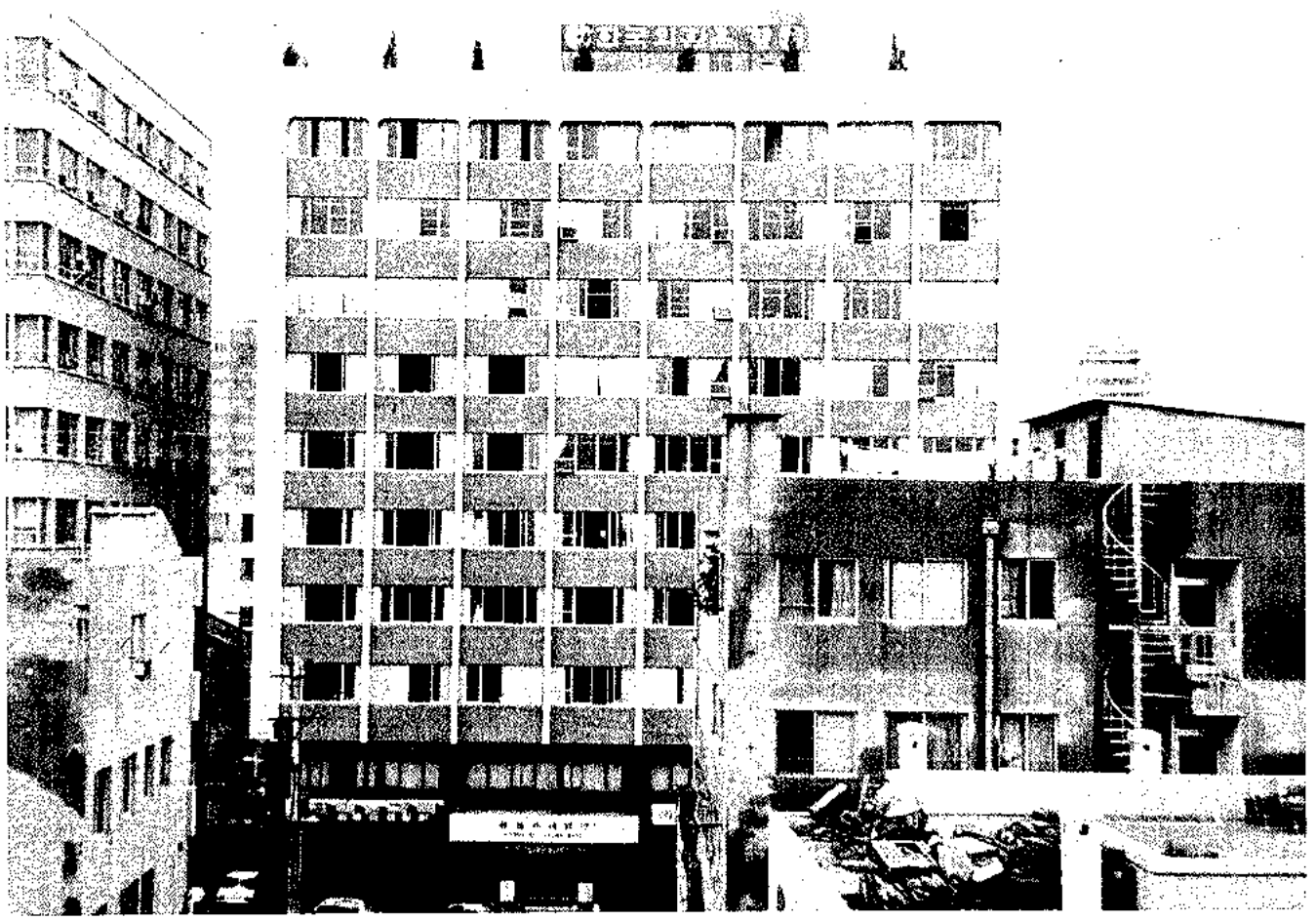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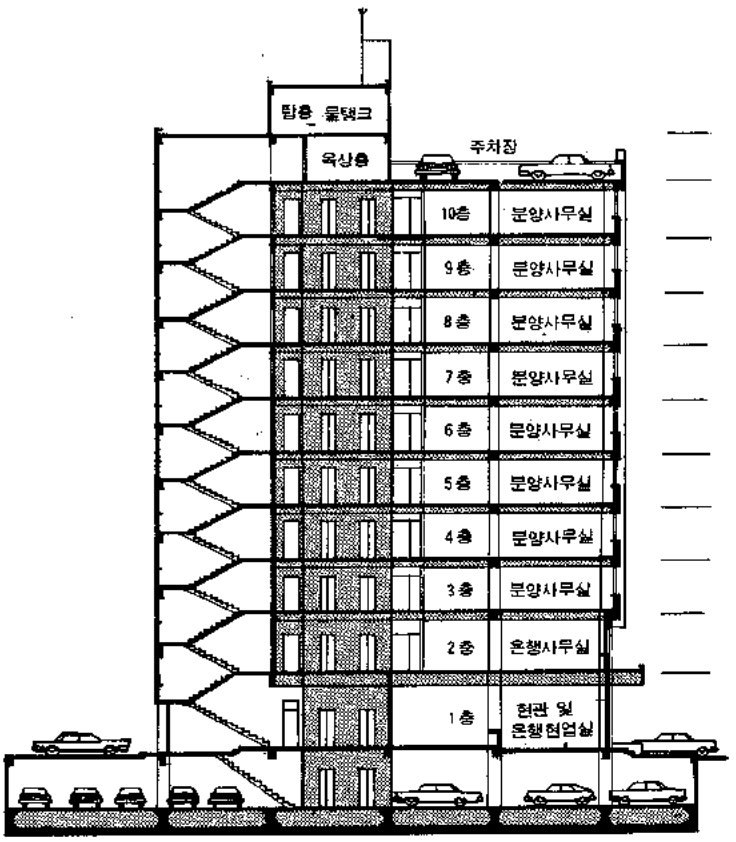
# 천수빌딩신축공사

설 계 자 : 車東明
건축위치 : 서울시중구을지로
건축면적 : 719.34m²
연 면 적 : 9061.96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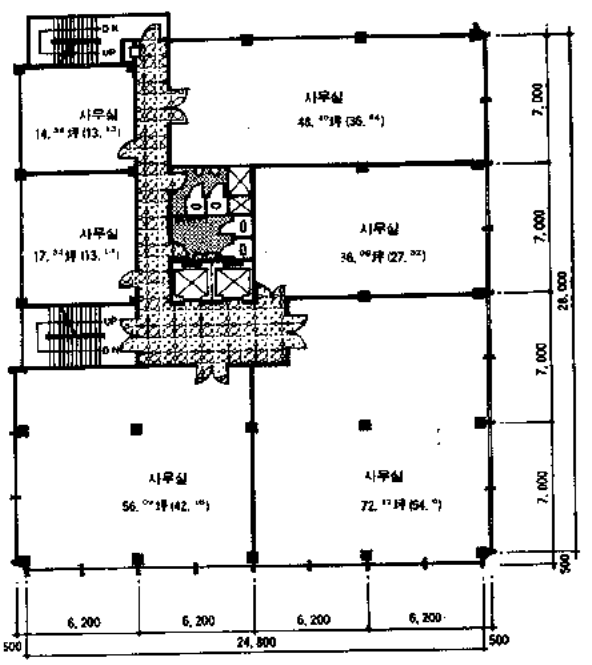
설계개요 : 수표지구 재개발사업지구 인가로 허가시공된 본건물은 철근CONCRETE RAHMEN구조로 주위의 SKY LINE을 맞추고 지하 2층 지상10층으로 마무리하고 MAT FOUNDATION공법임
1977. 6월 준공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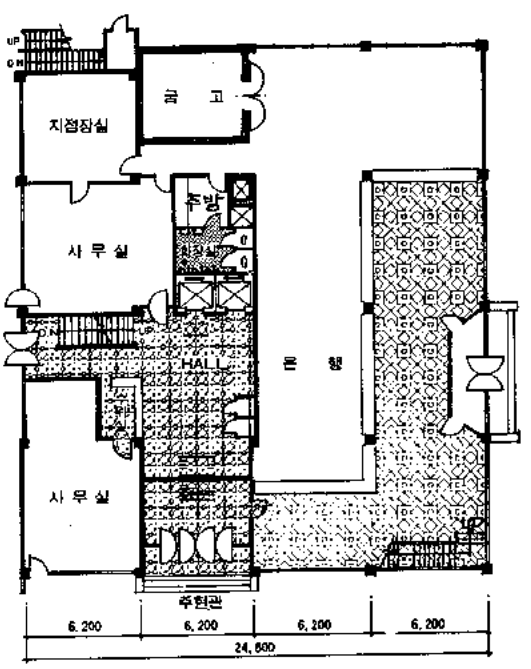





단면도




3 층 ~ 10층 평면도




1 층평면도

# 설악동 호스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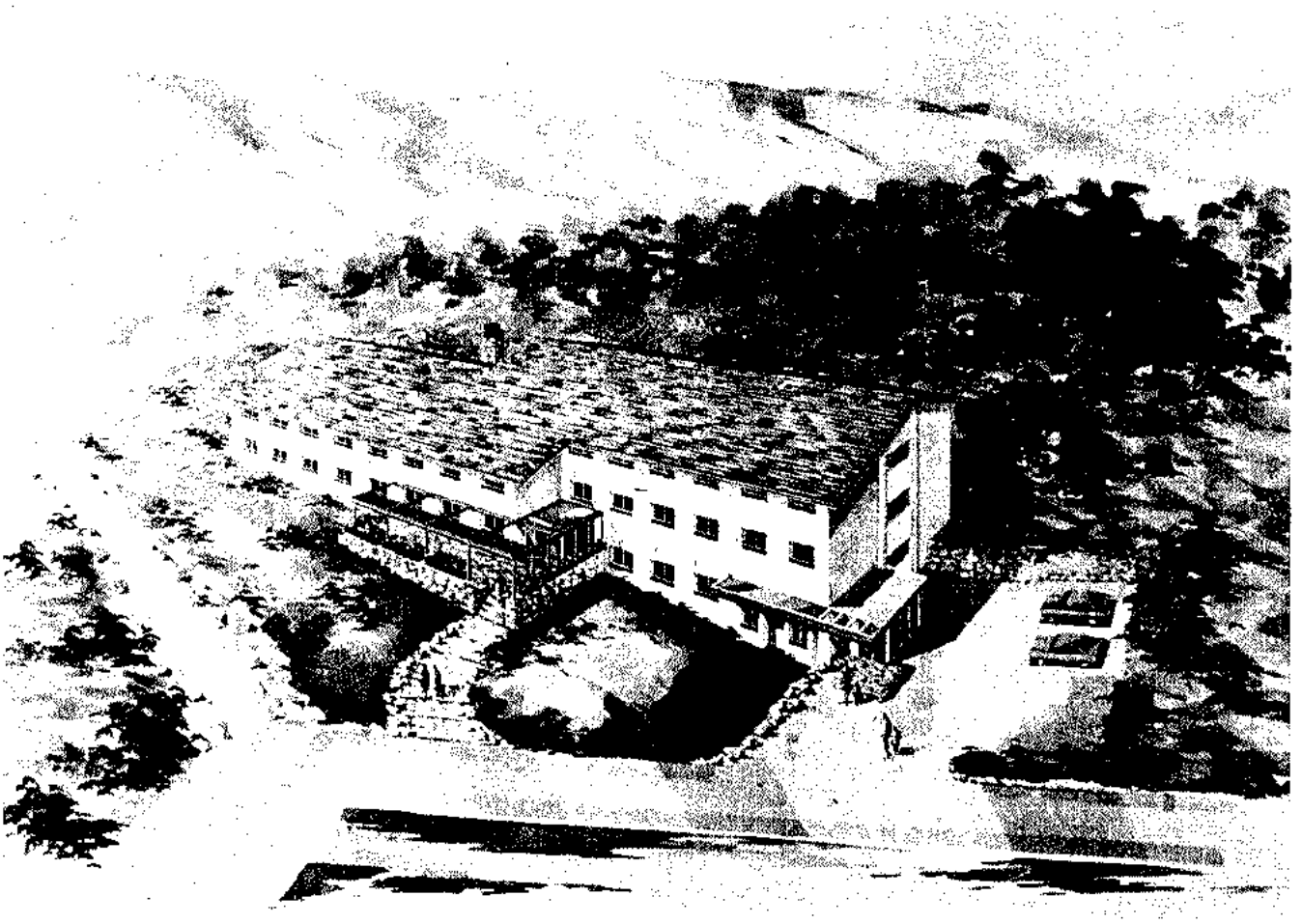
설　　계 : 朴康平 (상아 건축 연구소)
건물위치 : 설악동 B－3지구
대지면적 : 1,676.4 m²
건축면적 : 지하층　384.74m²
　　1　층　648.33m²
구　　조 : 2　층　639.78m²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설계개요 : 설악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신집단 시설 기구로서 외설악의 권금성이 마주보이는 전망이 양호하고 양지바른 곳에 경사진 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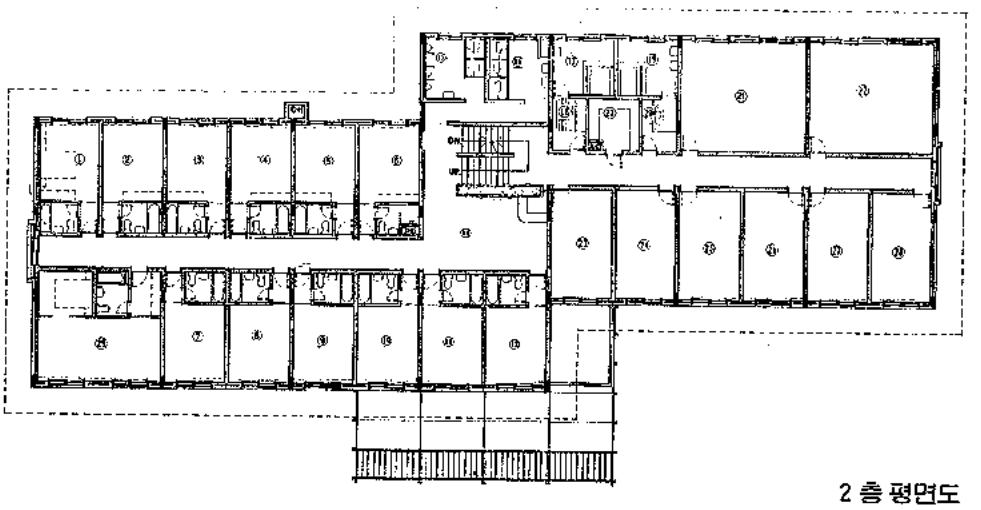
다행스럽게 옆대지와 격리되어 있는 점이 호감이 간다. 경관이 수려한 기존지형과 지세를 원형대로 유형대로 위해 경사를 따라 관광객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평면을 구성하고 자연 환경과 분위기에 대조를 이루도록 노력했다.

산악식 지붕은 경쾌하게 주제를 강조하고 재료는 굴피나무를 친근감 있게 사용했다. 외벽은 TYROLEAN스타일의 백색 곰보벽으로 처리하고 벽면이 둔탁하지 않게 창문밑을 조그마한 장식효과를 부여하고 목재 파고라와 캐노피를 도입해서 자연스러운 진입 분위기를 조성했다.

투 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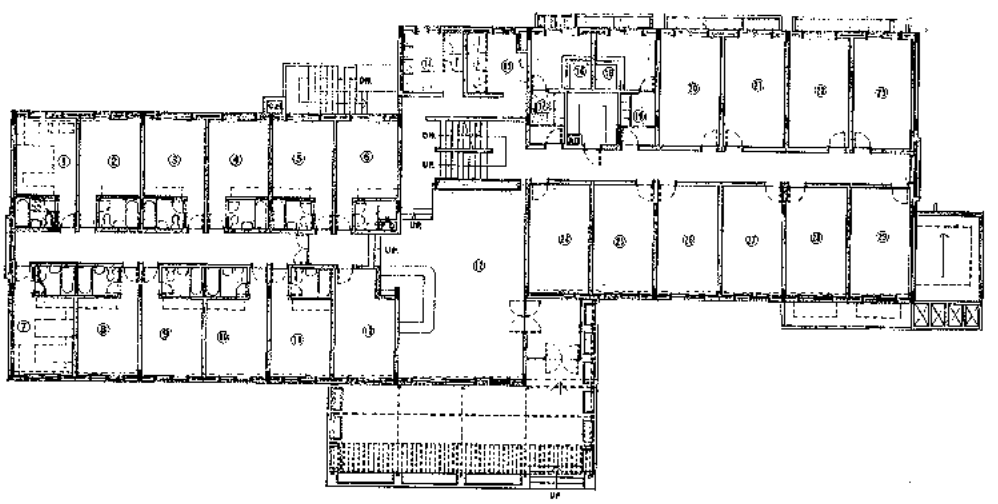


1～12. 특실
14. 호－ㄹ
15. 화장실(男)
16. (女)
17. 목욕탕(男)
18. 탈의실(男)
19. 목욕탕(女)
20. 탈의실(女)
21. 린네실
22～29. 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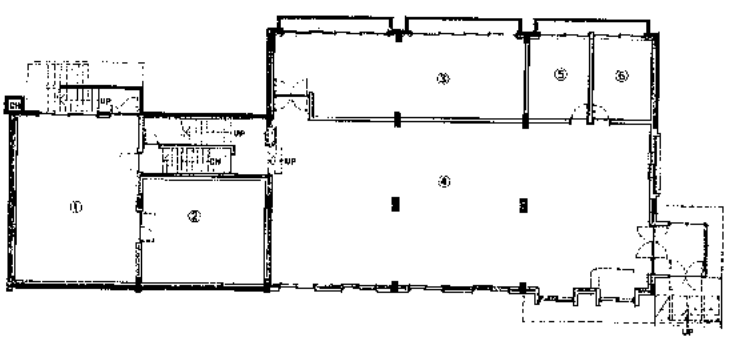
2 층 평면도

1－11. 특실
12. 종업원실
12. 로비 3
14. 화장실(男)
15. 〃 (女)
16. 목욕탕(男)
17. 탈의실(男)
18. 목욕탕(女)
19. 탈의실(女)
20～29. 객실



1 층평면도

1. 보일러실
2. 오일탱크실
3. 주방
4. 식당
5. 자취주방
6. 종업원실



지하층 평면도

# 안 양 김원장댁.

**설　　계** : 韓 珖 洙 진양종합기술설계사무소.

**건물위치** : 경기도 안양시 안양읍

**건축면적** : 지하 12.0M²

1층 110.16 m²

2층 239 9 m²

계 146.10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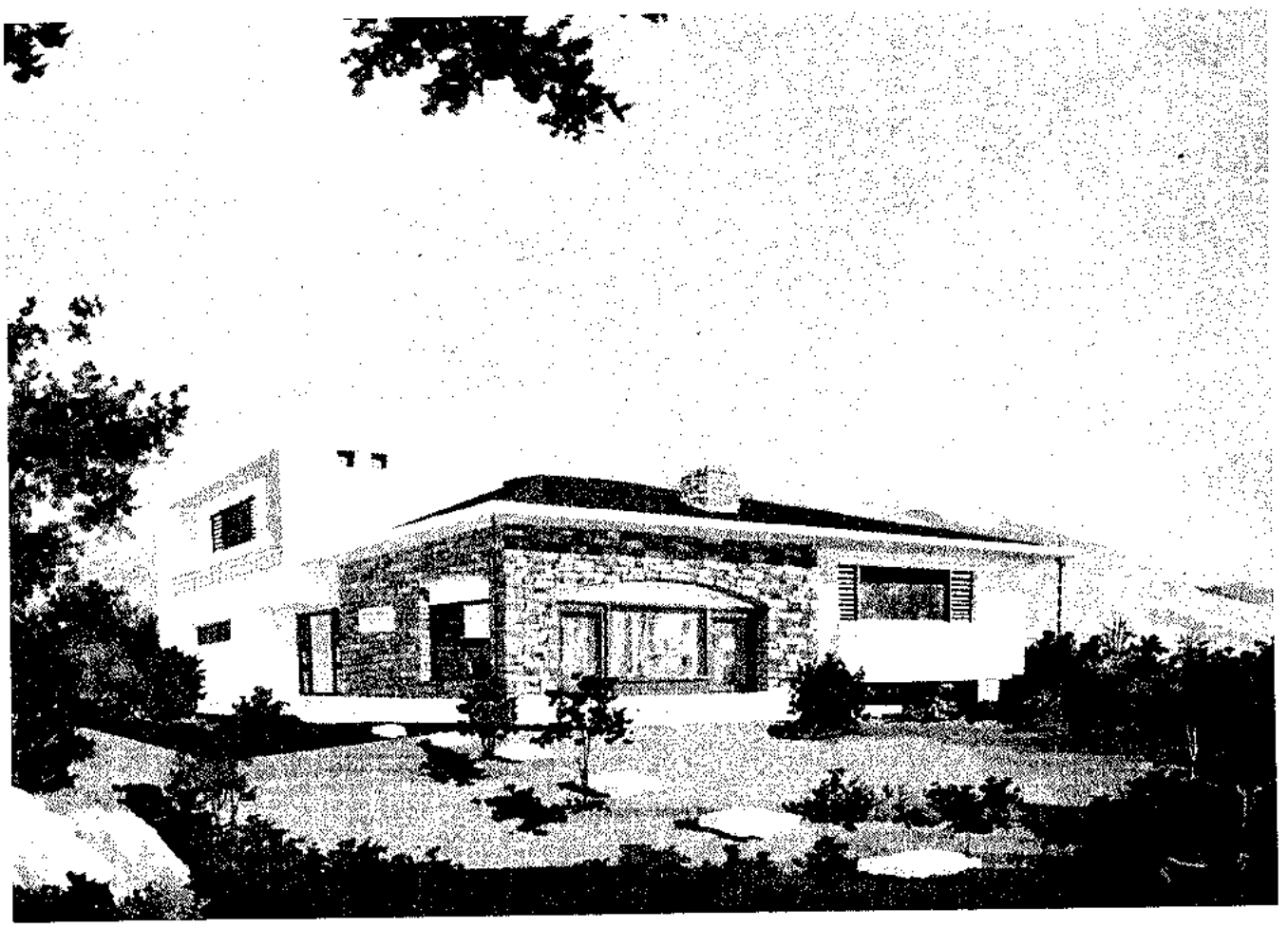
**구　　조** : 조적조(시멘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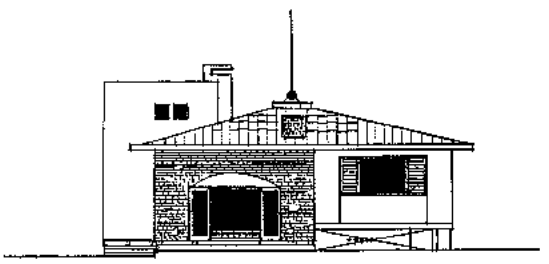
**설계개요**

1. 본계획은 중산층의 40인용 가족의 아담한 주택으로 가족이 자연을 음미할수 있는 정원계획과 경관을 주관으로 한 주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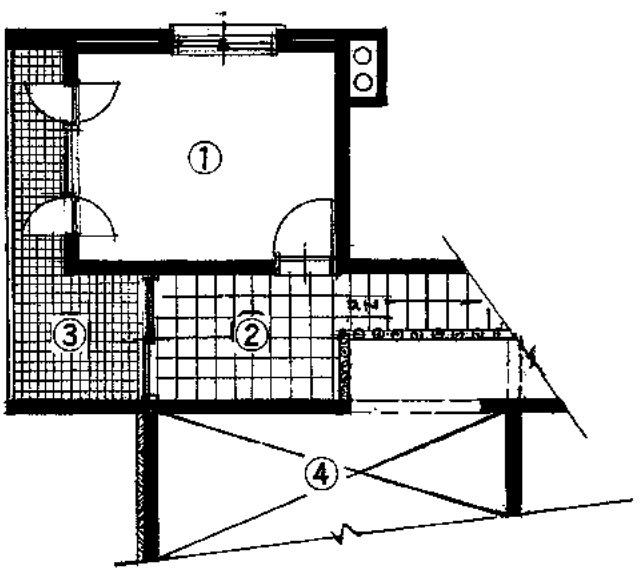
2. 1층에 3개의방과 거실, 식당과 2층의 서재를 두었고 1층주부방을 높여 공간을 이용하고 시설을 하였음. 차고

투 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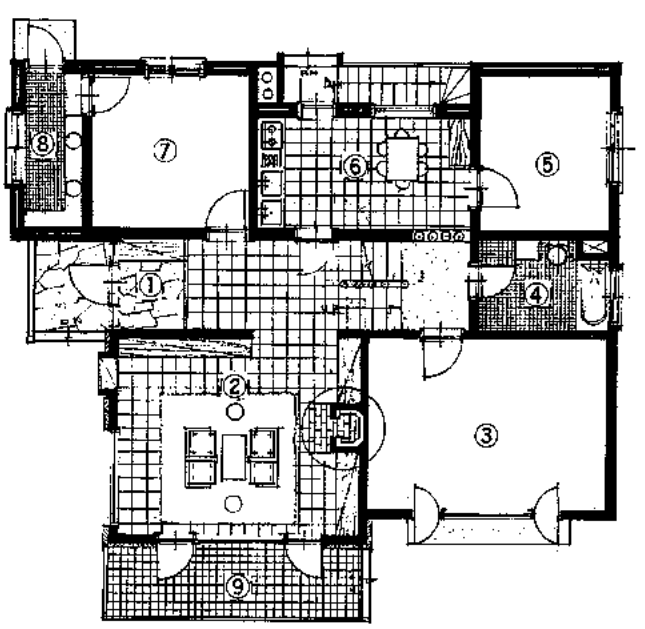


정면도




2층평면도

2층
1. 서재
2. 복도
3. 발코니
4. 거실상부




1층평면도

1층
1. 현관
2. 거실
3. 온돌방
4. 욕실
5. 온돌방
6. 주방및 식당
7. 온돌방
8. 부엌
9. 테라스

# 코실크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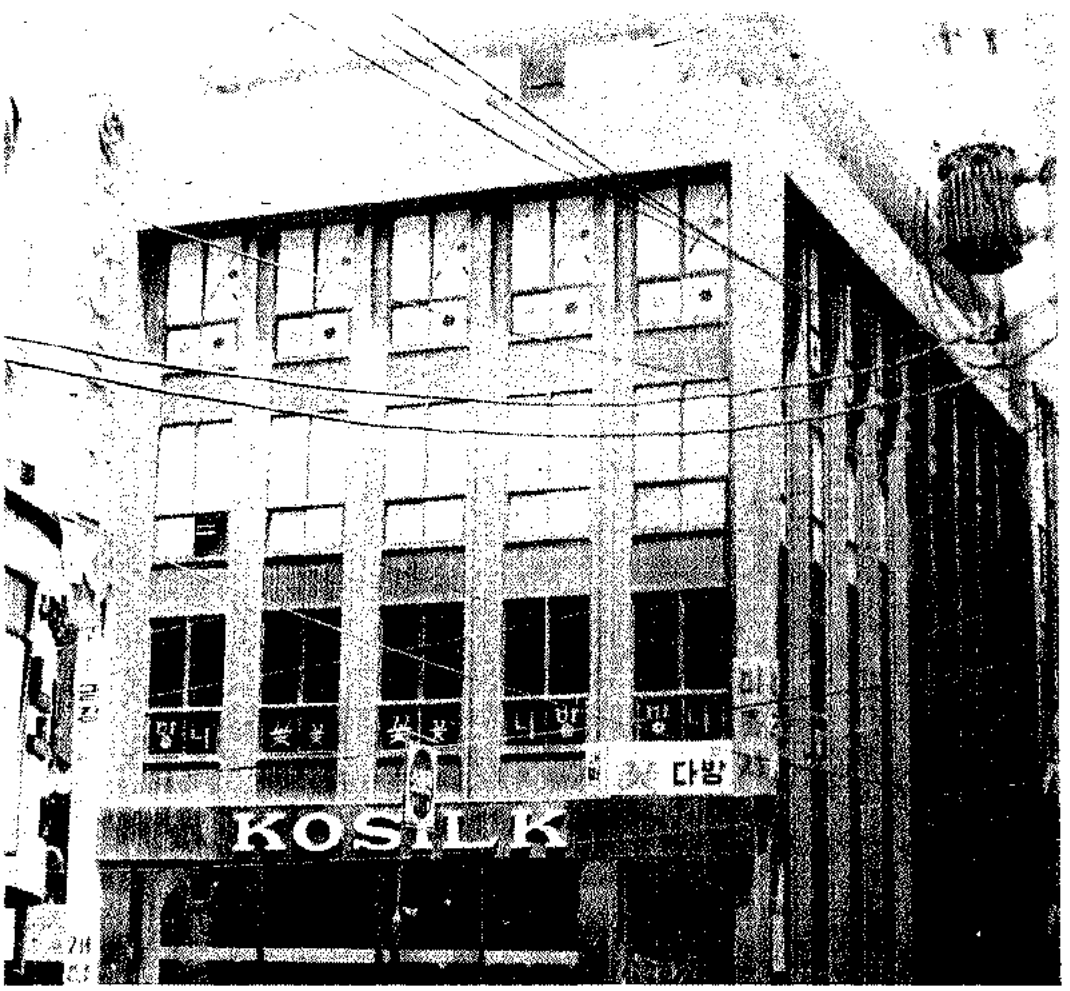
설 계 자 : 조성만 가야건축
건물위치 : 중구 명동
건축면적 1층 209 m²
2층 262 m²
3～6층 262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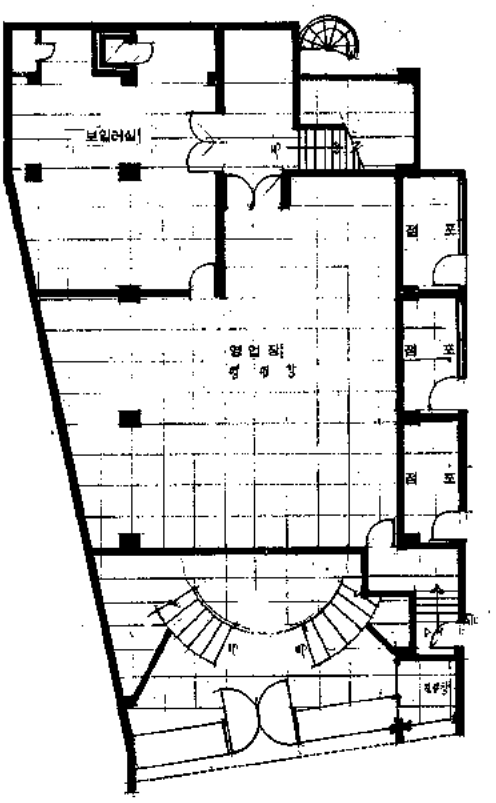
본 건물은 시 내중심의 요지인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건물로서 과거에 건축된 재래식 6층 건물 입니다.

본 건물은 평면및 외형에 현대감각이 전연 반비례 할뿐 아니라 주위환경과 여건의 문제점이 많이 야기된 건물로써 대수선을 한 것입니다. 설계상의 애로점은 제한된 SPALE 내에서와 평면의 최대활용 고객들의 혼잡을 피한 동선의 단조로움 및 평면계획되어 상가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 하였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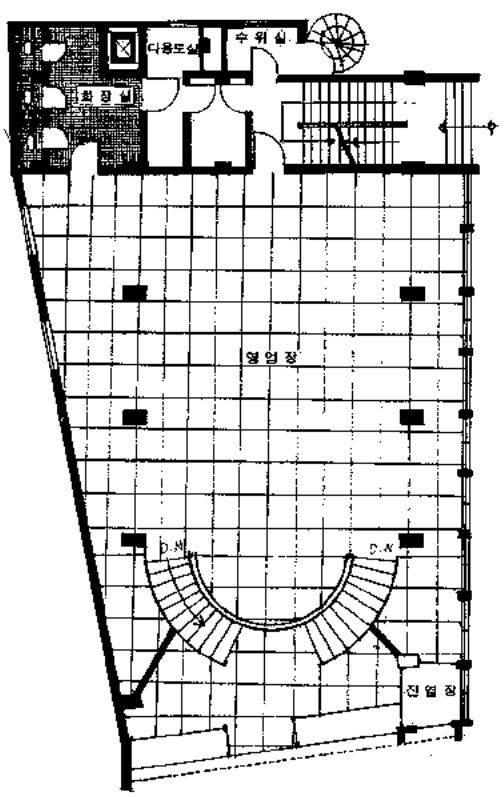
그리고 가장 문제점인 건물의 외장은 기존 장소를 모두 철거하고 착색 알루미늄으로 하였으며 외벽은 AL. CASTING으로 설계되어 종전의 건물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감각과 현대식 건물로 바뀌었읍니다.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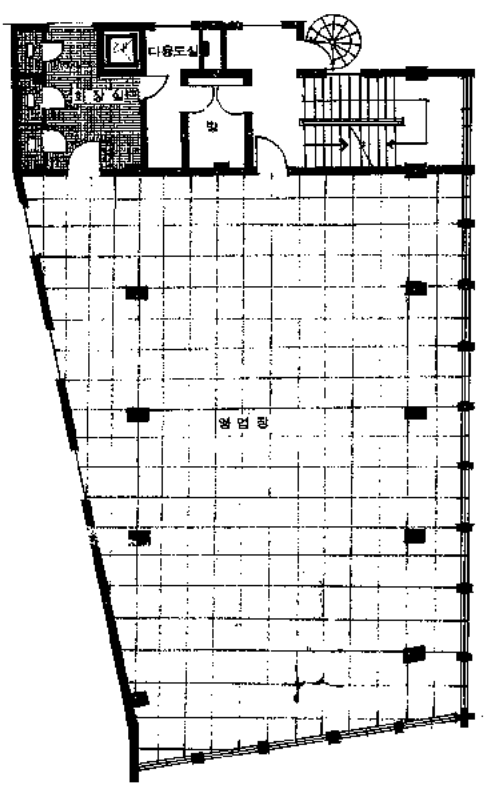





3, 4, 5, 6 층평면도




2 층평면도




1 층평면도

설　　계 : 李康植(주식회사 완 종합건축)
◦ 건물위치 : 한남동 778의 4
건축면적 : 지하층 : 68.54 m²
1　층　115 m²
2　층　76.65 m²
구　　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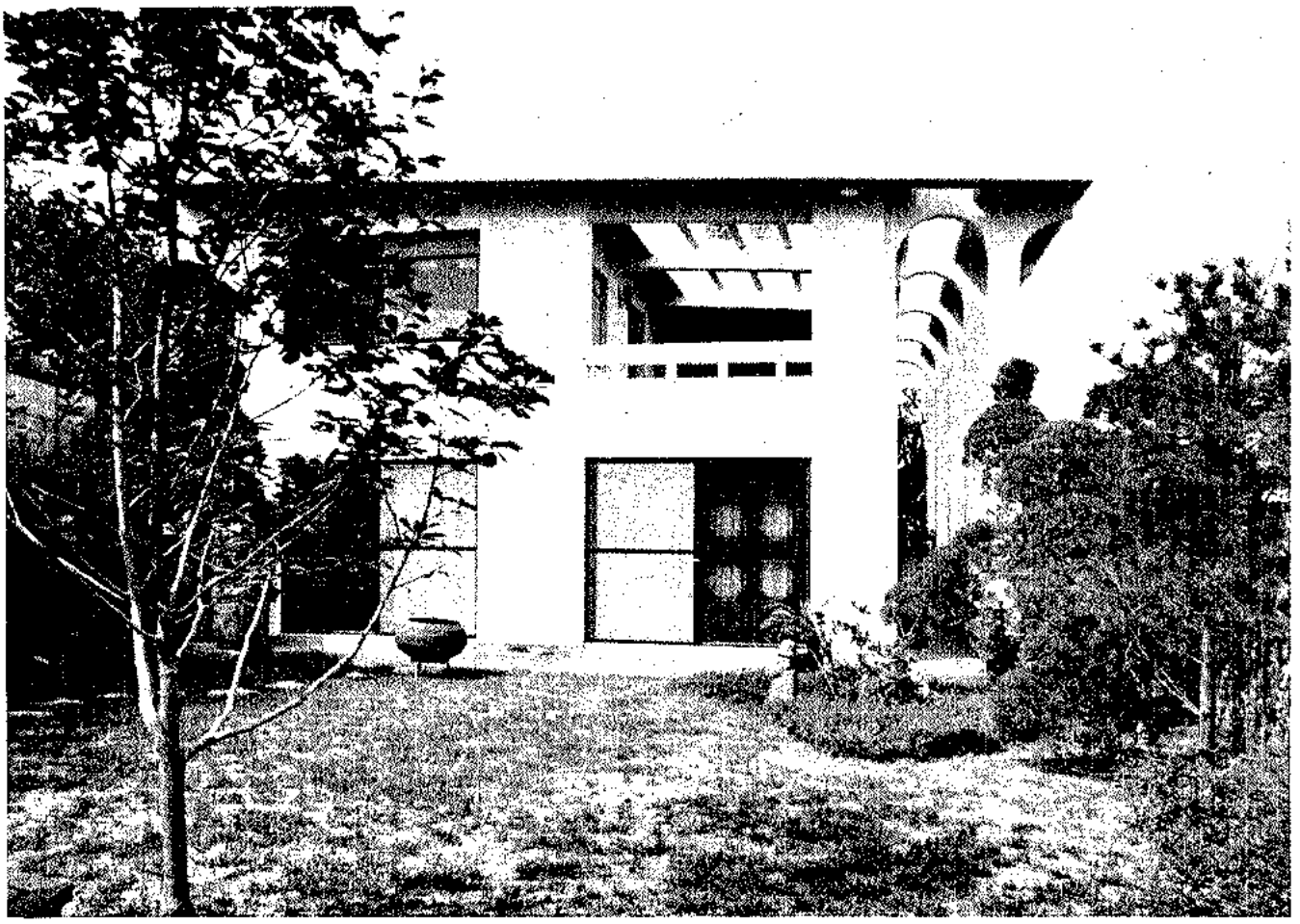
설계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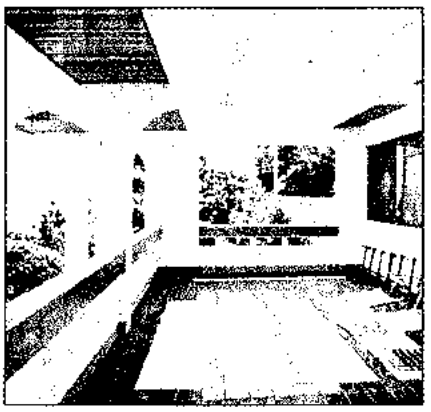
대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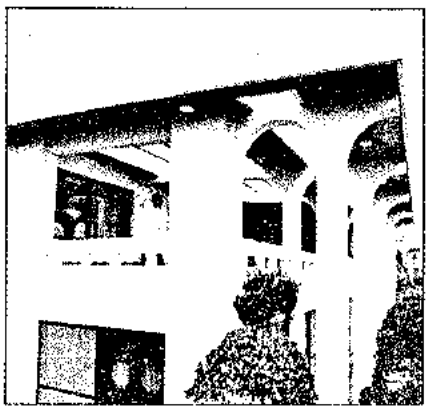
한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좋은 위치의 대지로 전면및 후면 양측이 도로에 접하여 있으며 대지보다 전면 도로는 2.5m가 낮고 후면 도로는 대지보다 1.5m 높은 단지진 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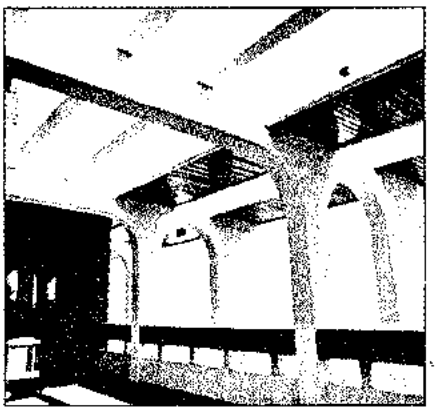
이 지형을 최대로 이용 주출입을 후면 도로에 두어 1.2층의 출입이 쉽게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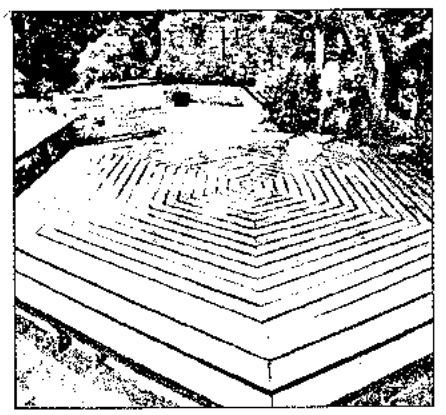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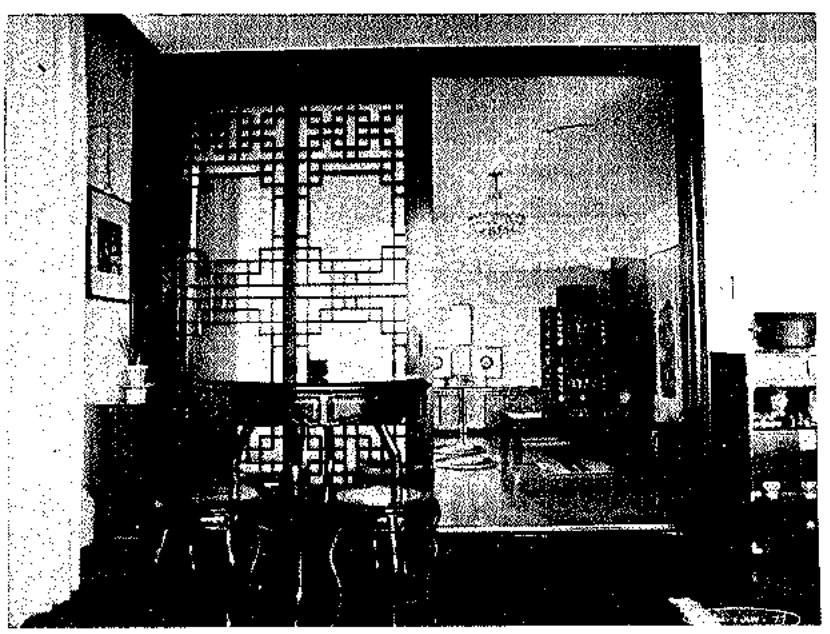




설 계

3,600 MODUE을 이용하여 공간을 크게 나누어 시원하게 시도하여 보았다. 거실과 식당을 한 공간에 두어 FIRE PLACE로 분리시켰으며 낮의 생활권과 밤의 생활권을 층별로 나누었다.

2층은 건물의 답답함을 막기 위하여 넓은 덱크를 활혜하였다.



**지하층**

1. 차 고
2. 운전수방
3. 욕 실
4. 가정부방
5. 창 고
6. 홀
7. 보일러실및 위티리티
8. 드라이에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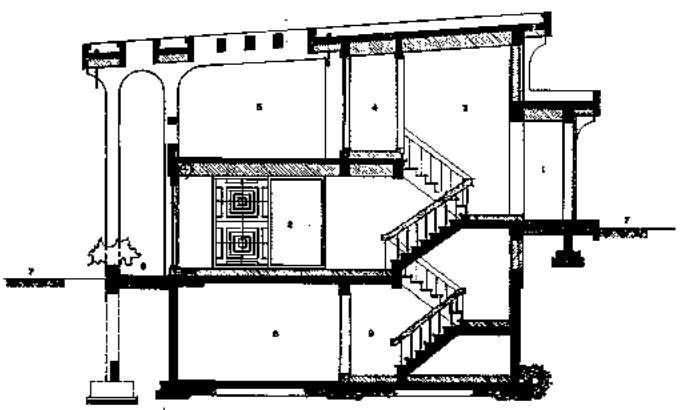
**1 층**

1. 거 실
2. 식 당
3. 부 방주
4. 현 관
5. 세 면 실
6. 욕 실
7. 손 님 방
8. 메 라 스
9. 주출입구
10. 복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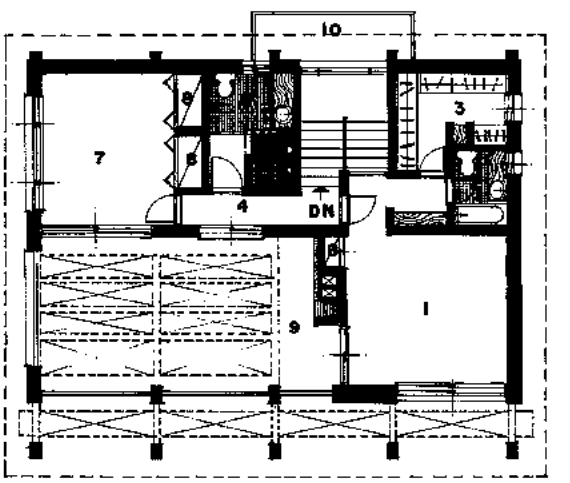
**2 층**

1. 주인침실
2. 욕 실
3. 공 부 방
4. 복 도
5. 욕 실
6. 샤 워
7. 침 실
8. 반 침
9. 발 코 니
10. 차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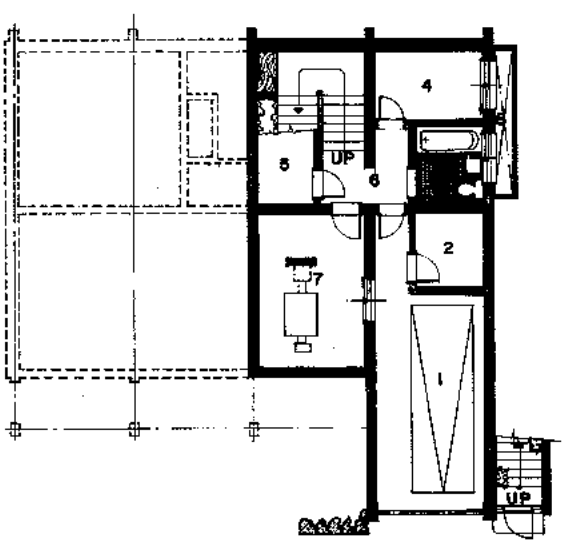
1. 현 관
2. 거 실
3. 계 단 실
4. 복 도
5. 발 코 니
6. 보일러 및 위떠리떠
7. 지 반 선
8. 테 라 스
9.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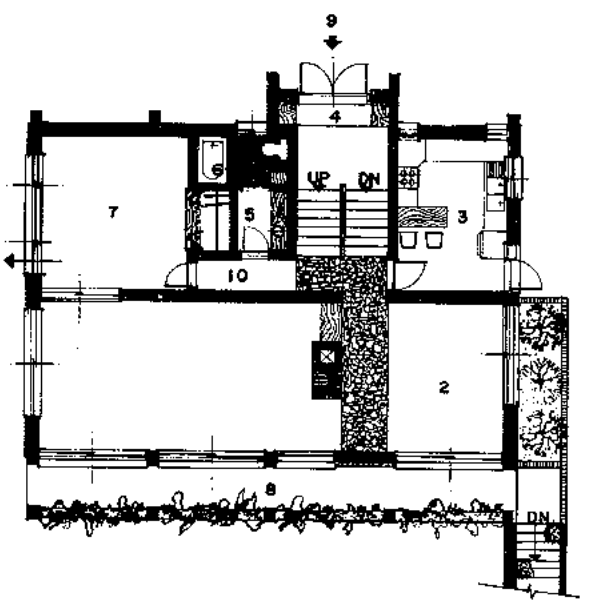
단면도




2 층 평면도




지하층




1 층 평면도

# 鶴山技術図書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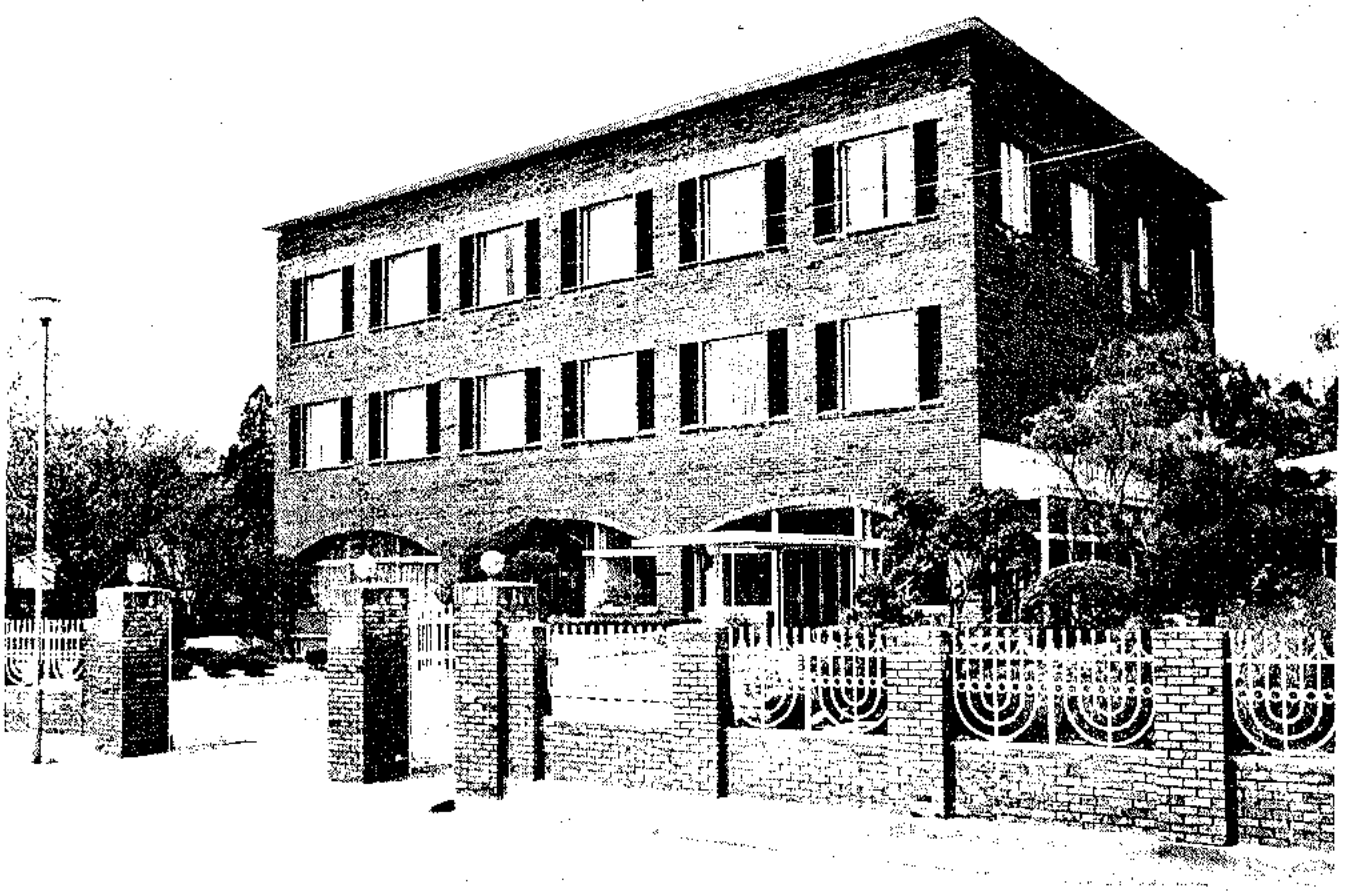
설　　계 : 朴商浩 석림건축(石林) 설계조경연구소
위　　치 : 서울 종로구 동숭동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 374.$^{25\,m^2}$ (113.$^{40\,py}$)
연 면 적 : 1.173.$^{49\,m^2}$ (355.$^{60\,py}$)
대지면적 : 1.378.$^{74\,m^2}$ (417.$^{30\,py}$)
건물시설 : 소강당(1층) : 60석
　　식　당(1층별동( : 30석
　　일　열람실(2층) : 60석
　　전문서적서고, 연구실, 소회의실(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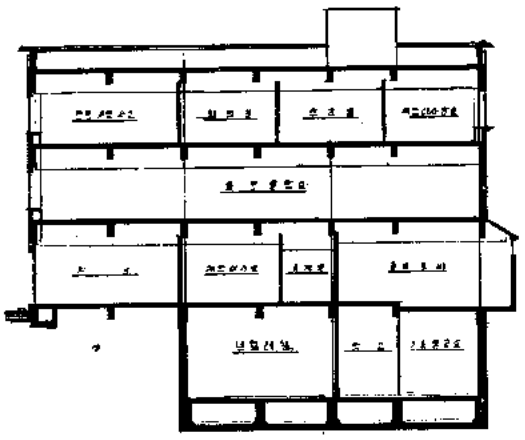
## 설계개요

본 도서관은 기아산업 김상문회장의 의도에 의하여 사설 특수기술전문 도서관으로 종래의 도서관 개념에서 더욱 발전시켜 도서관의 이용을 중시하며 교육시설과 연구시설에 치중하지 않고 특수전문기술 부분의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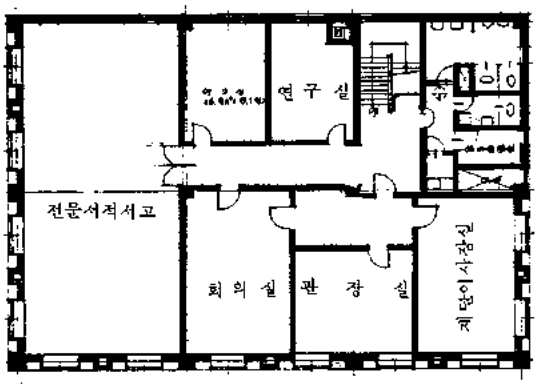
활동의 중핵으로써 콤무니케이숀, 레크레이숀에 연결되도록 설계상 고려 하였으며, 위치 자체가 동숭동 구 캠퍼스내로써 건축주재를 회색벽돌로써 전통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있으며 서고 열람실 소연구소와 세미나를 겸할수 있는 소강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문의 휴식로비와 연못및 식당등의 외부 공간과의 연결로 옥외 정원시설과의 전체적인 발란스를 주안으로 설계하였읍니다.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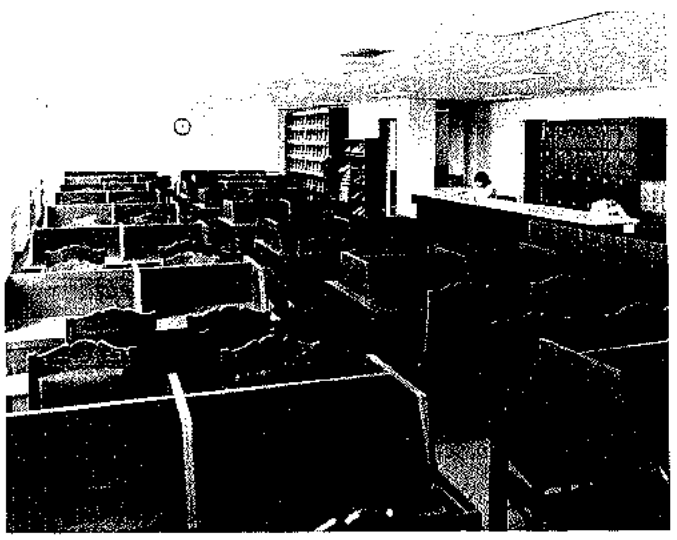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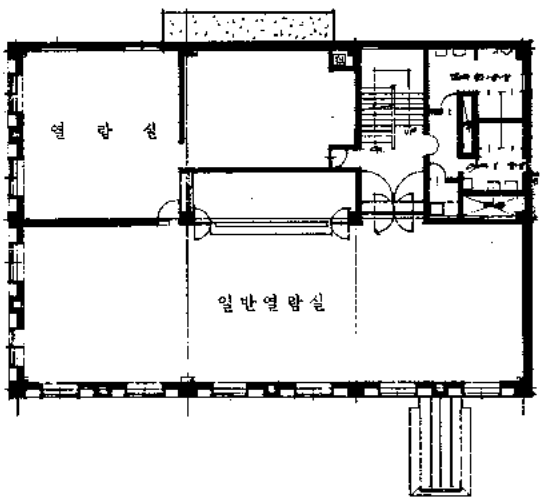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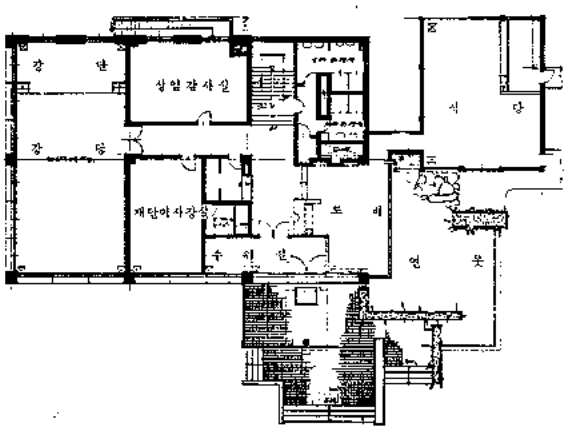



3 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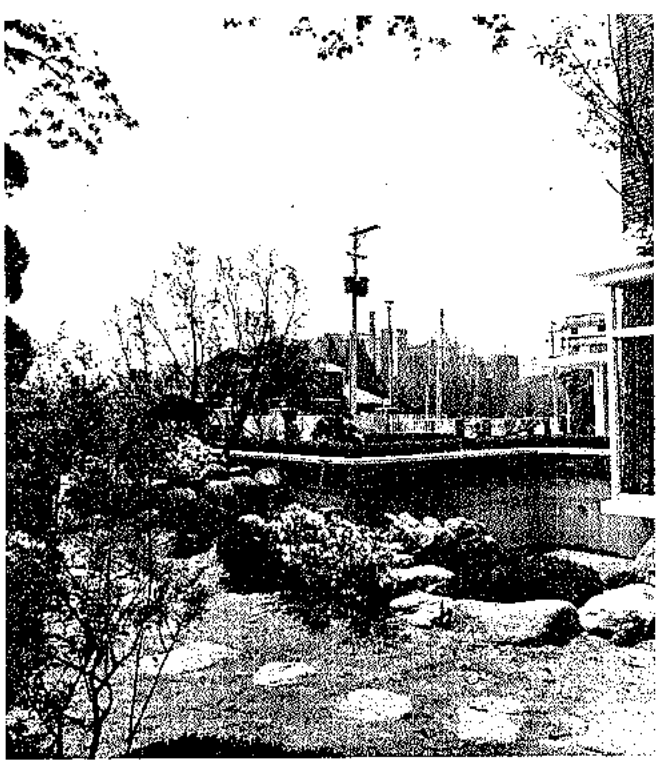





2 층 평면도




1 층 평면도



# 김씨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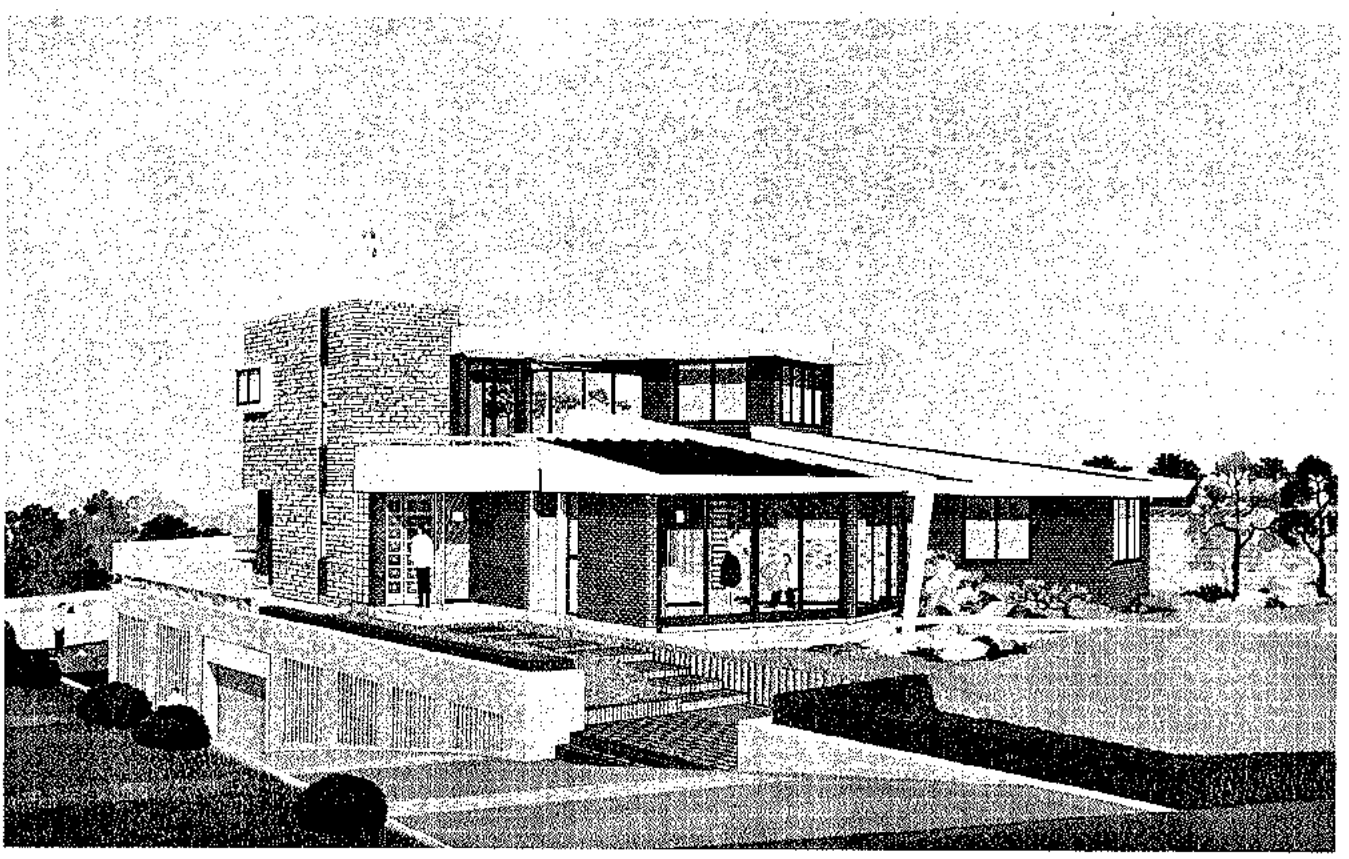
설　　계 : 金寅培 (강희설계)
건물위치 : 중구 신당동
건축면적 : 177m²
구　　조 :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설계개요 :**

대지의 異形條件을 최대한도로 이용, 정원 공간의 극대화를 企図. 좁은 並側에 써비스부분(부엌, 식당, 홈빠, 식모방, 지하실계단)을두어 동선을 짧게하고 남향하여 扇形으로 크게 전개된 부분에 거실 및 주침실을 배치하여 日照条件과 眺望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企図, 현관 부분이 써비스 부분과 주침실 중간에 두어 동선이 원할하게 하고 동시에 평소 활동권과 휴식권이 분리될수 있게 하였음.

경사진 대지의 위쪽에 대문을 설치, 도로와 대지의 高差를 없애 안정시켰음.

투 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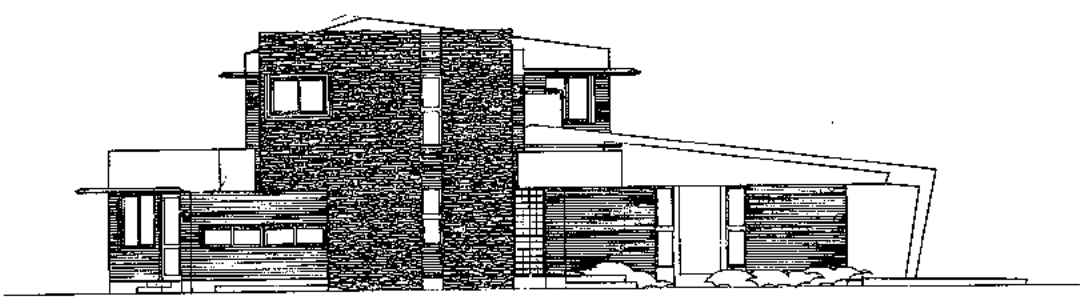


건물의 중앙부분의 小정원이 외부정원(POND, 폭포, 잔디, 수목, 옥외테라스 등)을 크게 내부로 도입시키는 결과 이른바 정원주택의 자연과 생활의 融合의 분위기를 갖게했고, 협소한 並側 써비스 부분 공간의 閉鎖感을 제거했으며 중정의 온실은 현관에 들어서면서 안식을 느낄수 있도록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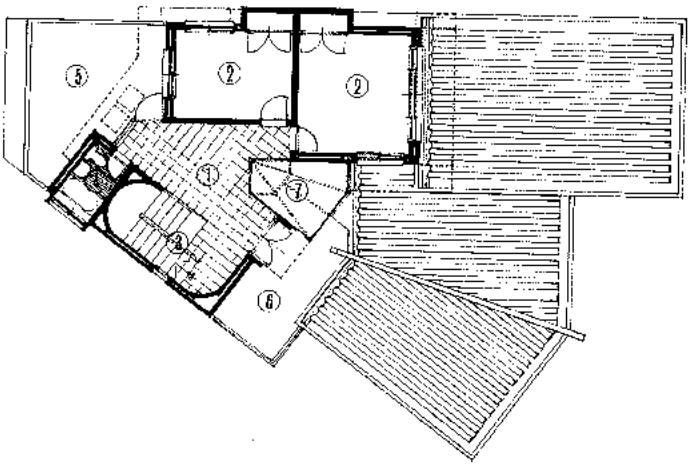
전체적인 색감은 백색계열 + 흑색계열을 주색으로 하고 악센트로 목재(스기木)의 원색처리 천연 스테이트 타일 부치기, 몰탈뿜칠(곰보) 위 백색 수성페인트, 칼러샷슈에 진공유리 삽입, 흑색 광택의 골개와 스텐레스 난간 및 계단실 온양석 구들장 쌓기.

내부 공간은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되도록 주벽및 천정은 도배 일부 적벽돌 치장 쌓기벽(거실) 경제성 감안 및 보수용 바닥은견고하고 사공하자가 없는 합판류(쪽마루 합판, 계단용 합판참 등) 사용공간 최대활용 방안으로 라지에타를 지양, 바닥면과 동일하도록 컴백터 설치.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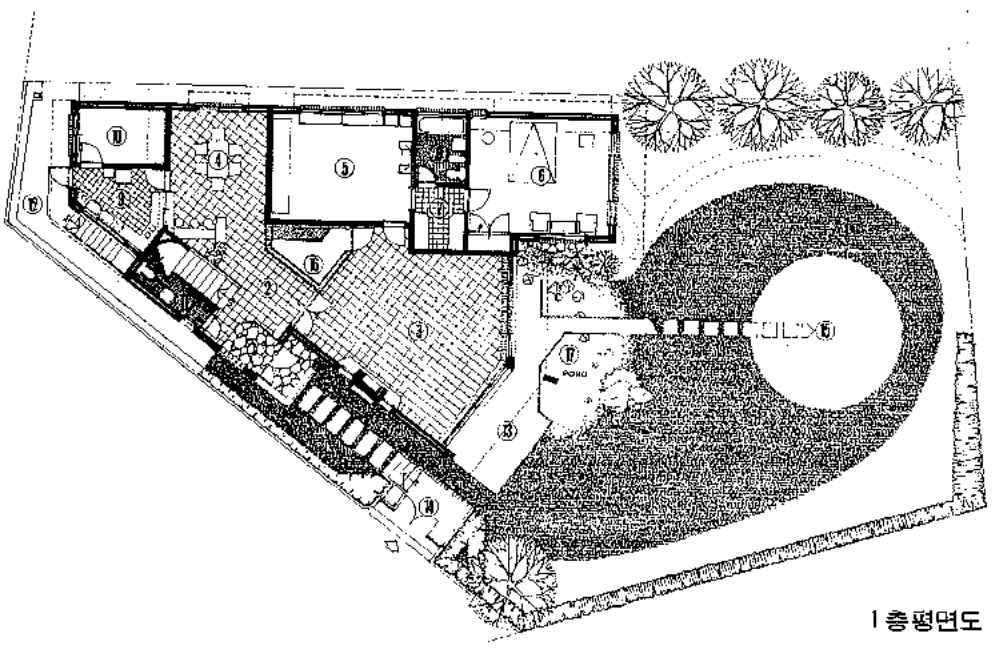


측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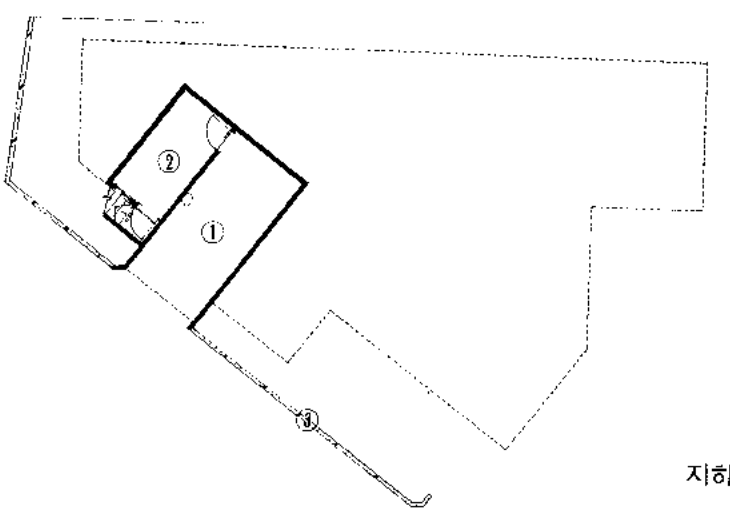
2 층 평면도

1. 거실
2. 아이들방(온돌방)
3. 계단실
4. 욕실
5. 발코니(후면)
6. 발코니(전면)
7. 온실



1 층평면도

1. 현관
2. 현관홀 및 계단실
3. 거실
4. 식당및 홈바
5. 안방(온돌방, 한식)
6. 침실(서재겸 )
7. 전실(옷장)
8. 욕실
9. 부엌
10. 식모방
11. 변소(계단실밑)
12. 옥외부엌
13. 테라스
14. 대문
15. 옥외테라스
16. 온실
17. 폭포및 연못



지하층평면도

1. 차고
2. 보이라실(창고)
3. 옹벽선

# 서통전기 썬파워 건전지 공장

**설　　계** : 金大魯 (한일 건축 기술공사)
**건축담당** : 백창권　이준수　박종화
**건물위치** : 경북 구미시 낙계동 270
**건물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대지면적** : 168, 195 m²
**건축면적** : 본 공장 19, 600 m²　　강당 및 식당 1, 018. 50 m²
기숙사 2, 592 m²　　폐수 처리장 84 m²
수위실 70. 18 m²　　합계 : 23, 364. 68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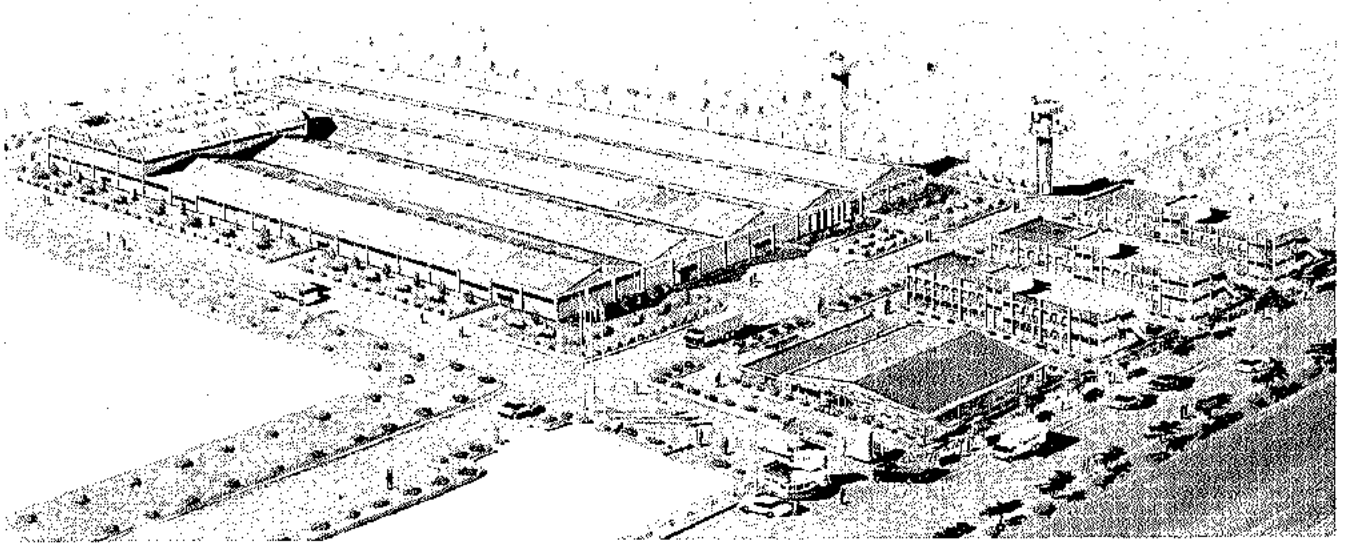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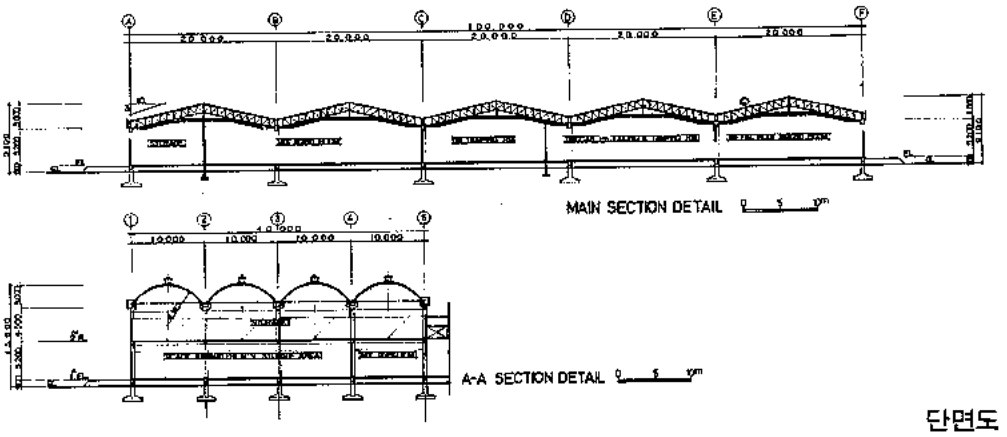
대한민국 구미 공업 단지의 입지적 조건에 맞는 건축물의서의 공장 디자인 및 건전지(밧데리)생산 공장이라는 특수한 조건하에서 설계하였다.

특히 건전지의 원자재인 흑연 저장고는 가급적 코너 쪽으로 계획했고 생산공정의 모든 기계 배치와 이에 관련되는 연구실, 실험실, 검사실, 관리실등은 본 공장 내부에 두어 합리성을 추구했고 넓은 바닥 면적에 충분한 채광 및 통풍은 구조적인 면에서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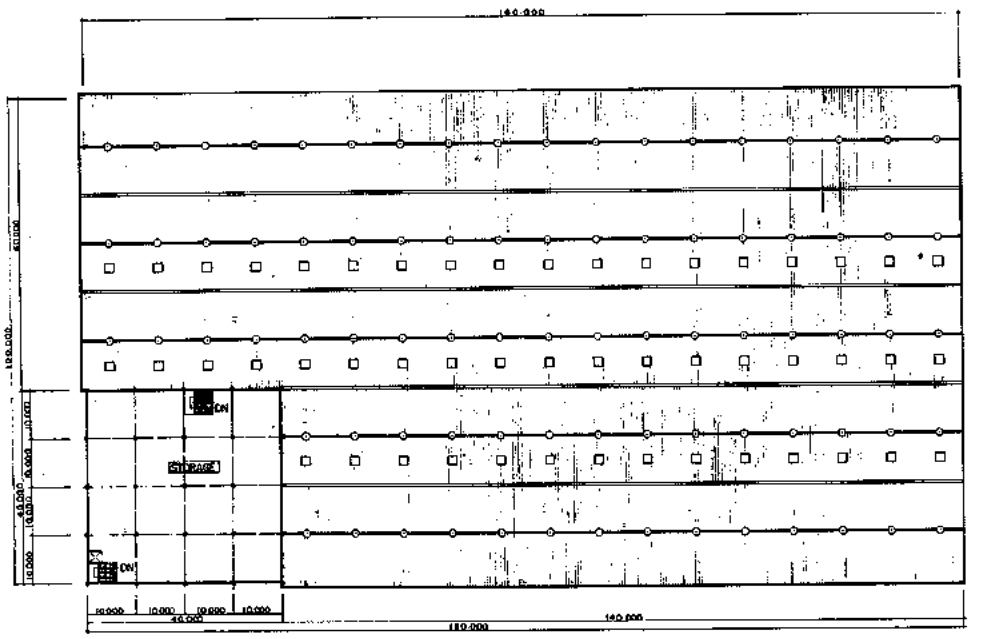
종업원들의 복지시설도 중심적으로 고려하여 식당 및 강당 건물내에 영화관, 다방, 간이 체육시설, 외무실을 두었고 기숙사에는 도서관, 오락실을 계획했다.

## 구 미 공 장 조 감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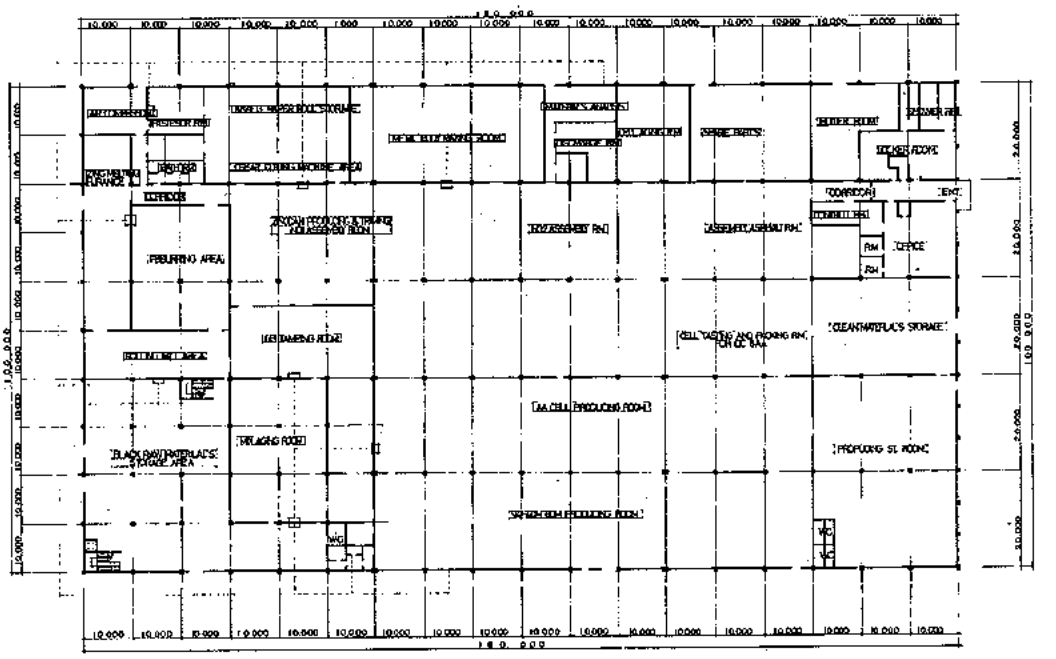





단면도




2층평면도




1층평면도

# 住居 雜記

## -生活의 피로는 住居의 安息에서-

李 鶴 榮

—생활의 피로는 주거의 安息에서—

문명의 利器인 메카니즘속에서 요사이 직장인 들은 都市化에 따라서 自然을 잃고, 空間에 위축당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하루의 피로를 풀기도 전에 축적만 되어 가고 있는것 같다.

그것은 마치 旅毒에 쌓여가면서 내일의 里程表를 짚어가는 집떠난 나그네 같이 초조와 피로가 겹쳐지는것에 비유하면 어떨까.

사람이 기계에 종속하는 사회——그것은 인간을 각종 기계의 부속물로 전락 시켰고 생활의 정서적인 여유를 빼앗아가 버렸다. 그러한 정서의 결핍은 감정을 단순화시켜, 현대인의 주거생활을 더욱 단조롭고 피로가 겹치도록 자극을 주어온것 같다.

너무나 時間生活에 쫓겨다니는 人間機械(?)와 같은 직장인은 安息을 벗어난 不幸한 삶의 소유자 들이다.

그러한 불행을 씻어주고, 삶의 보람과 내일의 꿈을 키워주는 것은 하나의 가정일 것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住居施設이리라

住居—그것은 생활의 안식처이고 삶을 위한 基本시설이다.

프랑스 소설가 『생·떽쥐 뻬리』는 人間의 발견을 집에서 시작하였다. 그는 사람이 사는곳을 모두 집으로 간주하였다.

家庭도 집이고 학교, 직장, 비행기, 조국, 세계, 지구별, 우주도 집으로 간주하여 인간의 基本을 집에서 발견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때 그러한 범주는 가능하겠지만, 建築的인 측면에서 보는 차원은 좀더 물리적인 것이 많다.

건축을 한답시고, 아직까지 자기집을 한번 지어서 살아보지도 못한 처지에서 무슨 제안과 방향을 제시할수 있으랴마는……오늘날의 住居価値観이 무언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것 같아서 필자의 둔탁한 신경을 자주 자극 하곤 한것 같다.

집은 사람의 個性, 생활정도, 가족등의 취향에 맞게 지어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이 基本哲学이다. 그것은 外観을 번지르하게 치장을 하여 값비싼 집을 지어서 산다는 것도 아니요, 적은 식구에 넓은 집을 소유하는 과시형 부자집도 아니요. 부동산 붐을 탄 돈벌이용 입주 집은 더욱 불행한 집이다.

불합리한 平面과 空間속에서 무언가 재산의 유지 보호자로써 불안한 관리자 이었지 생활의 안식처라고 볼수없는 것이다. 그것은 언제 入住者를 만나서 들어올지 모르는 남의집을 지켜주는 나그네인 것이다. 얼마전 기승을 부리던 『프레미엄』 아파트를 빌려지 않아도 될것이다.

살고픈 집——그것은 우선 자기의 능력에 맞고, 食口들이 무리없이 사용할수 있고, 정서가 깃든 휴식처인 住居이면 족할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얼이 담긴 伝統空間이면 더 부러울 것이 있겠느냐?

이제 우리도 높은 眼目으로 분수에 맞게 住居環境을 개선하고 이상적인 住居伝統을 確立할때가 온것 같다.

지난 5月7日에 직장의 낚시회인 성조회(成釣会)에 참석하여 다녀오던 길에 강원도 각지방 뿐만아니라, 도처에 새마을 사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것을 볼수 있었다.

그 일환으로 생활바탕의 혁명이라고 할수 있는듯한 농촌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활달히 진행되고 있는것을 눈여겨 보았다.

한 세대이상 때가묻고, 선조의 얼이 담과 담, 골목과 골목 사이에 얽혀있는 취락마을을 단시일만에 소도시나 계획하다 시피 획일적인 平面구성과 상하수 시설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것을 볼때 무언가 그것은 이 시대가 안고있는 大命題를 풀기위한 하나의 住居환경의 대역사적인 개선사업임에는 틀림없는 일이다.

옛마을, 그것은 시대에 맞게 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전통마을이다. 며

마을은 좀더 마을다움이 있어야 하고 농가는 농부가 살기에 적합한 것이여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취락마을은 마을생활의 환경에 맞게 사회의 요구에 부응되며, 영농의 合理化가 이루어지는 方向에서 계획되며 발전되어 나가야 할것 다.

그 은 바로 우리의 농촌을 발전시켜서 未来의 生活像에 맞는 마을定主型을 찾아야하는 重要한 모멘트가 되는 機会이기 때문이다.

外国에서 들어온 경양식은 우리 고유 음식인 한정식보다 친숙하지 못하니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 固有의 것은 버리고 남의것만 받아들이기 보담, 우리의 것으로 개량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위스키나 브랜디의 맛보다 우리의 藥酒나 法酒에서 더욱더 우리의 참 맛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사람이 관광을 오면 양주는 개량하고, 약주는 더욱 발전시켜 고유의 맛 보보으면 좋을것 같다. 였였 맛을

집도 우리 고유의 집을 개량하여 인간이 안식할수있는 田園마을을 꾸며, 창조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공해없는 자연속에 살고있는 원색의 산장을 알프스에서 찾을것이 아니라 태백산맥의 전원이 더욱 소중한 것이다.

각종건물의 밀집과 人間의 都市集中은 都市空間을 너무나 크게 오염시켰다.

지하수, 공기, 소음, 광선, 환경공해 속에서 일몰의 러시아워에는 일말의 허탈과 교통지옥속에서 더욱 피로를 축적시켜왔다. 이것은 삶의 住居환경이 더욱 절실하게 우리의 피로를 씻어주는 쾌적한 안식공간이 되도록 하여야된다는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

이상적인 주거시설이란 너무 사치스럽지 않고, 능력에 맞게 된 삶의 주거에서 피로를 풀 수 있는 안식처가 바로 이상적인 집이다.

거기에 순박한 人間을 발견하고 불신하지 않는 이웃을 만들면 더 보탤것이 없는 마을이나 도시가 아니겠느냐.

個人의 독립된 공간을 찾기 위하여 우리도 오래전 부터 大家族制度에서 차츰 分家되어 핵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무언가 우리의 것을 찾아서 아늑하게 살고싶은 하나의 住宅이 머리에 담겨진다.

테라스에 드리워진 등나무가 5月의 보라꽃 향연을 베풀면, 어느덧 넝쿨 수세미가 계절을 알리고, 채광 창문에는 완자창의 윤곽이 그려지면서, 앞뜰 마당에는 잔디가 파랗게 깔려 있고, 조그만 연못에는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平和스럽고 動과 靜이 어울리겠는가?

한치의 마당도 없는 무주택자의 입장이면 屋外 연결공간에 몇개의 花盆이라도 있어서 약간의 정서적인 綠色을 맛볼 수 있으면 그나마도 도움이 되는 집이리라.

그것도 어려우면 화장실 한구석에 시원한 造花라도 한폭 드리워 보라.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깃든 집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나 우리의 安息度를 높여줄까?

기능주의 건축가 『르·코르뷔제』는 "住宅은 삶을 위한 기구"라고 하였다.

집을 연구하고, 설계한 巨匠들은 너무나 많은 精力을 소비하면서 참다운 주거시설을 규명하여왔다.

유명한 집들은 꾸밈과 가식이 없는 집들인것 같다. 있을곳에 반드시 있고, 필요없는 곳에는 그 무엇도 없다.

요사이의 집은 인구가 증가하고, 家口가 늘어가는데따라서 숫적으로는 늘어왔으나 질적인 개선은 비례로 向上되지 않은것 같다.

너무 허위와 필요 없는 장식이 많은 不良食品인 상품같이 여겨진다.

機能을 무시하고 人間을 무시한 집들은 空間과 形態만 있을뿐이다. 그것은 이미 생명을 잃었다.

巨匠들의 집들은 날이 갈수록 삶이 生動하고, 현대인의 집들은 住居의 生命을 잃어가고 商品化만 되어가는 理由는 과연 무엇일까?

成均館大学校 建設課長

# 우르비노와 루네상스건축

## Renaissance architecture of Urbana, Italy.

朱 南 哲

### 1. Urbino의 환경

Urbino는 이태리반도의 중부동해안 지방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이다.

특히 이 도시는 이태리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아펜닌산맥의 험한 산상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주로 동해안의 도로에서 山上으로 난 가파른 도로로만 접근하게 된다.

우르비노의 근처에는 북쪽으로 작은나라인 산·마리노 공화국(San marino)이 있고 서북쪽으로 루네상스의 도시 휘렌제(Firenze)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선지 루네상스시대에는 이 Urbino 에는 文化의 꽃이 만발하였고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들었었다.

이들 예술가들을 이곳으로 부른 사람은 이 곳에서 12세기경부터 뿌렷한 家門으로 자리잡어온 몬테휄트로(Montefeltro)家의 자손인 훼데리코·다·몬테휄트로(Federico da montefeltro) 였다.

훼데리코는 AD 1444년부터 AD 1482년까지 Urbino의 Duke로서 Urbino를 지배하면서 "이태리의 빛"이라불리워 질만큼 많은 예술가들의 후견인이 되었었다.

마상경기에서 콧잔등이 부러지고 오른쪽 눈이 빠져 항상 왼쪽 프로필만 그리게 하였든(그의 초상화로 Firenze의 Uffizi museum에 보관된 Piero della Francesca의 작품참조) 그는 Bramante. Francesca di Giorgio, Lueiano Laurana 등의 건축가와 Piero della Francesca, melozzo da Forli, Paola Uccelo, Spaniard, Berruguete, Gianni Santi 등의 많은 화가들을 이고장에서 일하게 하였다.

이들 예술가들중에서 화가 Piera della Francesca 는 1415에서 1420년 사이에 Borgo San Sepolcra 에서 태어나서 1492년에 죽은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화풍은 이태리 토스카나지방의 미술을 기반으로 꽃피운 것이었다.

초년에는 휘렌제(Firenze)에 머물면서 화가로서의 수업을 하였고 특히 Leon Battista Alberti의 "Della Pittura" (画論에 관한 이론서)의 비례법에 심취하였었다.

그의 많은 작품중 오늘날 Urbino에 소장된"그리스도의 고난(Flagellazione)"di cristo(그림1)에서는 정확한 투시도법으로 처리된 공간내에 인물들을 비례에 맞추어 배치한 것을 볼수 있다. 右側의 세사람중 가장 右端이 바로 Urbino의 Duke인 훼데리코·다·몬테휄트로인바 여기서도 우측눈이 없는것이 안보이도록 좌측프로필로 그린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그리스도의 고난(Flagellazione di Cristo) (Piero della Francesca)

또 이 Urbino의 Galleria Nazionale delle marche 소장 "이상도시(Cittá ideale)" (그림 2)는 작자미상의 작품으로 Piero della Francscea에게 큰 영향을 준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루네상스시대의 도시중심 설계에 한 표본이 되었다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훼데리코가 Urbino에 새로운 도시중심을 만든것도 이런 환경의 영향이 있었겠으나 Urbino와 같은 Toscana지역에 있는 피엔자(Pienza)에 교황 Pio Ⅱ가 새로운 都市中心広場을 만든것(AD 1462년)도 일맥상통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Pienza의 広場과 주변 교회당, 빠랏조들은 모두 Bernardo Rossellino (AD 1409~1469)가 Leon Battista Alberti의 "Dere aeelificatoria"에 근거를 둔것으로서 위의 "cittâ ideale"와 유사한 것이며, 다음에 논할 Urbino의새로운 広場建築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것이다.

### 2. 빠랏조·두카레 (Palazzo Ducale).

Urbino의 中心建築이 되는 빠랏죠·두카레(palazzo

그림 2 이상도시(La Wttâ ideale)

ducale)는 건축가 루치아노·라우라나(Luciano Laurana)의 作品이다.

루치아노·라우라나는 AD 1420년경 La urana Zara에서 태어나 AD 1479년 Pessro에서 죽은 건축가로 그의 一生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는 mantova에서 1465년에 Leon Battista Alberti가 S. Sebastiano를 계획, 건축중일때에 있었다고 하며, AD 1467년에는 이미 Urbino에 와 있었다고 한다.

Luciano Laurana는 Palazzo Ducale의 주임 건축가로서 Urbino山上에 새로운 facade를 만들고 또 하나의 광장, "Piazza di Duca Federico"를 만들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Palazzo Ducale는 그 外觀이 불란서 후기고딕성관양식을 닮어서 루네상스 외관과는 다른바 있지만 正面 入口와 內部의 中庭 (Cortile)는전형적인 루네상스 양식이다.

이 palazzo는 전통적인 都市의 中心가까이에 새로운 景觀을 形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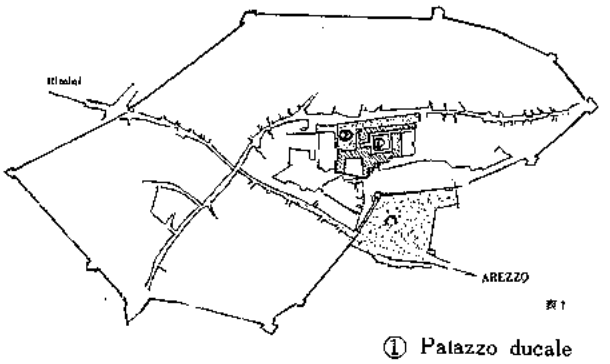
즉 로마를 향한 길로 부터 이 Urbino에 들어올때 이 Palazzo의정면 양측으로 선 탑과 새로 건축된 Francesco di Giorgio의 교회당의 dome과 종탑이 제일 먼저 눈에 띠우게 된 것이다.

그리고 都市計劃上으로 중요한 것은 Arezzo로 향한 길로부터 진입할때 처음 당도하는 커다란 Piazza (城밖의)와 이 Piazza를 지나서 좁은 성문과 곧 이어 좁은 중심가로를 지나 다다르게 되는 Piazza di Duca Federico의 構成이다. (그림 3)

이들은 모두 Federico와 Luciano에 의하여 시도된 루네상스의 Piazza개념으로서, Palazzo Ducale의 中庭 (Cortile) 과 좋은 空間的 Contrast를 이루어 都市空間속에서 인간이 움직일때 많은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Palazzo ducale의 正面入口는 로마시대의 Vault처럼 마감한 큰 Vault를 Corinthian Order의 반원기둥으로 받치고 있다.

이入口 (그림 5)는 Napoli의 까스텔·누오보 (Castel Nuovo, new Castle)의 정문인 승리의문(Arco Trionfale (그림 4) 디자인과 흡사한 것으로 이것이 AD 1467년에 Laurana의 디자인으로 건축된 것을 보아 Laurana는 Urbino에 오기전 Napoli에서 보낸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① Palazzo ducale
② Piazza di Federico

그림 3 urbino

내부 Cortile (中庭·꼴티레)의 지층부는 Filippo Brunellesehi의 Ospedale degli Innocenti a Firenze의 Cortile에서 처럼 Composite Order의 원기둥으로 반원 archivolt를 받고중간마다원형 medal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Cortile의 Corner 에서는 위의 Ospeclale 와 Palazzo medici에서 똑같은 원주를 세워 약하게 보이든 것과는 달리 두개의 Pilaster들을 직각으로 마주 세운후 다시 여기에 반원기둥을 부착시켜서 archivolt를 받게 하였기 때문에 Ospedale나 palazzo의 Corner보다도 강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6).

2층은 루네상스의 palazzo에서 모두 "삐아노-노비레 (Piano nobile)"로 使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主層으로서 직사각형의 창들을 등간격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pilaster를 둠으로서 Leon Battista Alberti 로부터 시작되는 Stylar Style의 디자인을 이루고 있다.

3층과 4층은 2층보다 한단씩 뒤로 물리고 2층에서 Corinthian Order의 Pilaster들을 쓴것과는 달리 아무런 柱頭없이 기둥과 보를 벽체보다 조금 내밀고 각 스판마다 사각형창을 냈다.

내부공간은 거의 모두 plaster 마감으로서 큰실은 groin Vault로서 천정을 이루고(그림 8) 또 루네상스에 널리 쓰인 Coved Ceiling (그림 9)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특히 루네상스궁전의 실내로서 주목할 특이한 것은 이 palazzo의 도서실 디자인이다.

이 도서실(그림10)은 Baccio Pontelli가 디자인한바 (AD 1476) 그는 Firenze에서 AD 1450년에 탄생하여 Roma에서 AD 1495년에 죽은 이태리건축가이다. 그는 일찍부터 건축가 Francesco di Giorgio의 作風에 기반을 두었었다.

그는 이 조그마한 도서실 4面壁面을 장식한바, 단단한 나무판에 下図에 따라 홈을 파고 그홈을 다른 색깔의 단단한 나무로 메웠다. 이것은 마치 고려청자의 상감수법과 같은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도서실에 들어섰을 때, 벽장문이 열려있고 장의 제일 밑단 위에는 넓게 段이 져 있는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이것은 Baccio가 정확한 투시도법을 적용하여 그림자 진 부분에는 흑단으로 상감하는 등 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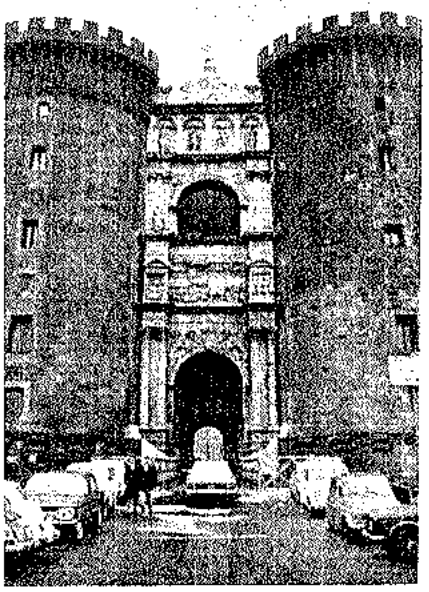


그림 4 castel nuovo의 arco trionf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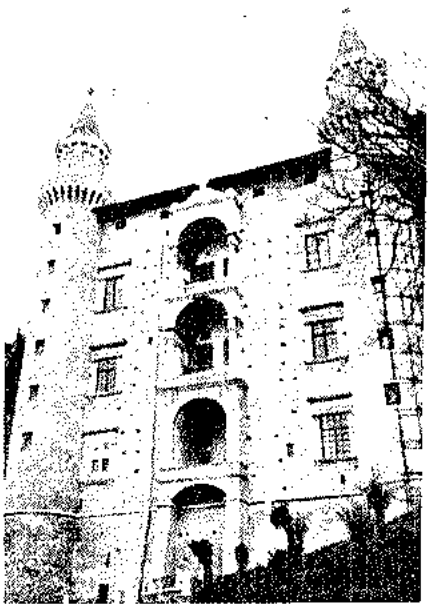


그림 5 palazzo ducale의 正門

그림 8 벽난로

그림 6 cortile(中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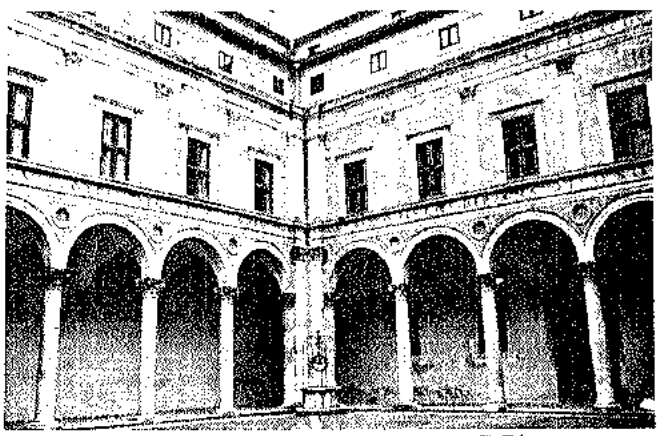


그림 7 chios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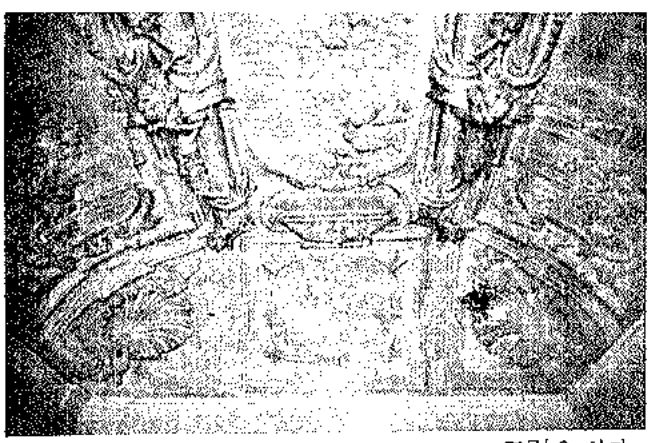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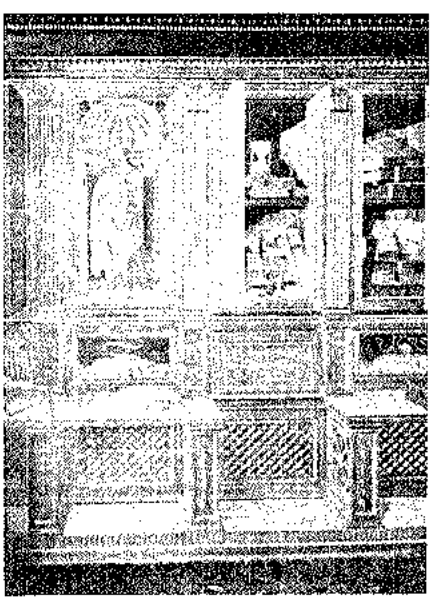


그림 9 천장



도서실

현상을 일으키게 한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이 도서실을 도판만으로 이해하고자 할때에는 착오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3. 성·베르나르디노(S. Bernardino)

Urbino의 東側 城外의 조금 낮은 山上에 공동 묘지가 있고 이 공동묘지의 입구에 성·베르나르디노성당이 서 있다.

이 성당은 Bramante의 말년의 作品으로 알려진것으로 Urbino의 Duke였든 Federco와 그의 아들 Guidobaldo (Federico 다음의 Duke) 그리고 그의 아내들의 무덤들이 있다.

그림11 s. bernardino 外觀

그림12 nave와 제단

그림13 入口內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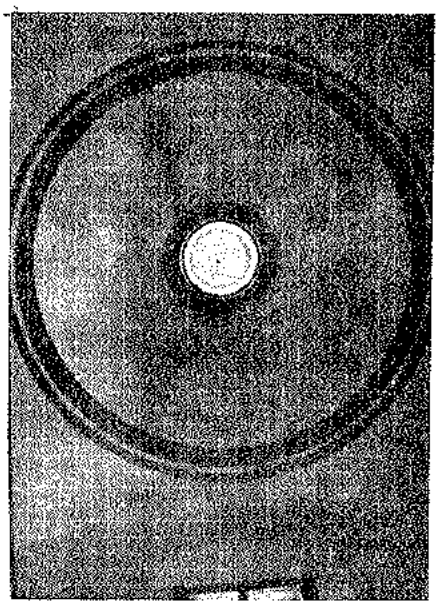


그림14 dome저부

외관(그림 11)은 상당히 고전적인 맛을 내는데 종탑옆에 우뚝선 Dome과 lantern의 디자인은 Bramante가 milano의 Santa maria delle Grazi 나 S. Satiro에서 보여주었든 것에서 상당히 간소화되였음을 알 수 있다.

평면은 라틴·크로스로서 Nave만 있고 aisle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내부벽면 처리는 극히 단순하여 벽체를 상하로 나누어 중간에 조금 내민 Cornice를 두고 상벽에 Tabernacle Window를 두었다. (그림 12, 13)

제단부와 양 trancept부에는 반원아취로 처리하고 corinthian Order의 원주를 양측에 세웠으나. 모든것이 그의 초기작품(milano 의 것들)들보다 단순화된것을 알수 있다.

특히 그림14에서 볼 수 있는 Dome의 內部는 극히 간소하여 아무런 장식없이 처리한 plaster 벽면에 Dome 저부를 두줄의 원으로 둘르고, 다시 lautern저부에 적은 원을 둘러 강한 빛을 받어드림으로서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Roma의 적은 교회당 S. Eligio degli Orefici의 Dome저부와 흡사한 것으로 Bernardino는 Drum이 없는것이 다르다.

외관으로 보았을때 충분히 Drum에 창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설치 않한것은 아마도 이 교회당의 상벽에 어느교회당 보다도 많은 창들을 설치하여 충분한 채광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주) 이 교회당은 1510년대에 Bramante와 Raffaello Sanzio가 디자인하고 Peruzzi에 의하여 Dome이 완성되었나

Peter murry the architecture of the Italian Renaissance. Thames and Hudson. London 1969.(p. 143.

## 참 고 문 헌


G. C. Argan. : Storia dell'arte italiana 2. Sansoni 1970.

Leonardo Benevolo : Storia dell' architcttura del Rinascimento Vol I. Laterza Bari 1968.

Peter murray : The architecture of the Italian Renaissance Thames and Hudson. London 1969.

〃 : Architettura del Rinascimento Electa Editrice Venezia 1971.


梨花女大 美術大 副敎授

# 건축사법 개정법률에 대한 앙케트

## ②

1977년 말에 공포된 건축사법 개정 법률은 오는 7월 부터 시행하게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건축사계의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주요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고견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사법 제22조의 도서 등록 의무는 도서 신고 의무로 개정되었읍니다. 건축사 협회의 운영 및 건축계의 발전과 결부하여 사전 신고 또는 사후 신고가 좋을런지 그 이유에 대하여
2. 건축가의 등급을 폐지하여 1급 건축사는 개정법의 건축사로 하고 2급 건축사는 개정법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 존속하되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읍니다.
   앞으로 2급 건축사가 개정법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명실상부한 대책에 대하여
3. 건축 보조사 제도가 신설되고 건축사 사무소에 건축 보조사를 확보하여야 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읍니다.
   인력난이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현재 건축 보조사의 확보 및 관리는 건축사 사무소의 난재라고 보는데 귀견과 그 대책에 대하여
4. 합동 사무소 제도가 신설되고 합동 사무소 등록자만이 일정 규모의 건축사 업무를 하게 되며 또 업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도록 되었읍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건축사 사무소의 대형화를 향한 개편, 빈번한 이합 현상과 분쟁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5. 기타 개정 건축사법중의 문제점이나 건축사 협회 발전을 위한 정관 개정 등에 대한 고견.

서울지부 김 형배

답1. 건축사법 제22조의 도서등록 의무는 당연히 사전신고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만일 사후신고가 된다면 우리 협회의 질서가 엉망이 될것은 물론 정부입장에서도 건축업무가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현행과 같이 사전신고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됨.

답2. 종전2급 건축사는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개정법의 건축사로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음의 몇가지 열거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① 우선 금번 건축사법의 개정에서 종전 1, 2급을 통합하는것은 앞으로 종전2급을 조속히 구제되지않는 한 영구히 업무적인 급별이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건축사법 개정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② 개정된 건축사법에 명시된 사항이 부측4호에 명시된바와 같이 건축사의 적용을 받을 뿐아니라 부측5호에 명시는 건축사 면허수첩을 교부운운한 것은 건축사로 인정하고 부측2, 3호는 건축사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런 사항을 합리화 하기위해서라도 종전 2급은 조속히 구제 되여야 합니다.

③ 우리나라는 현재 기술직 인재가 고갈상태에 있을뿐 아니라 외국(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건축사의 부족을 말할 필요 조차 없는 실정에서 종전2급 건축사는 조속 구제되어야 하며 만일 이제 전과목 또는 일부과목을 시험을 치뤄 실력에 의한다는 이론이라면 종전1급 건축사도 현재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거쳐야 확고한 실력위주의 건축사가 배출되는 이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3. 보조사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당분간 강제규정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보조사에 대한 정책이 없었으며 또한 현재 기능직의 인력난이 심각한 때에 강제규정은 보류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답4. 합동사무소 권장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사무소의 질적향상을 위한 합동 또는 기술의 합리적인 합동사무소이어야 하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행정만을 위주로한 합동 즉, 연대책임만을 위한 합동사무소 권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 됩니다.

충남지부 대의원 柳 聖熙

답1. 사전신고가 좋다고 生覚합니다.

답2. ① 2급건축사 자격 취득후 一定期間의 경력을 참고하여 자격 취득케 하는것과,
② 期間内에 연수교육 또는 저명인사 초청하여 교육후 시험 또는 절차를 밟어서 자격 취득케 해주었으면 함.

답3. 인력난이 심각한 현시점에 건축사 사무소에 꼭 보조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음.

답4. 꼭 합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는 生覚지 않읍니다.
종전대로 個個人의 事務室을 運営하는 方向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함.

답5. 건축사의 数가 증대함에 따라, 건축사 복지 생활을 염려한 나머지, 건축사의 의료 보험제도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부산지부 대의원 유광택

답1. 사전신고로 하되 도서심사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이유; 도서작성의 질을 향상시키고 법의 질서를 유지키 위함.

답2. 경력에 따라 응분의 전형을 거쳐 자격이 있는자는 건축사로서 구제함이 가함.
이유; 현재 2급 건축사도 사무소 개설자로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자는 구제해야 될것임.

답3. 장차 건축사가 되려면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함이 유리 하게 규정되여 있으므로 보조사학보를 개설사무소에 의무화 하지 않는것이 좋다. 이유; 현재 절대 인원수가 부족한 시기이므로 만일 보조사 고용을 의무화 한다면 인건비 팽창의 요인이 되고, 따라서 설계비 코스트업 현상이 일어날 것임.

답4. 건축사 자격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이지 결코 어떤 조직에 의한 면허가 아니므로 조직이 광범하다 하여 창작이나 예술적인 면이 우위에 있다고 할수 없으며, 양적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건축사 자신이 판단할 것이지 결코 조직을 선행 시키는 일은 부당하다고 됨.

답5. A) 현재 팽창 일로에 있는 협회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전국통합예산 제도를 중지하고 각 지부단위로 한 독립예산으로 환원하여 현 협회 본부를 전국 건축사 연합회 형식으로 하면 현행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절감될 것임.
B) 현행 실적 회비 산출기준표의 종별및 구조별 공사비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이유, 건축사 업무 보수기준은 종별 공사비에 따라 결정될 것인바 현행 실적 회비 징수기준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대다수 건축주는 실적회비 산출기준이 바로 설계비인양 오해하여 왕왕 시비의 원인이 된다.
C) 각지부 운영상 종전과 같이 간사회 지도회 윤리위원회 등 임원회가 존속되어야 함.

경북지부 대의원 고만권

답1. 사후 신고가 좋읍니다.

답2. 1급 건축사는 건축사로 되였음으로 2급 건축사는 구법에 의한 2급 건축사로 존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의 전형에 의하여 앞으로 건축사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답3. 건축사 1명에 대하여 보조사 2명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답4. 합동사무소는 건축사의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장할 것이지 법령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서히 합동이 되도록 우선 동일 구청 관할 내의 위치한 건축사와 건축사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도 합동 할수 있는 길을 터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5. 합동사무소에 대하여 반드시 2인 혹은 3인이 동일 사무소에 모여서 한다는 것은 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 그 사무소의 면적이 최저 100m²~150m²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일 구청내의 경우 사무소의 위치를 달리하여도 그 거리가 300m이내일 때는 합동 할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회발전을 위하여는 통합예산을 지양하고 각 지부의 독자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종전과 같이 환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부 포항분소장 양 임 수

1. 사전 신고가 좋다.
   이유 : 무등록 건축사 무자격 건축사 소위 3급 건축사의 활동으로 또한 일부회원의 명의 대여 동조로 설계비 덤핑에 의한 권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 또한 건축사의 복지 및 건축사협회의 발전을 위해 사전신고가 좋을 것 같다.
2. 2급 건축사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 존속보다는 일정기간에 의하여 전형 또는 시험을 처서 건축사 면허 취득토록하는 것이 좋겠다.
3. 보조사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좋으나 반드시 건축사에게 숫자를 확보케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건축사는 조형창조 예술가인데 보조사를 강제 제정으로 확보케하는 것은 모순이다.
4. 합동사무소의 운영은 좋으나 보다 대형화하고 보다 건축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규정과 관청에서 위임받은 연대 감리제도에 대한 업적 권한을 위임 받았으면 한다.
5. 공사감리상 행정력을 동원해도 시정되지 않은 위반사항을 건축사의 연대감리로 위반사항을 시정 권유로 지도케되어 있는 현 시점으로는 연대감리 애로 사항중의 하나이다.

서울지부 서울지부간사 심기섭

답1. 사전신고 또는 사후신고에 대하여,
   사전신고가 합당함. 사후신고를 하면 신고의 불성실 및 누락이 많아 통계상의 파악곤란, 저작권침해, 회원간의 불화조성, 회원명의 도용가능이 있음.

답2. 2급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도움대책.
   ① 유능한 교수를 초빙하여 소정의 학과 교육실시.
   ② 경력평가

답3. 건축보조사 제도에 대하여,
   건축사 1인에 자격 구비한 보조사 1인이 합당함.
   ① 보조사의 처우개선
   ② 대한건축사 협회와 학교와 자매결연 실시.

답4. 합동사무소에 대하여,
   ① 합동사무소는 건축사 7인 이상의 주식회사로 구성하여야만 이합현상과 분쟁을 해소 할 수 있음.

답5. 개정건축사법 중의 문제점이나 협회발전에 대하여,
   ① 2급건축사는 경력평가 및 소정의 학과 교육실시후 건축사로 통합함이 가함.
   ② 건축사 응시자격은 대학교 졸업후 부여하고 소정의 실무 경력 7년이상이 경과된 후 등록을 할 수 있게 함이 가함.
   ③ 대의원수는 회원 10인당 1인씩 구성하여 다수의사를 반영시킬수 있음.
   ④ 협회예산을 각 지부 자립 절약정신에 입각하여 통합예산을 지양하여야만 예산절감을 가할수 있음.

서울지부 간사 송인창

답1. 사후신고로 하여야 함.
   협회의 존재가치가 없다.

답2. 2급 건축사 독한후 7년된자는 자동 건축사로 인정되게 하였으면 합니다.

답3. 합동사무소를 법적 뒷받침에 의해 이루어지면 자연 해결되리라 봅니다.

답4. 강경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답5. 통합예산 폐쇄. 분소 존속.

경북지부 대의원 朴 海龍

답 1. 도서신고에 대하여

현행과 같은 운영하의 도서등록은 일정률의 실적회비를 증수하는 방법의 제도에 지나치지 않음으로 "사후신고"로 함이 당연하다고 사료 되오나 허가 관서의 실무적인 부족과 도서검투의 시간적 결감에 기여하며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감안할때 도서의 하자가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함에 제도적 개선으로 도서의 심의를 강화 시행한다면 "사전신고"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답 2. 건축사의 등급폐지에 대하여

개정된 건축사법은 표면상(법 3조, 법 4조, 법12조, 법15조)으로는 일원화를 기한듯하오나 내용면의(동법 부칙 2항의 경과 조치)업무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봐서는 이원화로 되여 있으며 2급 건축사의 자격의 위치가 애매하다고 사료됨. 개정법의 취지로 봐서 자격의 일원화가 목적인바 기득한 2급 건축사에 대하여는 업무실적의 기준 년한을 채택하여 동 건축사자격이 취득되도록 하는 방안이 요망됨.

답 3. 보조기사에 대하여

자격기준의 인적상황 및 자격자의 동태를 살펴볼 때 보수가 월등한 국내외의 건설업계로 진출지망이 절대수로 인하여 보조사의 확보가 극히 난점으로 예상되오니 현시점에 있어서는 1개 사무소당 1명 기준의 방안이 요망됨.

답 4. 합동사무소에 대하여

(1) 본건에 대하여 현재 상당수가 합동사무소로서 운영하고 있으나 각자의 능력, 활동력, 개성, 지능, 이해관계등의 차의로 애로사항이 허다하며 연대 책임 또한 타의에 의한 행정처분도 적지 않았읍니다.

고로 운영의 자유화가 보장되고 연대책임의 면책내지, 설계책임자와의 차등이 있었으면 사료함.

(2) 법 제23조 2항의 일정사항은 합동건축사무소 개설자만이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합동을 하지 않는 건축사에게 업무수확피해가 가능한 적도록 희망함.

답5.건축사법중의 문제점 및 건축사협회의 발전의 건

(1) 건축사법에 대하여

(가) 법 제 3조의 등급삭제. 제 4조의 1급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의 삭제. 제12조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5조의 2급 건축사 자격시험 삭제등 개정의 내용과 취지를 볼때는 1급 및 2급 건축사를 건축사로 일원화 하였다고 간주되오나, 동법 부칙 2항을 봐서는 경과조치로 조건부의 2급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대단히 애매한 해석이 되오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자격의 표기, 건축사의 용어에 난점이 있지않나 사료 됩니다.

(나) 앞으로 건축사가 없는 시·군에도 1명이상의 건축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시정이 예상되는데 이를 위하여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의 취급한계(구조별, 용도별, 면적별)을 정하여 당해 시·군 행정구역을 이탈할수 없도록 하고 사무소 신기등록은 건축사가 없는 시·군에 일정원수가 달할때까지 잠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가 요망됨.

(2) 건축사 협회를 건축사 연합회로 개편을 요망하고 불연이면 현정관을 대폭 발전적인 개정을 하되 지부 독회계로 하는 제도가 요망됨.

경북지부

답 1. 13년간의 육성한 건축사 협회가 실적회비 증수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인데 사후신고한다면 재정연출에 타격이 크고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과 도서작성에 완벽을 기할수 없음.

답 2. 건축사의 자격을 一元化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면 2급 건축사는 기득권이 있어 연한을 정하고 몇년 이상 개설한 2급 건축사는 서류전형으로 자격을 부여함이 타당함.

답 3. 건축사 보조원에 대하여 보조원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건축사 1人에 보조사 1人 이상으로 하고 공과대학을 졸업하면 학과시험을 응시하도록하고 전문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는 실무경력의 적당한 年限을 정하여 건축사 자격응시 시험에 응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답 4. 합동사무소는 10人 以上으로 제정함이 可하다고 생각함으로 대단위로 합동하면 경쟁율이 적을것임.

답 5. 우리사회는 너무나 모든면이 충실치 못함을 자인할뿐 건설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맹종할것은 없으며 좀더 강력한 제재가 되어 회원의 복리 증진이 되게 함이 可함.

강명구 건임회장(본협)

답1. 第22条의 도서등록이 도서신고 의무를 개정된때에는 그나름대로의 큰 理由가 있었음을 건설부에서 시정한 것이기에 모든 그동안의 不合理를 시정하고 도서 등록時와 같이 事前에 施行되는 것이 도서등록에서 신고로 개정된 中間的 마찰을 減小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답2. 医科大学 졸업생이 医師試験을 곧 치를수있는 制度가 建築士만이 卒業后 수년 실무에만 시달리다 合格率이 저하되게 하는 理由를 먼저 建設部에 묻고 싶읍니다. 또한 2급 건축사라 할지라도 1급以上 実務成積이 우수한 건축사가 많이 있음으로 건축사 人力需給的인 面으로도 簡単한 実務講習을 年1回式 4月卒業으로 1級으로 認定해 주도록 하는 制度를 強力히 勤합니다.

답3. 干先 大学, 専門校의 教育方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現下의 工大 建築科는 많이 建設技術者 養成所로 格下된 点입니다. 미국의 大学에서는 週当 設計時間이 最小 16시간 내지 24시간에 比해 우리나라에서의設計時間은 不過 4～6시간인데에도 그時間을 技術者 応試에 対備하는 特講으로 代替되는수가 많음으로 이러한 추세로는 앞으로 우리나라 工大 建築科 卒業生은 技術者 教育만으로 設計를 하는건축사 裴出은 中断될 形便임으로 人力需給上은 勿論 建築向上의 절름발이 教育이 우려되며 건축사의 数的不足은 勿論 보조사도 점점 求하기 힘들게 될것입니다.

그럼으로 보조사가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資格을 보조사 아닌 技術者免許 所持者보다 優待하는 制度가 꼭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4. 現在 状態로는 合同사무소 制度가 必要하다고 보나 2人운영 사무소라 할지라도 設計의 質과 責任이 完全한 것이 認定되는 制度가 있다면 이는 合同의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結局 一般市民들이 願하는 設計의 質과 그 責任이 一般에게 普遍的으로 認定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必要한 制度로 생각합니다.

답5. Ⓐ 改定건축사법은 그동안에 法運用上만은 缺点을 発見하고 그示正을 위한 改定임으로 그 改定건축사 법의 成法취지를 充分히 理解하고 運用의 묘를 기해야 하며 改定건축법에 문제점이 運用 途中 発見되면 점진적으로 改善할수 있는 길은 터 있을 것으로 압니다.

Ⓑ 協会발전을 위한 정관改正은 協会를 위한 정관 개정이 아니라 建築士를위한 정관개정이라는 観点으로 根本的인 精神이 개정에 反映되어야 합니다.

任員을 위한 協会運営의 内実은 協会無用論으로 까지 成長되기 쉬움으로 会員을 위한 奉仕精神은 会員에게 直接的인 福祉와 나아가 協会発展의 밑바침이 된다는 일을 알어야 하며 이러한 精神이 実地的으로 反映될 수 있는 정관 개정은 꼭 必要합니다.

경북지부 대의원 임두현

답1. 등록의무는 도서신고의무로 法改正이 되였기에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일이 아닐수 없읍니다만 도서의 신고의무는 사전신고 나마 꼭 할수 있도록 努力하여 주길 바라겠읍니다.

답2. 今委政府가 提案한 建築士法 改正法律의 根本提案 目的은 建築上의 資質向上과 現行1級 및 2級으로 区分되여 있는 建築士의 等級을 一元化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는 것은 事実일 것입니다.

過去 国家技術資格法 制定 当時 過程에서 들이켜 본다면 建築設計分野를 이 法에 묶으려고 했을때 文公部 建設部, 建築士協会, 建築学会, 建築家協会 및 建築関係 여러 団体에서는 一致하여 建築設計分野는 어디까지나 造形創作芸術 임으로 묶을수 없다고 극력 反対하여 除外 시킨 事実을 상기하여 볼때 建築士의 資格一元化는 너무나도 当然한 事実이며 타당성이 認定된다고 生覚됩니다. 허지만 同法 附則 2項에서 明文化하고 있는 現行 2級 建築士에 対하여 資格을 取得 할때까지 3층 以下 延属積 1,500m² 以下의 業務量을 区分 規定하고 있는 것은 母法改正過程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相反된 措置가 아닌가 生覚되오며 만일 造形創作分野에서 例컨데 画家들의 業務限界 過程에서 1級·2級의 画家가 法上 있다하며는 過然 어떻게 될것인가 심히 生覚해 보지 않을수가 없는 重大事입니다. 하오니 建築士法 역시 業務限界를 存続시키는 것보다는 国家技術 資格法의 規準에 의거 経過年限이된 過去 2級建築士에 限해서는 書類銓衡만으로 建築士의 資格一元化의 大課題 解消를 為하여서는 많은 難題를 두고 있는 施行令改正過程에 있어서 加一戸 建築士의 質的向上을 기여할 수 있는 妙案을 모색하여 多数人이 갈망하는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답3. 改正法에서 補助士의 資格規準은 相当히 높은 年限線으로 規定하고 있다고 生覚되나 이는 建築士 資格試験에 応試하는 実務経歴 年限規準에 特惠措置 있는 만큼 現行은 많은 難題가 있겠지만 자라나는 後輩들의 社会進出이 2年間이나 단축되는 만큼 現下人力不足이 일어나고 있는 実情에서 감안하여 볼때 建築士 免許取得의 試験 限定年限의 特惠를 주도록 되여 있는 過程에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生覚됩니다 마는 郡小都市의 크나큰 難題가 초래될것이 重大視되오니 이 点 널리 参酌하시여 個人이 運営 하는 事務所 및 合同事務所의 채용 人員規定을 깊이 研究하여 全国的인 難題가 초래되지 않도록 바라겠읍니다.

답4.

建築設計分野가 그야말로 造形創作芸術이라면 建築士의 連帯責任制란 있을수 없는 用語上으로나 制度가 마땅히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生覚합니다.

建築規模가 大型化해가고 建築技術이 高度로 必要하는 批時 建築士 相互間의 技術을 交換할 수 있고 事務所 運営費의 節減과 過多한 競争難을 考慮해 볼때 合同事務所의 開説을 勧奨할 必要性은 至大히 認定하는 事実이나마 現下 小都市와 大都市와 大都市와의 見解가 너무나도 많을줄 믿읍니다. 왜냐하면

其理由로서는

国務総理指示 事項인 住宅行政簡消化 方案策으로 地方郡小 都市에서는 現在 3人組 以上의 組編成이 이루어져

多小나마 過多 dumping 防止의 一益을 차지하고 있는 事実과 더불어 建築交換의 技術交換과 運営費의 節減等의 기여하고 있는 実情이나마, 이번에 施行令 改正案에 살펴본다면 合同事務의 構成人員 및 一定規模以上의 設計可能範囲 等을 읽어보았지만 単一建築物로서 33.000m² 以上 또는 3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65.000m² 이상의 대상 建築物은 合同事務所의 開説者만이 할수 있다고 案이 作成되여있으나 地方에서는 그야말로 그림에 떡인줄 認識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꼭히 이法을 施行令에 改正한다면,

A. 合同事務所의 構成人員은 3人 以上으로 하고

B. 事務対象面積은 地方으로서는 現在대로하고 単一建築物로서는 改正案의 面積보다 半으로 줄여줄것을 願하는 바입니다.

C. 補助士 채용범위는

個人事務所는 1人 以上

3人以上 合同事務所는 2人以上.

6人以上 合同事務所는 4人 以上으로하되 2人 초과할때 마다 補助1人 追加채용.

D. 株式運営体이든 個人이 3人 以上 構成되여 運営하든 合同事務所로 認定하여 줄것을 건의 합니다.

만일 現在案대로 2人 以上으로 改正될 경우 地方에서는 또한번 크나큰 혼란과 물의를 야기시키게 됨을 深히 우려되는바 全国的인 基礎調査와 至大한 研究 検討가 必要할줄 믿읍니다.

※ 본 앙케이트 대상은 본협 전국대의원 및 전임회장, 임원 각대학(본협 유관 교수)을 중심으로 약 200명을 선정 발송 하였음을 밝힙니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경유로 그설문에 응답하신 분들의 회신 내용을 접수순대로 실린다.

# 建物의 気密性

## 窓과 壁体사이의 接合部

李 聖 國

目　　次

1. 序 論
2. 씨링 컴파운트(Sealing Compound)의 破壞
3. 프레임(Frame)이나 유리로 인한 圧縮
4. 프레임(Frame) 内部의 缺陷
5. 空洞壁에 있어서 프레임(Frame)의 設計
6. 商業的 側面에서의 考察
7. 窓과 壁体에 있어서 接合部의 設計時 注意事項

### 1. 序 論

BRE(Building Resarch Establishment)에서 主催했던 建物의 気密性에 관한 심포지움은 窓과 壁体사이의 接合部가 漏出의 潛在的 原因이라고 意見을 모았다.

이 問題가 얼마나 深刻한 것인지를 말하기란 困難하나 BRS(Building Rearch Station)와 BRAS(Building Research Advisory Service)에서는 그간의 經驗을 바탕으로 이 問題의 어려움을 몇가지 提示하고 있다. 아직 充分한 資料는 없지만 問題의 原因은 여러가지이므로 本稿는 다만 몇個의 例를 指摘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여러가지 資料를 分析해보면 이와같은 潛在적인 原因에 대해 注意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生覺된다.

本稿는 수년전에 있었던 經驗에 의한 것이며 問題의 潛在的 原因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이의 改善을 위하여 몇가지 提案을 했다. 本稿의 内容은 基本的 性格을 띤 既存構造方式에 대해 論述되었으나 결코 例가 基本的으로만 局限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挿図는 原則的인 問題를 説明하기 위한 것이지 施工에 使用할 수 있는 完全한 詳細는 아니다.

흔히 建物의 気密性에 있어서 重要한 問題는 原來의 詳細를 자주 変更하는데서 発生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変更自体는 많은 理由가 있으나 예견치 못했던 潛在的 缺格의 発生을 誘導하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例로서 空間쌓기한 벽돌壁体에 스텐다드木材窓을 施工하는 것이다.

### 2. 씨링 컴파운드(Sealing Compound)의 破壞

씨링 컴파운드(Sealing Compound)가 받는 変化의 程度는 構造方法과 使用材料에 의해 많은 影響을 받는다. 接合部는 補修나 塗布가 容易하도록 施工되어야 하며 프레임이나 壁体는 컴파운드(Compound)가 破壞되는 것을 防止할 수 있는 堅固한 内壁을 갖인, 空間的으로 適合한 크기와 形態를 確保하여야 한다. 이러한 空間을 形成하는 壁体는 施工者가 마감을 하는 것을 돕고 씨링 컴파운트(Sealing Compound)가 充分한 두께로 施工되었는가를 쉽게 検査할 수가 있다.

그림 1. 2.는 施工者가 上記의 要求條件을 充足치 못한 接合部의 詳細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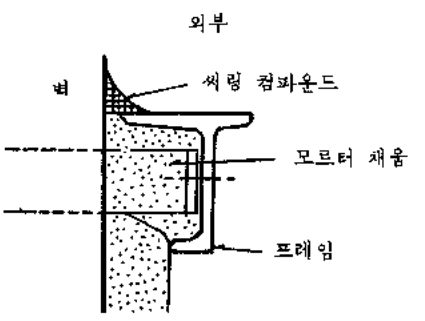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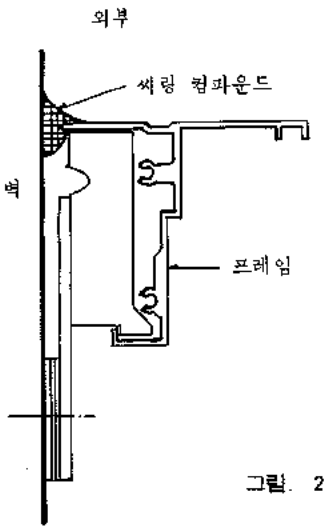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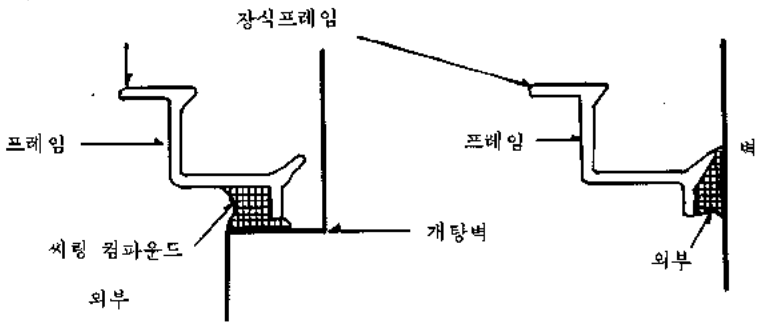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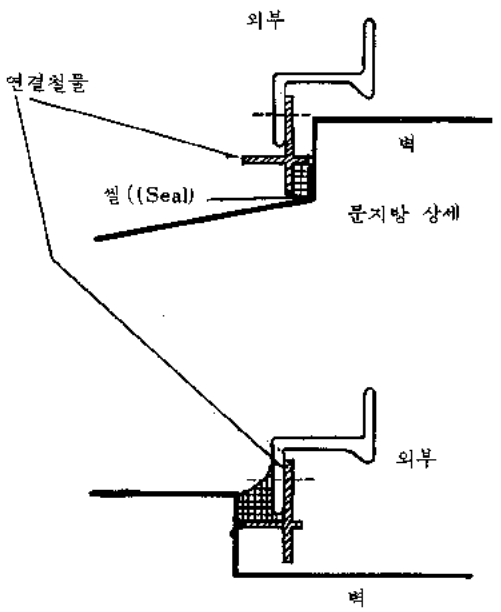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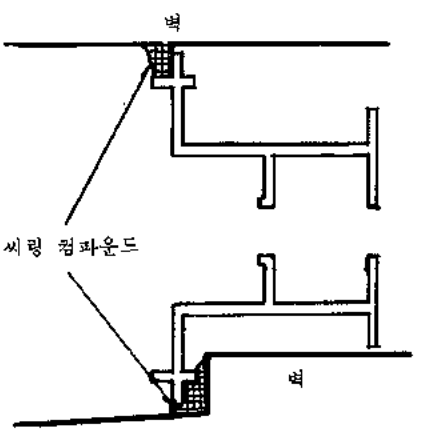



그림. 5

接合部와 作業 要求條件들은 씰(Seal)의 常用位置에 變化를 주는 것을 要求하지 않는다. 그러나 大部分의 프레임(Frame)이 位置의 變化를 必要로 할때에는 充分한 設備가 씰(Seal)의 用途를 위해 設置되는 것 보다는 프레임(Frame) 이디자인 面에서 製作되어야 한다.

그림 3. 4. 5.는 이러한 것을 滿足키 위해 어떻게 再 設計되며 變更될수 있는가를 나타낸 詳細다. 하지만 비록 그런 變更이 使用材料에 依하여 強制的으로 制限받는다 하더라도 作業過程은 製作斷面과 費用의 限度 內에서 이루어 진다.

프레임(Frame)이 製作되지 않았을때나 設置되지 않았을때 일어나는 接合部의 變化는 씨링 컴파운드(Sealing Compound)를 갖는 接合部를 確保하는 것이 나비에 의해 어렵게 된다. 最近 BRS(Building Research Station)의 測定에서 시튜 콘크리트(Situ-concrete)기둥과 內部窓門사이가 ±15㎜를 超過함을 알아냈다. 接合部의 設計時 단순한 치수의 變化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위와같은 問題는 프레임(Frame)과 크레딩(Cladding)사이에 얼마간의 重複된 形態를 갖게 하면 된다. 위와 같은 問題는 接合部를 設計할때 単純히 치수의 變化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프레임(Fram)과 크레딩(Cladding)사이에 얼마간의 重複된 간단히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접합부분의 치수는 19~38㎜程度로하면 된다. 그림 1. 2는 理論的으로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어 많은 維持費가 所要된다.

그림 6.과 같은 計劃은 겹침施工을 함으로써 어떻게 마감이 줄어지고 프레임(Frame) 周囲의 씰링(Sealing)과 씰(Seal)을 保護하게 되었는가를 說明하고 있다. 그런 規則은 많은 形態의 크레딩(Cladding)과 프레임(Frame)에 適用할 수 있다.

濕気나 溫度의 變化보다는 그 밖의 다른 變化에 基因한 伸縮材의 破壞는 프레임(Frame)의 만곡(Warping) 이나 뒤틀림(twisting), 프레임(Frame) 에 構造物의 처짐(deflection)이나 크리프(Creep)에 의해 생기며 프레임(Frame)의 形態 變化는 固定部의 弛緩때문에 생긴다.

이러한 많은 缺陷은 規格에 맞는 프레임((Frame)의 材料를 使用하고 緻密한 設計와 選擇을 함으로서 豫防할 수 있다. 프레임(Frame) 周囲의 構造物의 처짐(deflection)과 크리프(creep)를 豫想하고 許容해야 한다.

実際的으로 適用이 어렵다 할지라도 만일 製作할 때에 3가지 部材나 프레임(Frame)에 連結된 流動的 接合部

를 가진 接合部가 固定되어 있다면, 수월한 作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暗示하는 固定接合(防水材의 밑바닥과 連結되 있는 材料)에 있어서 보다는 流動接合(Cladding과 Frame의 움직임을 豫想해 設計된)에 있어서 더욱 破壞가 잘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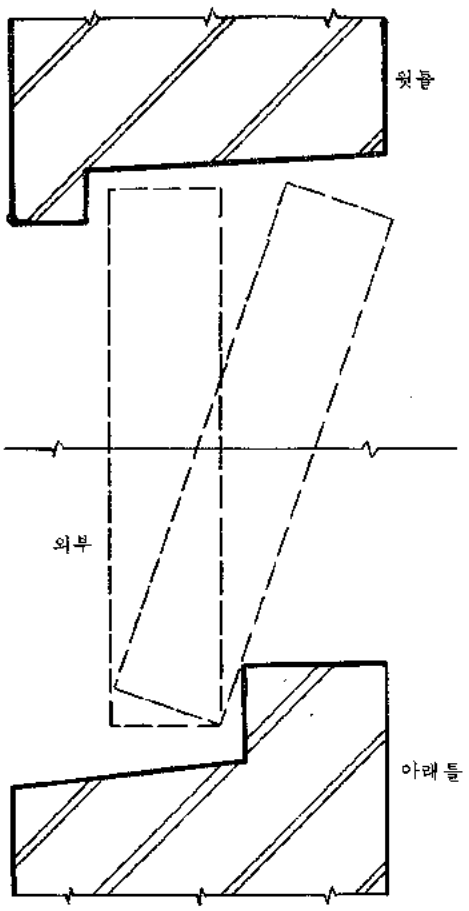



그림. 6

3. 프레임(Frame) 이나 유리로 因한 壓縮

金屬製 圧縮 프레임(Frame)의 內部面이나 유리의 圧縮은 壁面의 周圍 특히 창밑을 젖게 하여 漏水를 일으키게 한다. 이러한 圧縮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排水路가 設置되어야 한다. 하지만, 圧縮이 생기는 直接的인 證據가 없어라도 빗물이 스며들어 생겼다고 생각되는 濕氣는 프레임(Frame) 內部의 圧縮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도 生覺할 수가 있다. 속 빈 金屬製 프레임(Frame)이 위 現象과 같이 되기 쉬우며, 특히 커다란 金屬製 板인 補助 프레임(Sub-frame)은 더 심하다. BRS(Building Research Station)에서 行한 實驗에서 속 빈 프레임(Frame)의 內部가 適当한 條件에서 濕氣가 많은 大氣中에 露出될때 壁面을 濕潤시키기위해 充分한 물이 생겨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수증기가 通過할수 없는 材料로 된 프레임(Frame)으로 되어 있을때 完全한 充盡이나 씨링(Sealing)은 圧縮을 最小로 減少시킨다. 프레임(Frame)의 背面을 完全하게 채울때 간혹 施工이 困難할때도 있다. 만약 압축(圧縮)을 防止할 수 없다면 프레임(Frame) 周圍의 크레딩(Cladding)은 建物 外部에 位置하도록 設計되어야 한다.

4. 프레임(Frame) 內部에서의 缺陷

木製나 金屬製 프레임(Frame)에서 濕氣나 빗물이 建物 內部로 進入하려는 樣相이나, 샤쉬 리베트(Sash rebates)로 부터 침수되는 缺陷이 発見됐다.

木製 프레임(Frame)에 있어서 弛緩된 매듭 部分이나 收縮홈이 下引栿을 通하여 浸水를 誘導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深刻한 問題는 문설주상에 물 끓기 홈과 장부나 빗살現像의 引栿을 지나는 세로 窓살을 設置함으로써 크레딩(Cladding) 內의 浸水現像이 일어나는 原因이 된다는 점이다.

만일 프레임(Frame)이 空洞壁이 外壁에 設置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現像을 発見하기가 困難할 것이다.

그러나 프레임(Frame)이 堅固한 壁이나 문짝(leaf) 內에 設置되거나, 또는 防濕尽이 引榜아래에 設置되어 있지 않았다면 간혹 濕気가 생기게 된다

鉄製 프레임(Frame)에 있어서 끼움재나 固定製를 設置키 위해 샤쉬 리베트(Sash rebates)를 通하여 各 種의 構成이 있다. 既成窓內에 이런 構成物들이 채워지지 않았을때 漏水의 經路가 될 수 있다. 製作品은 간혹 非 固定 防水材나 防水모르터로 채워진 프레임(Frame)의 後面에 空極이 생기므로 漏水를 防止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구멍들을 없에 버리거나 좋은 伸縮材를 使用하여 채워야 한다.

알미늄 合金製 窓門에 있어서 木製프레임으로 되어있는 코너(cormer)接合部와 같은 境遇에는 漏水의 潛在的 原因이 된다. 모든 鉄製窓門들은 코너(cormer)에密着되므로 이런점에 대해서는 걱정할 必要가 없다.

熔接한 프레쉬 버트(flash butt)는 堅固하게 防水가 잘 되도록 接合이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나 깨끗이 하고 光澤이 나도록 해야 한다. 熔接은 電気熔接으로 하고 미리 電気 分解 鍍金하거나 塗裝된 것은 使用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原因에 対한 漏水의 防止策은 코너를 통한 漏水가 建物의 外部로 排水될 수 있도록 프레임을 設計하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문설주를 지나도록 引栿部材를 延長하고 끝 부분을 傾斜가 지게하면 좋은 效果를 가져온다.

5. 空洞壁에 있어서 프레임(Frame)의 設計

空洞壁內의 프레임(Frame) 周辺에 漏水가 되는 2가지 理由는 內外 문짝 사이에 防濕尽이 連結되고 壁体로부터 隔離되어 있는 프레임이 收縮되기 때문이다. (그림. 3. 9). 密閉된 곳에 있어서의 垂直的인 防濕의 經路는 通常 프레임(Frame)에 隣接시킨다. 外部 문짝에 있어서 이러한 設計는 벽돌의 吸收性에 依하여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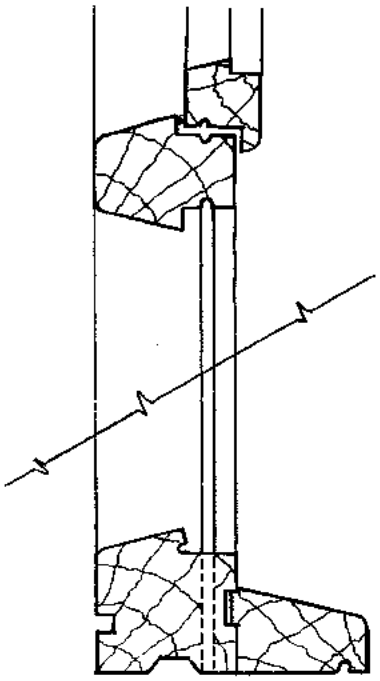


그림. 7

標準木製프레임(Frame)은 空洞壁 쌓기에 있어서 外壁에 부착되고, 補助引榜材가 全然 設置되지 않았을때 外壁의 內面과 同一位置에 프라스터 마감을 함으로써 防濕尽을 形成할 수가 있다(그림. 8), 벽돌과 같은 두께를 가진 垂直 防濕尽의 材料는 가끔 이런 境遇에 使用되고, 이 두께의 部分은 모르터를 添加함으로써 空洞部 가장자리있는 곳과 쉽게 連結된다.

어떤 者들은 垂直 防濕尽과 空洞의 內部 문짝은 프레임의 뒷쪽에 接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이러한 計劃은 만일 防濕 輕路가 完全하게 施工되고, 프레임과 接觸하는데 있어서 最上의 높이로 維持된다면 良好한 結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實際的으로 施工이 困難하다.

空洞의 構造에 있어서 防濕尽을 프레임과 아주 接近시켜 固定하여야 하며, 內外壁사이가 完全히 分離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方法은 프레임(Frame) 의 振動으로 因하여 破壞가 온다면 完全한 方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더 좋은 解決策은 프레임(Frame) 內에 홈이나 開錫을 만들어서 防濕尽을 接近시키는 方法이다(그림 10. 11.) 이러한 設計는 標準 鉄製프레임(Frame)을 使用하면 解決된다고 製造業者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림. 12)

美国에서 生産한 몇몇 金屬프레임(Frame)이나 英国의 鉄製 補助프레임(Sub Frame)은 連結部나 垂直 防水尽에 使用되는 기다란 니브(nib)를 갖도록 되어있다. 스코트란드(Scotland)에서는 內部 리프(leaf) 속에 窓門을 두고 上引榜과 下引榜에 外部 리프(leaf)를 가진 프레임을 겹쳐놓은 것이다(그림. 15). 이런 形態의 構造는 密閉된 壁体를 形成하고 防濕尽을 프레임(Frame)의 表面에 겹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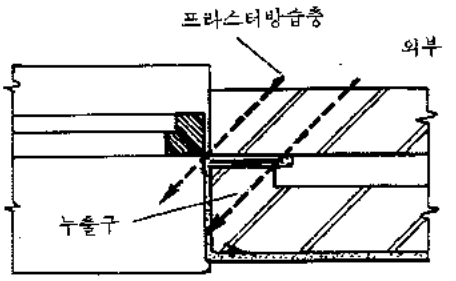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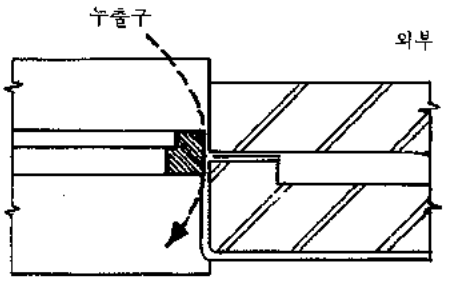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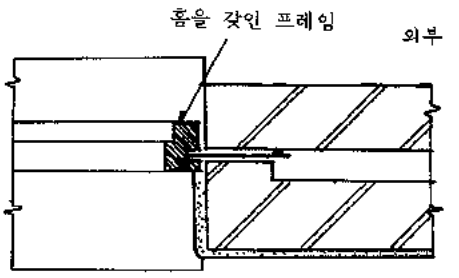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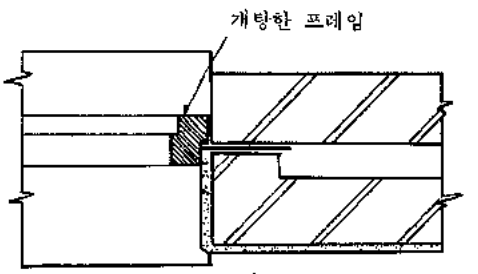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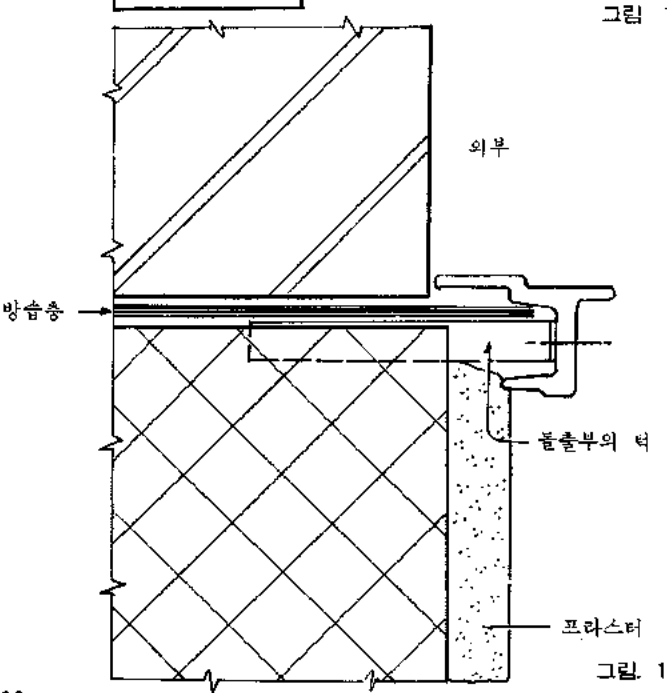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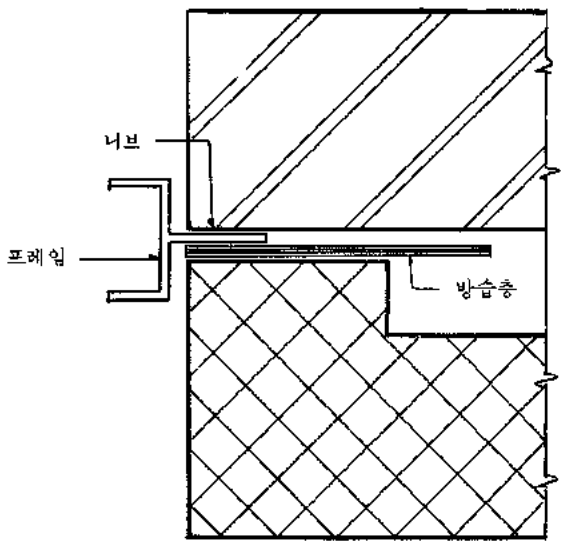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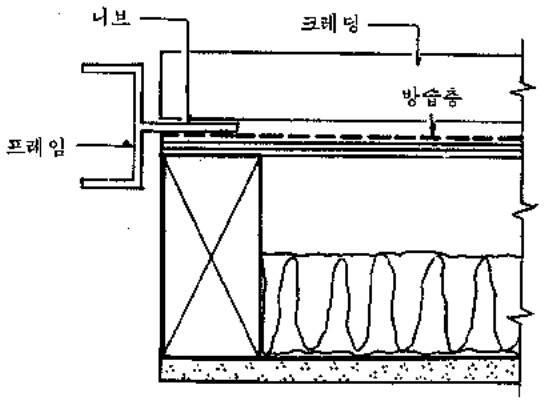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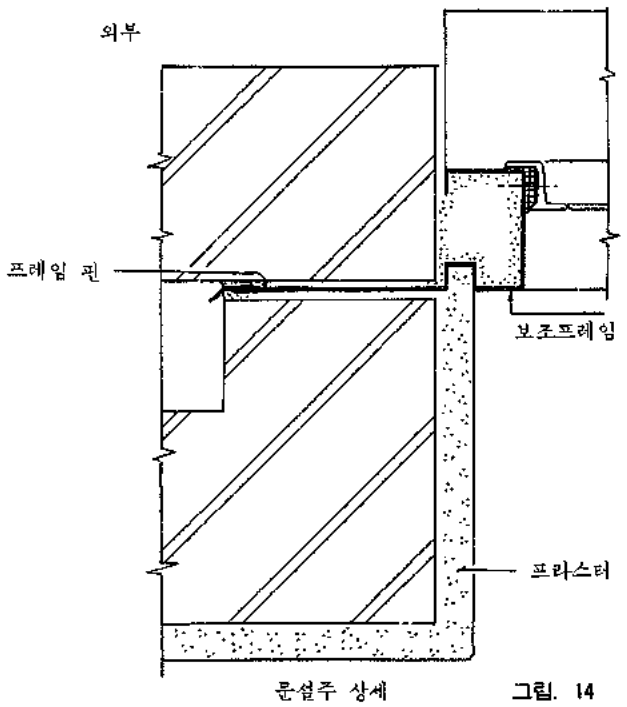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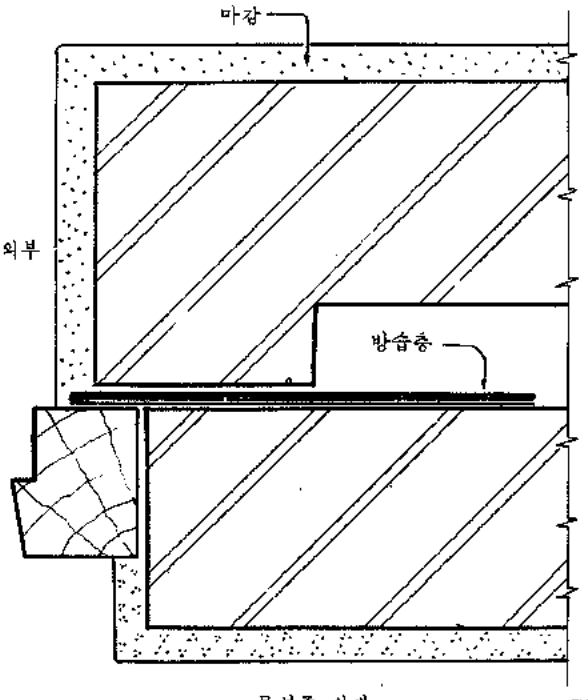




그림. 13




문설주 상세 그림. 14




문설주 상세 그림. 15

6. 商業的 側面에서의 考察

窓門과 씨링 컴파운드(Sealing Compound) 製造業者들은 一般的인 몇개의 詳細에 対하여 滿足하지 않고, 変化가 있는 完全한 設計를 願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国際的 市場의 競爭에서 앞서기 위해 技術的인 解決을 必要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理由때문에 더 많은 費用도 感受할 것이다.

大部分의 製造業者들은 建築의 美的 效果는 그들이 生産한 製品의 使用으로 因해 增加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需要者 各各의 趣向으로 多樣한 製品을 開発해야 할것이다.

7. 窓과 壁体에 있어서 接合部의 設計時 注意事項

1) 씰(Seals)에 依存하는것 보다 構造的인 面에서 解決해야 한다.

2) 프레임이 씨링 컴파운드(Sealing Compound)로 連決될때 適合한 設備가 크레딩(Cladding)보다는 프레임 끝 側面 內部에 만들어 져야 한다.

3) 씰(Seal)에 의한 接合은 쉽게施工되도록해야 하며 検査, 補修가 容易해야 한다.

4) 若干의 씰(Seal)의 破損을 豫想하여 不時의 事故에 対備해야 한다.

5) 構造体에서의 離脫은 처짐(deflection) 때문이며, 亀裂은 事前 指摘되어야 한다.

6) 프레임(Frame)은 破損의 防止를 위하여 움직임과 비틀림을 調節할 수 있게 設計되어야 한다.

7) 프레임(Frame)과 接合部를 通한 漏水를 防止할수 있도록 트레이(tray) 方法을 適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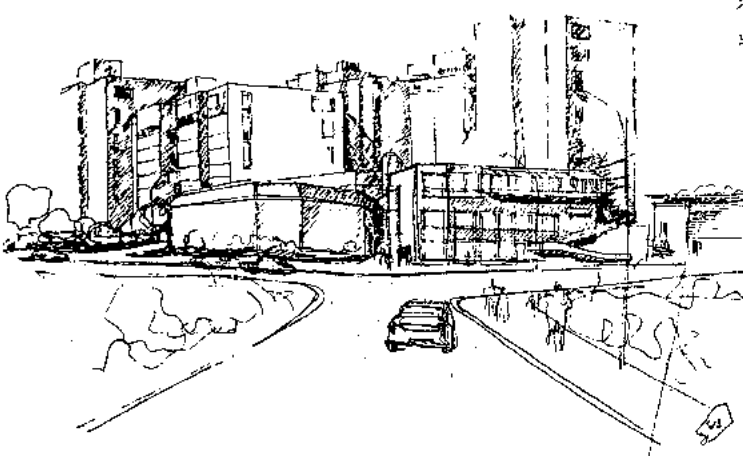
8) 設備는 圧縮에 견디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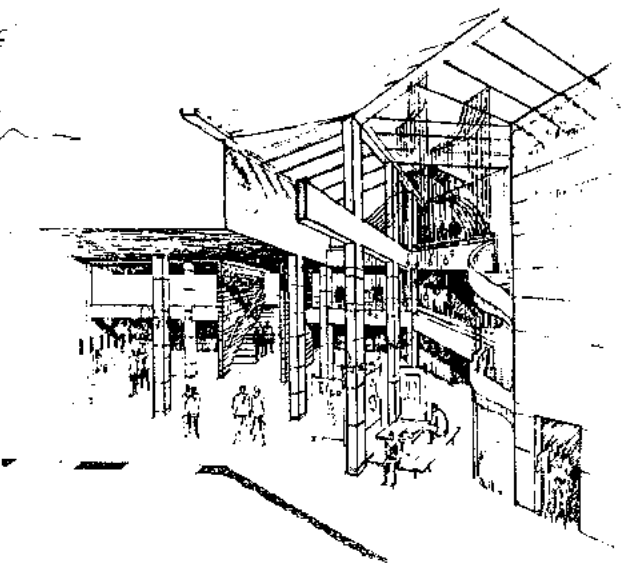
國立建設研究所 建築基準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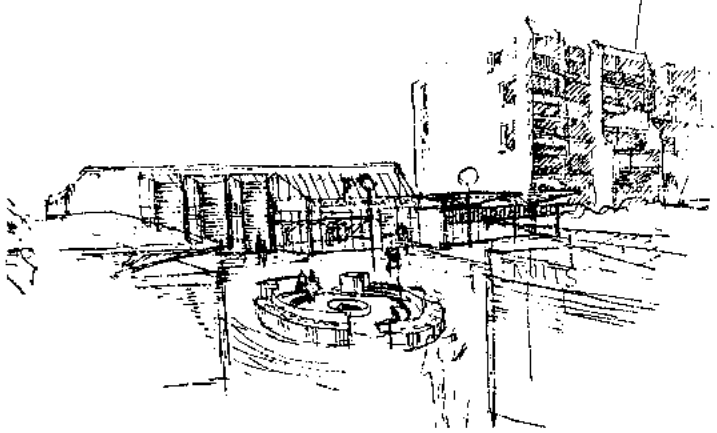
# 万人의 집 쥐프 · 앙리빌, 아미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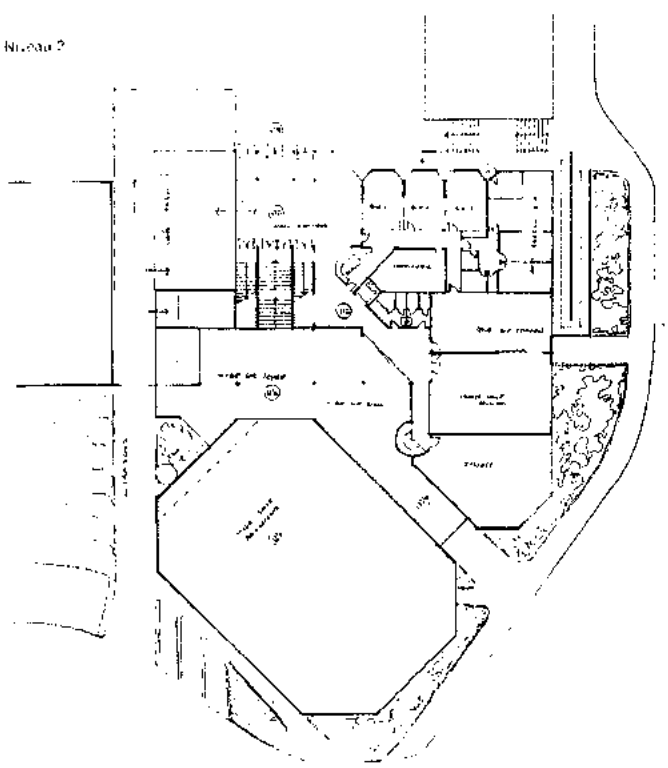
건축가 : R. 싸르제 (SARGER)
A. 프리슈랑데 (FRISCHLANDER)
F. 크리스톨 (CHRIST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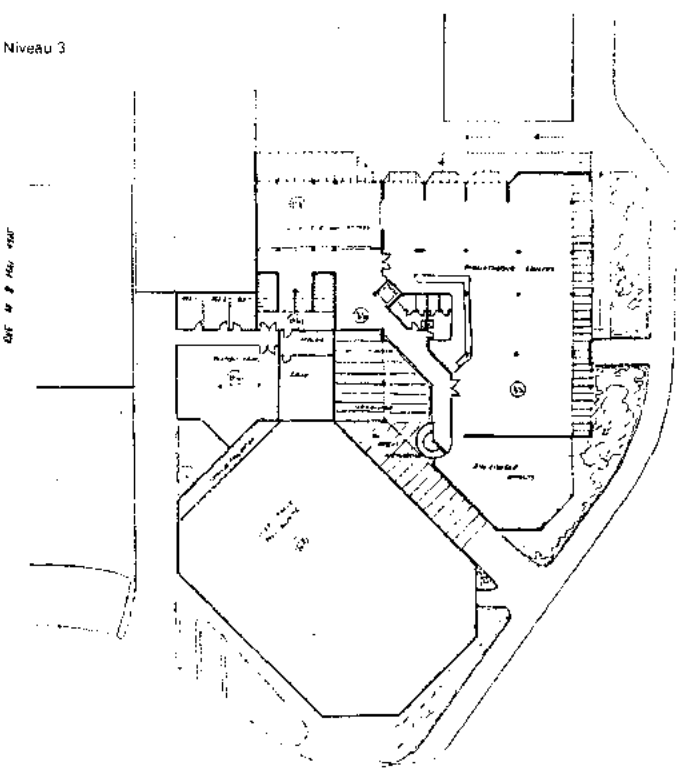
지난 6월호 해외작품 소개중 지면 관계로 프랑스편이 전제 되지 못하고 이번 7월호에 연재케 되었음을 밝힌다.









# 안느씨 文化館

## 봉리외센터통합

**설계 :** M. 노바리나(NOVARINA)
J. 레비(LEVY)

봉리외 센터(bonlieu center)는 구시가지의 보행도로, 상가중심지와 도청, 호수가 합류하는 넓이 1.4ha의 작은 섬에 위치한 시가 중심의 가장 변화한 곳이다.

이 센터의 입장과 계획의 다양성은 그 주위로 상업 및 文化시설을 갖춘 有蓋중앙광장을 유치했고, 이러한 도시적인 성격은 도로의 번창과 교통량의 지속적인 폭주를 가져온다.

문화회관과 도서관은 이 중앙광장 주위로 전개된다.

행인과 자동차교통은 기존 도로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주차는 지하로 예정, 사무실은 위층에 자리잡고 중앙광장에 인접되어 중앙광장에서 수직통행을 하게된다. 상가는 중앙광장과 그 곳으로 이어지는 내부 회랑(갤러리)을 따라 배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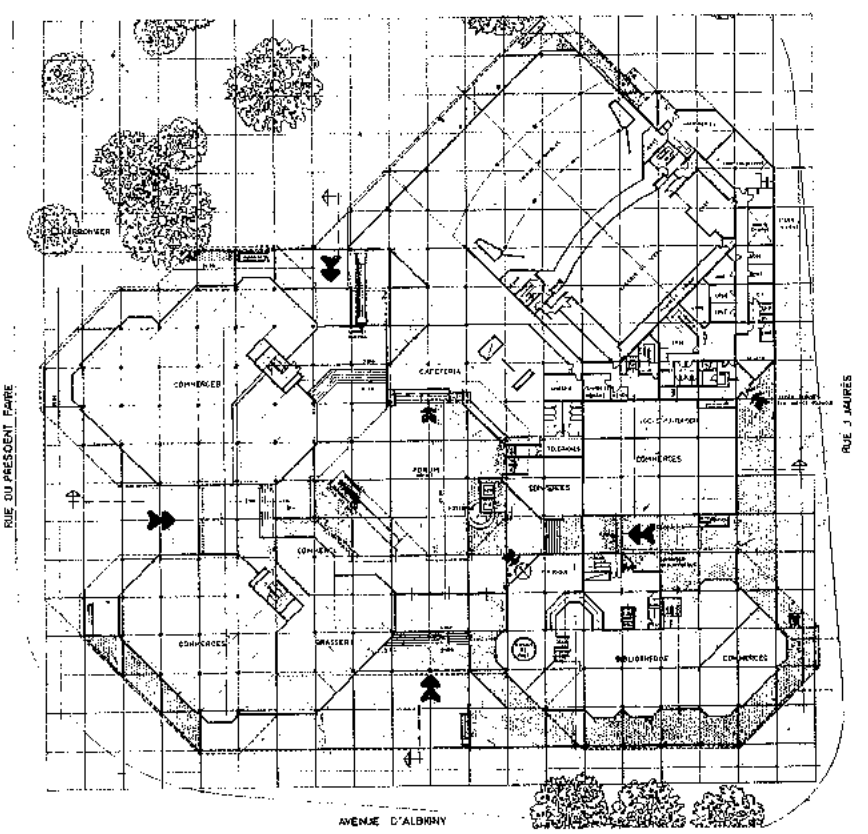
문화회관에 모이게 될 활동은 공공도서관, 문화의 창조, 전파 및 조정, 전시회, 영화, 연극, 음악발표 등이다. 이는 예견되는 인구증가를 고려할 때 안느씨市의 인구밀집 지역에 특히 활발한 문화활동망의 중심 포인트가 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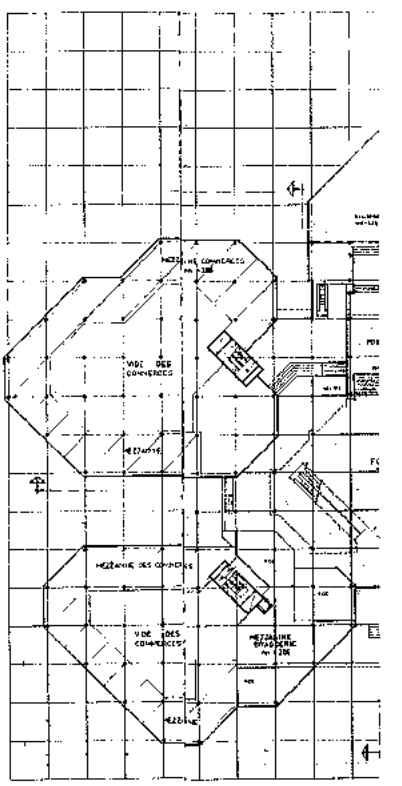
문화회관은 또한 다방, 식당, 화랑 그리고 공연 전후의 약속장소 등의 환경혜택을 받게된다.

중앙광장으로 통하게 되어있는 공동회관에 수용되어있는 시설 : 1) 모든 공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980석의 대공연장, 계단식 고정좌석과 고전 무대장치가 구상 되어있음. 2) 복합적인 무대준비가 가능한 300~500석의 여러 기능을 가진 실험적 공연장. 3) 경우에 따라서 공공도서관 활동에 이용될 수있는 60석의 소규모 홀. 4) 소규모 시청각실. 5) 공동부대시설. 즉 : -다기능실, 시청각실과 중앙광장을 관리하는 시청각 감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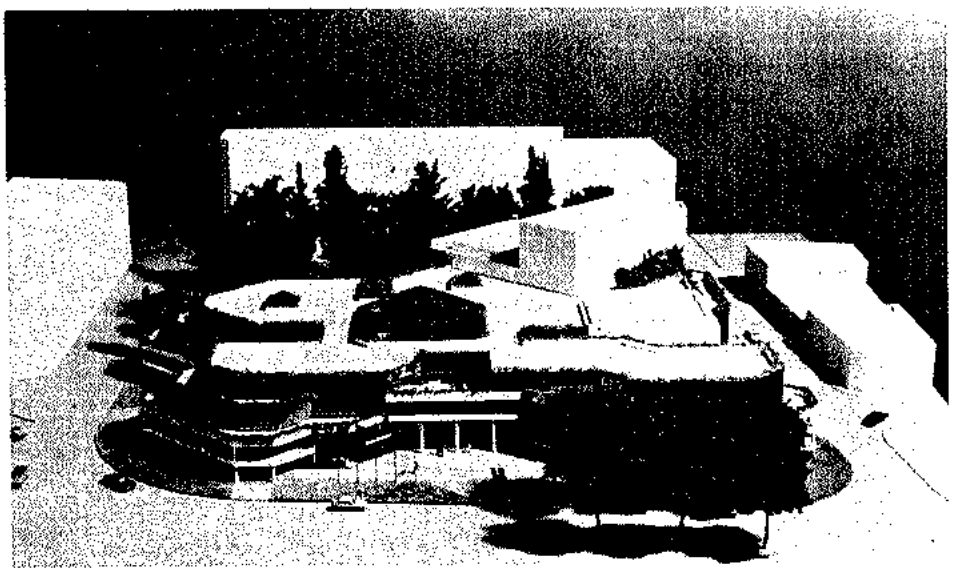
- 영사실
- 무대장치 창고
- 연예인 및 가사 대기실과 휴게실.
- 연습실, 무대면 밑의 可動무대 등
- 기계실, 갱의실, 양호실, 수위실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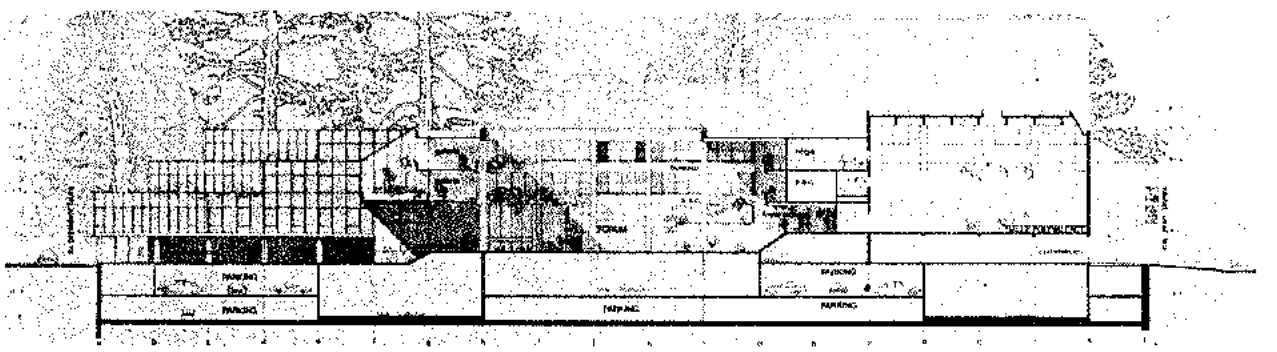
6) 「안느씨(Annecy)」文化활동(A. A. C) 사무실. 7) 접대실, 안내실, 승차표 발급실. 8) 관리실, 감독실, 조경실, 소인쇄물 살포실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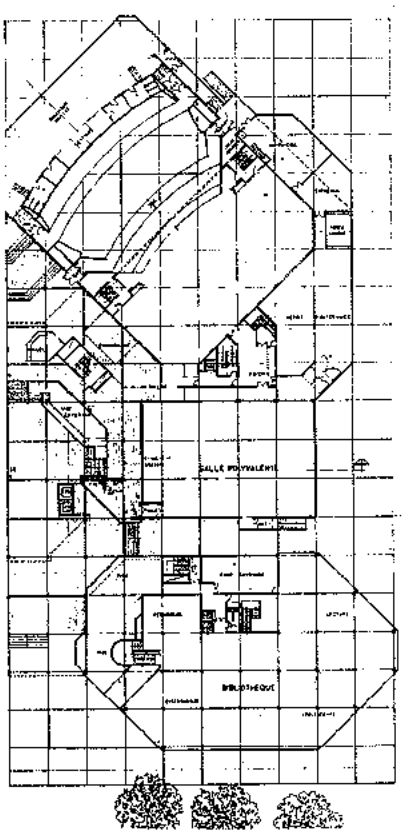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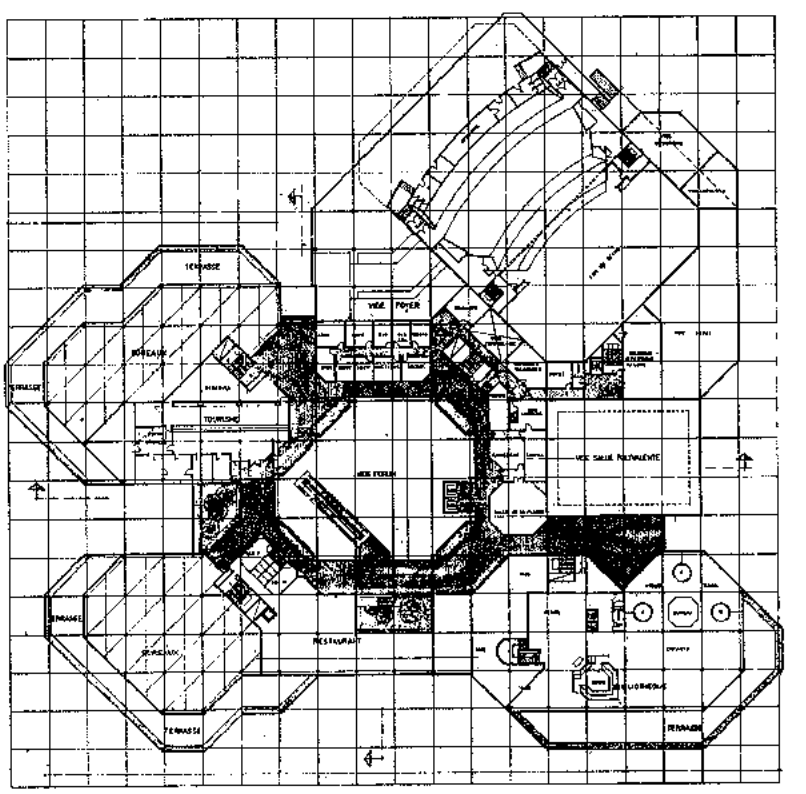



이 회관에 갖춰진 탁아소는 3개월에서 5세사이의 어린이를 경우에 따라서 한정된 시간 맡아 봄으로서 그 부모들이 이 문화관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탁아소는 남향 테라스 정원을 향해서 넓게 열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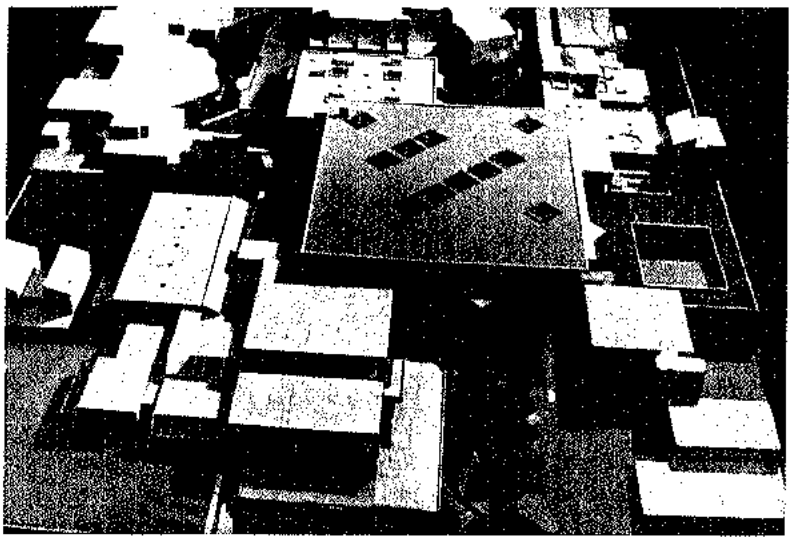






# 아르슈 · 게동의 마을회관

**설계 :** – 마른·라·발레 (marne-la-vallee)
P. 리불레 (RIBOULET)
G. 뛰르노에 (THURNAUER)
R. 뷔뜰레 (VERET) 外.



본 회관계획에는 4個의 중심건물 단위가 포함된다. 即

–스포츠센터. C타이프 체육관, 4個의 연습실, 두개의 루울과 부대 시설을 갖춘 수영장. 광장의 서·북쪽에 배치.

–레저센터. Ⅷ타입의 청소년회관과 多機能室을 연합시킴. 광장의 서남쪽에 배치.

–공공도서관. 청소년 크럽과 함께 광장의 동·남쪽에 배치.

–2個의 학생 식당과 屋內市場. 광장의 북·동쪽에 배치.

이상의 건물들 중심부에 多目的用 有蓋광장을 세워 여러가지로 이용. 이 광장은 보행도로의 두개의 軸이 合流하는 곳이 된다. 即 商街에서 시내 공원으로 가는 東·西보도와 학생식당에서 어린이회관과 도시 북부지역으로 향하는 步道이다. 屋內市場은 서로다른 계획들이 그들의 구조와 기능과 사회적인 효능에 있어서 상호 융합될 수 있게하려는 의지를 具体化시키고 있다.

이 회관계획에서 이러한 상호융합의 의지를 강조하여 표현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던 것같다. 이 때문에 有蓋광장 위의 갤러리로 해서 다기능실을 우회하여 도서관과 레저하우스로 연결되어 수영장의 높은 계단에 도달하는 연결된 순환통로가 건물의 2층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역시 연결을 고려한 똑같은 배려로 이번에는 수직으로 광장의 지붕을 떠받치는 네개의 중심기둥에 대중용으로 개방된 계단을 만들고 그계단의 층계참은 광장으로 향한 발코니로 만들었다. 광장의 레벨에서는 도서관을 따라서 접수부홀의 앞으로하여 수영장을 끼고 가다가 시장 가장자리로 연결되는 순환통로를 주랑밑으로 계획했다.

같은 目的을 위해서 확보된 연결통로가 또 있는데 아래층의 레벨에서 도서관과 기록자료실사이, 아트리에와 레저하우스의 아트리에 사이에 있는 것이 그것이다.

서로 다른 용도의 건물들이 有蓋광장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 배열됨으로해서 內部와 外部의 겸용공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층의 통로나 회랑 아래의 공간으로 그곳은 시장의 屋內공간이면서 건물의 외부공간이 된다.

또 하나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일반인에게 공간을 최대한 개방하도록 배려한 점인데 일반인이 언제나 접근할 수 있도록 건물을 따라 확보하기도 하고 그 공간이 건물의 내부를 뚫고 들어오게도 했다. 스포츠센터의 아래층 갤러리도 마찬가지다. 역시 일반을 위해서 대중공간으로부터 중요한 건물내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했다. 有蓋通路를 따라서 자리잡은 청년노동자관의 안마당이 그렇고 광장으로부터 도서열람실, 도서활동실, 레저하우스 접수홀까지와 이층 갤러리로부터 넓게 유리를 끼운 체육실과 수영장, 스튜디오와 회의실까지의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배려는 일반적으로 집단건물이 사회적 용도와 단절되는 현상을 가능한한 줄여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므로써 일반이 보다 접근하기 쉽고 훨씬 훌륭한 기능을 갖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스포츠센터**

광장의 서북쪽에 배치된 이 센터의 건물들은 그 부지의 전반적인 경사에 맞춰서 두층으로 세워졌다. 높은 층은 有蓋廣場의 레벨인데 그 광장에서 내려오면 동북쪽으로 아래층 갤러리에 닿게되고 그 곳이 갱의실 입구가 되며 서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공원과 외부 운동장으로 이어진다. 수영장은 층이 区分된 두개의 풀로 되어있다. 운동용 풀의 수면은 거의 광장의 높이에 닿고 훈련용 풀은 그보다 아래인데 바깥쪽 沙場과 같은 平面이 된다. 이렇게 配置하므로써 풀사이에 두개의 사장이 포개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작은 풀과 같은 높이의 柱廊을 세워서 처리했고 다른 하나는 구름다리로, 그곳에서는 양쪽 수면을 잘 볼수가 있어서 감시하기가 쉽게 되어있다. 그 높이의 단층은 지붕에서 다시 들어나는데 이것은 그랜드·홀에 변화를 주고 내부규모의 크기를 알맞게 해서 결국 난방과 방음처리를 훨씬 쉽게 해줄것이다.

체육관과 연습실. –보석을 깐 안마당을 중심으로 수영장 코오치실 외에 스포츠센터 관장실, 감독실, 체육 교사실 등이 모여있는데 이 중심점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갱의실을 구분하고 보살필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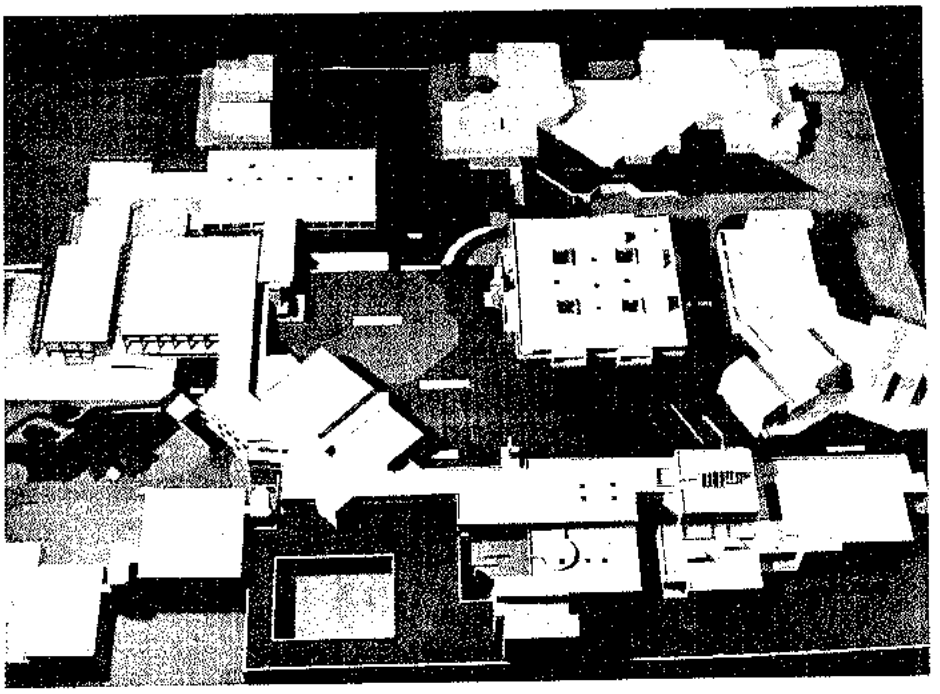
연습실은 각변 14.40m의 正方形인데 연습실마다 작은 用具室이 달려있다.

방문객과 관객들이 이용하게 되는 이 체육관의 입구는 눈에 띄는 有蓋入口로 계단스탠드 위쪽, 바로 유개광장의 가장자리가 된다.

**＊레저하우스**

세층에 걸쳐있는 레저하우스의 접수부와 多機能室은 광장의 평면에 있고 시청각실과 협회실은 일층에 갤러리로 通해있으며 아트리에는 아래층에 공원 쪽으로 열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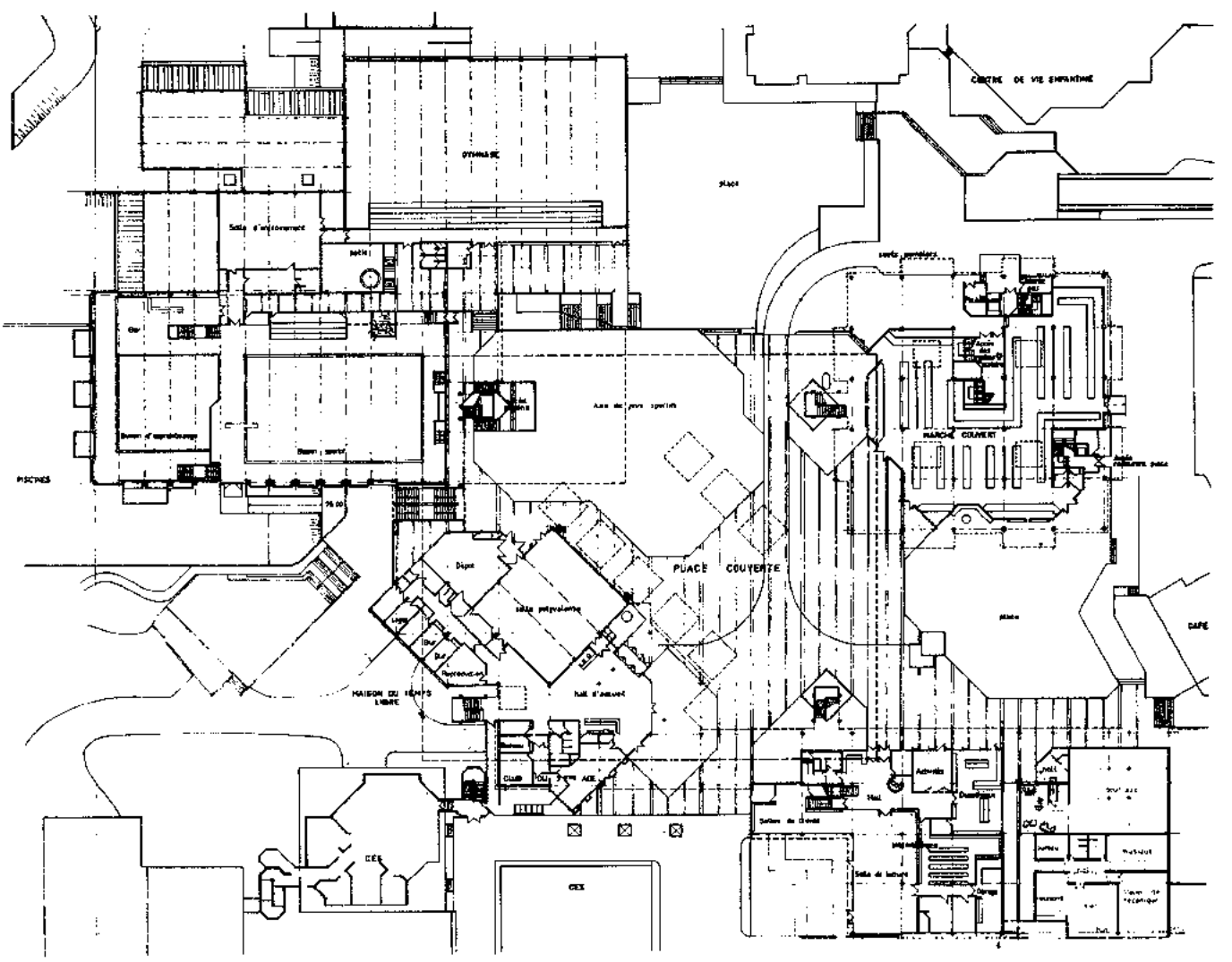
접수부, 바아(Bar) 展示장소 등으로 이루어진 메인 홀은 레저하우스의 심장부이자 그 지역의 심장부로 다른시설의 정보가 수집될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메인 홀이 위치한 곳이 보행



자 통로의 합류지점이면서 광장을 향해서 개방되어 있다. 이 홀을 향해서 대각선상에 각변 15cm 정방형의 대기능실이 자리잡고 있다. 다른 공간의 直角 方位와 조화를 이루면서 레저하우스를 지배하고 있는 이 斜線方位는 남쪽으로 c. e. s. 북쪽으로 수영장과 체육관을 향하는 보행자들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게한다.

다기능실의 또 한면은 광장을 향하고 있어서 홀과 다기능실과 광장의 공간이 용도에 따라서 모두 결합될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공연이나 전시가 내·외 겸용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층의 스튜디오, 다기능실 그리고 광장 사이의 감독실 위치는 공간의 최대 이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사진설명 : 센터의 모형 (레저 하우스와 여러 통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광장의 지붕은 들어냈음) – P. 79에 재현한 전체 계획도면 참조할것.



시청각 센터는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갤러리를 따라서 이층에 자리잡고있다. 이층의 다른 쪽끝에 서쪽 공원을향해서 협회 회의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용도의 다양성에 맞추어서 소·중·대실로 분류되어 있다. 갤러리와 회의실 사이에는 협회들이 기재나 기록자료를 정리해 놓을수 있는 작은 창고가 마련되어 있다.

낮은 층에는 레저하우스의 계단으로 메인홀에 직접 연결된 협회회관의 아트리에가 서쪽 공원을 향하여 자리잡고 있는데 언덕 중턱에 위치한 테라스와 동일 평면을 이룬다.

### *공공도서관과 청소년 크럽

주로 有蓋광장과 같은 평면에 자리잡고 있는 도서관은 그 광장 북쪽을 향해 회랑으로 열려있다. 접수부, 활동실, 청취실로 이루어진 도서관의 정면은 전열창으로 꾸밀수 있게 되어있다. 성인용 대출 및 열람실은 남쪽으로는 안마당을 향하여, 서쪽으로는 레코드실과 아동도서실을 향해 직각으로 열려서 아래층 c. e. s.의 자료센터와 연결되고 있다. 열람실과 홀을 분리하고 있는 간막이는 유리가 끼워져서 일반공간으로부터 대출실이 보이도록 되어있고 그 건물의 얇은 두께는 안마당까지 완전히 투명하도록 해주고 있다.

아동도서실은 이층에 있는데 주계단의 하나와 직각을 이루어서 또 하나의 독립된 통로를 마련하게 된다. 열람실은 남쪽 안마당을 향해 있고 테라스로 연장된다.

청소년 크럽은 레저하우스 계획의 일부이지만 특히 음악실과 가계 작업실이 함께 있으므로 해서 레저하우스 계획의 다른 부서와 함께 자리를 잡지 못했다. 성질이 다른 부서간의 관용상 모순은 이 크럽의 이용을 막거나 이용자의 변질로 이러한 부서의 폐지를 유도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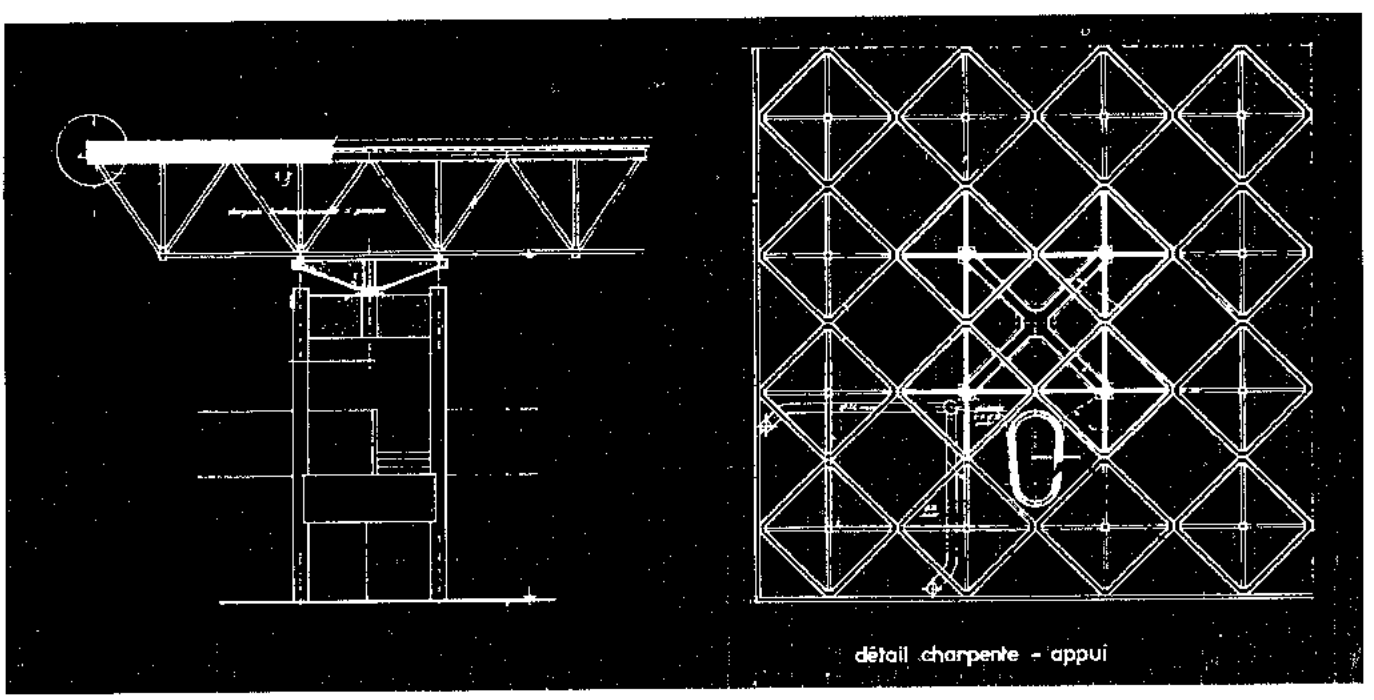
### *学生食堂과 屋内市場

기둥(pilotis)으로 받친 이층에 하나의 큰 정방형 건물로 처리된 식당과 시장은 有蓋광장 북동쪽 코너를 차지하고 있다. 이 통합건물의 중앙에 가로지른 네개의 채광창으로 식당 내부와 동시에 일층의 시장이 밝혀진다.

식당은 두개로 셀프써비스 운영을 한다. 조리실, 식사 제공통로, 식사실은 각각 독립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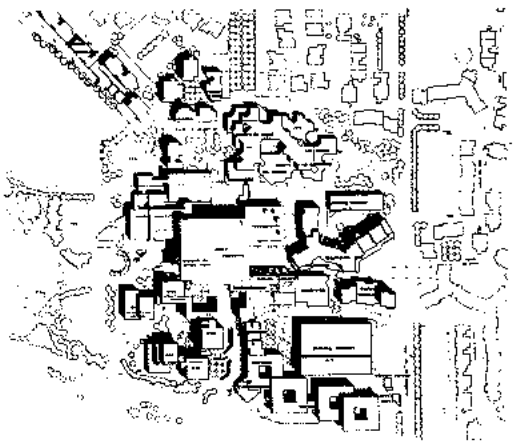
식사실은 다시 조그만 방으로 나뉘어서 음향처리가 잘 되었고, 식사후 출구는 광장으로 나가는 계단을 이용하게 된다. 한 학생식당의 조리실과 연결되어서 셀프서비스나 재래식 서비스로 운영되는 50석의 식사실이 한개 외부인용으로 쓰이는데 별도의 계단과 소형 승강기를 갖추고 있다.

屋内市場은 식당아래, 광장과 같은 평면에 자리잡고 네개의 채광창으로 조명된다. 이 시장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서 하나는 이동식 철책으로 막아서 고정시설물을 두고 다른 구역은 개방해서 장날에는 광장까지 넓게 쓸 수있게 된다. 장날이 아닐 때는 광장의 연장된 공간으로 개방해서 놀이를 하거나 집회를 할 수 있다. 건축학적 견지에서 전반적으로 풍부한 공간의 창조에 연구를 기울였다. 가령 광장의 완전 또는 반투명 패널지붕, 주랑, 갤러리, 유리표면지붕 (특히 스포츠센터의)등 사회적 용도와 적응 가능성의 조장을 염두에 두고 비늘모양의 구조, 조명, 비례감은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대개 내용이 많이 드는 것이어서 건물자체는 될 수있는 대로 단순하게 처리되었다. 골조는 전부 철근콘크리트로 했고 건물정면에는 철근과 조립식用材, 판자틀을 섞어서 썼다. 유리창이나 대형 유리벽의 목공은 채색목재로 했고 광장의 골조는 채색 강철관을 썼고 유리지붕은 不燃性材이다.



# 아르슈 · 게동 어린이회관

**건축가 :** 마른느-라-발레 1977
(marne-la-vallée)
아박(ABAC)
D. 지라르(GIRARD)
L. 파스트라나(PASTRANA)
D. 부르동(BOURDON)



아르슈 · 게동 어린이 회관과 보건소는 연건평 6,700m²에 일층과 지하일부가 4,000m²이고 상층 2,700m²에 테라스 1,000m²로 되어있다.

일층에는 보건소와 어린이회관 일부 : 오락센터, 식당, 소아(3～5세)관, 아동(5～8세)관이 있다.

어린이회관이 있는 층으로 가는 통로는 동→서경사를 이용하여 지은 3개교실의 연속된 층계참으로 확보된다. 차이는 각각 60cm씩이며 두층사이의 접합점에는 아동관이 있다.

어린이회관의 각 부서는 출입구가 둘로서 외부로 통하는 것과 홀이나 접수부 또는 오락실, 탁아실, 보건실, 소아관, 아동관등 내부로 통하는 것이다. 이 내부통로는 소아와 아동들이 공동놀이를 할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 회관은 屋內市場, 식당, 스포츠시설이 모여있는 남쪽의 지역 중심부와 북쪽에 있는 주거지역을 연결짓고 있어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수 있는 회관 오락실의 출입은 중심부 옆쪽으로 할 수 있다.

**＊어린이회관**

3～5세 소아부의 건축공간은 의도적인 중첩지대로 그 공간표현의 활기는 오히려 실내 가구류가 변화있고 부드럽게 처리해준다. 탁아실 옆의 소년(8～11세)관은 온실로 분리되어 있지만 원한다면 소년들이나 유치원생들 또는 양쪽 모두를 위한 공동활동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아동(5～8세)교실은 아동과 성인의 상호인격적 관계를 맺을수 있는 장소로 아동들에게는 확장된 사회에 익숙해지는 집단 특권지역으로 계속되며 아동연령층을 한단위로 취급해서 유치원과 국민학교 간의 단층을 극소화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소년은 연령상 교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소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년교실은 평범한 수업을 하는 곳으로 하고 소년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은 내부나 외부의 환경이 제공하는 가능성에 따른다고 본다. 따라서 교실활동과 문헌조사센터, 작업실, 외부공간과의 사이에 견밀한 유대가 있어야 한다.

**＊媒体室, 作業室, 식당**

아동관의 어린이를 위한 문헌 조사실에서는 세가지 중요한 주제인 記号, 影像, 音響에 관한 여러가지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수업과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에 쉽게 접근할수 있는 동기를 북돋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동들이 서로 만나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기록센터는 보다 專門的인 方法으로 소년의 교육목적에 부응한다. 그 역할은 교육의 동기와 보충과 동시에 정보에 대한 연구와 접근을 장려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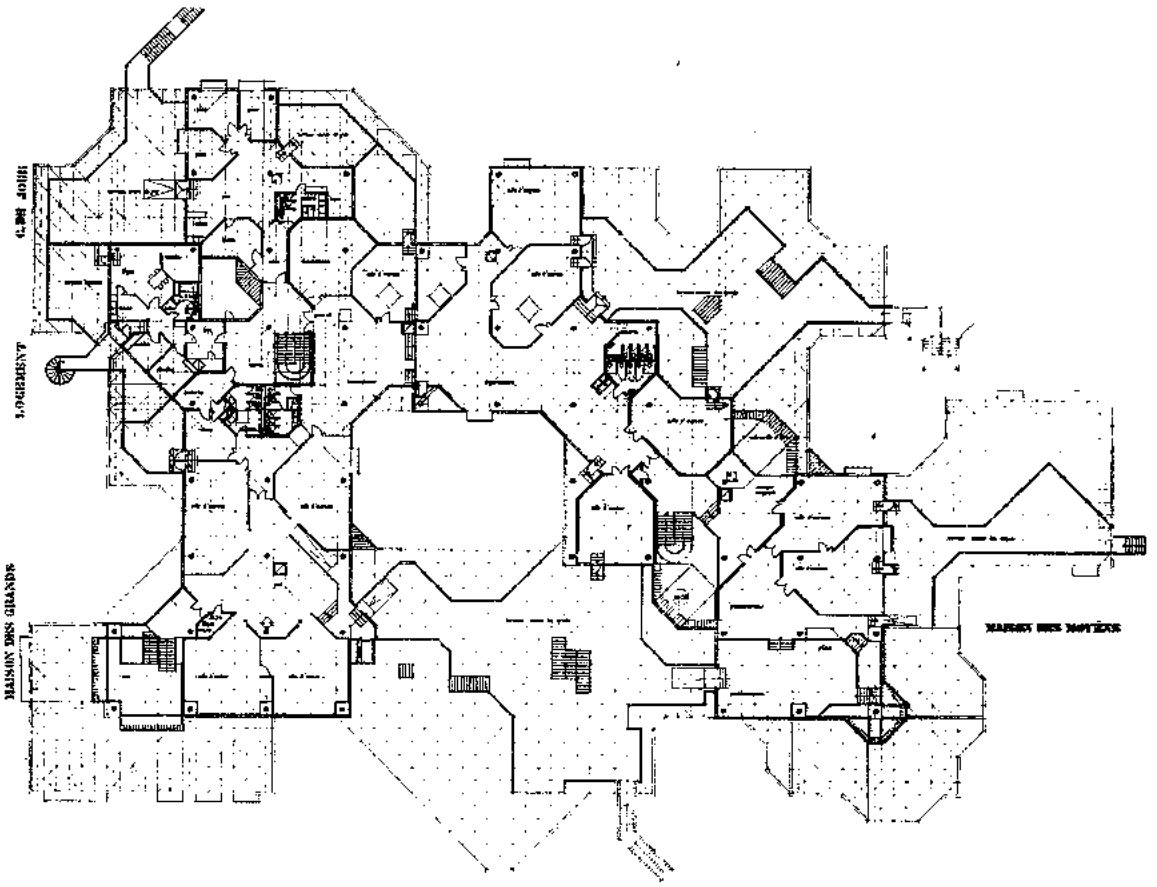
매체실은 외부와 그 지역사회로 공개되어서 学習研究의 성취로 조장된 일종의 自体教育源(쏘스)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기록센터는 外部와 관계를 갖는 특수지역으로 展示室, 公演室等 내부시설과 내적 관계를 유지하며 合流하는 장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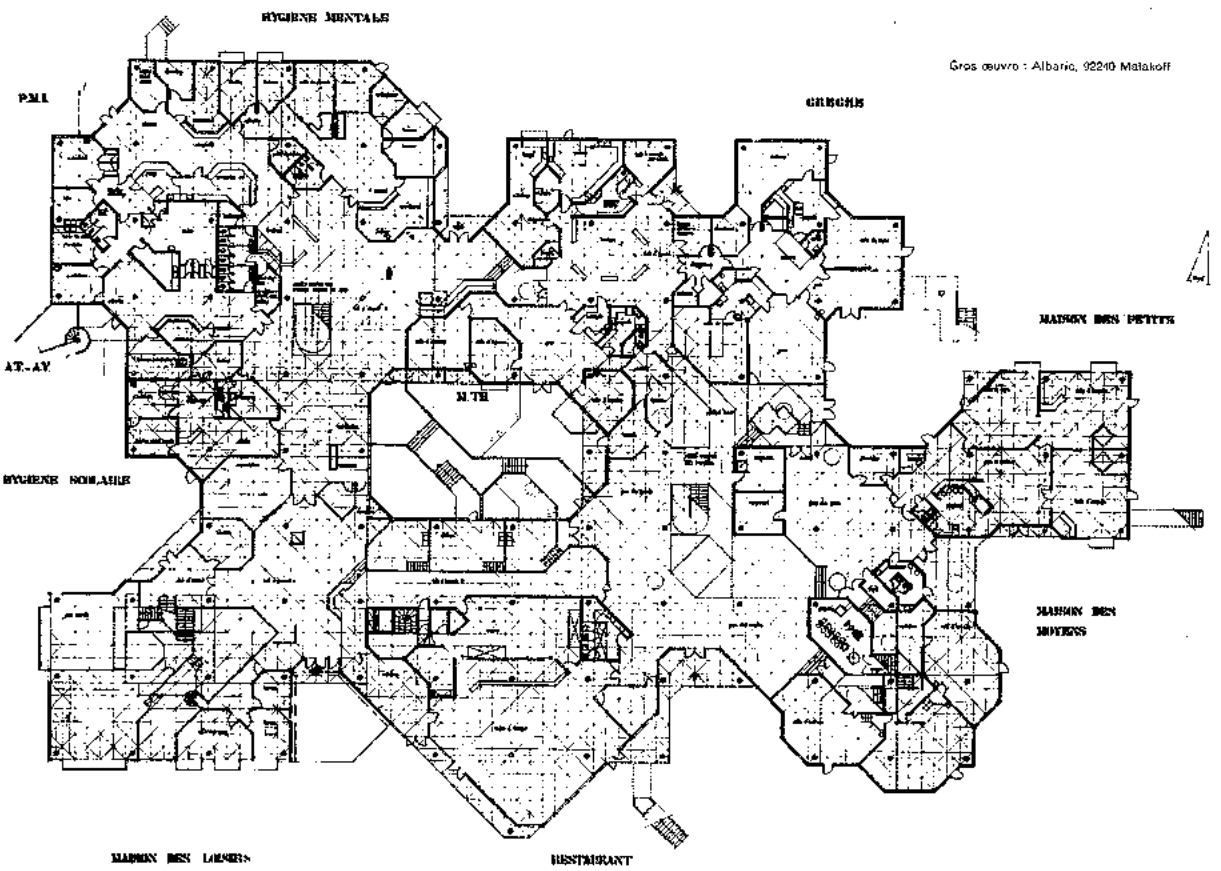
아트리에는 제 3 期 교육활동의 범위내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년령층의 아동은 물론 成人들에게도 공개되나 특히 어린이회관의 아동과 소년을 목표로 삼는다. 이곳에서는 재료의 간단한 접촉으로부터 연장이나 도구의 복잡한 조작으로 실제 물건을 만들수 있도록 해준다.

식당은 유일한 非教育場所지만 먹는 행위의 사회적 중요성은 아동의 정신적 심리적 균형확립에 공헌하기 때문에 本회관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基本的인 곳이된다. 대부분의 어린이가 셀프서비스를 하는 식당인데 예외적으로 여러가지 기능을 가질수도 있다. 아동식당은 직원식당처럼 긴장을 풀어주는 성질을 갖고 회관내부 생활에 관련해서 외면성이나 단절의 필요성에 맞추고 있다.

보건소는 어린이회관 내에 자리잡고서 그 대상을 문제아나 정상아로 구분하지 않고있다. 이 보건소의 목적은 일시순회치료센터에 도움이되도록 精神科入院을 최소로 制限함에 있다. 또 아동의 진단과 치료방법을 편성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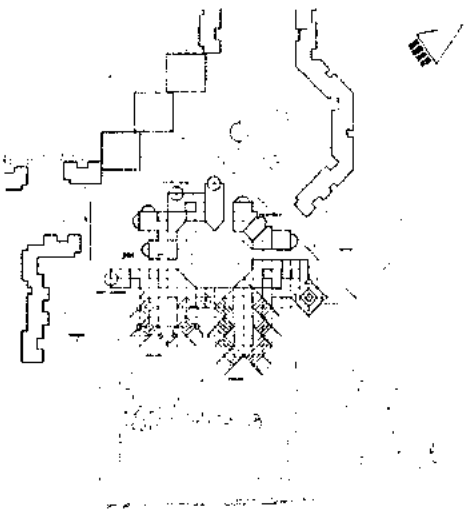
무료진료소는 학교보건팀, 정신위생팀, 그리고 p. m. i (태아 및 육아 센터)팀이 자리잡고 있다. 작전거지 같은 역할을 하여 직원의 집단건강진단과 활동을 하는 곳이고 p. m. i 활동과 정신과 의료진 간의 共同作業을 펴는데 편리한 곳이다. 정신위생과 학교보건팀간의 공동작업에도 좋은 곳이다.


MAISON DES GRANDS
MAISON DES MOY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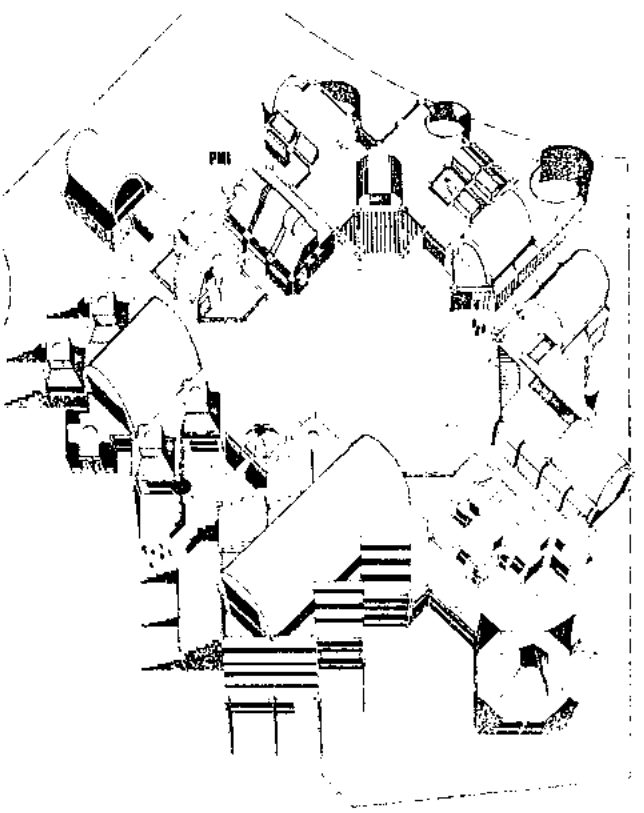

HYGIENE MENTALE
Gros œuvre : Albaric, 92240 Malakoff
P.M.I.
CRECHE
MAISON DES PETITS
AT.-AV
M.TH
HYGIENE SCOLAIRE
MAISON DES MOYENS
MAISON DES GRANDS
RESTAURANT

# 뿔 · 드 · 까르띠에 — 미라마(miramas) 市

건축가 : H. P. 마이아르(MAILLARD)



■ At the heart of the new Miramas neighbourhood, a residential zone for apartment houses and individual housing, lies this centralised amenity project, consisting of school buildings, infant school, prenatal and childcare centre, nursery, leisure centre, public library and social-cultural centre. ■



미라마市 東部·신시가지 住居地域 中心에 계획된 라·까레르센터에는 소광장을 중심해서 7개의 건물群이 수용되어 있다. 即—10個 教室의 学校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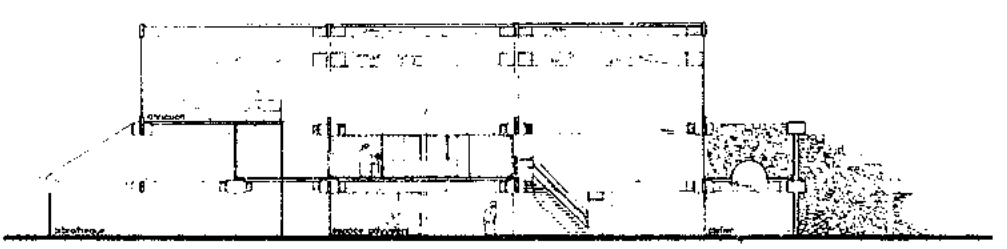
- 4個教室의 유치원건물
- p. m. i. (태아 및 육아센터)
- 탁아소
- 学校부속 오락센터
- 사회 · 文化센터
- 시립도서관

5人의 토목감독과 미라마市 당국의 감독으로 세워진 이 센터는 E. p. a. r. e. b(Berre 沼澤구획 정리기관)의 연구와 계획으로 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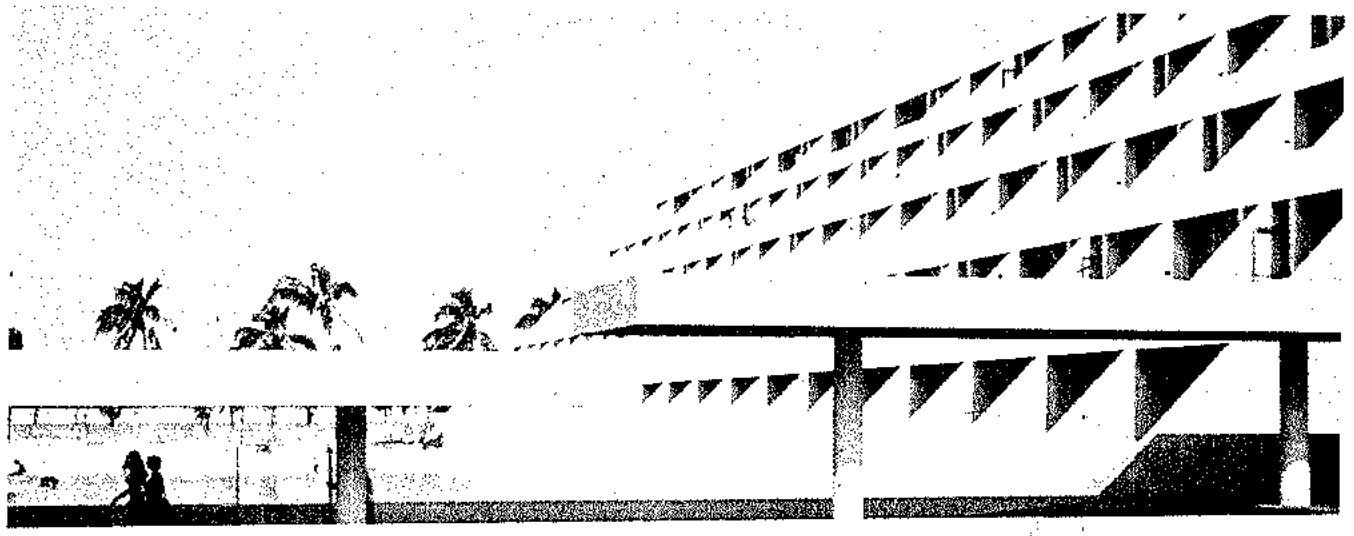
교환방식과 기하학적 減速구조 시스템을 선택하여서 공사기간중에 실사용자들의 要求와 희망을 거의 동시에 건축에 반영시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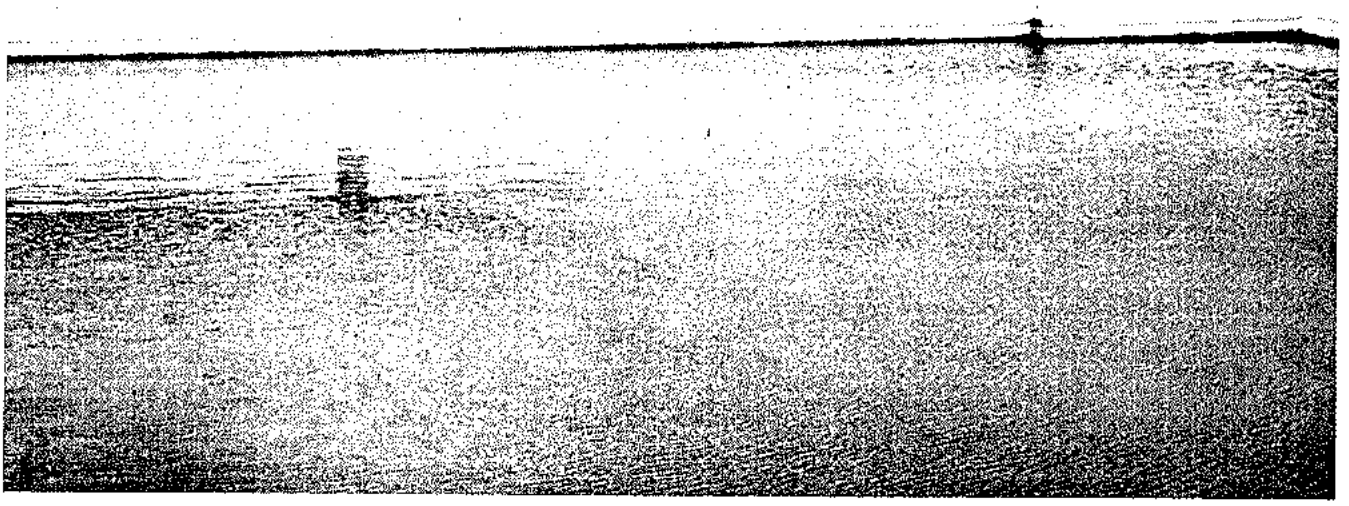
건물의 실사용자가 설계건축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이러한 직접개입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완전히 共生하여 이 계획을 빨리 완성시키게 해주었음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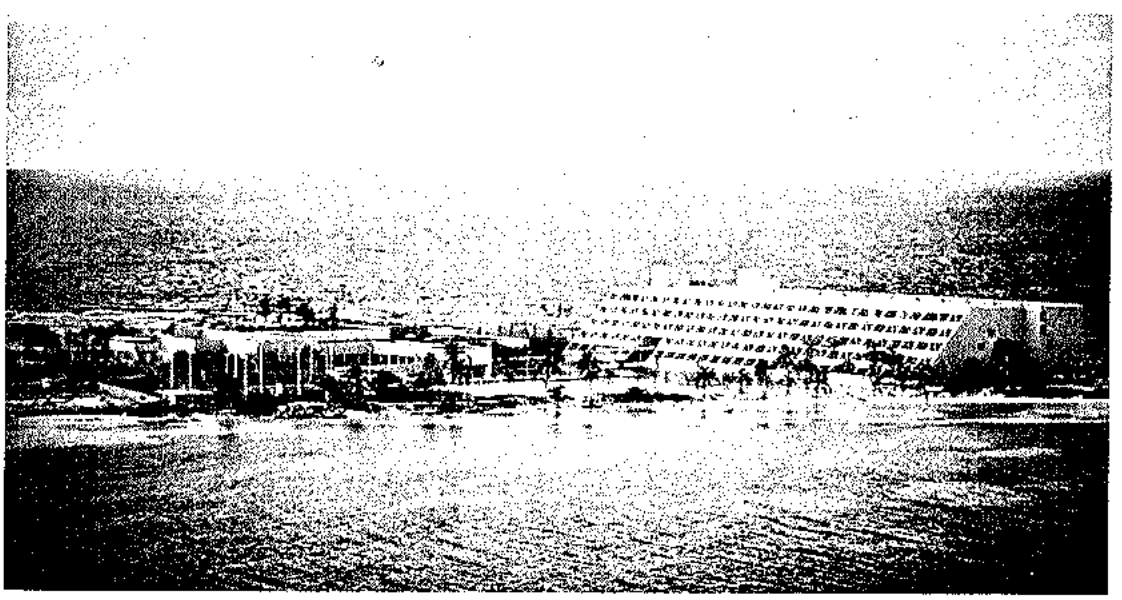
한층 더 괄목할만한 결과는 과거에는 흔히 의견이 대립되던 토목감독들 간에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종래의 장벽이 하나씩 무너져 내려서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대할 용의들을 보이게 되어서 전체적인 기능이 뜻대로 실현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 카미노 · 리어 · 호텔, 간군 멕시코
## CAMINO REAL HOTEL. CANC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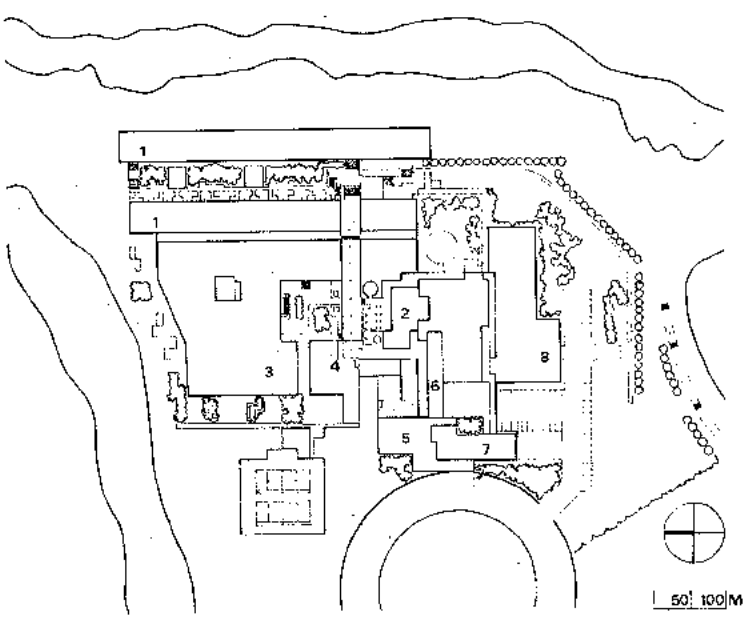
① 客室棟外觀과, 客室棟과 높의 広場을 잇는 지붕있는 通路.

② 全景 3方이 바다로 둘러싸인 마치 바다에 떠있는 것 같다.

設計：LEGORRETA 建築事務所.

計劃：RICARDO LEGORRETA, NOE' CASTRO, CAROS VERGAS, PEDRO SANCHEZ DE MAVELLAN, EMILIO GUERRERO

構造：DIRAC




④ 配置図

③ 休息의 中心 空間인 높과 客室棟 列을 짓는 円柱는 높이나 폴을 開放시킨 로-비에서 뚝 떠어놓고 있다.

# 본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행정상담 내용을 금 6 월분부터 본지에서 계재 소개한다.

6월중 건축행정 상담내용

| | |
|---|---|
| 1. 연립주택 건축에 대한 문의 | 13건 |
| 2. 미관지구 건축조례 문의 | 1건 |
| 3. 주택채권에 대한 문의 | 2건 |
| 4. 소정거리에 대한 문의 | 7건 |
| 5. 지하실 설치 문의 | 3건 |
| 6. 풍치지구 건축조례 문의 | 6건 |
| 7. 건축행정(기간 및 첨부 서류) | 4건 |
| 8. 대지 면적 최소한도 문의 | 3건 |
| 9. 높이 제한 문의 | 6건 |
| 10. 공작물 허가 문의 | 1건 |
| 11. 용도 지역 저촉 여부 문의 | 7건 |
| 12. 주차장 설치에 관한 문의 | 3건 |
| 13. 아파트 지구 건축 조례에 대한 문의 | 5건 |
| 14. 건축 공사 문제로 인한 분쟁 등 문의 | 2건 |
| 15. 건축물 건축 억제에 대한 건의 | 16건 |
| 16. 증축 여부에 관한 문의 | 6건 |
| 17. 인동간의 거리에 대한 문의 | 1건 |
| 18. 건축사 시험에 대한 문의 | 2건 |
| 19. 실적회비 요율 문의 | 1건 |
| 20. 건폐율 문의 | 3건 |
| 21. 지표면 높이 산정에 대한 문의 | 4건 |
| 22. 도로에 대한 문의 | 3건 |
| 23. 기타 | 23건 |
| 계 | 122건 |

| 1978년 6월 1일 (목)요일 | |
|---|---|
| 상담자주소, 신청자 성명 | 서울시 : 박 용 묵 (인)<br>건축사 : 정 성 교 (인) |
| **상담요지 :**<br>1. 시민(전화)<br>도로가 타인의 대지를 애용하여 통행했는데 그 대지상에 주택을 시공하므로써 도로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그 관계는?<br>2. 시민(대방)<br>감정하려고 하는데 기성고 산출 방법은?<br>3. 시민(전화)<br>아파트 인동간의 거리는?<br>4. 시민(전화)<br>점포를 230평방미터 건축하려고 합니다. 허가 가능 여부는?<br>5. 시민(전화)<br>건축사 시험은 언제 있읍니까? | **답변내용 :**<br>1. 비록 타인의 대지를 이용하므로써 득을 봤으나 시공할 경우는 다른 도로를 이용하셔야 함.<br>2. 현재 기성고는 감정의뢰하시면 산출됩니다.<br>3. 서울시에서는 1.2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br>4. 5월 22일자의 건축물의 건축 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허가되지 않읍니다.<br>5. 건설부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았읍니다. |

1978년 6월 2일 (금)요일

상담자주소, 신청자 성명

상담요지 :

1. 회원(전화)
주차장 정비지구 내 주차에 있어 옥상에 설치할 경우 옥내인지 옥외인지의 구분은?

3. 시민(전화)
건축법상과 서울시 조례의 규정은 크게 차이가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서울시 조례대로 해야 되는지요?

3. 회원(전화)
주차장 정비지구내 연면적 1,010평방미터일 때 주차대수 계산은?

4. 회원(전화)
제주지부 실적회비 요율은?

5. 회원(전화)
설계비 계산중 직선 보간법 계산 방법은?

6. 회원(전화)
2종 건물에서 알·시·조 공사비는?

| | |
|---|---|
| | 서울시 : 이 종 환 (인) |
| | 건축사 : 정 성 교 (인) |

답변내용 :

1. 옥외 설치목적은 옥외에 공지확보가 목적이므로 실제 옥상은 옥내로 간주하여 계산하여야 함.

2. 주차장 정비지구내이면 반드시 서울시 조례에 준하여야 함.

3. 영22조 1항 1호외의 건물이면 400평방미터 마다 1대의 비율이며 영22조 1항 1호의 건물이면 옥외는 200평방미터마다 1대의 비율로 옥내는 150평방미터마다 1대의 비율임.

4.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0.5%입니다.

5. 직선보간법은 동일하게 중간에 있을 경우 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차이를 감하면 됩니다. 공사비가 예로써
500만원까지가 8.35%
1000만원까지가 7.84%
인데 공사비가 75만원일 때 요율은 7.84+(8.35−7.84)×250/500=7.84+0.51×1/2=7.84+0.255
=8.095 %

6. 협회기준(실적회비 산출기준 공사비)알·시·조는 36,000원임. 1평방미터당.

1978년 6월 5일 (월)요일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상담요지 :

1. 시민(전화)
대지를 샀는데 옆집에서 저의집 대지에 우물을 파서 사용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2. 시민(전화)
주택 2층인 경우 진남, 진북 방향의 이격거리는?

3. 시민(전화)
주거전용 지역내 기존 단층건물이 있는데 2층 증축 가능여부? (기존건물 소정거리 없음)

4. 회원(전화)
연립주택인 경우 600평방미터인데 시공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요?

5. 시민(전화)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의 한계는?

6. 회원(전화)
건물높이에 대하여
상업지역의 15미터 도로에 접하여 있으며 접한 대지 길이가 25미터를 넘을 경우 한계 단, 도로는 2개소임.

| | |
|---|---|
| | 서울시 : 박 성 수 (인) |
| | 건축사 : 정 성 교 (인) |

답변내용 :

1. 민사문제 이므로 사전 양해없이 타인 소유에 우물을 팠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서로 타협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2. 건물 높이가 8미터 이하이면 1/4높이만큼 떼면 됨.

3. 기존건물 자체가 위법이므로 증축은 불가함.

4. 특수 건물인 경우 825평방미터 이상이면 시공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읍니다.

5. 서울의 경우 강북은 900% 강남은 1000%이며, 건폐율은 50%입니다.

6. 7미터+1.8재를 가한 높이한계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7. 회원(전화)
공동 소유인데 인근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시공할 수 있는지?

8. 시민(전화)
대지가 50평인데 허가 가능한지요?

7. 공동 지번으로 되어있을 경우는 동의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8. 현재 허가 가능합니다.

1978년 6월 7일 (수)요일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상담요지:

1. 시민(전화)
한필지내 건물 3동이 있는데 대지는 79평입니다. 여기서 건물 2동 철거하고 건축이 가능한지요?

2. 시민(전화)
아파트지구 내 연립주택건축 가능여부?

3. 시민(전화)
강북지역내 여관건축 가능 여부?

4. 회원(전화)
아파트 건축에 대하여

| | | | | |
|---|---|---|---|---|
| | 서울시 : 이 | 종 | 환 | (인) |
| | 건축사 : 정 | 성 | 교 | (인) |

답변내용:

1. 주택인 경우 대지를 분할하여야 합니다. 기존건물 1동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율 등이 합당하도록 하고 나머지가 50평이상이면 더욱 좋겠으나 일부 지역은 50평이 아니면 허가가 되지 않으며 대지면적 최소한도 90m² 이상이라도 각구청별로 허가가 가능한 곳도 있읍니다.
50평미만으로 분할되면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심의한 후 허가여부는 결정되겠읍니다. 사전 협의후 분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실한 것은 서울시에 문의하여야 할 것 같읍니다)

3. 현재 강남 강북 모두 억제하고 있으며 종전에도 강북에서는 여관을 통제해 왔읍니다.

4. 인동간의 거리 1.2높이 용적율 200퍼센트 건폐율 18~20% 건축심의는 본청 건축지도과에서 하고 허가는 주택행정과에서 하며 건축허가신청서 외의 승인사항은 (사업승인서)주택행정과에서 취급합니다.

1978년 6월 8일 (목)요일

상담자주소, 신청자 성명

상담요지:

1. 현재 "도장" 건축허가 가능여부

2. 현재 도로가 있는데 관습상 도로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

3. 시민(전화)
건축법상 공작물도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4. 시민(전화)
확정재개발지구에서 4호 완지받은 사람인데 단독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요?

| | | | | |
|---|---|---|---|---|
| | 서울시 : 홍 | 순 | 구 | (인) |
| | 건축사 : 정 | 성 | 교 | (인) |

답변내용:

1. 현재로서는 주거용의 건축허가 불허함

2. 타도로를 통행이 가능하면 관습상 도로를 차단할 수 있음.

3.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4. 단독으로는 집을 지을수 없음.

5. 본청 개량과 협의후 허가 가능 여부 확정.

6. 시민(내방)
허가를 77년 12월 26일에 득하였는데 지금 사정에 의해 시공치 못하고 있어 연기신청하려는데 방법은?

6. 구, 시청 시민홀에 가서 연기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1978년 6월 9일 (금)요일 | |
|---|---|
|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 서울시 : 김 강 석 (인)<br>건축사 : 정 성 교 (인) |
| 상담요지 :<br>1. 시민(전화)<br>건물높이 8미터 미만인데 진남 진북방향의 법정거리는?<br>2. 시민(전화)<br>건물에 남쪽을 향하지 않았을 경우의법정거리는?<br>3. 시민(내방)<br>연희동내 대지증명에 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개량을 위한 재개발지구인데 주택건축허가 여부는? | 답변내용 :<br>1. 높이의, 4분의 1만 띄면 됩니다.<br>2. 건물의 방향에 관계없이 진남 진북의 높이의 4분의 1(8미터 미만) 띄어야 합니다.<br>3. 개량을 위한 재개발지역이므로 일반대지와는 상이합니다. 서울시 주택개량과에서 허가등을 취급하고 재개발을 하니 주택개량과에 상의한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1978년 6월 12일 (월)요일 | |
|---|---|
|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 서울시 : (인)<br>건축사 : 정 성 고 (인) |
| 1. 상담요지 :<br>1. 시민(전화)<br>미관지구에서 3미터 후퇴하여 시공코저하는데 다시 도시계획선이 난다는데 어떠한지?<br>2. 시민(전화)<br>주택지인데 인근 대지와의 소정거리 관계는?<br>3. 시민(전화)<br>극장을 은행과 점포로 용도변경코져 하는데 가능한지요?<br>4. 시민(전화)<br>동일 대지내에 장소를 옮기는 경우 건축허가 관계는?<br>5. 시민(전화)<br>대지가 아랫집과 차이가 2m인데 윗집의 일조권 관계는? | 답변내용 :<br>1. 대지증명을 구청에서 발급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br>2. 높이가 8미터 미만일때는 각 분소로부터 4분의 1만 후퇴 하시면 되고 8미터 이상이면 각 분소로 부터 2분의 1만 후퇴하시면 됩니다.<br>3. 용도 변경은 본인이 직접 건축사 필요없이 할수 있으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미관지구인 경우 심의를 득하여 허가를 받을수 있읍니다.<br>4. 건축법상 이전은 건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면적의 증가가 없더라도 일단 건축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셔야 함.<br>5. 2m 높이면 $\frac{2-1}{2}$의 높이를 기준하여 그곳으로부터 높이를 산정하여 일조권 높이를 따지면 됨. |

| 1978년 6월 13일 (화)요일 | |
|---|---|
| 상담자주소, 신청자명성 | 서울시 : 이 달 섭 (인)<br>건축사 : 정 성 교 (인) |
| 상담요지 :<br>1. 시민(전화)<br>주거지역이며 대지평수 약50평 막다른 도로가 35미터 이상일 경우 실대지면적이 148평방미터일 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 답변내용 :<br>1. 막다른 도로 35미터 이상일경우 도로중심선에서 3미터 건축선 지정하여야 하며(가각도 포함) 인구과밀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합니다. |

2. 연립주택 50세대 이상인 경우?
가) 사업자등록 한 경우 시공업자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나) 대지사용 승락서로 가능한지.

3. 상업지역, 방화지구 1종 미관지역인 경우
가) 대수선일 경우 현행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
나) 개축일 경우 기존법에 적용 가능여부
다) 미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4. 4미터, 3미터(관통된 도로일 경우) 가각여부

2. 가) 시공업자 선정을 하여야 하며
하며
나) 가함.

3. 가) 대수선일 경우 기존법에 의거 처리 가하며
나) 개축일 경우 현행법에 적용처리(공지비 50% 미만)
다) 외관이 변경될 경우 미관 심의를 득하셔야 함.

4. 건축선을 지정하여야 하며 3미터 가각을 주어야 함.

| 1978년 6월 14일 (수)요일 |
|---|
|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

**상담요지 :**

1. 회원(전화)
아파트 인동간의 거리, 건폐율, 용적율은?

2. 시민(전화)
대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의 시공이 가능한지요.

3. 회원(전화)
70평이상 억제한다고 했는데 지하층도 포함하여 70평인지?

4. 시민(전화)
건축사 시험은 언제 있지요?

5. 시민(전화)
점포를 300평방미터 신축하려고 하는데 허가 가능한지요?

| | 서울시 : (인) |
|---|---|
| | 건축사 : 정 성 교 (인) |

**답변내용**

1. 인동간의 거리 1.2 높이 용적율 200%, 건폐율 18-20% 건축 심의는 본청 건축 지도과에서 합니다.

2.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허가 신청하십시요.

3. 지상면적 70평이상입니다.

4. 건설부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았읍니다.

5. 건축억제대상물이므로 건축허가 불가합니다.

| 1978년 6월 15일 (목요일) |
|---|
|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

**상담요지 :**

1. 시민(전화)
연립주택허가를 득하였는데 시공업자 선정은?

2. 회원(전화)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의 관계는?

3. 시민(전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것인데 옆에 4평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준공해 주지 않는데 어쩌면 좋은지요?

4. 주택채권을 36평은 얼마를 매입해야 하는지요?
시민(전화)

| | 서울시 : ( (인) |
|---|---|
| | 건축사 : 정 성 교 (인) |

**답변내용 :**

1. 연립주택은 특수 건물이므로 시공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2. 서울의 경우 건폐율은 50%이고 용적율은 강북 900% 강남은 1000% 입니다.

3. 일단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시던지 면적이 많으면 설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3인 연서를 하기 때문에 타 건건축사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는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평당 4,000원씩임.

| 1978년 6월 16일 (금)요일 |
|---|
|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

**상담요지 :**

1. 시민(전화)
미관지구내 기존 건물인데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심의여부는?

2. 회원(전화)
아파트의 건폐율은?

3. 회원(전화)
아파트 단지내의 상점도 억제대상이 되는지요?

4. 회원(전화)
아파트 단지에서 측면건물 후퇴는?

5. 회원(전화)
연립주택 시공시 시공업자 선정은?

6. 시민(전화)
주택인데 소정거리 관계는?

7. 회원(전화)
상업지구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 1978년 6월 19일 ( )요일 |
|---|
|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

**상담요지 :**

1. 회원(전화)
풍치지구 230평인데 건폐율은?

2. 시민(내방)
대지가 113평인데 건평이 40평인 경우 분할이 가능한지요?

3. 회원(전화)
연립주택의 경우 건폐율관계는?

4. 풍치지구의 대지가 600평방미터인 경우 건폐율은?

**상담요지 :**

1. 건축사법시행령이 공포가 되었는지?

| | |
|---|---|
| | 서울시 : 최 종 성 (인) |
| | 건축사 : 정 성 교 (인) |

**답변내용 :**

1. 심의를 받으신 후 허가 신청하십시요.

2. 18-20%임.

3. 아파트에 부속되는 상점을 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높이의 2분의 1을 후퇴하여야 하고 인동간의 거리는 1.2배 이상 확보하셔야 합니다.

5. 특수 건물인 경우 825평방미터 이상이면 시공업자 선정해야 합니다.

6. 높이가 8미터 미만일때는 4분의 1만 후퇴하면 되고 8미터이상이 되면 2분의 1을 후퇴하면 됨.

7. 건폐율은 50%이고 용적율은 강남은 1000% 강북은 900%입니다.

| | |
|---|---|
| | 서울시 : 최 종 성 (인) |
| | 건축사 : 정 성 교 (인) |

**답변내용 :**

1. 서울시에는 20%입니다.

2. 분할은 기존 건물의 건폐율과 대지최소 면적에 적합하여야 가능합니다. 건물이 40평인 경우 대지는 80평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33평은 대지면적 50평 이상지역에 지촉되면 불가합니다.

3. 서울의 경우 40%이고 타지방은 60%범위내에서가능합니다.

4. 300평방미터까지는 10분의 4 (120m²)
300~500 〃 10분의 2 (40m²)
500~600 〃 10분의 1 (10m²)
계) 170m²
를 사용할 수 있읍니다.

| | |
|---|---|
| | 서울시 : 최 광 수 (인) |
| | 건축사 : 정 성 교 (인) |

**답변내용 :**

1. 현재 시행령 작업중에 있으므로 6월말이나 7월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서울시의 풍치지구 건폐율관계는?

3. 연립주택 연립 최소면적과 건폐율과 용적율관계는?
4. 주택의 건축허가(연면적)
5. 주택채권은 사는지요?
6. 수도 공채는?

상담요지:
1. 지방인데 아파트를 시공코저 하는데 인동간의 거리는?

2. 노선 상업지역의 용도 변경코저 하는데 대지가 33평허가 가능 여부
3. 도시계획에 의거 대지가 짤렸을 경우 나머지 대지 가작다고 시에서 임의로 될수 있는지?
상담요지:
1. 연립주택의 대지 최소한도 변경유무는?
2. 그것이 변경되지 않았나요, 1,000평방미터 미만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상담요지:
1. 지하실 높이 산정에 대하여(공간건축 직접 상담)

2. 45평이상은 허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여부?
3. 미관지공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었는데 측량필증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상담요지:
1. 회원(전화)

17평인데 허가 가능한지요?
2 도로 확장 공사로 앞집이 철거되었는데 나머지 10평인데 허가 가능한지요.
시민(전화)
3. 회원(전화)
바닥면적 산정 규정 관계에 대해서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한계는?
4. 회원(전화)
승강기설치에 대해서
백화점인데 대수와 설치규정은?

2. 300m²까지는 $\frac{4}{10}$이며 300m²초과
500mm²까지는 $\frac{5}{10}$이며 500m²초과
699m²까지는 $\frac{6}{10}$까지입니다.
700m²부터는 $\frac{7}{10}$임.
3. 대지는 1,000평방미터 건폐율 40% 용적율 100% 입니다.
4. 지하실 제외하고 70평까지 가능합니다.
5. 지하실은 아니사도 됩니다.
6. 수도공채 아니산다는 것이 없음으로 사야하겠읍니다.

답변내용:
1.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가까운 건물간의 인동거리는 건물같이 4분의1이상 거리를 확보하겠끔 되어 있읍니다.
2. 그 이종 미관지구는 대지가 100평 이상 있어야 하므로 용도변경도 허가사항이므로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3. 사유재산을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없읍니다.

답변내용:
1. 현재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2. 변경된것이 없읍니다. 현재 1,000평방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 다만 단서 규정은 있읍니다. 면적이하일경우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받은후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1. 지하실높이의 3분의2가 흙에 묻힌 표면적에 주변 전체길이를 나누어 그 길이가 높이의 3분의 2가 되면 지층으로 계산이 됩니다.
2. 협회에 정식 공문은 없고 더 통제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읍니다.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읍니다.
3. 측량필증 첨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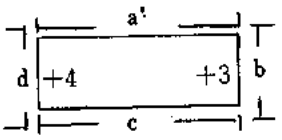
답변내용: 답변
1. 법상 27평 이하는 불가합니다.

2. 도로 확장된 경우라도 10평인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3. 건축 면적은 건폐율의 저촉을 받을 수 있고 바닥 면적은 각층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의미함.

4. 3,300평방미터일때는 1대를 두고 3,300 평방미터 6,600평방미터까지는 3대를 두면 되고 5층이하의 층에 있어서 거실로써 그 직상층에 6층의 층이 없는 부분은 거실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조흥은행 본점의 경우

5. 시민(냉방)




위와 같이 양측면의 지표면이 차이가 있을 경우 높이 산정은

5. 계산방법은?

높이 $H = \frac{a \times 2 + b \times 3 + c \times 1 + 4 \times d}{a + b + c + d}$

로 표시하면 됨.

6. 시민(전화)
신문에 의하면 40평 이상건물은 규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6. 현재 정식으로 공문을 하달받은바 없으나 지상건물 주택은 40평 이상 APT는 45평 이상 규제한다고 함

7. 회원(전화)
지상건물에 헬리콥터장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그 규정은? 타타

7. 지상건물 12층 이상의 층의 직접합계가 5,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은 옥상에 헬리콥타장을 설치하여야 함.

8. 시민(전 ) 화
300평인데 연립주택허가 가능 여부?

8. 서울시에서는 대지의 최소한도를 1,000평방미터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9. 시민(전화)
전북방향관계에 대하여 8미터미만의 거리는?

9. 전북방향은 그 각부분높이의 4분의 1로 봐서 소정거리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10. 회원(전화)
공장내의 식수한계는?

8. 대지면적의 15%에 상당하는 식수를 하셔야 합니다

11. 회원(전화)
지하실의 비상계단 관계는?

11. 50평방미터 이상이면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하고(계단외)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지상과 같이 특별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함.

1978년 6월 27일 (화)요일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상담요지:**

1. 시민(전화)
주택규제 면적이 40평인지 45평인지요?

2. 회원(전화)
호텔건축에서 도로면에서 띠는 거리는?

3. 회원(전화)
6월26일에 주택 55평을 허가받았는데 착공이 가능합니까?

4. 시민(전화)
서울시의 연립주택 심의기준은?

5. 시민(전화)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고 준공검사증은 갖고 있는데 등재할수 있는지요?

6. 시민(전화)
시공중 지반이 약하여 슬라브로 시공하여 그 밑이 공간으로 되어있는바 지하실로 하고져하는데 허가가 가능한지요?

7. 회원(전화)
풍치지구조례가 개정되었다는데 주변경사유는?

서울시: (인)
건축사: 정 성 고 (인)

**답변내용**

1. 신문지상에는 40평(지상)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공문이 하달되지는 않았읍니다.
아파트가 45평으로 보도되어있읍니다.

2. 호텔은 건축선에서 3미터와 연면적 1,000 평방미터씩 후퇴하여야 하며 기타 일조권에도 저촉을 받읍니다.

3. 허가가 되었으면 착공계를 제출하고 건축하면 됩니다. 신문지상에는 규제한다고 되여있으나 지시 공문은 없읍니다.

4. 아파트 심의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읍니다.

5. 미등재상태에 있으면 신청하면 등재할수 있읍니다.

6. 이미 허가를 득하여 시공중에 있으니 설계변경하여 지하실의 허가를 득하면 됨.

7. 지정 공정 이전에 분할된 토지는 대지 300 평방미터까지는 10분의 4, 200평방미터까지 매마다 10분의 2, 500평방미터초과 매마다 10분의 1씩 가산합니다.

8. 시민(전화)
연립주택의 건폐율, 적율의 한계는?
9. 주거지역과 풍치지구의 경우 300평 연립주택 가능 여부는?

8. 건폐율 40%, 용적율 100%이고 지하실의 기계실 부분은 용적율에 포함됩니다.
9. 건폐율 20%, 용적율 80%의 저촉을 받아야 함.

| 1978년 6월 28일 (수요일) | 서울시 : 박 종 릭 (인) |
|---|---|
|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 건축사 : 정 성 교 (인) |
| 상담요지 : | 답변내용 : |
| 1. 방배동에 78. 6. 14자 연건평 147평 주택허가를 득하였는데 현재 착공하여도 지장없는지요? | 1. 착공하여 지장없음. |
| 2. 시민(전화)<br>대지가 350평인데 풍치지구로서 분할하여 허가를 득할수 있는지요? | 2. 풍치지구는 700평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분할할 수 없읍니다. |
| 3. 내방(전화)<br>연립주택인데 증축할 수 있는지요? | 3. 연립주택은 증축할 수 없읍니다. |
| 4. 시민(전화)<br>주택 평당 철근 소요량<br>사무소 점포의 철근 소요량 | 4. 주택은 100킬로-평점도<br>점포, 사무실, 150-170킬로-평입니다. |
| 6. 시민(전화)<br>경기도 부천지구에도 3인조로 연서합니까? | 5. 4인조로 연서해야 함. 6 6 3 3 |
| 6. 시민(전화)<br>건축공사 연기원도 감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까? | 6. 감리자가 서명날인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읍니다. |
| 7. 회원(전화)<br>지표면이 차이가 있을때의 지표면 계산방법은? | 7. 지표 차이의 2분의 1을 가산하면 되고 3미터이상이면 1미터 감한 2분의 1로 하면 됩니다. |
| 8. 시민(전화)<br>건축법해설 30페이지의 가상 지표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지하실 벽면이 흙이 있는 부분의 전체 표면적에다 건물전체 외곽길이로 나누면 평균흙이 쌓인 높이가 나옵니다. 이 높이가 지하실고층고의 2분의 1이상이면 지하실로 계산됩니다. |
| 9. 시민(전화)<br>바닥차가 있는 대지인 경우 지표면은 어느것으로 봅니까? | 9.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적대지의 지표면관에 고저차가 있을때에는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봅니다. |
| 10. 시민(전화)<br>400평방미터의 공장의 지으려고 하는데, 주거지역일 경우 허가 가능한지요? | 10. 주거지역인 경우 원동리글 사용하지 않으면 300평방미터 미만의 것은 허가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불가합니다. 다 |

| 1978년 6월 29일 (목)요일 | 서울시 : (인) |
|---|---|
|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 건축사 : 정 성 교 . (인) |
| 상담요지 : | 답변내용 : |
| 1. 시민(전화)<br>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치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얼마입니까? | 1. 허가를 득한 후 1년입니다. |
| 2. 시민(전화)<br>도봉구 수유동 대지 36평인데 기존건물 15평인 경우 증축 가능 여부 | 2. 도봉구청에서 반경 500미터 범위내는 50평 미만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
| 3. 시민(전화)<br>주거지역인데 소정거리관계는? | 3. 진북 방향 높이 8미터 미만이면 4분의 1을 후퇴하면 됨 단, 동서쪽은 처마까지 0.3미터 외벽까지는 0.5미터까지 후퇴하면 됨. |

4. 시민(전화)
근간 40평이상 주택건축허가여부는?

5. 시민(전화)
골목길안에 10전에 집을 지었는데 그 골목길(폭1.5미터)의 대지는 옆집의 것이라고 하여 골목길을 막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는

6. 시민(전화)
지하층 설치 면적의 상정방법은?

7. 시민(전화)
집회장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반자 높이는?

8. 시민(전화)
목조로 집을 짓는 경우 최하층의 바닥 높이는?

9. 시민(전화)
공장을 지을 경우 식수 관계는?

3. 건설부에서 명시도에 시달된 사항이나 서울시에서는 아직 계속 처리하고 있읍니다.

5. 골목길 자체가 대지로 되어 있고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귀하의 건축허가시 대지의 사용 또는 승락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가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골목길자체가 타인의 소유하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소유자 변경때마다) 그러므로 대지의 소유자와 타협하여 가급적 매입하여 귀하의 소유로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과거도로로 분할되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습도로라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6. 1층에 있어서 기둥으로 둘러쌓인 면적을 말한다. 1층바닥에 발코니 등이 있을 때에는 이들 면적을 제외 한다. 또, 층에 따라 바닥면적이 틀릴 때에는 1층 바닥 면적의 3분의 2이상인 지층이 있을 때에는 지상층 각층의 평균면적.

7. 4미터 이상 입니다.

8. 45센티 이상 높여야 하나 방습상 유효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무관합니다.

9. 대지면적의 15% 이상입니다.

| 1978년 6월 30일 (금)요일 | 서울시 : (인) |
|---|---|
|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 건축사 : 정 성 교 (인) |

**상담요지 :**

1. 시민(전화)
6월 29일에 주택 70평의 것을 건축심의 통과되었는데 허가 가능 여부?

2. 시민(전화)
풍치지구내 대지 2,700평인데 정확한 건폐율을 알려주십시요.

3. 회원(전화)
40평 이상의 주택허가 가능한지요?

4. 시민(전화)
남가좌동인데 지난 6월 15일 주택 2층짜리 구입하였는데 일이층 화장실 모두 물이 새서 형편이 없는데 일년전에 시공한 건축주를 처벌하는 길은 없는지요?

5. 시민(전화)
40평 이상의 주택은 허가도 아니하고 착공하지 않는 것은 착공을 보류한다는데 지금 ㅓ 가는 되어 있으나 허가장을 찾지 않을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내용 :**

1. 전번 70평 제한할 때 심의된 것을 허가 처리해 주었는데 이번 조치도 동일한지 아직 알수 없읍니다. 심의된 것이면 일단 서류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700평방미터 이상은 $\frac{1}{10}$에 해당합니다.

3. 현재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없으므로 접수되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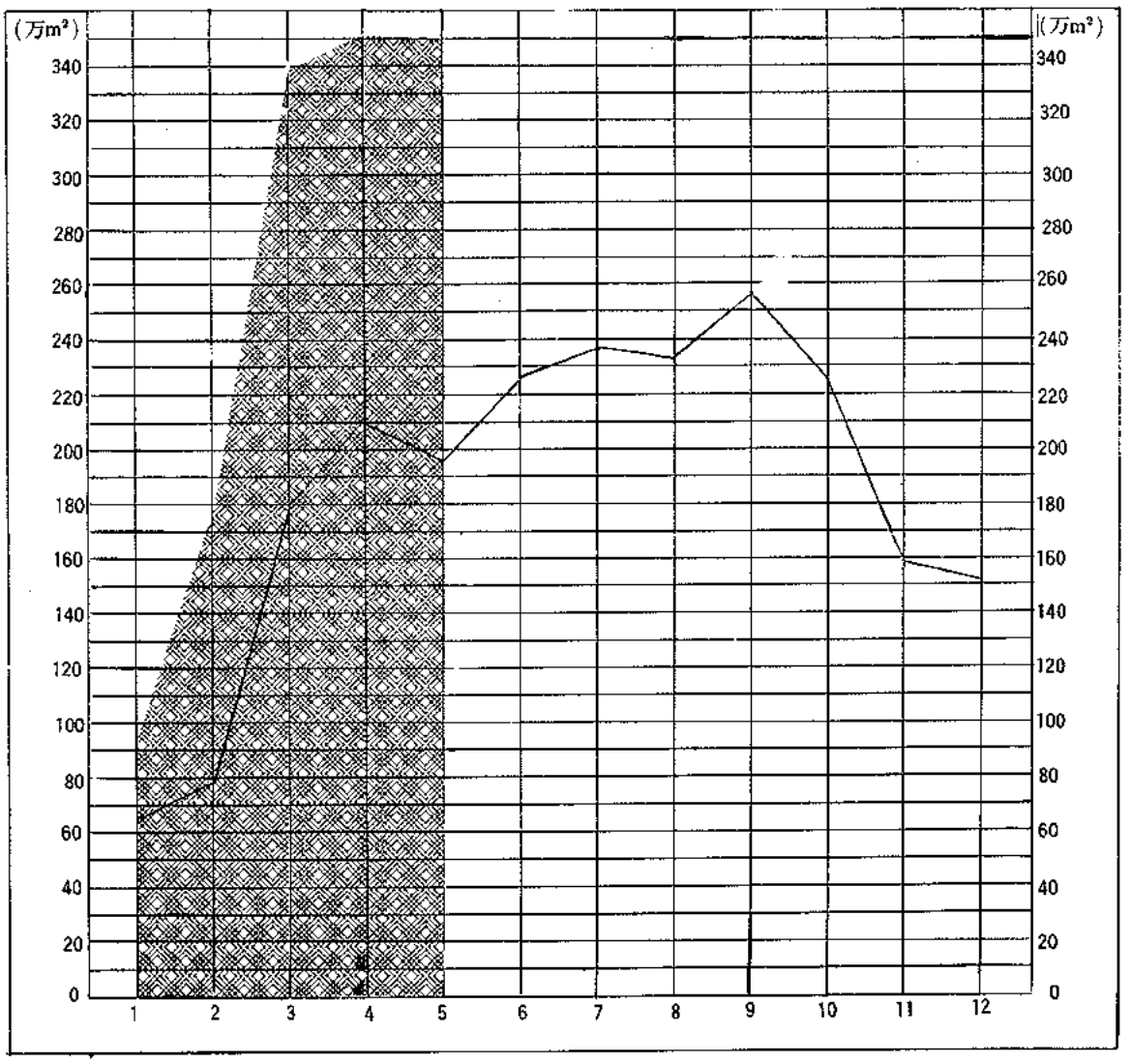
4. 관청 건물은 1년까지 하자보증금으로 보수하게 되어 있읍니다. 개인인 경우 그렇치 않기 때문에 처벌 및 보수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는것 같읍니다. 그리고 구조상의 위험도 등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이 있는 것 같읍니다.

5. 신문 지상에는 보류 등의 이야기가 있으나 협회에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없읍니다.
허가가 되었으면 허가증을 받고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하면 위법될 것은 없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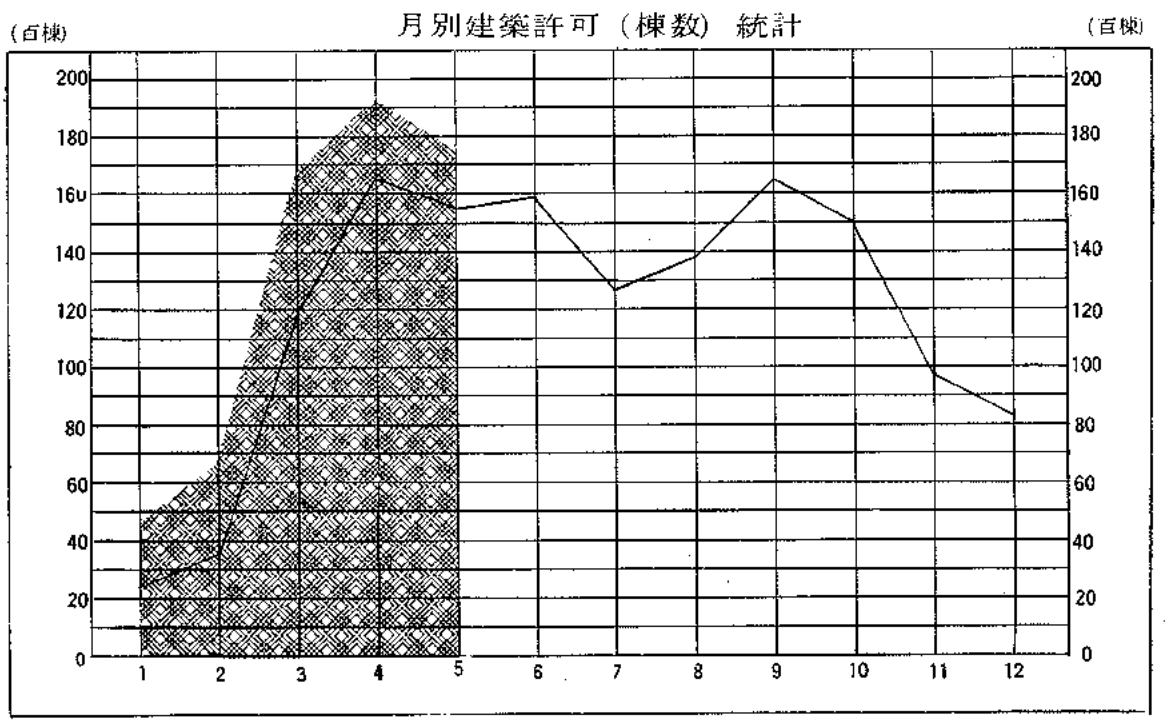
# 全国建築許可統計

(1978年4月分)

月別建築許可（延面積）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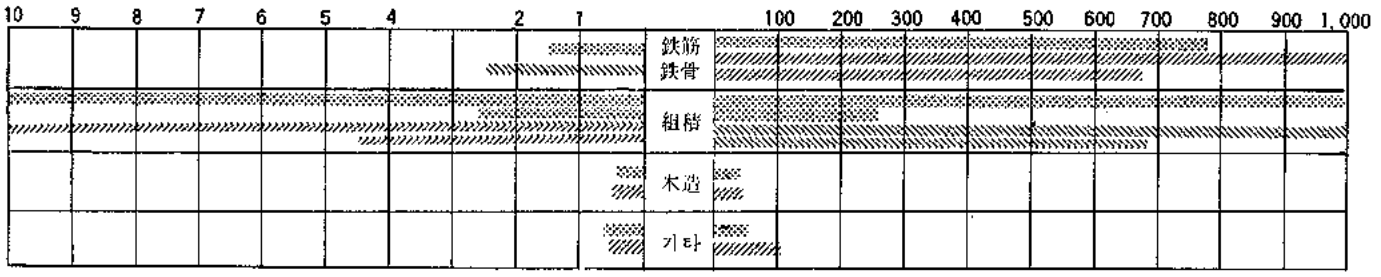

月別建築許可（棟数）統計



1977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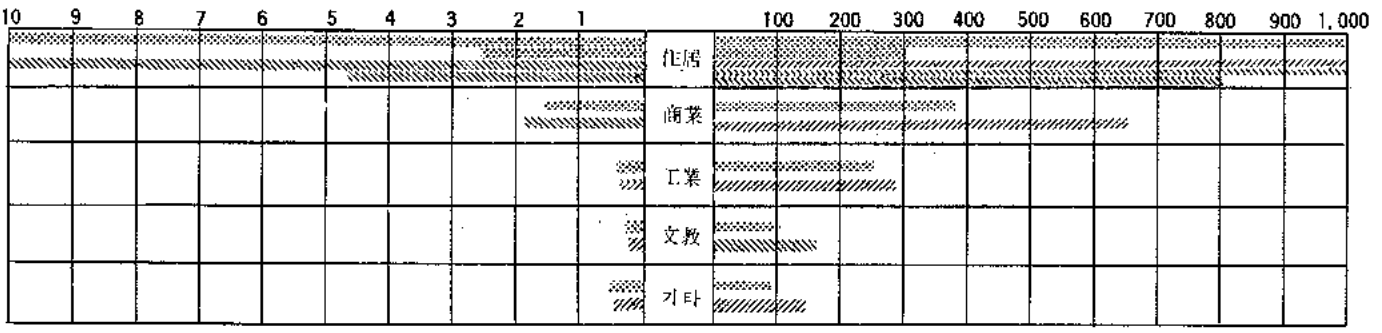
## 構造別許可統計

棟数(千棟) (延面積：千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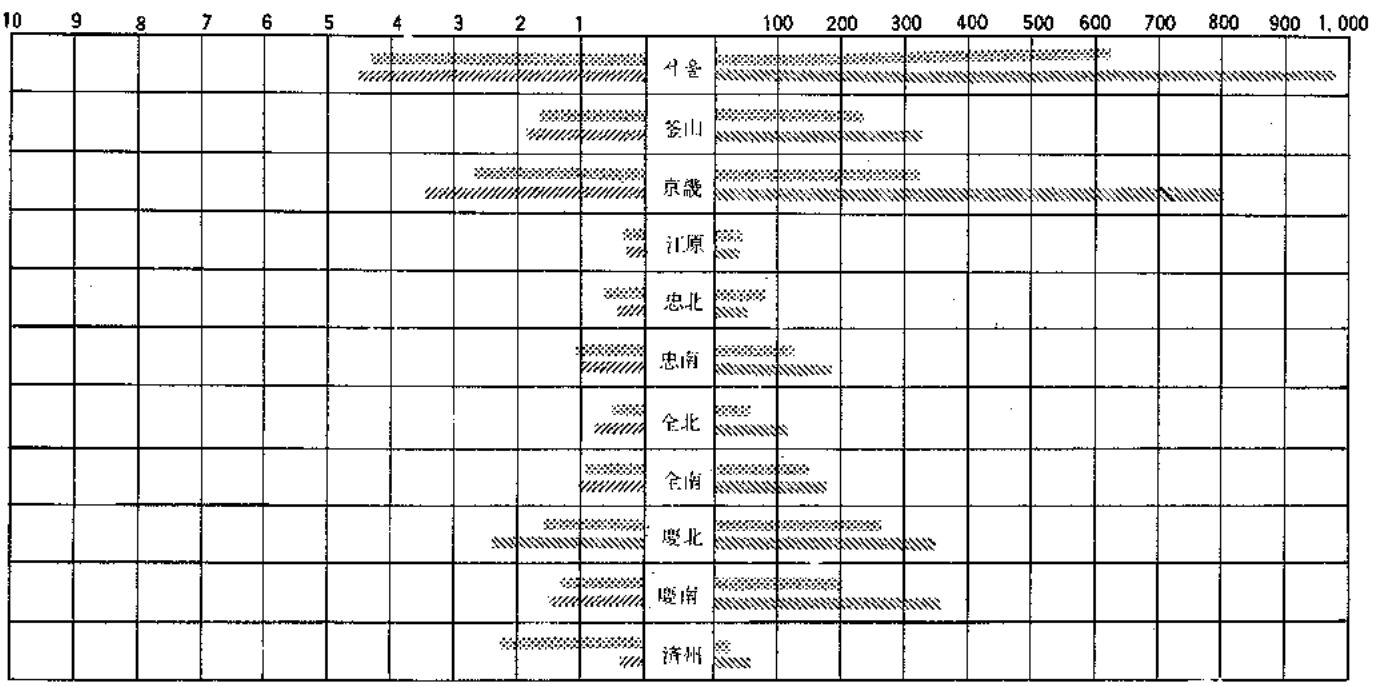

## 用途別許可統計

棟数(千棟) (延面積：千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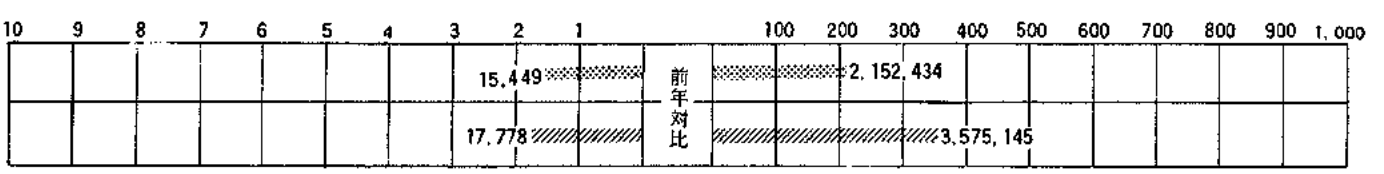

## 市道別許可統計

棟数(千棟) 延面積：千m²




## 全国許可統計総括

棟数(萬棟) (延面積：萬m²)




163.8

〈일본 기술을 도입〉

콘크리트, 몰탈, 푸라스타(石灰) 防水·防濕用

# 하이너루 防水劑 수성페인트混和劑

사용후 다시찾는 防水工의 마약

◈ 特徵 · 利點 ◈

* 防水콘크리트로 母体防水가 可能함.
* 塩類, 酸類에 強하며 金屬性부식이 全無.
* 用途가 다양하고 사용이 간편하다.
* 防水, 防濕, 防腐效果는 100%이다.
* K. S 規格에 맞은 優秀品質.
* 수성페인트 混和劑는 100% 방수효과를 낸다.
* 価格低廉, 経済性이 倍加.

◈ 用 途 ◈

* 터-널 地下室 屋上 벽체 욕실防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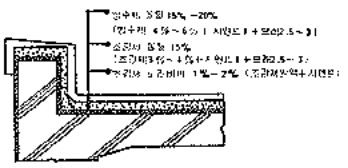
◈ 사 용 법 ◈

* 콘크리트용은 : 시멘트중량비 2%이상.
* 몰탈용은 : 시멘트중량비 4%이상
* 석회용은 : 석회중량비 4%이상.
* 使用水量에 混和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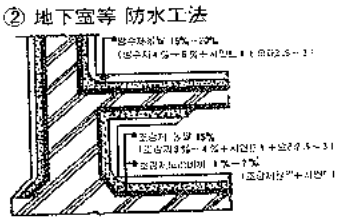
◈ 제품성능 ◈

* 국립건설연구소(KS규격에 합격), 대한주택공사(KS규격에 합격), 국립공업시험원(KS 규격에 합격), 쌍용레미콘시험실(強度시험), 日本工業規格(JIS)에 의한 시험성적이 品質을 보증함.

① 屋上, 베란다等 防水工法



② 地下室等 防水工法



하이너-루工法에 의한 소요재료

| 재료 / 면적 | 시 멘 트 | 모 래 | 하이너-루원액소요량 | | | 비 고 |
|---|---|---|---|---|---|---|
| | | | 조강페스트 70% | 조강물탈 3% | 방수물탈 4% | 기준량 이 상 첨가요 |
| 100M² | (42.75포) 1,710kg | 3.0M³ | 42kg | 27kg | 30kg | |

※ 방수콘크리트는 시멘트 중량비 2%이상 첨가.
예 : 320kg (1 M³) × 2% = 6.4kg (하이너-루방수제)

四季節 土木建築工事를 용이하게하는

# 하이너루 防凍劑 早強劑

## 시멘트混和劑의 最新 · 最優秀製品

◈ 特徵 · 利點 ◈

* 1日, 3日, 7日 強度가 보통 콘크리트 3日, 7日, 28日 強度와 同一.
* A, E劑, 減水劑, 分散劑役割
* 工事費의 減少, 工期短縮, 凍害防止.
* 強度增大로 Cement절감.

◈ 品 質 ◈

* 性能은 국립건설연구소, 국립공업시험원, 日本工業規格(JIS A-6101에 의한 시험성적), 大韓住宅公社 시험성적이 外國産을 능가 함을 증명한다.

◈ 用 途 ◈

* 初期強度를 要하는 工事 * 突貫工事, 水中工事
* 凍期工事(−15 ℃), 緊急을 要하는 工事
* 시멘트 2次製品
* 早強 Cement를 要하는 工事
* 防水工事에 止水劑로 사용.

◈ 使 用 法 ◈

* 早強효과 : 시멘트중량비 1 ~ 5%첨가
* 防凍효과 : 시멘트중량비 6 ~ 12%첨가
* 止水효과 : 100%원액을 사용
* 사용水量에 稀釋사용

◈ 納品実績 ◈

*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 대한주택공사(경남기업, 미성건설, 정우개발) * 부산시청 * 부산세관 * 수협중앙회 * 자명건설Co. * 총성건설Co. * 태평양건설Co. * 삼익주택(여의도Apt) * 삼부토건(여의도 타워형Apt) * 부산시청 영도제 2 대교가설공사(홍화공업) * 대한주택공사 사직동아파트(경남기업) * 부산제 7 부두축조공사(동아건설)외 200여처

# 三龍化學工業株式會社

서울 ㊙ 5377 · 7892 부산 ㉑ 0777 ㉒ 0113 · ㉖ 0253 대구 ㊲ 1797 이리 2945 인천 ⑤ 5125 성남 ② 1807 청주 ② 1020

실용신안특허 13255호 ◎ 기름보일러의 겸용설치최우수품
실용신안특허 13752호 ◎ 집을 새로 지으실분
의장등록번호 19229호 ◎ 재래식 보일러로 사용하고 계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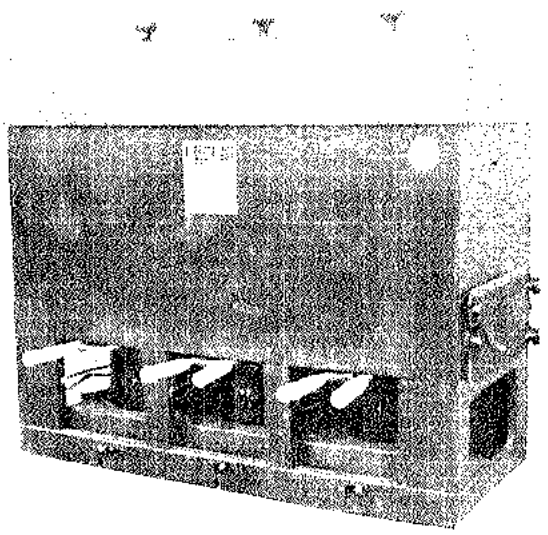
제4회 전국우수 발명 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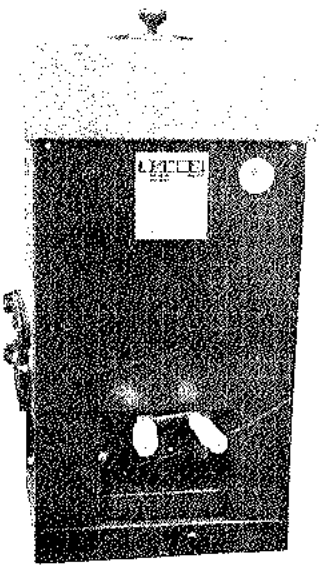
## 과학기술처장관 최우수금상수상

# 제3보일러

K. S. 자재로 3가지가 새롭게 설계 제작되였읍니다.

※국내 최우수품생산





※ 전국대리점모집중
※ 시공업자문의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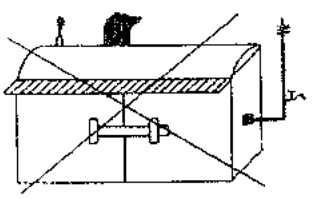
**JS-303**

3탄 3구 ……26평 가로 × 세로 × 높이
3탄 3구 온수겸용…22평 98.5cm×41.5cm×80cm

**JS-301**

3탄 1구 ……8평 — 44.5cm× 41.5cm×80cm

1. 탄 교체 방법이 간단하여 고장이 없고 사용하기 편리함. (누구나 할 수 있음)
2. 국내 최초로 간단한 청소구가 설계제작되여 가정에서 누구나 청소할 수 있음.
3. 보일러 내통에 불연, 방청, 도료(F.P.C)의 피막으로 부식을 방지해 주므로 수명장수함.
4. 열효율을 최대로 높여 설계제작 되었으므로 P.V.C 연통으로 사용 가능함.
5. 미연소 개스를 완전연소(2차연소장치) 시킴으로 열량이 월등이 강함.
6. 설치장소를 마음대로 선정 취사를 겸할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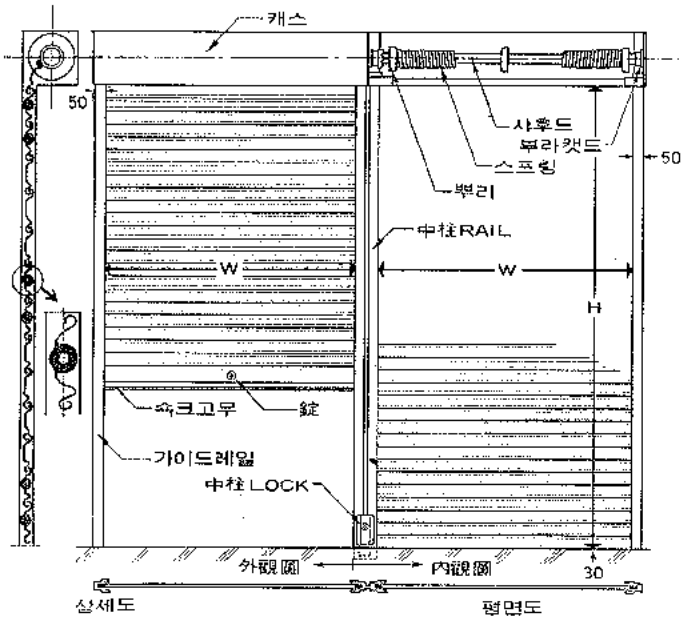


(재래식 연탄보일러)

## 第三機械CO.제3보일러제조원

☎ 37 6011 39 245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동 9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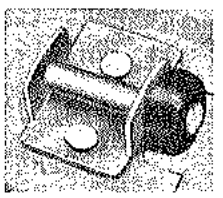
# 동아샷다 새時代 새設計는 新開發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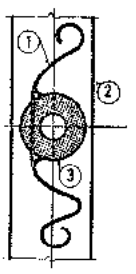



## 回轉子가 附着된 샷다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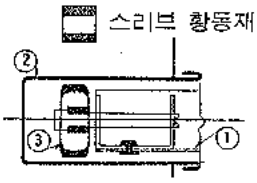
① 샷다의 승강시 상하 작동을 원활히 해준다.
② 샷다의 작동시 레일(RAIL)과 스랏드(SLAT)의 접촉할 때 생기는 불쾌한 마찰음을 제거한다.
③ 샷다의 작동시 레일과 스랏드의 접촉시 마찰을 피하고 동시에 스랏드의 피복을 보호한다.
④ 샷다의 승강시 작동을 하는데 힘드리지 않고 간편하게 승강작용을 한다.
⑤ 샷다 시공시 마찰이 가장 심한 곳에만 상·중·하로 구분 부착한다.
⑥ 샷다의 가격은 시중 현 단가와 동일함.
⑦ 본 샷다는 실용신안 특허 등록제14009호 제품입니다.
⑧ 샷다의 수평 이동을 방지한다.

① 스랏드(SLAT) ② 레 일(RAIL) ③ 회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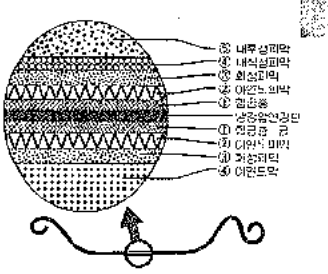
스리브 황동재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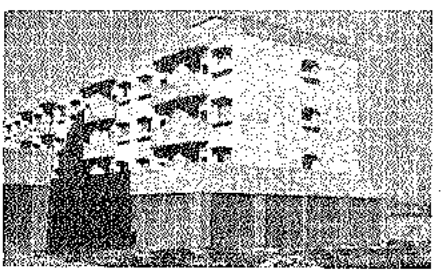



## 샷다의 새로운 資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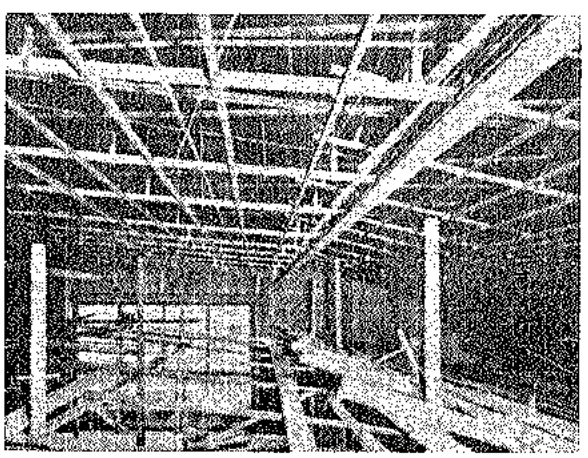
着色亜鉛鍍鋼板(C.C.G.I)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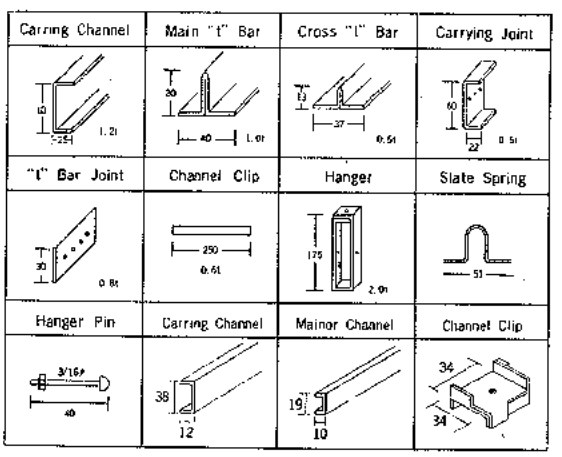
特性
◎ 色相이 아름답다.
◎ 気候変化에도 変質되지 않는다.
◎ 完全한 不燃製品이다.
◎ 経済的인 새로운 製品이다.
◎ 무게가 가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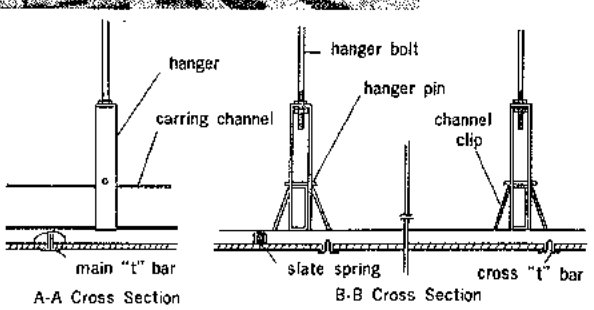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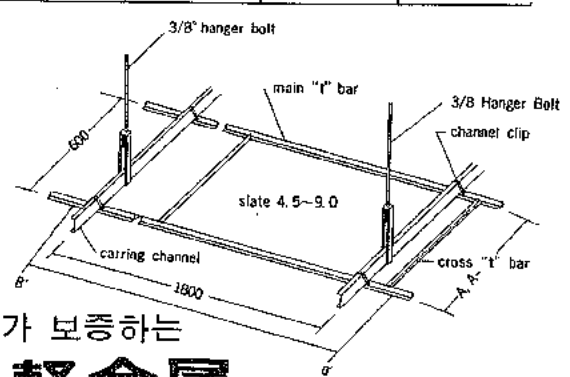


# 不燃天井 軽量鐵骨天井






로-루 호-밍구의 파이오니어가 보증하는

軽量形鋼製造元 **東亜軽金属**

大邱市東区新川洞740－4 TEL 44－0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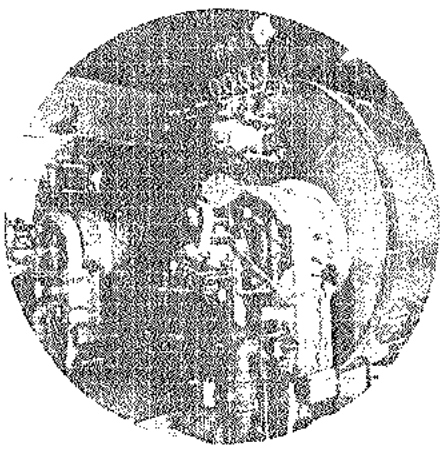
# Rocket Boiler
## 연료비40% 절약!

로켓트 보일러

工産品 品質管理法에 依한 優秀商品 指定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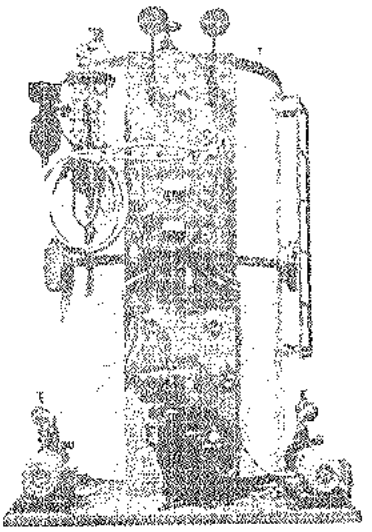
### 고압연관식보일러 (KR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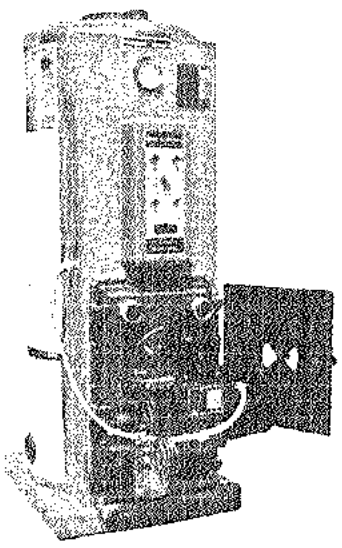
□ 1ton에서 10ton까지 용량이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벨기에의 최신과 기술 집적한 새로운 모델로 긴 수명과 높아진 성능의 보일러입니다.
□ 연관식 보일러의 신기원을 이룩한 제품입니다.

### 전자동 증기보일러 (KRS)

□ 1000명 미만 기숙사 취사는 20분내에 해결합니다.
□ 식품공장 건조 세팅 증기 다리미용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 화학반응기 살균 난방및 급탕용 식품가공 공정에 적합합니다.
□ 비역해조등 수산물가공에 적합합니다.
□ 규격 0.2에서 0.5ton 의 전자동 소형 소량 보일러로 관리에 편리하고 연료비 40%가 절약됩니다.
□ 전자동이므로 관리원 이 필요없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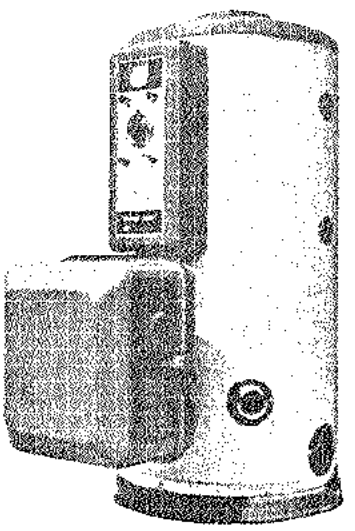
### 다목적온수보일러 (KRZ)



□ 난방용 급탕용 목욕탕 전용.
□ 정전시 또는 오일버어너 고장시 연단화목및 폐품을 사용할 수 있읍니다.
□ 본제품은 5만에서 40만 Kcal까지 용량이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취급이 간단한 one-touch 식입니다.
□ 내부가 완전 도금처리된 급탕용과 동코일이 삽입된 급탕 난방겸용이 있읍니다.

### 전자동 소형온수보일러 (KRQ)

□ 경이적인 보일러 기술의 혁신.
□ 신제품 KRQ는 벨기에의 최신 기술집적 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 본제품의 개발목적은 15평이상 30평미만 40평이상 60평미만 주택의 난방과 목욕을 해결 하는데 있읍니다.
□ 본제품은 저렴한 시설비와 맞먹는 기름연료비 ½ HP소형 오일버어너로 전기소비가 적고 설치면적이 작은 지하실 무영 창고등에 간단히 설치할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량생산 기계화로 동종 타 보일러에 비해 보일러 구입비가 30% 이상 저렴합니다.



□ 관리유지비가 없고 최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 40 %를 절약하시려면 Rocket Boiler에 문의하십시오.
□ Rocket Boiler 의 모조품에 유의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오.

국내 유일의 보일러 수출업체

# 고려강철주식회사

본사 :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185 - 13
전화 : (6) 5131 - 4
여의도 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 697 (우정빌딩308 호)
전화 : (782) 7373, 7387, 8757

# 韓国유리는 使命感을 갖고 精進하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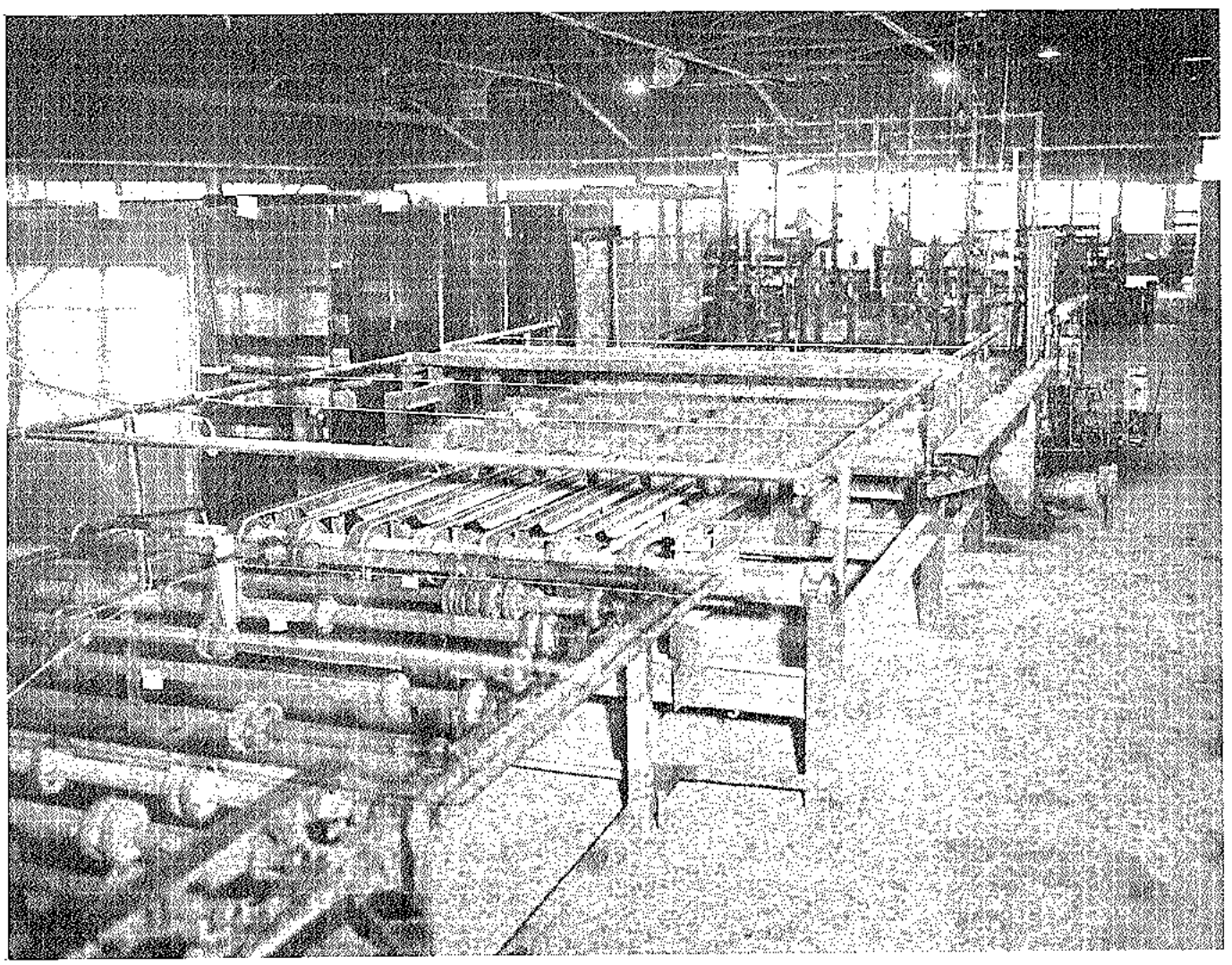
■ 여러분의 指導와 鞭撻 속에서 成長하는 韓国유리는 優秀한 製品을 生産 供給하기 為해 끊임없이 研究努力하고 있읍니다.

◎生産製品

- 맑은유리
- 무늬유리
- 安全強化유리

◎맑은유리最大規格

| 두께 (m/m) | inch | mm |
|---|---|---|
| 5 | 84×120 | 2134×3048 |
| 6 | 84×120 | 2134×3048 |
| 8 | 84×108 | 2134×2743 |
| 10 | 84×96 | 2134×2438 |
| 12 | 84×96 | 2134×2438 |



##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本　　社：서울特別市 中区 西小門洞75　㉓ 7141～5　㉗ 8022～6
仁川工場：京畿道 仁川市 東区 万石洞2 仁川 ⑦ 0111～0119
釜山工場：慶南 梁山郡 日光面 伊川里345　釜山 ㊷ 4066～4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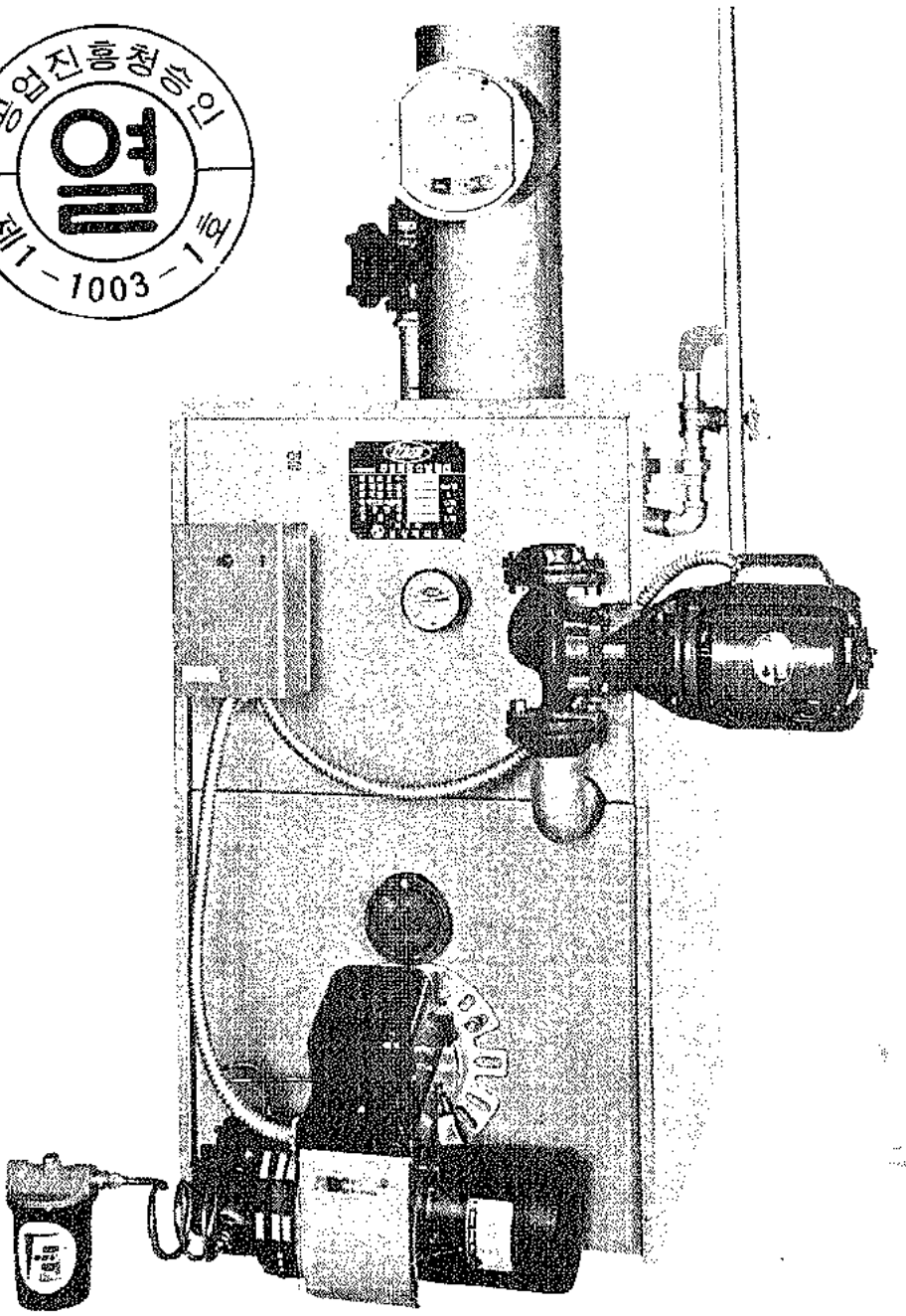
# Cast Iron Boilers

놀라운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수명

난방 / 급탕겸용

Utica 유티카 자동 보일러 신제품

공업진흥청승인 열 제1-1003-1호



製造元：三成製作所

## 유 보 商 事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4街 126－1호
進洋商街 1층 2동 나열 109호

TEL: 266－2807, 266－8015